

논술 II

주제별 논술 특강 및 대학별 실전 논술

장학자료 2005-611호

문제 파악 능력

깊이 있는 사고 능력

비판적 · 주체적 사고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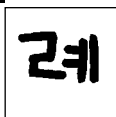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www.gen.go.kr>

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문제 파악 능력, 깊이 있는 사고 능력, 비판적·주체적 사고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2. 본 자료는 대학별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별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3. 본 자료는 <논술I>을 통해 익힌 <논술의 이해>와 <주제별 논술 특강>의 내용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주제별 실전 논술>과 주요대학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제작한 실전 유사 문제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별 실전 논술>로 구성하였다.
4. 본 자료는 각 대학의 정시 논술 고사 문제를 분석하고 200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의 경향을 정리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논술 고사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5. 본 자료는 광주교육방송(<http://www.gedu.net>)에서 제작하는 ‘논술영상강의’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첨삭지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 O N T E N T S

일러두기

1. 주제별 실전 논술

- 1강 올바른 삶의 자세 / 9
- 2강 현대 사회의 문제(소비 문화) / 26
- 3강 정보화 사회 / 43
- 4강 법과 정의 / 62
- 5강 교육과 청소년 / 76
- 6강 문화와 예술 / 94

2. 대학별 실전 논술

- 1) 서울대 편 / 117
 - 1. 논술 문제의 경향 분석 / 117
 - 2. 실전논술문제 / 120
- 2) 연세대 편 / 170
 - 1. 논술 문제의 경향 분석 / 170
 - 2. 실전논술문제 / 172
- 3) 고려대 편 / 215
 - 1. 논술 문제의 경향 분석 / 215
 - 2. 실전논술문제 / 222

1. 주제별 실천 논술

1강 올바른 삶의 자세

2강 현대 사회의 문제
(소비문화)

3강 정보화 사회

4강 법과 정의

5강 교육과 청소년

6강 문화와 예술



1 강 올바른 삶의 자세

I

주제 특강

■ 인간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

(1) 인간에 대한 긍정적 이해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 입장은 광범위하게 말해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적극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요소들의 계발과 양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다양한 욕구들의 상호 관계에 있어 이성적 욕구가 지배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하고 선한 삶이며, 또 그러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존재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적인 고대 사상가들의 대부분과 유기체 안에 적극적인 자기 성장 내지 실현을 향한 의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로저스, 매슬로우 등 일부의 현대 개별 과학적 입장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이 입장에 속한다. 동양에 있어 대승 불교는 모든 인간이 원대하고도 지고한 자연적 본성으로서 불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내성을 통해 그 불성을 찾고 성불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고대 유가는 인성을 천성에서 부여받은 본성, 즉 인(仁)으로 규정한다.

(2)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이해 : 인간은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존재이다

인간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로 묶여질 수 있는 이 입장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는 또는 인간은 악의를 갖고 있으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본성적으로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신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이 곧 인간적 삶의 보전 내지 고양 자체마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 그러한 인간성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그 처방까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들이 표방하는 인간성에 대한 비판적 진단 자체에 대한 음미는 그 처방의 유의미한 측면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상 인간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삶의 양식을 규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고 오늘날에도 사회관계 이론은 물론 종교, 철학, 과학, 문학 등 제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삶의 기획과 선택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3) 인간 무본성론 : 선천적으로 정해진 인간의 본성은 없다

인간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다룰 입장은 인간의 본성을 어떤 형태로든 정의하려 했던 앞에서의 입장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이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정의될 수도 없으며, 무한히 가변적이라는 견해를 채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입장들로 여겨지는 입장들이다.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내리고 있더라도 그것을 순전히 사회적인 것 또

는 자유라고 규정함으로써 탈선천성, 탈규정성을 표방하는 견해들 또한 이 입장에 포함될 것이다. 이 입장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계몽 시대 철학자 및 실존주의자 등 서로 양립하기 힘든 사람들이 동반자로서 포함되어 있다.

■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될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여러 활동들과 경험들로 구성된, 즉 즐거움을 주거나 어느 정도 탁월하고 동시에 즐거움도 주는 활동과 경험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삶’이다. 이러한 경험이나 활동이 좋은 삶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플라톤에 따르면, ‘좋은 삶’이란 형식도 가져야 한다. 형식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것’이어야 한다.

화이트헤드(A.N.Whitehead)는 우리의 삶은 연속성이나 전통성뿐만 아니라, 새로움이나 모험도 내포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리듬에 맞추어 포괄해야 한다.

낭만주의 시대 이래로 오늘날 널리 퍼진 한 견해는 만족감이나 탁월성보다는 자율성, 성실성, 책임, 창의성, 결단, 자유, 자기표현, 노력, 투쟁 등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극단적인 형태로 견지될 수는 없다. 하여튼 우리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은 형식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은 단지 유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 자세 또는 ‘삶의 양식’ 등의 의미를 가진다.

에리히 프롬은 우리의 삶이 도덕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도덕관 무관한 의미에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갖는 선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우리 자신 이외의 대의명분이나 목적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좋은 삶’은 그것이 어떤 내용, 형식 그리고 어떠한 주체적인 양식을 가질 것인가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 해답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체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철저한 반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행복의 조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구나 누리길 원하는 행복한 삶을 이루는 조건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말은 뜻을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 단어의 뜻만을 본다면 행복은 단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조건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현대문명의 생활에서는 건강이나 재산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가 있어야만 자기가 하고자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만약 물질적인 객관적 요소가 행복을 누리는 기준이 된다면 사회는 물질적인 것만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고, 정신적 요소만을 행복의 요소로 삼게된다면 물질적인 것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객관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둘 다 갖추어야 하는데 전자만 행복의 조건으로 간주된다면 사람들은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지니게 될 것이다. 물질 위주의 가치관 형성은 황금 만능주의를 가져오게 되고 인명의 경시 풍조나 각박한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 인식은 부(富)를 기준으로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을 판단하게 되어 전통적 도덕성과 윤리 규범이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 사회는 건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가 행복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경시하는 풍조를 지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문명 발전으로 이룩된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없게 된다. 편리한 인간 생활의 조건이 되었던 물질적 요소가 후퇴하게 되어 원시 시대의 생활 속에서 사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을 생각해 볼 때, 인간 행복은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한 것이다. 너무 물질적 조건만 따지면 사회의 윤리가 무너질 수 있으며 정신적인 것만 따진다면 편리함을 이루어 왔던 물질 문명의 후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객관적 조건과 정신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겠다.

■ 인생관이란?

사람은 누구나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 인생에 대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인생에 관한 문제는 너무 근본적이어서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없고, 인생관을 세우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연하게 맹목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인생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다르며, 또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저급하고 무가치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르다. 우선 인생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다름에 저급하고 무가치한 인생관으로 사는 사람은 동물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하여도 큰 차이가 없이 살게 될 것이며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말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생활이 그것일 것이다. 그와 반대로 좋고 가치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을 고상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에게 등불이 되며 영원히 역사에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인생관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각자가 구체적으로 인생관을 세우는 데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자기의 성격, 소질, 육체적 조건, 지식의 수준 등을 생각하여야 한다. 어떠한 인생관을 가져야 할지는 개인적인 선천적, 후천적 조건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생각할 문제이다.

둘째,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에 낙천적 인생관을 가지는 사람이 많고 사회가 동요되고 불안할 때에 비관론자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은 개인의 인생관이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간이 무엇인지, 세계 및 우주가 무엇인지,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이는 인생관을 세울 수 없다. 인생관은 누구나 가지되 거기에 우열이 있는 것은 인간과 우주에 관한 지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인생관을 세우는 데는 우주가 무엇인지, 사회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 우주와 사회와 인간의 현상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또한 자기의 개성과 사회의 요구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각각 자기에게 맞는 인생관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 자기의 인생관을 자기의 생의 안내도로 삼고 살아간다면 각 사람의 생은 훨씬 가치 있는 생이 될 것이며, 또한 역사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바람직한 인간관계

인간 관계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긍정적인 인간 관계는 건설적으로 함께 일하고 효율적으로 함께 배울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호 의존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간은 결코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개별 인간 관계들이 모여 현대 사회와 같은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며 다시 그 사회 구조가 각 개인 및 그들이 맺는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친구나 가족과 다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란 다른 사람의 개인적 자질 및 그가 속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가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서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이해와 양보,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독립적인 개인들이 만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가 그들이 맺는 다른 개별 관계들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무수한 관계들이 모여 거대한 사회를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개별 관계들 사이와 변화와 발전은 또한 그 이전에 개별 인간 관계를 규정하고 있던 사회 통념을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거나 이미 맺은 관계들을 확장시키게 된다. 이처럼, 내가 맺는 인간 관계들이 사회 전체의 관계들과 맞닿아 있으며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할 때, 또는 단순히 원만한 인간 관계를 통해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할지라도, 타인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나’ 자신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가정과 사회 윤리

가정은 인간의 생물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접경지대라 할 수 있고, 사회적 유대가 가장 강한 단위다. 철저히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인 윤리가 지배하고, 나가서 개인 윤리의 훈련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약화는 윤리적 타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 윤리에 하나의 결핍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이기주의는 그 전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은 아직까지 그 구성원인 개인과 구별되기 어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의 적나라한 이익의 도모보다 더 정당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가족 이기주의는 매우 심각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가정들과 개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윤리적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의 결핍으로, 자기 가족의 이익과 고통은 절실하게 느끼나 다른 가정과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이익을 가져오고 다른 가정에 고통을 가하는 비도덕적 구조의 개선에 소극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가정은 사회 윤리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사회 윤리도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의식에 의존한다면, 그리고 인격 교육 및 윤리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정은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의 훈련장으로서의 기능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을 때 가정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한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족 상호간의 무반성적 공동체 의식과 책임 의식을 좀 더 합리적인 추상력과 상상력의 배양으로 사회 전체로 확대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런 예들은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그들 나라에서는 비록 국가이기주의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을지라도 개인 및 가족 이기주의는 어느 정도 극복하여 국내에서는 상당할 정도의 정의로운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는 가족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로 확장되었음을 말해 준다. 앞으로 공해 문제 등 전 세계적인 협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그것이 인류 전체의 공동체 의식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약화되고, 그 관계가 비인격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것은 사회 윤리적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이해되었던 개인 윤리가 약화되는 경향과 관계가 없지 않으며, 신이나 영원한 법칙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변해 가는 문화의 일반적인 세속화에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족 간의 인격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가족 이기주의를 낳지 않도록 우리들의 합리성과 상상력을 강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가족적 공동체 의식이 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정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신론자가 갑자기 종교를 갖게 되면 모럴리스트가 되기 쉽다. 신에 대한 외경심은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고 그 연민은 어떻게든 인간을 교화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바뀌게 마련이다.

우화 형식의 소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1888)를 쓸 당시 톨스토이의 심정이 그러했다. 신을 받아들이는 톨스토이는 인간애와 자기 절제의 도덕률을 제정 러시아의 압정과 산업 혁명의 모순 속에 신음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심어 주고 싶었다. 신의 벌을 받아 지상으로 쫓겨 온 천사미카엘은 자신을 구해준 가난한 제화공 시몬 밑에서 구두를 만들며 6년을 보낸다. 신은 그를 내쫓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1백 년도 더 전에 톨스토이가 제기한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나는 믿는다. 더구나 요즘처럼 세상의 변화가 어지럽고 빠를수록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지구 전체에 걸쳐 우리는 지금 ‘경쟁’으로 살고 있다. 톨스토이의 조국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세계는 오로지 ‘경쟁력’이 지배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독무대로 변했다.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일기 시작한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이 지구를 뒤덮으면서 이미 경쟁에서 국경은 의미를 상실했다.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가 시대적 이념으로 전파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함성은 더욱더 깊은 경쟁의 늪으로 세계를 몰아넣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 혁명은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으면서 경쟁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정의와 평등의 가치는 서서히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기본 원리는 ‘협경(coopetition)’

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아직은 공허한 이론일 뿐이다.

개인 간에도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살벌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나 아닌 남은 모두 경쟁 상대고 꺾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풍토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관용과 공존의 미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학교가 입시를 위한 전쟁터로 변한지 오래고 대학에서는 돈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돈 안 되는 학문은 천대받고 당장 돈벌이가 되는 학문에만 학생들이 몰린다. 학교 당국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 교내에 주식 투자 동아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학생들마저 단타(短打)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판에 철학이나 역사 문화 같은 인문학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인문학의 위기가 불 보듯 보인다. 대학은 교양인을 배출하는 지성의 도량이 아니라 돈벌이 강습소로 전락했다. 정치는 어떤가. 소위 정치인이란 자들은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며 드잡이를 하느라 날이 새는지 해가 지는지 모르고 있다. 시민 단체들이 나서 찍어서는 안 될 후보까지 알려 주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지만 오죽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건설적인 정책과 대안을 놓고 대결하는 장이 돼야 할 선거판이 누구는 세금을 냈느니 안 냈느니, 군대를 갔다 왔느니 안 갔다 왔느니 하는 문제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 건지를.

미카엘은 결국 해답을 찾았다. 그건 ‘사랑’이었고 신이 기대하던 정답이었다. 다시 천사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기 전 미카엘은 시몬에게 말한다. “내가 사람이었을 때 사랑을 가진 한 행인이 있었고 그 사람과 그 부인이 나를 동정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고아가 된 두 어린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한 여자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동정했기 때문이었다. 진실로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경쟁은 물론 필요하다. 경쟁이 없어서 톨스토이의 조국은 망했다. 하지만 경쟁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회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 심할수록 사랑이 뒷받침돼야 한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하고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경쟁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2000. 4. 8

II

기출문제

■ 서강대학교(2002년 정시)

【문제】 다음 제시문들은 ‘쾌락’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가]를 긍정적인 논거로 활용하여 ‘쾌락’의 의미에 대해 논술하라. (단, 반드시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을 구체적 논거로 활용할 것.)

[가]

모든 감정에 있어서 각기 거기에 대응하는 쾌락이 생길 수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우리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에 대해서 즐겁다고 말한다.) 또한 감정이 최선의 상태에 있으면서 최선의 대상에 대해서 활동할 때에 두드러지게 쾌락이 생긴다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대상과 지각자가 모두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는 법이다. 거기엔 쾌락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있으니 말이다. 쾌락이 활동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활동의 주체에 내재하는

상태가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쾌락은 마치 한창 나이의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꽃다운 청춘과 같은, 부가적인 하나의 목적으로서 활동을 완전케 한다. 그러므로 지적 대상 혹은 감성적 대상과, 식별하는 능력 혹은 관조하는 능력이 다 같이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에 있는 한 그 활동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을 것이다. 주체와 객체가 다 같이 불변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서로 관계하고 있을 때에는 같은 결과가 자연히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무도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사실 모든 사람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쾌락 역시 계속적일 수 없다. 쾌락은 활동에 수반하는 것이니 말이다. 어떤 일들이 새로운 것일 때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얼마 있으면 처음만큼 즐겁게 해주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것은 마치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응시할 때에 우리의 시각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정신이 자극을 받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강렬히 활동하지만, 얼마 후에는 우리의 활동이 이완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또한 쾌락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살기를 회구하는 까닭에 또한 쾌락을 욕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활동이요 또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활동한다. 가령 음악가는 여러 가지 음률에 관해서 청각으로 활동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론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지(理智)로 활동한다. 그런데 쾌락은 이러한 활동들을 완전케 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욕구하는 삶도 완전케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쾌락을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중략) 사실 활동이 없으면 쾌락이 생기지 않으며, 또 모든 활동은 거기에 따르는 쾌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

쾌락이란 무엇인가?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로 볼 때 (살아 있다는 의미에서의) 능동성의 충족과는 무관한 욕망의 충족이라고 정의되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런 쾌락은 강도가 높은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 성공을 거둠으로써 느끼는 쾌락, 돈을 많이 버는 데서 느끼는 쾌락, 복권이 당첨됨으로써 느끼는 쾌락, 보통 말하는 성적 쾌락, 맘껏 먹는 데서 느끼는 쾌락,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음주·환각·약품 등에 의해 고양된 상태, 혹은 살아 있는 것을 죽이거나 난도질하려는 걱정을 충족시키는 데서 느끼는 쾌락 등이 예거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바쁘다는 의미로 매우 활동적이어야 하지만 ‘내적 탄생’(birth within)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들은 ‘스릴’을 느끼고 ‘아주 만족하며’ ‘절정’에 도달했다고 느낄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절정인가? 아마 흥분의 절정, 만족의 절정, 환각적, 광란적 상태의 절정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열정이다. 그러나 이 열정은 인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인간 조건의 적절한 해결을 향하지 않는 한 병적인 것이다. 그러한 열정은 더욱 위대한 인간의 성장이나 힘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불구로 만든다. 극단적 쾌락주의자의 쾌락, 항상 새로운 물욕(物慾)의 충족, 현 사회의 쾌락 등은 정도가 서로 다른 ‘흥분’을 일으키지만 ‘기쁨’을 갖다주지는 못한다. 실상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한층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사회는 3천 년 전에 헤브루인들이 처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사악한 죄악 중의 하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은 모든 사물의 충만함 가운데서 마음 속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다.” <신명기 28: 47> 기쁨은 생산 행위에 따른 부수물이다. 그것은 절정에 이르렀다가 급작스레 끝나 버리는 ‘절정 경험’(peak experience)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본질적인 능력의 생산적 표현을 동반하는 지속적 감정 상태이다. 기쁨은 순간적인 몰아(沒我)의 불꽃이 아니다. 기쁨은 존재와 함께 오는 빛이다.

쾌락과 스릴은 소위 절정에 도달하고 난 후에는 슬픔을 낳는다. 왜냐하면 스릴은 경험했지만 그 용기(容器)가 커지지 않는 탓 때문이다. 그의 내적 힘은 증가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비생산적 활동의 권태를 돌파하려고 시도하였고 잠시 동안 이성과 사랑을 제외한 그의 모든 에너지를 결합하였다. 그는 인간의 힘을 벗어나 초인(超人)이 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 도달한 것 같이 느끼지만 그 승리에는 깊은 슬픔이 뒤따른다. 그의 내부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에서

[다]

비에 젖어 흙투성이가 된 채 피로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날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결과 지금 같은 타락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 무서운 비바람 치던 밤 이후, 그녀는 신(神)도 선(善)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때까지 그녀는 자신도 신을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아무도 신을 믿지 않으며,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또는 신의 계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며 엉터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가 사랑했고 또 자기를 사랑했던 베를린도프는 한번 그녀를 농락한 후 그녀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그에 못 미쳤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의 고모들,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노부인들조차도 그녀가 전처럼 일을 잘 못하니까 쫓아내고 말았다. 그녀가 만난 여자들은 모두 다 그녀를 보고 돈벌이할 궁리만 했고 또한 남자들은 그 늙은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감옥의 간수에 이르기까지 그녀를 한낱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들 쾌락만 찾는다. 이러한 확신은 그녀가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만난 늙은 소설가에 의해서 더욱 굳어졌다. 그는 모든 행복은 쾌락에 있다고 단언하며, 이것을 소위 시(詩)나 미(美)라고 불렀다.

사람은 그 누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신이나 선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고민하도록 혼란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따위의 의문이 생겼을 때는 일체 그런 일은 생각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따분해질 때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남자들과 재미를 보는 것이었다.

톨스토이, <부활>에서

[라]

관능의 숭배는,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따금 비난받아 왔다. 그것은 인간이 그 자신보다도 더 강하다고 여기는 정열과 감정에 대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또한 인간만큼 고도로 조직화되지 않은 존재 형태를 가진 것에도 관능이 있다고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관능의 참다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섬세한 본능을 그 지배적인 성격으로 하는 새로운 영성(靈性)의 요소로 관능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굶주림과 고통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말살하려 해 왔기 때문이라고 도리언 그레이는 생각했다. ‘역사’ 속의 인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는 일종의 상실감에 사로잡혔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 왔던가! 더구나 아무런 의미도 없이! 거기엔 격렬하고도 완고한 거부(拒否), 기이한 형태의 자기 확대와 자기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공포심이며, 그 결과는 인간이 무식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써 온 그 상상적인 타락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타락이었다.

…… (중략) ……

우리 시대에 야릇한 부흥을 보이고 있는 가혹하고 꼴사나운 청교도주의(淸敎徒主義)로부터 인생을 구할 새로운 ‘쾌락주의’가 일어나야만 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지성(知性)에도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것일지라도 정열적인 체험을 희생으로 하는 이론이나 체계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 쾌락주의의 목적은 체험 그 자체여야 하는 것이지, 체험이 달든 쓰든 간에 그 결과여서는 안 된다. 관능을 죽이는 금욕주의에 대해서는, 역시 관능을 무디게 하는 저속한 방탕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쾌락주의가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쾌락주의는 그 자체가 순간에 불과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자기를 집중하게 하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 (중략) ……

우리는 그만두었던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판에 박은 듯한 습관이 똑같이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속에서 힘을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두려운 느낌에 어느새 사로잡히게 된다. 어쩌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 새로이 개조된 세계, 모든 사물이 신선한 형태와 색채를 드러내어 일변하거나 그 전과는 다른 비밀을 간직한 세계, 과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의무라든가 후회라든가 하는 의식적인 형태로는 남아 있지 않은 희열의 화상에까지도 쓰라림이 따르고, 쾌락의 기억에도 고통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세계가 찾아오기를 열광적으로 동경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리언 그레이에게 있어선 그와 같은 세계의 창조야말로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거나 적어도 참다운 목적 중의 하나인 것같이 여겨졌다. 그리고 새로우면서도 즐겁고, 더욱이 로맨스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이상한 요소를 가진 온갖 감각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는 때때로 그의 천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을 받아들여, 그 미묘한 영향력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테면 그 색조를 포착하여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켰다.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 유의 사항 ◆

1.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내외로 쓸 것(±160자 허용).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수험번호, 성명 등 자기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4.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되게 할 것.
5. 어문 규범을 지킬 것.

<대학측이 밝힌 출제 방향 및 예시 답안>

1. 출제 방향

-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논제인 ‘쾌락’을 주제로 하였다. 인간의 삶 속에서 ‘쾌락’의 의미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쾌락은 금욕주의의 틀 속에서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서강대학교의 논술 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쾌락의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생산적 에너지로서 쾌락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쾌락이 삶 속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 이번에 서강대학교에서 출제한 논술 문제는 네 제시문에서 ‘쾌락’에 대해 보이는 인식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이를 논거로 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쾌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술하게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우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평소에 수험생들 각자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폭넓은 독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 ‘쾌락’에 대한 상이한 인식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톨스토이의 <부활>,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가려 뽑았다. 세계적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소유냐 존재냐>는 예민한 존재 탐색기의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며, 소설 <부활>과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역시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논술 고사 실시 취지의 하나인 고전 읽기를 통한 인문적 교양 형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년과 같이 대표적 명작을 선택하고 그 명작에서 제시문을 뽑아 논제화하였다.
- 서양의 고전에서 제시문을 골랐지만 이 작품을 사전에 읽지 않은 수험생일지라도 제시문만 정확히 읽으면 논술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이는 논술시험의 의의가 고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읽기 능력과 거기에 바탕을 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표현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분석하지 않으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사고를 전개하기 어렵도록 문제를 구성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2. 채점 원칙(기준)

- 논지가 요구하는 내용이면서 합당한 주장인가, 사고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 논거가 타당하고 참신한가, 또한 제시문에서 적절히 찾아 썼는가.
-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의 연결이 논리적인가.
- 서론, 본론, 결론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정확하고 풍부한 단어, 자연스럽고 적절한 길이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가.

3. 예시 답안

“철학한다는 것은 타성에서 깨어나 생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는 [푸른 꽃]의 시인 노발리스였다. 어디 철학하는 일뿐이라. 타성과 인습에 젖어 나른하게 사는 이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 논제인 쾌락의 문제도 그렇다. 향락적 쾌락에는 어떤 비용도 지출해서는 안 된다

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의 주장을 비롯한 많은 논변들로 인해, 우리는 무거운 금욕주의에 가두어진 채 쾌락의 본질을 올바르게 성찰하지 못하는 타성에 젖어 있었는지 모른다. 물론 최근 억압적 금욕을 대신해 욕망의 해방을 주창하는 논의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쾌락의 문제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제시문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반성을 유도한다. 진정한 쾌락의 추구를 통해 삶의 ‘푸른 꽃’을 볼 수 있게 할 지혜를 탐문케 한다.

막스 베버처럼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는 기존 담론의 질서를 <나>, <다>에서 확인한다. <나>에서 쾌락은 병적인 흥분에 불과한 것으로 단죄된다. 쾌락은 흥분의 절정에서 휘발된 채 진정한 인간 삶의 내적 탄생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일종의 소비적 쾌락론이다. <다>는 쾌락 윤리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를 쾌락의 대상으로 삼았던 주체들의 타락한 쾌락 행사로 상처받은 그녀 역시 타락한 쾌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쾌락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한 이야기다. 쾌락에 대한 이런 관점들은 금지나 억압의 시각으로 보는 도덕적 목적론에 입각한 것들로서, 반쾌락 이데올로기의 바탕이 되었다. 우리가 쾌락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까닭도 여기 있었다. 반면 <라>는 쾌락의 창조적 생산성을 중시한다. 청교도주의에서 쾌락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억압된 인생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글에서, 쾌락은 소비적 부정성의 오명을 벗는다. 억압의 고통과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 승화된 쾌락의 열정적 행사를 통해 신생 창조의 신명을 지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쾌락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눈을 <가>는 제공한다. 역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쾌락은, <나>의 주장대로 순간의 흥분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 조건에서 적절하게 고양된 상태로 인간을 인도하는 긍정적 에너지다. 이를 위해서는 쾌락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최선의 상태여야 한다. 이런 쾌락은 활동을 완전케 하고, 삶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쾌락과 연결된 활동,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쾌락, 활동으로 이끄는 욕망의 조화로운 연쇄는 존재를 고양시키는 역동적 운동을 통해 마침내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 이때 쾌락은 <나>에서 “본질적인 능력의 생산적 표현을 동반하는 지속적 감정 상태”라고 한 ‘기쁨’과 <라>의 창조적 생산성을 함축한다. 또 <다>의 부정적 쾌락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쾌락은 더 이상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최선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된다.

문제는 쾌락의 진정성과 역동적 활용을 통한 창조적 생산성의 모색이다. 문화 예술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쾌락의 생산성으로 새로운 생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태, 현실태, 가능태 모두에 활기찬 생명의 감각을 부여하여 열정적 활동을 연출케 할 수 있는 기제가 바로 쾌락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쾌락을 통해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의 의식을 매순간 지닐 수 있으며, 최선의 인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억압과 금기의 시슬에 묶여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열렬하면서도 의미 있는 생의 ‘푸른 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쾌락의 의미다. 쾌락에 대한 정당한 배려로 진정한 자기에 대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

III

실전문제

주어진 삶의 조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아래의 글에서도 하나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미장이의 일은 비천하고 힘든 일이다.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색은 의기양양하게 보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명료하다. 그에게 물어 보니 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승복(承福)인데, 집안 대대로 경조부(京兆府)에 있는 장안현(長安縣)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천보(天寶)의 난 때 나라에서 징병을 모집했는데, 그도 십삼 년간 화살과 활을 가지고 종군하여 관리가 될 만한 공을 세웠으나, 그 기회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토지가 이미 없어져 미장이로서 삼십 년 이상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 시내에 있는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그에 상응하는 방세와 식비를 치르는데, 그때 그때의 방세와 식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미장이의 품삯이 결정되며, 먹고 남은 돈이 있으면 불구가 되어 거리에서 굶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곡식은 농사를 지어야 생기는 것이고, 무명과 비단은 누에를 기르고 고치를 찾아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도, 사람의 힘이 든 후에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으므로, 자기에게 재능 있는 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 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우리를 다스려 편히 살게 하시고, 관리들은 임금의 덕화(德化)를 받드는 사람입니다.

관리들의 책임이 크고 작은 것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크고 작은 그릇의 사용처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먹기만 하고 일하는데 게을리 하면,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지껏 하루도 미장이 일을 버려두고 놀러 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미장이 일은 쉽게 배울 수는 있지만, 힘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받은 품삯이니, 비록 힘은 들지만 부끄러움이 없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힘쓰는 일은 쉬워 힘만 들이면 성과가 나타나지만, 마음을 쓰는 일은 어려워 힘도 써야 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림당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린다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쉽지만 부끄럽지 않은 일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미장이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집에 드나든지 꽤 여러 해 되었습니다.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집을 후에 다시 가보면 이미 폐허가 되었고, 두세 번 갔던 집에 다시 가보면 역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물어 보면, 어떤 사람은 ‘아! 죄를 지어 사형을 당했습니다’라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죽은 후 자손들이 재산을 보존치 못했습니다’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은 후 재산이 나라로 돌아갔습니다’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먹기만 하고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해서 천벌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써 지혜를 짜내도 부족한데, 재능이 그 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 일을 억지로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알면서도 억지로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부귀를 지키기 어려운 것은, 공로는 매우 적으면서 누리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성쇠에도 때가 있어, 한 번 가면 한 번 오는 것으로 모든 것

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몹시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골라 하는 것입니다. 부귀를 좋아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했다.

“공로가 큰 사람은 자기가 부양할 사람이 많습니다. 처자를 모두 자기가 부양해야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공로도 적으므로 처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니, 만약에 가정을 갖게 되면 역량이 부족해서 근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맡는다면, 비록 성현이라 하더라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하락)

한유(韓愈), 「미장이 승복에 대한 전기」, 『古文觀止』

미장이 : 집을 짓거나 고칠 때 흙을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유의 사항 ◆

1. 수험생 개인의 가치관은 원칙적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2. 답안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내외로 할 것.

■ 생각해 보기

- ① 논제를 파악해 봅시다.
- ② 출제의도를 정리해 봅시다.
- ③ 제시문을 분석해 봅시다.
- ④ 왕승복의 삶의 자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⑤ 왕승복의 삶의 자세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⑥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IV

해설

1. 출제 의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틀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조금씩은 다르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진 삶의 조건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선불리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나 피해야 할 삶의 자세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자세를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바로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2. 논제 파악

제시문에 나타난 삶의 방식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밝히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비판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라는 것이다.

3. 문제해결

제시문에서는 미장이 왕승복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한 마디로 자신의 능력에 걸맞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승복은 미장이라는 비천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는, 먹기만 하고 할 일을 게을리 한다면 하늘의 별을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껏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을 올바르게 알고, 이에 걸맞는 일을 맡아 열심히 해야 할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한다. 부귀를 좋아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지만 자신의 능력 내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왕승복의 삶의 자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측면은 자신의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충실히 수행하려는 마음가짐과 이에 근거한 부지런한 삶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자세라 할 수 있다.

한편 왕승복의 삶의 자세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측면을 찾아보면 미장이는 각자의 재능에 합당한 만큼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의 소질이나 재능이 미장이로서의 삶밖에 되지 않는지를 물을 수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일 경우 우리는 그가 그 일을 선택한 것이, 그 일이 단지 그의 능력에 합당하기 때문인지에 대해 엄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 그의 선택이 그의 능력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삶의 조건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장이는 비천하고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비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불평없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할 것만을 은연 중에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때 왕승복의 삶의 자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내용과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열심히 수행하는 삶의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삶은 때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꾸러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면서 정체된 삶에 머무는 성실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예시 개요

- 서론 : 삶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음
- 본론1: 미장이 왕승복의 삶의 자세 추출
- 본론2: 왕승복의 삶의 자세에 있어 긍정적인 면
- 본론3: 왕승복의 삶의 자세가 보여주는 문제점 비판
- 결 론 : 왕승복의 삶의 자세에 있어 긍정적인 면 부각
그의 삶의 자세가 보여주는 문제점 극복의 내용

5. 예시 답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양이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틀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이나마 다르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진 삶의 조건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선불리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나 피해야 할 삶의 자세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유가 쓴 『고문관지(古文觀止)』의 「미장이 승복에 대한 전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삶의 양태 가운데 하나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한 마디로 자신의 능력에 걸 맞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승복은 미장이라는 비천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그는, 먹기만 하고 할 일을 게을리한다면 하늘의 벌을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껏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긴다.

자신의 능력껏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왕승복의 삶의 자세는 가히 칭찬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충실히 수행하려는 마음가짐과 이에 근거한 부지런한 삶의 모습은 바람직한 것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자세인 것이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에 비하면 그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장이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미장이는 각자의 재능에 합당한 만큼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의 소질이나 재능이 미장이로서의 삶밖에 되지 않는지를 물을 수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일 경우 우리는 그가 그 일을 선택한 것이, 그 일이 단지 그의 능력에 합당하기 때문인지에 대해 엄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 그의 선택이 그의 능력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삶의 조건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미장이는 비천하고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비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불평없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할 것만을 은연 중에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살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자신이 선택한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삶의 자세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일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성실성만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힘들고 비천한 일을 사회적 약자에게 암묵적으로 떠맡기는 것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한 가지 능력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 안에 평생토록 머물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꾸려지기도 한다. 성실한 것은 좋으나 그것이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면서 정체된 삶에 머물게 하는 성실성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V

읽기자료

*** 아래의 글은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인간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의 관점에서 읽어보자.**

산과 들에 흠어져 있는 풀잎 하나라도 꼭 같은 것은 없다고 한다. 그 작디 작은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이 거대한 세계와 우주를 조화롭게 이루고 있다. 어찌 경이롭지 않은가.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지니고 태어났다.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다른 자기의 독자성을 타고 난 것이다. 어찌 경이롭지 않은가. 그러나 풀잎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다른 인간과의 사회적 연관 속에서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더구나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사물의 이치를 깨쳐볼 수도 있고 그 이치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싹을 타고난 존재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인간 본질의 실현은 그 고유한 능력을 함양하며 자기 독자의 가치를 찾아 체현하는 일이다. 그 본질을 가장 잘 실현해 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한 개인의 독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곧 세계적인 것으로 통한다.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지요 특권이다.

인간의 삶은 어느 누구의 것도 결코 타인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그 자체로 존재 의의를 지닌다. 현실 현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형태이다. 그 같은 삶의 경우도 결코 그 의미가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본질에 값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매우 의아스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진지하게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려는 풍조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가령 교수는 까다로운 분야의 힘든 연구를 꺼려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학생은 점수 낮은 학과목의 수업을 단연코 기피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극력 추구하고 있는 것은 쉽고 편리한 생활 그것이다. 언제부터 이 부박(浮薄)한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는가. 시작은 이미 오랜 것이지만, 그 최근의 계기는 아마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사회주의가 인간의 삶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만이 유일한 승자로서 안심하고 자기 현시(自己顯示)를 일삼게 되었다. 따라서 그 체제적 현상에 대한 비판은 역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반역적 소행으로까지 공지(公知)되어 가고 있다. 그 대신 세계 전체가 이제 인간의 삶의 질적 가치적인 것을 더욱 사상(捨象)해 버린 채 유형화, 획일화를 앞세우는 능력과 세력 위주의 경쟁만을 끝없이 전개하게 되었다. 소위 세계화라는 것도 곧 그 같은 현상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생산 체제는 상품적 가치를 대량 창출해 낼 수 있지만 인간의 정신적 가치까지를 창출해 내지는 못한다. 다만 그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편리한 기회와 도구들을 더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정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더구나 그 정신적 가치를 향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별 인간의 자아의 영역에 속하는 독자적 사항이다. 그것은 열심히 추구하여 찾아내고 애써 연마함으로써야만 비로소 자기 나름 것을 체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유형화, 획일화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개별 주체들의 내면의 문제이다.

가치적인 것의 설정도 개별 인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공약이 있다. 인간의 삶이 사회적인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의 실현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아무리 소박한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삶의 진실에 값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 보편성은 이미 모든 인간에 다 통한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남을 등쳐 가면서 자기 이익이 되는 가치를 성취한다는 것은 이미 원리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미 전 시대의 기생적 행태에 불과한 그 같은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가 선생 선배들에 의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제국주의 아류들에 의해서는 선진과 근대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얼마나 인색하게도 자기 이익에 매달리며 집착하고들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험악하게도 그 같은 행태들이 공공연하게 용납되고들 있는가. 봉건적 인습과 제국주의 아류가 유착(癒着)하여 구조적으로 우리를 가위눌리게 하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끝없이 재생산되어 가고 있는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인간은 현실에서 실로 다양한 삶의 길을 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아의 실현과 관계가 깊을수록 더욱 가치와 의의가 있는 길일 것이다. 그것은 편의로운 도구나 문명과는 다른 것이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적이기 때문이다.

김태영, 「도구와 삶의 가치」

2 **현대 사회의 문제(소비 문화)**

I

주제 특강

■ 현대 소비문화의 특징

현대의 소비문화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논리, 과시적 소비를 통해 계급간의 지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여러 계급의 전략, 소외된 현실 속에서 별달리 진정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소비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상황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 낸 결과이다. 때문에 현대 소비문화에는 자연히 그러한 요인들의 작용이 반영된다. 이제 현대의 소비문화가 갖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 생산은 본질적으로 생산자가 직접 소비하기 위한 사용 가치의 생산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과 놀이, 창조와 휴식이 분리되지 않았다. 교환 가치 위주의 상품 생산에 기초를 둔 시장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그러한 통일은 깨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은 분명히 구분된다. 근대 이후의 소비는 상품 소비라는 형태를 취하며,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직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따라서 소비문화는 곧 자본주의 문화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생산했는가에 따라 생산물의 의미가 규정되었다. 즉 사람과 사물 사이에 구체적인 통일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그러한 유기적 통일성이 없다. 오직 교환 가치만을 위해 생산된 상품은 생산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사장된 추상적인 사물로서 시장에 등장한다. 따라서 상품에는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내재적인 모든 의미가 사장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사용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알려야만 한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광고다.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래의 의미와 사용 가치가 추상된 상품의 빈 공간을 의미로 채운다. 광고는 상품에 그럴듯한 포장과 이미지를 입혀 어떤 사용 가치와 의미의 제공을 약속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소비한다. 이때 상품은 물질적인 실체를 갖고 기능상 유용한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문화적 재화로서도 소비된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품의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이 물질적인 사용 가치 기능을 압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문화가 지닌 특색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고유하고 근원적인 욕망의 충족과 상관없이 교환 가치의 획득을 위해 생산된 상품을 유도된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윤 획득을 위해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소비문화는 자연히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 성격이 일차적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논리는 되도록 시장을 넓히는 데 유

리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려 한다.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가장 적합한 소비 유형은 개인적, 사적, 수동적이며, 소외된 유형이다. 현대의 소비문화는 사회 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점차 개별화되고, 이용 가능성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점점 더 사적인 것으로 되어 간다. 오늘날 대중의 소비 활동은 점점 더 다른 사회 구성원과 떨어져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되고, 그 내용도 참다운 삶을 위해서나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위한 것으로 되고, 아무런 공적 의미도 없는 사적인 것으로 되어 간다. 또한 현대의 소비문화는 참여 수준과 인간 활동의 차원에서는 점차 소외되고 수동적인 것으로 되어 간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기보다는 주어지는 쾌락적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소비 활동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간다.

현대 소비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지위를 위한 소비 또는 경쟁적 소비이다. 오늘날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옛날처럼 소속된 신분이나 집단에 따라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소비는 지위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표현하는 데 결정적이다. 어떤 사람의 소비 양식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전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재화에 대한 그 사람의 열망은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집단의 소비 양식을 모방하려는 열망으로 이해된다. 재화는 그 의미 때문에 사회적 상징이 동, 사회적 구성원 의식, 사회적 배제 등을 위한 도구이다. 그 기본 성질은 구별짓기이다. 그런데 재화가 주로 상징으로서 작용하고, 모든 사람이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거나 다른 집단 구성원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재화를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소비에는 아무런 한계도 없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소비도 궁극적인 것일 수 없다. 지위를 경쟁적으로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활양식의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소비재 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소비재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추구가 현대 소비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현대 소비문화를 이끄는 원동력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쾌락주의적 욕망,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무한한 욕망이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질서와 진보를 위해서도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대 소비문화의 독특한 측면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건 경쟁의 논리에 따라서건 일단 어떤 소비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그에 어울리는 또 다른 소비재의 구입과 사용을 강제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소비재를 구입하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다른 소비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의 소비문화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상승적 소비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언제나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소비가 약속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나서게 되지만 또다시 실망하는 악순환을 계속할 뿐이다.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한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 새로운 생산 방식) 체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현대 소비문화의 특징들이 한편으로는 강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형되기도 한다. 포스트포디즘 아래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상품 형태의 변화는 탈(脫)물질화라 부를 수 있다. 포스트포디즘 아래서는 비물질적 재화가 경제와 소비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며, 물질적 상품에서조차 그것의 비물질적 구성 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상품에서 중시되는 것은 표면적인 이미지와 외관이다. 외관과 이미지 중심 상품의 미적 쇠퇴를 강화하고, 스타일 및 패션을 급격하게 교체함으로써 포스트포디즘은 소비의 순환을 가속화하고, 소비 욕구를 영속화한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 체제의 효과적인 재생산

을 도모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현대의 소비 생활은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미지와 스타일 중심의 문화 상품을 소비한다는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체에 침투한 매체 이미지의 영향 아래서 현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어떤 통일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점점 더 표면적인 환상적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분리된 서로 다른 순간 속에서 쾌락을 느끼며,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소비문화는 깊이를 상실하고, 표면과 외관을 찬양하고, 파편화된 경험의 직접성 순간적임 강렬함 등을 추구하는 정신 분열적인 문화이다. 이는 조금이라도 낡은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광란적인 질주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특징을 갖고 있는 현대의 소비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곧 ‘소비의 문화’이다. 이 말은 정체성 희망 가치 의미 등 현대인의 삶의 모든 것이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나 맡은 역할과 같은 사회적 차원보다는 소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전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산물을 소비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과 삶이 총체적으로 소비 생활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문화는 총체적인 소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상생의 철학, 이찬훈, 동녘

II

기출문제

■ 이화여대(2004년 정시)

다음 (가)의 글은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나)와 (다)의 삶의 방식이 (가)의 소비사회와 갈등을 빚는 이유와 양상을 서술하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가) 소비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상품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노동과정이나 물질적 생산품뿐만 아니라 문화, 섹슈얼리티, 인간관계, 심지어 환상과 개인적 욕망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이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모든 기능과 욕구가 이윤에 의해 대상화되고 조작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진열되어 구경거리가 된다는, 즉 이미지, 기호, 소비 가능한 모델로 환기되고 유발되고 편성된다는 보다 깊은 의미에서이다.

소비과정은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이다. 기호의 발신과 수신만이 있을 뿐이며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작과 계산속에서 소멸한다. 소비시대의 인간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자기 욕구조차도 직시하는 일이 없으며 자신의 모습과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그는 자신이 늘어놓은 기호들 속에 내재할 뿐이다. 초월성도 궁극성도 목적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의 특징은 ‘반성’의 부재, 자신에 대한 시각의 부재이다. 현대의 질서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장소였던 거울은 사라지고, 대신 쇼윈도만이 존재한다. 거기에서 개인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기호화된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호의 질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소비의 주체는 기호의 질서이다.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은 욕체이다. 오늘날 욕체는 광고, 패션, 대중문화 등 모든 곳에 범람하고 있다. 욕체를 둘러싼 위생, 영양, 의료와 관련한 숭배의식, 젊음, 우아함,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 미용, 건강, 날씬함을 위한 식이요법, 이것들 모두는 욕체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욕체는 영혼이 담당했던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문자 그대로 넘겨받았다. 오늘날 욕체는 주체의 자율적인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소비사회의 규범인 향락과 쾌락주의적 이윤창출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금 만들어진다. 이제 욕체는 관리의 대상이 된다. 욕체는 투자를 위한 자산처럼 다루어지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중의 하나로서 조작된다.

(나) 그는 애정을 담은 눈길로 흘러가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속이 맑게 들여다보이는 초록빛 강물은 온갖 불가사의한 무녀를 만들어내며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찬연히 빛나는 진주들이 물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물거품을 내며 거울 같은 수면 위를 헤엄쳐 다녔다. 그 물거품 속에는 하늘의 푸른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물은 초록색, 하얀색, 투명한 하늘색, 그런 형형색색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 강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강물은 나를 얼마나 황홀하게 해주는가! 나는 이 강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새로이 깨어난 음성이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강물을 사랑하라! 그 곁에 머물러라! 강물로부터 배우라!’ 그는 강물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강물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강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밀, 나아가 모든 비밀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 얻기를 탐내는 자는 만족함이 없으니, 모두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 때문이다. 만약 마음이 담담하여 만족할 줄 알면 세상 재물을 구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청풍명월(淸風明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대 울타리 띠집에도 돈 쓸 일이 없고, 책을 읽고 도(道)를 이야기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는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성찰하면 세상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이니 탐욕스러운 마음이 또 어디로부터 나오겠는가?

■ 이화여대(2000년 정시)

오늘날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나 재화 축적 수단 이상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래의 제시문들을 논의의 근거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돈이 지니는 의미를 개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질과 관련시켜 논술하시오.

(가) 바다에 나갈 때 나는 한낱 선원으로서 나간다. 그래서 돛대 앞이나 갑판 아래, 또는 제일 높은 마스트의 꼭대기에서 굶은 일을 도맡아 한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명령을 받아야 하는 신세이니, 5월의 초월에 뛰노는 메뚜기처럼 이 마스트에서 저 마스트로 바빠 뛰어다녀야만 한다. 이것은 확실히 피로운 일이다. 특히 지방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더욱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배를 타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 직전까지 어느 시골 학교에서 교사로 으쓱대며 아무리 몸집 큰 학생이라도 두려워 쫓쫓매도록 한 경험이 있다면 교사에서 선원

으로의 변신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으리라. 세네카나 스토아학과 식의 높은 수양을 쌓지 않고선 적당히 코웃음을 치며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경고하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음도 차츰 사그라지다.

시골뜨기 늙은 선장이 내게 비를 들고 갑판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린들 어찌겠는가? 신약성서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의 굴욕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노예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고 나는 묻고 싶다. 늙은 선장이 아무리 나를 혹사하고 괴롭힌다고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노예라고 자위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한다. 결국 온 세상이 서로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으니 각자는 서로 어깨를 다독거리며 만족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언제나 일반 선원의 자격으로 바다에 나간다. 선원 일은 나의 노고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 주기 때문이다. 동전 한 푼이라도 승객에게 돈을 지불한 예는 없다. 반대로 지불하는 쪽은 오히려 승객이다. 돈을 지불한다는 것과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차이인가? 돈을 받는다는 것, 이를 무엇에 비할 수 있겠는가? 돈은 지상의 온갖 악의 근원이므로 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우리의 뿌리깊은 믿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행하는 가혹한 수고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아, 얼마나 즐겁게 우리는 그 파멸에 몸을 맡기고 있단 말인가?

(허먼 멜빌, ‘모비 딕’)

(나) 가난은 일정한 화폐경제 단계에서만 지극히 순수하고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직 화폐경제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자연적인 조건하에서 그리고 농업생산물이 상품으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절대적인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화폐경제의 영향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개인적인 궁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가난은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사람들은 화폐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최소한의 필수품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이 도덕적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에 상응하여 화폐의 취득은 가장 위험한 유희, 진정한 악(惡)으로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영혼의 구원이 최종 목표로 간주될 때 많은 교리에서는 가난이 긍정적이며 필수적인 수단으로 해석되고 왕왕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그 자체가 중요하고 타당한 가치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가난을 절대적인 가치로까지 고양시켰던 그러한 내적인 마음자세는 초기 프란시스코파 수도사들에게서 가장 열렬하고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들에게 가난은 독립적인 가치 혹은 심원한 내적 요구의 상관 개념이었다. 이 교단의 초기에 정통한 한 역사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프란시스코파 수도사들은 가난 가운데서 안전과 사랑, 자유를 발견하였다. 이 새로운 사도들이 필사의 노력을 다해 이 귀중한 보배를 보전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난에 대한 그들의 숭배심은 거의 무한한 것이었다. 그들은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의 애인에게 날마다 새로이 구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가난은 적극적인 소유물이 되었다. 가난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신성한 재화의 획득을 매개했고 다른 한편으로 경멸적이고 세속적인 재화를 얻기 위해 돈이 수행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돈과 마찬가지로 가난은 실제적인 일련의 가치가 흘러 들어가고 다시 풍성하게 되어 흘러나오는 저수지였다. 가난은 지고한 의미에서 ‘세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는 사실의 표현인 것이다. 돈을 포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 속에서—마치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돈이 그러한 것과 마

찬가지로-모든 사물 중에 가장 순수하고 정묘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프란시스코파 수도사들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게오르그 짐멜, '돈의 철학')

(다)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부(富)가 가져오는 불행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꾸며 낸다. 미다스는 자신의 딸을 황금으로 변하게 했고, 모든 것이 손대는 족족 황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음식조차 먹지 못했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부자가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의 사회과학적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부유해질수록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부는 많은 소비재를 구매할 능력을 부여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부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고, 승진시키거나 좌천시킬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수도 있고, 사업체를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부유한 사람은 주위의 물적·인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주위의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정치적 영향력 역시 아무도 모르게 돈으로 살 수 있다. 선거 기부금을 통해 한 표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정치 권력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미국 상원의원의 반수 이상이 인구의 상위 1% 이내의 부유층이며, 지명한 상원의원과 주지사들 다수가 엄청난 부의 소유자들이다. 선거 자금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부를 소유하지 못한 정치가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는 부자가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혼을 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회적 서열을 매기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였던 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가치를 재는 거의 유일한 척도가 되었다. 부는 자신의 패기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달려들 만한 유일한 게임이다. 부는 치열한 경쟁장이다. 그 곳에서 시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2류로 규정된다. (레스터 C. 서로, '부의 구축(構築)')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500자 내외(1400~1600자)로 서술할 것.
2. 시험시간은 150분.
3.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4.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지에 드러내지 말 것.
5. 반드시 흑색 연필이나 흑색 볼펜으로 작성할 것.

III

실전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청소년 소비문화의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가져야할 바람직한 소비 태도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제시하시오.

◆유의사항◆

1. 네 개의 지시문 모두를 적절히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
2. 띄어쓰기 규정을 준수할 것(2,000자 내외 ± 200)

가) 지름신 숭배 하는 ‘지름교’



요즘 전 새로운 믿음을 찾았답니다.

일부 감각 있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지름교’입니다. 지름교의 신도는 모두 소비의 영도자 ‘지름신’의 강령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쁜 것, 귀여운 것, 신기한 것, 새로운 것 앞에서 너무너무 갖고 싶은 마음을 눌러가며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지름신은 오십니다. 지름신이 오시는 그 순간, 그분의 인도로 갈등은 사라지고

‘질러버리게’ 되는 거지요. 아 참, 지름다는 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행위’를 뜻하는 저희들의 용어랍니다.

아무 거나 산다고 무조건 지름신이 강령하시는 건 아닙니다. 먹고, 입고, 자는 생필품 따위에 지름신이 오시진 않습니다.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취미용품, 예를 들어 MP3플레이어나 DVD타이틀, 디자인 소품들에 주로 오시지요. 이럴 땐 당장 오늘 저녁밥을 굶더라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물건을 기어코 사고야 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해 ‘지름 이외의 다른 지출은 생각지 말라’ ‘출시일을 거룩히 지켜라’ ‘신용불량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지름을 탐내지 말라’ 등 십계명을 꼬박꼬박 지키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밥을 굶고 알바를 해가며 지름을 하더라도 지름신은 또 다른 ‘지름거리’를 던져주는 시련을 주시곤 합니다. 겨우 겨우 갖고 싶던 영화의 DVD타이틀을 사고 나면 며칠 뒤엔 ‘스페셜 에디션’ ‘감독 특별판’ 등의 이름으로 리뉴얼돼 나오거든요. MP3 플레이어는 장만하면 같은 가격에 더 큰 용량의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요새 연속으로 지름신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셨어요. 버티고 버티다 결국 신의 부름에 이끌려 ‘반지의 제왕’ DVD 한정판과 애플의 MP3플레이어 ‘아이팟 미니’를 질러버렸습니다. 이러다간 조만간 지름신의 형님이신 ‘파산신’이 오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꾹꾹하게 이 믿음을 지키렵니다.

경향신문(2004.11.22) 박지희 기자

나 -1) 현대 시각문화의 문제는, 사람들을 이미지로 압축하면서 특정한 부류의 이미지를 특권화하는 것에 있다. 보르도(Bordo)는 “현대의 시각문화 안에서 특정 이미지의 재현은 동질화를 불러온다(1993, 40)”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동질화는 정상화를 수반한다고 보르도는 주장한다. 예를 들면, 모델들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이 모델들과 같은 몸매를 지향할 것을 촉구하는 동질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동질화는 모델들의 몸매를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정상화를 야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군림하는 모델들의 몸은 일반적 다수의 몸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화된 극소수자들의 몸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상화된 모델들의 몸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소수자의 몸일 뿐이다. 하지만 현대 시각문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질화와 정상화의 비정상적 반복으로 인해 정상적인 카테고리에 속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 몸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며, 현대인들에게 동질화하는 또는 정상화하는 시선을 내면화할 것을 강요한다. 푸코가 팬옵티콘(panopticon)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듯이 현대인들 특히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시선의 권력을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몸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다보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모델들과 같은 몸을 대상으로 한 동질화 정상화하는 시선에서 바라본 일반인들의 몸은 어딘가가 어긋나 있는 비정상적인 육체로 비치게 마련이다.

현대 사회에서 타자화된 시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미디어 특히 시각을 매개로 하는 영상 미디어다. 현대의 생체 권력(bio-power)은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가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이미지들은 우리를 스스로 감시하게 하는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만든다. 미디어 속의 각종 몸 이미지들은 몸 이미지의 동질화와 정상화를 통해 우리를 통제한다. 그러나 미디어 속에서 동질화되고 정상화되는 몸 이미지는 이상화된 몸 이미지가 아닌 현실 속의 몸 이미지가 아니다. 이상화된 몸 이미지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몸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시각적 이미지의 횡포 속에 놓인 남성들도 결코 자신의 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몸짱인 권상우를 죽이고 싶다는 한 남성의 한탄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이상적인 몸의 이미지와 자신의 불품없는 몸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가 야기하는 폭력성과 자기 폄하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페더스톤(Featherstone, 1993)은 “소비문화 속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지각은 수없이 널려 있는 몸들의 시각적 이미지들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자기 외모의 현재 상태에 대한 그날그날의 인식은 자기 과거의 사진적 이미지들뿐만 아니라 광고와 시각 매체를 통해 증식되는 이상화된 인체 이미지들과의 비교에 의해 더욱 선명해진다(Featherstone, 1993, 45). 그는 또한 이미지들이 비교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대중 미디어가 특정한 부류의 이미지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반복할 때 일반 대중들은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휴대폰, 스티커 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정상화된 이미지에 근접하게 만들려는 나르시시즘에 빠진다. 스타와 같은 포즈를 취하거나 비슷한 의상이나 머리 모양을 하고 찍는 사진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정상화된 모습에 근접한지를 알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날로 발전하는 시각문화는 이미지들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킨다. 이미지들은 점점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Breton, 1990, 235). 범람하는 이미지는 세계를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게 해주며, 실재보다도 이미지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만든다. 시각문화는 몸의 물질정보보다도 이미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만든다. 시각 이미지는 몸의 물질성을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굴레에서 해방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몸이 이미지와 시선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웰빙 시대, 텔레비전과 ‘몸’— 이미지, 과학, 소비의 덫에 걸린 몸 — 김 명 혜

나-2)



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중략—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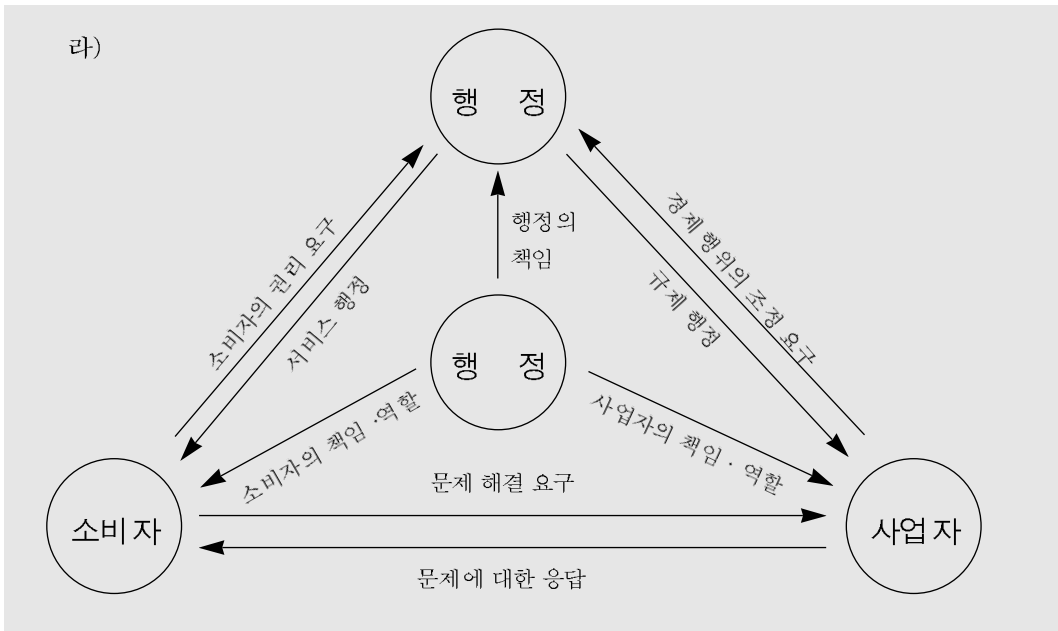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볼 말씀이다. 아무 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1971 - 법정, <무소유>



■ 생각해 보기

1. 청소년 소비문화의 문제점과 원인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2. 청소년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하여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3. 우리의 몸이 이미지와 시선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4. 제시문 가)에서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취미 용품에 지름신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소비 행태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시다.
5. 아무 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주변의 삶과 관련 지어 생각해 봅시다.

IV

해설

1. 출제 의도

과거에 비해 우리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비가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한 기능적인 측면을 넘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자아개념 전달 수단 및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소비를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를 하게 되며, 그에 충족할 수 있는 생산의 양은 과거에 비해 엄청날 정도로 많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에 걸맞는 상품의 생산은 무궁무진하여 소비자가 오히려 상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의 흐름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의 취향을 이용한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에 개 개인의 소비자는 나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무지의 상태이며 소비자만의 단합도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문화를 건전하게 재확립하고 승계하기 위하여 소비 철학 확립, 소비 환경개선 등의 관점에서 현실의 소비문화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문제는 청소년의 소비문화 현실을 제시하여 경제적 능력, 소비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비합리적인 소비 경향을 돌아보게 하여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출제하였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참다운 삶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논제 파악

(1) 문제의 이해

이 문제의 핵심 논제는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소비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소비문화의 원인을 밝히는 것, 세 번째는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소비의 태도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소비의 태도’가 이 문제의 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소비문화의 문제점과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어진 제시문 속에서 먼저 찾아볼 것

둘째, 바람직한 소비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시문을 찾아 근거를 마련할 것

위의 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 항목으로 정해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는 시작된다.

(2) 논점찾기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의 형태들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두드러진 사회현상 중의 하나는 이미 지금의 소비주체로 급부상한 청소년들의 소비 행위이다. 이들은 상품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른 구매보다는 이미지의 선호에 따라 행동하며 유행이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더 중시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경제능력과는 상관없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어느 때부터인가 청소년은 소비 주체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신세대를 겨냥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 소비자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충동구매가 강하고, 마음에 드는 상품은 꼭 사고야마는 집단 심리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물건의 유용성보다는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세대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그 또래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는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세대 소비자 집단에게 점령당하고야마는 현실이다. 또한 이미지 중심으로 소비의 행태가 바뀌므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변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시문 (가)와 (나), (나)-2에서 제기하고 있다.

제시문 (다)와 (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두 번째 논점은 바람직한 소비 태도 형성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문제해결

논점이 파악되었으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시문 속에서 찾아서 일반화를 해야 할 것이다. 해결해야 할 논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청소년 소비문화의 문제점을 지적, 그러한 소비문화의 원인을 밝히는 것,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소비의 태도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향은 문제인식, 원인분석, 해결책 제시의 문제해결형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제시문 속에서 청소년들의 부분별한 소비행태, 가치중심 생활중심이 아닌 계획성 없는 소비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며, 나)지문 속에서는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노예가 되는 현실, 이미지를 지배하고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외양문화중심, 내적 가치의 소실, 소비의 궁극적 가치 문제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2도 나-1)을 보완하는 역할로 청소년들이 상품자체보다는 이미지를 원하고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지문은 물질 중심 시대의 현대 문명이 갖는 위험성은 인간이 지녀야 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적현상, 상대로부터 평가받는 것에 익숙한, 가치가 전도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청소년들에게 참다운 삶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라)지문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의 해결책을 구조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가져야할 자세, 기업의 자세, 정부의 자세를 각 영역별로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위 문제의 논의는 귀결은 합리적인 소비, 소비가 개인과 사회에서 긍정적 의미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한 기업과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 및 소비자가 지녀야 할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시개요

• 서 론

- ① 현대 산업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됨
- ②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청소년은 다양한 물건들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 ③ 하나의 소비 주체가 된 청소년의 소비문화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뀌고 있음

④ 청소년의 소비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

• 본 론

1. 문제점

- ① 제품의 실용성은 고려하지 않고 브랜드와 가격을 중시함
→ 지위 상징,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함
- ② 주체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주위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소비를 함(동조 소비)
- ③ 계획성 없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물건을 구매. 예 : 제시문 가)

2. 원 인

- ① TV광고와 대중매체의 영향력
- ②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 분위기. 예: 제시문 나) 보르도의 '이미지의 동질화'
- ③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시기
→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려함. 예 : bidentity족
- ④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마련

3. 해결책

- ① 사회적 차원
→ 광고주는 인기 연예인이나 이미지만을 위한 광고보다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함
→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이 능동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함
- ② 개인적 차원
→ 청소년 스스로도 유행보다는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함

• 결 론

- ①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은 독자적인 구매력으로 하나의 소비 주체가 됨. 예) 제시문 다) '무소유'의 법정스님
- ② 청소년의 잘못된 소비 습관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하다면 크나큰 경제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③ 바람직한 소비 태도를 위한 노력 촉구

5. 예시 답안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이제 우리는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소비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소비의 메커니즘으로 등장하여 소비 사회에서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IMF가 닥쳤을 때 유일하게 계속 성장했던 부분이 청소년 관련부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소비문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소비 태도는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소비문화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살펴 알맞은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청소년 소비문화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제품의 실용성보다는 브랜드를 우선시한다. 이들은 특정한 브랜드가 그들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더 유명한 브랜드를, 보다 비싼 가격의 브랜드를 구입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우월한 지위를 지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속 없는 겉치레의

식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과시를 통해 다른 이들과 경제적 차별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부격차를 초래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이질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주체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주위의 영향을 받는 동조 소비를 한다. 청소년은 주위 친구들,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가고자 한다. 최근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입었던 무지개 스웨터 원피스가 인기몰이를 한 것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의 목걸이’, ‘○○○의 헤어스타일’ 등 특정 연예인을 모방한 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계획성 없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광고로부터 어떤 신제품이 나올 때, 청소년 대부분은 단지 갖고 싶다는 생각에 구매하는 이들이 많다. ‘지름길’란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세태를 우스갯소리로 종교화시켜놓은 것이다.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런 단어가 생김으로써 자신의 충동구매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재미를 느끼고 이를 정당화해서 이러한 소비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청소년 소비문화의 원인은 첫째, TV 광고 등 대중매체의 영향력이다. 대중매체는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이 감각 지향적인 소비를 하게 만든다. 매체에서 보이는 연예인들을 따라하면서 자신과 동일화하고 만족을 느낀다. 보르도는 이를 ‘현대의 시각 문화 안에서 특정 이미지의 재현은 동일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둘째, 길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그러므로 내실보다는 길모습을 꾸미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고 이는 잘못된 소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라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시기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변화 지향적이며 사회 반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 태도는 청소년기라는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시위주의 교육제도를 통해 얻는 정신적, 육체적 억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 상품의 소비를 통해 출구를 찾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이 되기도 한다. 즉,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소비규모는 하나의 소비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업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주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경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바람직한 청소년 소비문화는 정착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청소년 소비문화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중매체, 특히 광고는 정서가 불안정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 유명스타를 앞세운 과장 광고보다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소비문화가 과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소비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청소년이 대중매체의 능동적 수용자로서의 주체가 되기 위한 소비자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가정 내에서의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 요즘 세태와 맞물린다면 청소년 소비자 교육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소비문화를 개선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 스스로 대중매체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또 유행을 따라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무소유’ 범정 스님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소유의 원리이다.”라고 하

졌다. 이는 무분별한 소비문화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독자적인 구매력으로 하나의 소비 주체가 된 청소년들은 지금 잘못된 소비문화를 고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큰 경제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우리는 바람직한 소비 태도 교육과 캠페인, 개인의 의식 개혁을 통해 미래 사회의 소비문화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V

읽기자료

■ ‘작은 사치’ … 신 소비자군

buy + identity = 바이덴티티족

또 다른 트렌드 종족(種族)이 부상했다. 무엇을 구매하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하는 일련의 소비자군인 ‘바이덴티티족(bidentity)’이 최근 비즈니스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종족이다. 명품족과 이미지가 비슷한 듯 하지만 명품족에 비해 실제 그런 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서도 그들과 거의 동등한 삶의 수준을 원하는 것이 ‘바이덴티티족’의 특징이다. 경기호전의 기미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욕구를 억눌러온 ‘바이덴티티족’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 이미지를 위해 산다



500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가 내장된 ‘디카폰’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반적인 용도의 디카폰이라면 100~200만 화소면 충분하지만 필요 이상의 500만화소 디카폰에 집착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품가가 30~50만원대로 선뜻 구입하기 쉽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500만화소 디카폰을 사고 마는 이들이 바로 ‘바이덴티티족’이라 불린다.

물건을 사는 ‘buy’와 정체성을 일컫는 ‘identity’의 단어를 조합한 것이 ‘바이덴티티족’. 소비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해놓은 책 ‘종족을 찾아라’의 저자 서일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바이덴티티족을 ‘무엇을 사는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소비계층을 의미하는데 명품족에 비해 실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서도 그들과 거의 동등한 삶의 수준을 원하는 소비자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기능의 고가제품이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상품에 집착하는 소비자가 바로 바이덴티티족인 것이다. 그러나 바이덴티티족은 명품족이나 최신 모델제품을 먼저 사용해보는데 집착하는 얼리어답터와는 노선을 달리한다.

명품매장이나 신제품코너를 둘러보지만 금전적인 부담을 떨칠 수 없는 바이덴티티족은 명품보다는 이름값이 덜하고 최신모델의 제품보다는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서 감각적이며 품질과 개성을 지닌 소비재를 선택한다.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 우월감과 자신감을 지니고 싶기 때문이다.

아침에 ‘스타벅스’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패션소품처

럼 보이는 목걸이형 타입의 MP3플레이어인 아이리버社 'N10(512MB)'로 음악을 듣는 당
신도 바이덴티티족에 속한다.

■ 경제적 수준은 일반 샐러리맨

김정희 삼성패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덴티티족들은 자신의 금전적인 형편에 비해 조금의 부담을 감소하고자라도 자신이 드러내고자하는 하이레벨 지향의 이미지를 대신해주는 상품에 애착을 보이는 특징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경기속에서도 자신을 치장하는 한 두 가지 물건에 대해서 만큼은 자기만족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불사한다”고 덧붙였다.

여성 바이덴티티족의 대표적인 소비경향을 보여주는 예로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를 극도로 선호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화장품 브랜드 ‘SKII’의 트리트먼트기능의 파운데이션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 ‘장진영’이라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세우고 럭셔리한 이미지를 어필하면서 화장을 안해도 피부가 빛이 날 정도로 예뻐진다고 홍보하는 ‘SKII’가 여성 바이덴티티족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SKII’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담하는 동안 자신의 생활수준과 가치가 올라간 듯한 즐거움을 맛보고자 하는 여성소비자들이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덴티티족처럼 광고나 마케팅에 현혹돼 능력을 넘어서는 이미지 구매에 열을 올리는 소비심리는 최근 경기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패션은 매스티지급 브랜드 선호

바이덴티티족은 패션마켓에서 신명품 시장으로 불리는 ‘매스티지(masstige)’마켓을 크게 확대한데 한 몫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 코드에 맞다고 생각되는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디자인에 애착을 갖는 기질이 강하다.

매스티지급 브랜드는 디자인의 성격이 분명하고 어느정도 하이레벨에 속하면서도 명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바이덴티티족의 환심을 사고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중고가 세컨드라인인 ‘D&G’, ‘아르마니폴레지오니’의 ‘아르마니익스체인지’, ‘캘빈클라인’의 ‘CK’ 등은 불경기속에서도 바이덴티티족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며 호재를 부르고 있다. ‘D&G’는 작년 2월 압구정동에 오픈한 후 월 매출이 2억원대에 이르렀을 정도. 작년 8월엔 남성복으로 갤러리아백화점 패션관에 입점했으며 여러 백화점들에게서 입점 러브콜을 받고 있다.

편안한 실루엣과 다채로운 컬러레인지에 고급스러운 맛, 여기에 지난 2003년 디자이너 교체로 더욱 젊어지고 스타일리쉬한 코디를 강조하기 시작한 중가의 ‘라코스떼’도 매스티

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라코스페’는 현재 매장이 90개로 확대됐으며 롯데 본점 등 주요 매장에서의 점당 월평균 매출이 1억~2억원에 이른다.

또 바이덴티티족 중에는 ‘리바이스’, ‘폴로진’, ‘CK진’의 청바지 마니아도 많다. 글로벌 브랜드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가격은 10만~15만원 정도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매성향의 소비자집단 ‘바이덴티티족’의 환심을 사기 위한 브랜드의 전략으로는 확실한 캐릭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하이레벨지향의 고급스러운 맛을 살리면서 대중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의 홍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만의 독특한 소비행태를 지니게 되는 새로운 소비족들이 소비마켓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음은 분명한 듯 하다.

3



정보화 사회

I

주제 특강

■ 정보화 사회의 의미

1. 정보화 사회의 정의

정보화사회(Informatization Society),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는 동일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Information Society 또는 Digital Age등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정보화 사회란 말로 더 많이 사용한다. 정의를 내려보면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나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이행(移行)되는 사회”라 정의할 수 있다.

2 정보화 사회의 변화과정

19세기 이전의 사회를 농경사회라 일컬었고 이때는 가장 중요한 사회 바탕이 ‘토지’였다. 토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농산물에 의해서 삶과 교역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의 산업혁명이라 불리어 지는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사회는 산업사회 또는 공업사회라 불리면서 사회 바탕요소 역시 ‘자본’이 중심이 되었다. 자본에 의해서 생산시설과 원자재의 구입, 생산활동의 전개 및 상업의 형성 등이 가능했다.

20세기말과 21세기를 정보사회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의 바탕이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전이(轉移)현상을 정보화 혁명, 쿨트를 혁명이라 한다. 컴퓨터나 통신 및 제어기술에 발달과 보급에 의해 생산의 자동화(FA)와 사무의 자동화(OA)으로 일컬어졌던 부분적 변화가 정보화 혁명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

1) 정보능력과 정보의식

인간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정보들은 수집하고, 가공하며,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들 정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과 의식을 갖춘 인간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 검색하는 능력은 정보시대 매체를 다루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능력과 아울러 건전한 정보의식을 갖춘 인간상이 요구되기도 한다. 정보와 정보매체에 대해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시각을 갖는 인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민감하고, 합리적 태도를 지닌 인간, 정보의 선택을 갖춘 명백한 의식이 수반된 인간을 요구한다.

2)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터득하고 익히도록 요구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

들을 다루는 정보매체들이 새롭게 창출되게 된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창출은 통신의 발달에 의해 전세계 어느 지역으로나 확산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겪게 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개방적 윤리의식 등이 강조되고 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인간 사고의 유연성을 전제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 체계화시켜 나가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폐쇄성이 질게 되는 경향이 있다.

■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혜택

정보사회가 이미 도래가 되었고 실제로 정보 통신 기술이 가져다주는 생산성의 향상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것에 비해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는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화의 발전 속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졌다. 정보화에 따른 혜택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많지만 정보화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은 경제적 빈곤의 퇴치로서,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정치적 갈등, 폭력, 범죄, 인간 소외 등의 문제점들이 자연도태될 것이고, 정보화의 진척과 더불어 빈곤의 확실한 해소는 기술 발전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고도의 기술 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도 기술 사회에서 기술 발전은 가속적이고, 무한히 촉진되게 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은 경제적 빈곤을 해소시키고 빈곤이 해결되면 여타 여러 문제들이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정보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는 인간성의 상실, 비인간적인 인간관계 형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들 수 있고,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는 정보 불평등과 정보 독점 현상, 인간소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대별하면, 비인간화(dehumanization), 정보 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으로서 이들은 기존 산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문제점들이다.

1. 정보 공해

① 인간의 사고력 상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수 없이 쏟아지는 많은 정보로 인해 인간이 객관적인 정보와 선전 정보를 구별하기 어렵고, 인간의 모든 사고능력을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어 인간의 사고능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② 비인간적 인간관계 형성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여러 사람을 접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개인주의사고가 만연해지고 보편화되어 기계적인 인간이 되어 버릴 수 있고, 비인간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즉,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에 매몰되어 결국 개인의 주체성이 상실되고 거대한 기계 문명의 번두리를 맴도는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③ 신종 직업병 - 테크노스트레스

또한, 컴퓨터로 인한 일의 능률향상은 가져오지만,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게 되어

요통, 위통, 설사, 어깨결림 등의 부작용과 테크노스트레스(컴퓨터 기술을 건강한 방식으로 체득하지 못 하는 무능력에 기인한 현대병으로 자신을 컴퓨터와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타인에 대한 감정을 상실하고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욕구가 감퇴하는 증상과 컴퓨터 기술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신종 직업병이 생겨나고 있다.

④ 전자파 피해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자동차, TV, 컴퓨터, 전자오락게임, 전화기, 전자렌지 등과 같은 주방용품 등에서 생겨나는 전자파 피해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전자파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발생한다. 전자파의 피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될 수 있으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2.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매체가 확산되면서 정보의 집중화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가 누설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보가 중간에서 날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무책임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에서는 익명의 이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분이 잘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발언이 거리낌 없이 양산될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중상 비방, 개인 비밀의 무차별 공개 등과 같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불건전한 정보의 유포도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컴퓨터의 보급과 그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컴퓨터에 축적된 대량의 정보는 간편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정보의 전송이 용이하다. 따라서 한 기관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게 된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국가에서 개인이동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하여 큰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다. 모든 신상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다. 최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밝혀지고 있는 갖가지 사례들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임을 실감케 한다. 사생활 침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므로 수집된 데이터나 정보에 대해서 철저한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조직 활동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침해를 받게 된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컴퓨터에 있는 대량의 데이터나 정보는 특별한 보안 조치가 없는 한 단말기에서 간편한 조작으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고 또한 정보의 전송과 입출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소홀로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게 된다.

이 때 그 데이터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것이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어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컴퓨터 범죄

컴퓨터의 보급 발전에 따라 많은, 이른바 「컴퓨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오래된 것으로

는 몸값의 CD인출이나 은행원에 의한 부정송금, 최근에도 PC통신을 통한 이체서비스를 악용한 예금사취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여기서「컴퓨터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반드시 확립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논자나 논의되는 시기에 따라 포함되는 범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컴퓨터와 전기 통신회선을 접속한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네트워크 범죄」라 불리는 경우도 많다.

컴퓨터 범죄에는, 전자 계산기 손괴 등 업무방해죄처럼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범죄로부터, 전자게시판(BBS)상의 사기광고를 통한 판매대금 편취 등, 컴퓨터가 없더라도 유사범죄가 가능한 것(이것을 컴퓨터 범죄에 포함할 것인가는 논자에 따라 다르다.) 또한 범죄라고 까지는 할 수 없는 부정행위까지도 포함하여 논해지는 경우도 많다.

■ 바람직한 정보 사회의 구축

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기술적인 의미나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보 사회에 대한 논의도 그것이 어떠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한국적인 정보 사회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보 사회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사회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언제나 인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을 위한 정보 기술 이용과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그것을 관철해야 한다.

둘째, 정보 기술 개발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를 좁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보 기술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 문화적 격차, 정보 격차만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 간, 도농 간의 발전 격차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 사회의 네트워크는 중앙 집중적, 중앙 집권적 교통통신 체계와 서울 중심의 교통 통신 체계를 시정하고 중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 사회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은 상품이나 용역이 아니라 바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이른바 지식 산업이고, 그의 육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 산업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의 육성 문제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 사회의 내실은 전달 교환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의 향상과 함께 보도의 자유, 정보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의 자율을 극대화하고 관의 통제를 극소화하는 정부의 금욕주의와 함께 그것을 제도화하는 입법 조치나 행정 관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 통신 하드웨어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중요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통신도 결국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얌의 뜻만이 아니라 정다움도 나눠 갖는 지 정 의의 공유를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다. 정보 통신은 바로 그러한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는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산업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등장했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인간 생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정보화 사회가 산업 사회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I

기출 문제

■ 서강대학교(2003 대입, 논술고사 예시 문제 - 3차)

【문제】제시문 (가)와 (나)는 기술이 인간의 의식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을 참고하여 디지털 시대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이 생겨나게 된 원인에 대해 논술 하시오.

<가> 서구인은 문자 테크놀로지 덕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단편화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잘 보여 준다. 만약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지나치게 인정에 사로잡힌다면 제대로 시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밖에도 위험천만한 여타의 사회적 조작도 완전히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킨 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태도는 곧 관여하지 않는 태도였다. 전기(電氣)시대에는 우리의 중추신경이 기술에 의해 우리를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도록 확장된 동시에 전 인류가 우리 자신 속에 병합되도록 확장된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에 필연적으로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글을 배운 서구인이 취해 온 전형적인 태도인 초연한 듯하고 어딘지 유리된 듯이 보이는 태도는 더 이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조리극은 자신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 서구인의 모순을 극화(劇化)하고 있다.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에서 어릿광대가 등장하게 된 것도, 그가 그토록 호소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3,000여 년간 전문가와 전문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동시에 우리 몸의 기술적인 확장은 소외를 낳았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극적인 발전에 의해 압축되고 있다. 전기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제 지구는 단지 하나의 촌락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전기의 빠른 속도는 온갖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단숨에 하나로 통합시켜 버림으로써 책임에 대한 의식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흑인이나 청소년 같은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지위를 바꾼 것도 바로 이러한 통합작용이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의미에서 특수계층이 아니며 사회로부터 분리되지도 않는다. 전기라는 미디어의 덕택에 이제 그들은 우리의 생활에 포함되게 되었고 우린 역시 그들의 생활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충전성과 감정이입 그리고 깊이 있는 의식에 대한 시대적 갈망은 전기 테크놀로지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예전의 기계 산업 시대에는 개인적인 견해를 맹렬히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양식(樣式)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문화와 시대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나름대로 선호하는 지각 방식과 지식을 규정한다. 현대의 현저한 특징은 강요된 패턴에 대한 반발에서 찾을 수 있다. 갑자기 우리는 사물과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완전하게 선언하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태도의 근저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 조화

에 대한 깊은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 (중략)

논점을 밝히기 위해 전광(電光)을 예로 들어보자. 전광은 순수한 정보이다. 전광은 특별히 선전문구나 이름을 밝혀 보여주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일종의 메시지 없는 매체이다. 사실 모든 매체가 이 같은 특징을 갖는데, 이는 매체의 ‘내용’이 언제나 동시에 다른 형태의 매체임을 함축한다. 마치 전신의 내용이 인쇄된 글이고 인쇄된 글의 내용이 문어인 것처럼 문어의 내용은 말이다. 만약 누군가 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비언어적인 사고의 실제 과정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추상화는 마치 컴퓨터를 설계하는 경우처럼 창조적인 사고 과정을 직접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의 과정을 증폭시키거나 촉진하는 디자인이나 패턴의 심리적, 사회적 결과이다. 왜냐하면, 모든 매체와 테크놀로지는 우리 삶의 규모, 속도 혹은 유형을 변화시키며 그것이 바로 매체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철도가 사회에 유입한 것은 이동이나 수송, 혹은 바퀴나 길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도는 예전부터 존재해온 인간의 기능을 촉진하여 그 규모를 확장 시킴으로써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 일과 여가를 창출했다. 철도가 가져온 변화는 환경과 무관하며 – 열대 지방이건 한대 지방이건 상관없다 – 철도라는 매체가 운반하는 화물이나 내용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비행기 역시 어떻게 사용되든지 운송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철도적인 형태의 도시, 정치, 인간관계를 소멸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나> 접속의 시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몰고 온다. 바다의 신이자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졌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테우스처럼 새로운 <프로테우스>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자 상거래와 사이버스페이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문화 경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척척 적응한다. 그들에게 익숙한 세계는 이념적 세계가 아니라 연극적 세계이다. 그들의 의식은 노동 정신보다는 유희 정신에 기울어 있다. 그들에게 접속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연결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21 세기의 인간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교점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인적 자유의 의미는 소유권이라든지 남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능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대신 상호 관계의 그물망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미가 점점 부각될 것이다. 그들은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이다.

인쇄기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의식을 바꾸어놓았던 것처럼 컴퓨터는 앞으로 두 세기 동안 인간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른바 <닷컴> 세대에 속하는 젊은이들의 정신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벌써 주목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자라면서 많은 시간을 채팅과 전자오락에 쏟아 붓는, 아직은 소수이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중인격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의 의식은, 특정한 시간에 자신이 몸담았던 가상 세계나 네트워크와 어울리기 위해 이용했던 짧은 토막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략)

이에 대해 사람들이 실제로 접하는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정신없이 바뀌는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려면 사람의 의식도 험소한 굴레를 벗어나 좀더 발랄하고 유연하고 심지어는 찰나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가능하다. 요즘 아이들은 재산에 기

반을 둔 시장 경제의 특징이었던 내 것과 네 것이라는 전투적 관념이 좀더 상호의존적이며 공존을 지향하는 현실 인식에 자리를 내주는, 네트워크와 연결성의 세계에서 자라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는 경쟁보다는 협조가 중시되고 시스템에 입각한 사고와 합의의 구축이 강조된다.(중략)

이제 <접속>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의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접속이란 말을 들으면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 찬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구멍을 연상한다. 접속은 전진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약속하는 입장권이 되었고 몇 세대 전의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것은 울림이 큰 말, 정치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 되었다. 접속은 결국 구별과 분리의 문제다.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다. 접속은 우리의 경제관과 세계관을 재고할 수 있는 막강한 개념적 도구가 되었다. 다가올 시대의 성격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메타포가 되었다.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 유의사항 ◆

1. 1,6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서술하시오.
2. 본문부터 시작하고 한 편의 완벽한 글이 되도록 하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 예시답안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이라 불린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좁아졌기 때문이다. 넓디넓은 세계가 마치 한 동네처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정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혁명을 일으켰다. 이제는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더라도, 전화나 전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직접 도서관이나 백화점에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교육, 소비 등의 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변화는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이러한 표면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지탱해주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식에서 기인한다. 전기 매체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탄생시켰다. 제시문(나)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와 전자오락에 의해 길들여진 이른바 'N세대' 혹은 '네트워크세대'의 젊은이들은 일보다 유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념보다는 개그를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성적인 느낌을, 전문가보다는 매니아를 지향한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학연이나 지연 중심적 인간관계를 탈피해 자신과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상에 함께 구축한 가상세계에 의존해 살아간다. 이들에게는 국가와 민족조차 더 이상 예전의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들의 세계는 네트워크이며, 이들의 언어는 채팅이며, 이들의 우상은 웹 마스터이다. 어떻게 이토록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사회가 가능하게 됐는가?

제시문 (가)는 의식과 사회 변화의 주된 요인을 기술, 특히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등장에서 찾는다. 마치 문자나 인쇄술의 발달이 근대적인 의식과 사회를 가능하게 했듯이

전기 테크놀로지 역시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말과 생각과 생동을 배태하게 될 것이다. 전기 테크놀로지의 영향은 전기의 매체적 속성, 즉 순간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정보 전달에서 읽을 수 있다. 전기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켜 모든 이동을 순간적인 것으로 동질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정보를 하이퍼 링크를 통해 다발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분이 아닌 전체의 이동을 가능케 했다. 만약 주관과 객관,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시공간적 거리감을 전제한다면, 전기 테크놀로지는 주객과 피아의 구분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전자우편과 하이퍼 링크는 문자와 인쇄술에 의해 탄생한 개인주의와 국민국가를 해체하고 새로운 공동체와 지구시민사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세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순간적이면서도 전방위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더하여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고 질시보다는 이해를 숭양하는 조화와 공존 지향적 태도가 경주되어야 한다. 디지털 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에 접속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발부해준 셈이다. 이제 남은 일은 새로운 공동체가 문명과 문화를 겸비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일구어 가는 것이다.

정보화의 물결은 현대인의 삶을 근저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 스페이스로 대변되는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은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요구하고 있다.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주체는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컴퓨터로 연결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 아래의 문제를 꼼꼼히 읽고,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보화의 도래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 현실 사회의 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그에 대한 이해가 현대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활동은 현실 공간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나)와 (다)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논의해 보자.

(가)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들이 보이는 행동은 현실 공간과는 상당히 다른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것 같다. 이것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인간이 가진 특성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사이버 공간을 인간 행동이 다르게 표현되는 새로운 심리 경험의 현장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회의 미래를 잘 파악하기 위해 이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따라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도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현실 공간의 심리학 연구에서 잘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친절하고 냉철하며 이성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환경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자신을 100%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스스로 아주 친절하다고 생각하거나 평소에 아주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통한 채팅에서 아주 도전적이고 거친 표현을 쓰거나 심지어 욕설도 하는 현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은 인터넷이 현실 공간과는 다른 인간의 행동의 새로운 실험장이 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인간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또한 현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애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 공간을 통해 현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인식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은 현실에서 스스로 제한하였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경험을 통해 자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일을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의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심리적 경험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의 하나는 현실 공간에서 수줍고 암전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꾸미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도 현실 공간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얌전한 사람이 너무나 쉽게 불끈하고 거친 성질을 드러내기도 한다. 온라인 상에서의 대인관계의 특성 특히 공격성의 심리학은 바로 사람들이 쉽게 이메일이나 토론방에서 드러내는 거친 행동이나 이에 관련된 몇 가지 반사회적인 행동을 잘 설명해준다. 이것은 개인의 예절이나 인식수준의 문제이기보다는 이 공간상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인간 특성이자 이 공간의 속성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인간은 하나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자기 모습을 찾기 보다는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고 변신을 하려고 한다. 이런 단서들은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상적인 형태로 존재하기에, 몇 가지 단서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쉽게 만나게 될 뿐 아니라 이들과 아주 강한 정서적 표현도 쉽게 하고, 그 유대관계도 쉽게 그리고 극적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나 사회활동 방식이 변화되는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과 행동방식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 황상민, 「인터넷이 인간성을 바꾼다」

(나) 윈스턴의 등뒤에서는 텔레스크린이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서 지껄이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윈스턴이 내는 소리는 아무리 낮은 소리라 해도 다 기계에 걸려든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금속판의 시계 안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들리고 보인다. 그러나 언제 감시를 받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상경찰이 한 개인에 대한 감시를 어떤 계통으로, 또 얼마나 자주 행하는지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감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그들은 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감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 밖에 내는 소리는 모두 들리고 감감할 때는 제외하고는 자신의 모든 동작이 감시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했고, 또 그것은 본능처럼 습관화 되어버렸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물론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1킬로미터 저쪽에 그의 사무실인 진리성이 있다. 그 건물은 침침한 풍경 위로 희뿌연 자태를 보이며 높다랗게 솟아 있었다. 그는 막연하나마 씩씩한 기분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제 1공대의 중심지며 오세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런던이라고. 런던이 옛날에도 지금과 같았을까 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보았다. 그때도 지금처럼 낡은 19세기 가옥들이 늘어서 있고, 벽들은 나무로 떠받쳐 놓였으며, 창문들은 마분지로 덕지덕지 바르고 지붕의 함석판은 쭈그러들고 물을 둘러싼 담은 들쭉날쭉했는가? 그리고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핏가루 먼지가 풀썩거리고 버드나무 잎사귀가 돌더미 위에 뒹굴었는가?

— 조지 오웰, 『1984년』

(다) 사이버 공간은 현대사회에서 대표되는 컴퓨터 기술과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형성한 공간이며 우리 사회의 일부분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망각하고 속류적 시각으로 미래학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동적으로 전자민주주의 혹은 참여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된 공간이라는 수식어들로 사람들을 환상 속에서 허둥대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속류적 시각은 사이버 공간 독립선언으로 압축할

수 있는 ‘정보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들은 정보화 기술로 형성된 사이버 공간을 실공간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고’기술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되고,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공간’ 이기에 이러한 속류적 시각은 자칫 사이버 공간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본질을 규명하여 비인간적인 부분을 하나씩 밝혀내는 작업들은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사이버 공간을 더욱 인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데 무척 소중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이버 공간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자.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은 정보로 변한 뒤에 운동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은 개별 유형 노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한 두뇌노동에 의해 생산한 상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 이들 정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기적인 신호로써 bit단위로 저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감가상각되지 않고 누구나가 손쉽게 원본대로 복사가 가능하여 재생산 비용이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는 교환가치가 사실상 상실됨을 의미한다. 정보의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사적으로 소유할 때 내재된 모순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모순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은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상품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암호화기술을 독점하려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품의 생산자는 바로 사이버 공간 이용자, 즉 소비자들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이용자)들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은 자본의 속성상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이버 공간은 정보화 기술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자본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양식, 취미, 개인 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신들의 새로운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를 이용해 통신을 했을 때 개인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자동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는 비단 MSN뿐만 아니라, 하이텔, 천리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음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 이미 1997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업체(컴퓨터 통신포함)가 수사기관에 넘겨준 자료는 1995년에는 10만 8천 90건, 1996년에는 이보다 33.8% 증가된 16만 2천 8백건의 개인정보와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갔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199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비공개로 송 수신하는 정보까지 검찰이 몰래 감청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라는 감청 장치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네트워크라는 연결망을 통해 집중되며 그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물론이고 실공간에서조차 개인은 더욱 실자리를 잃게 된다.

◆ 유의사항 ◆

1.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200)자로 할 것.
2.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
3. 국어 어문 규정을 준수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 생각해 보기

♠ 출제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제시문 (나)와 (다)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 기능은 무엇인가?

♠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봅시다.

♠ 예시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1. 출제 의도

진정한 정보화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이나 하드웨어의 발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에 달려 있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적인 인간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날 인간과 기술, 정보가 맺는 관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점점한 다음 이를 참고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논제 파악

1)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활동은 현실 공간에서의 활동과 어떻게 다른가?

제시문 (가)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이다. 거기서 인간은 현실 공간과 전혀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은 하나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자기 모습을 찾기보다는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고 변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현실적 자아와 사이버 공간상의 자아의 불리나 괴리로 볼 수도 있다. 흔히 현실에서는 아주 안전한 모범생이 채팅을 하면서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제시문(가)의 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그 공간의 특수성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전자 우편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처음에는 아침에만 전자 우편을 확인하지만, 나중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시간만 있으면 확인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디지털 세상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양식의 행동 특성에 단순히 ‘중독’이라는 현실 공간에서의 용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동을 현실 공간의 행동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들이 보이는 행동은 현실 공간과는 상당히 다른 법칙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차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자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을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한다면 이후의 논의를 쉽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시문 (나)와 (다)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 기능은 무엇인가?

▶ 제시문 (나)의 경우

조지 오웰의 『1984년』은 미래 사회를 암울하게 예견하고 있다. 제시문으로 주어진 부분

을 보면 정보화가 이루어진 사회는 전체 사회가 하나의 사이버 공간으로 구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정보를 서유한 권력층은 거대한 통신망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텔레스크린을 통해 감시되고 통제되는 사회가 바로 미래사회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보(혹은 사이버 공간)이다.

조지 오웰이 예견한 암울한 미래상은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 정보 유출은 조지 오웰의 상상이 상상에 그치는 문제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제시문 (다)의 경우

제시문 (다)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진정한 평등이 가능하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부정하고 있다. 제시문 (다)의 필자는 사이버 공간과 실공간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기술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된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기술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현실 공간의 계급 투쟁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염려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인 측면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가장 먼저 염려하고 있는 점은 역시 정보의 독점과 개인 정보의 유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보를 독점한 거대 권력의 개인 통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내용이 제시문 (다)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이러한 부정적 기능은 사이버 공간이 ‘쌍방향적’이라는 그간의 해석을 사실상 무색하게 한다. ‘쌍방향’이라는 특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보다는 ‘평등한 흐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시문 (다)의 관점에 의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들의 모든 정보는 수집 보관 분류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들은 정보 수집주체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수정 및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보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도 기업비밀 혹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결국 사이버 공간은 거대한 권력이나 상업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며, 그로 인한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개인 권리의 통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문제 해결

그렇다면 결국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할까?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 근거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산업화 시대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사용하는 기계로부터 소외되고 오히려 지배받았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가상의 공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인류는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한편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모두 파괴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형성된 거대한 매커니즘 속에서 더욱 왜소해진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은 나름의 주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공간의 논리에 중속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기계와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여 공존과 조화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인 것이다.

4. 예시 개요

• 주제문

가상공간의 문화는 대중들에게 한층 더한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지만 대중 통제와 소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인들의 주체성 확립과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서론

정보 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현대인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확장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본론

①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는 다른 특수한 공간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현실에서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인간 관계를 맺고,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보이며 살아간다. 사이버 공간은 인간 관계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며, 새로운 문화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② 그러나 정보의 독점과 통제, 그로 인한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 기능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③ 사이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주체성 확립과 사이버 문화에 대한 대중적 참여와 견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결론

인간관계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는 가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상호간의 전면적 만남을 통한 진실 확인에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 역시 인간의 보편적 관계를 확대하는 공간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예시 답안

정보 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 공간 의외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지보다는 이메일을 이용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은행 업무 등을 처리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막연하게 상상되던 사이버 공간이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많은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범죄나 통신 중독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시문(가)에 언급되었듯이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는 다른 특수한 공간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현실에서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맺고,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보이며 살아간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은 하나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자기 모습을 찾기보다는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고 변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현실

적 자아와 사이버 공간상의 자아의 분리나 괴리로 볼 수도 있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사이버 공간의 무한한 활동 가능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간관계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며, 그 활동의 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기능만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시문 (나)로 주어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암울하게 예견하고 있듯이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고, 그 정보를 소유한 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다. 전자주민증 도입이 강한 반대에 부딪친 것도 정보의 독점과 통제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구조 전체의 변화를 초래하고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다)의 문제제기는 매우 타당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선언은 큰 의미를 갖는다.

사이버 공간이 날로 확장되는 현실에서 인간은 나름의 주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공간의 논리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수의 정보를 소유한 권력층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가상공간에서 기계와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때 그 공간에서의 정보 독점을 충분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관계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는 가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상호간의 전면적 만남을 통한 진실 확인에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전체 사회의 조화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 역시 인간의 보편적 관계를 확대하는 공간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V

읽기자료

■ 전자 주민 카드

1. 전자주민카드의 실시 목적

현 전자주민등록증의 문제점 개선과 각종 증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의 통합 필요성 및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다기능 신분증을 제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전자주민카드의 장점

- ① 행정 효율화와 비용 절감 : 비용 절감과 공무원 감축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는 1천억으로 추산된다.
- ② 국민 편의를 제공 : 멀리 본적지나 동사무소에 갈 필요 없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등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 ③ 범죄 예방 : 개인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돼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없어 신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에 주민등록증보다

우월하다.

3. 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1)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문제

전자주민카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이의 유출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는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의 공공기관, 기업이나 은행 등의 사설 기관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수집하기가 쉬운 만큼 유출되기도 쉬운데 정부에서 주장하는 데로 아무리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보유출 경로를 파악해 보면 크래킹에 의한 유출, 관리자 내부공모에 의한 유출, 기업 등의 사설 기관에 의한 불법적 유출이 이루어진다. 크래킹 방지를 위해 아무리 복잡한 암호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더라도 크래킹의 위협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암호기술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심지어 정보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조차도 완전 국가독점으로 되어 있는 암호체계들이 개발과 동시에 거의 파괴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의 기술로 이를 방지한다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따라 지금 분리되어 있는 등 초본 및 주민등록 기본사항과 의료보험, 국민연금관련 정보들을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행정전산망에 직접 침투하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학교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크래킹을 할 수 있게 되어 유출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할 뿐이다.

또한, 정보를 관리하는 내부관리자들에 의한 유출은 막을 수 없다. 전산화가 되더라도 사람이 하여야 하는 일이 있는 이상 그들 관리자들의 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는 피할 수가 없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유출 사건, 경찰과 구청공무원이 연루된 여권 위조사기단 사건 등 많은 경우 관리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에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은행과 기업 등에 의한 개인 신용정보유출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 개인정보의 법적보호

① 자기정보통제권과 접근권 보장

전자주민증 제도 실시이전에 개인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완전한 보장과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 보호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기정보 통제권은 우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권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천부적 권리에서 파생되어진 개념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알권리에 기반한 자기 통제권이 주어지고 나면, 자신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보 정정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정보를 일반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남용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극 보호해야 한다.

② 고지의 의무와 데이터주체 동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접근권 그리고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 혹은 기업 등 사설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경우 당사자에게 수집내용에 대해 통고해야 할 의무를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타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혹은 공개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뒤따라야만 한다.

3) 전자주민증 실시에 따른 사회적 문제 - 감시통제의 강화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지문 등 7가지 분야 41개 항목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알다시피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도 흔치 않지만 여기에 41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수록된다고 하면 국민통제도 이만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감시와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신분확인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지문이 포함되고 경찰청의 단말기와 휴대용 신분 확인기를 사용하여 즉석에서 신분확인이 가능하면 분명히 감시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4)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내용상의 문제점 - 개인의 자산, 금융관련 정보의 유추 가능성

전자주민카드에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그 내용에는 의료보험의 병적내용과 국민연금의 연금가입내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의 문제점은 의료보험 납부금액과 연금가입내역을 유추하면 당사자의 재산세 납부상황이 유추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자산정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합된 전자주민카드의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시켜 놓는다면 만의 하나 유출될 경우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만다.

■ 해킹의 피해와 대책

세계적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자 각국의 인터넷 업체 및 정부 기관이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에 있었던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인 야후가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3시간여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는 치명타를 입은데 이어 다음날에는 이베이와 아마존도 야후와 같은 기법으로 3시간 이상 사이트를 해킹 당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세계 인터넷 업체가 초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기상청과 국내 대검찰청의 '컴퓨터범죄수사단'의 웹사이트 해킹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해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 업체들도 해킹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대형 해킹 사건 발생 직후,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해킹피해를 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궁극적으로 해킹이 전자상거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해킹 방지를 위해 타인의 ID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컴퓨터망에 침입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신체 구금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을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쿄 경찰청은 60명으로 구성된 하이테크범죄 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인 시큐어소프트(대표 김홍선)가 대규모 연쇄 해킹사건과 앞으로 예상되는 해킹사고에 대비해 오는 29일까지 24시간 보안 전담반을

운영하고 정부 주요 부처의 보안 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큐어소프트의 해킹 긴급 대응팀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일반기업 금융기관별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보안 컨설팅본부의 안혜연 박사를 축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들로 구성해 24시간 비상대기 근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반면 이제 막 전자상거래 열기가 가열되기 시작한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의 거대 웹사이트를 혼란에 빠뜨린 형태의 해킹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대처할 경우 자칫 막 씩이 돌아난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싱가포르의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보안 기술에서 미국의 대형업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하고 회사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위협에 노출되기 쉬워 어려움은 더욱 크다. 싱가포르 호텔에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업체의 경영자는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활동조차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현재의 난처한 상황을 압축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해킹의 악영향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가 클수록 해킹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번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해킹사태의 공통된 방법은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Dos)으로 불리는 해킹기법으로 다량의 이메일을 전송시키거나 허위 거래 주문을 폭탄식으로 보내 업무에 마비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

이번 해킹 사건으로 야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광고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 최소 5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전한 인터넷사이트 인증제’ 도입 등 인터넷쇼핑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시스템의 안전을 인증하는 ‘안전한 인터넷사이트 인증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야후, CNN, 아마존 등 미국 유수회사의 인터넷 시스템이 해킹 때문에 사이트 접속이 3시간 넘게 중단되는 등 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준 것과 관련,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이 같은 내용의 해킹방지 종합대책을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15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침해사고 대응협의회’를 2월10일 긴급 소집, 해킹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해킹방지 국제협의체(FIRST)를 통해 해킹방지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방지 종합대책에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 신뢰성 기준 등과 함께 운영시스템이 갖춰야 할 안전성기준과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이 포함된 ‘안전성확보기준’이 포함돼 있다.

‘안전성 확보기준’은 한국정보보호센터, 민간 연구소와 대학의 보안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시스템 종합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대책위원회는 특히 기업, 대학, 쇼핑몰, 웹캐스팅, 포털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 운영시스템의 안전성 등 확보기준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우수사이트에는 ‘안전한 인터넷사이트 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4

법과 정의

I

주제 특강

■ 법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법은 하도록 허락된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사이를 분할한다. 금지하면서도 법은 자유를 주장한다. 어떤 일을 시작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은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의 영역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권리가 존중되고 지속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이 권리 안에다 그 책임의 힘을 설정해 놓았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반될 때, 권리가 힘에 호소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힘이 권리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가? 오히려 권리가 사용하는 것은 외부에서 덧붙여진 힘이 아닌가? 그러므로 권리의 본질 자체로부터 흘러나온 (의무의) 힘에 관련된 것과 권리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인) 힘을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만일 권리가 그것을 행사하게 만드는 힘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닌다면 권리는 그 자체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은 힘이다.

1. 법의 힘

모든 힘은 그 힘이 적용되는 것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물리적인 힘의 작용은 국가적인 차 원에서는 독재군주제로 해석된다. 거기에서 힘은 지배를 암시하는 능력을 행사한다. 전체 적인 정부를 묘사하기 위하여 몽테스키외는 역학에서 차용해 온 쇼크의 모델을 사용한다. 그것은 명령에서 복종에 이르는 변이의 무오류성과 순간성을 가리킨다. 몽테스키외는 <법 의 정신>(3권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제 국가에서 정부의 본질은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왕자의 의지가 일단 알려지기만 하면 그것은 반대표에 대해 던진 찬성 투표 만큼 이나 확실한 효과를 가진다.” 전제 정치 체계하에서 사람들은 논쟁할 수 없으며, 즉각 복종 하는 것으로 족하다.

힘의 힘은 그 실현에 의해서 유지된다. 반면에 법의 힘은 강제하는 능력에 근거한다. 명령 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권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것 이 아니다. 법은 명령하거나 요구하고, 사람들은 법에 복종한다. 그러므로 법은 자유 의지와 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힘은 육체와 서로 교통하고 육체에 전달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간의 육체는 자연의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예외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인 힘은 인 간을 겁 많은 동물로 취급한다.

법은 실행되기 위해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은 법의 합법성을 인정하 고, 법에 복종하거나 순응하기를 동의한다. 전체적인 국가와 법의 국가 사이에는 아무런 공 통적인 척도가 없다. 법은 멀리서도 그 담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키는가 하

는 능력에 의해서 강화된다. 법은 사람들이 복종하게 하기 위해 말하고 이해시킨다. 그러나 힘은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나타난다.

이제 법의 합법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즉 인간들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법이란 없다. 프랑스 사교의 전통에 의하면 법치 국가는 사회 계약에서 기인된다. 루소에 따르면 그것은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구한다. 만일 반대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반대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사회계약에 대하여>, 4권 2장) 일단 계약이 조인되면 다수의 원리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강제한다.

법은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법률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법률은 일반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일반적인 의지란 목소리의 수보다는 그 대상에 의해 정의된다. 의지는 그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대상에 적용될 때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이중 의지에 의해 고무된다.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호를 만족시키고자 한다. 반면에 시민으로서 우리 자신의 의지이기도 한 일반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공동의 이해를 추구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법률이 투표에 의해서 설립된다면 그 법률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법률의 명제가 그들의 의지인 일반 의지에 합치하는가 합치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압도적일 때 그것은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내가 일반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았음이 판명된 것이다. 만일 나의 개별적인 의견이 타인의 의지보다 우세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4권 2장) 이렇게 해서 법률에 대해 자유로울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다.

법의 힘, 그것은 바로 법률이다.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로 약속한다. 그것은 자율성으로서 자유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다.

만일 법이 우리 의지의 힘에 의해서 강화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다르게 보면 법은 분명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만일 법이 구속력이 없이 강제하기만 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 더 강한 힘이 누르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행사되는 힘을 거스를 수 없다. 법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법이 명령의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혀 존중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이 어겨질 때는 무력에 호소해야만 한다. 힘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하며, 정의와 불의를 결정하지 않는다. 법은 정의의 규범을 정의한다. 그러나 파스칼이 쓴 것처럼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다.”(<광세>) 힘이 상실된 법은 환상적인 이상의 발자취일 뿐이다.

물론 사람들은 법을 원하고 법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기질과 성벽의 일부가 끊임없이 우세해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법으로부터 멀어질 생각이 떠오른다. 오직 힘만이 그러한 생각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힘이 없으면 법은 모든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명제의 의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은 반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에게 호소한다. 따라서 공권력이 문제가 된다. 이 용어는 경찰의 부서와 형사 재판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힘은 그 어느 것에서도 법의 합법성의 토대를 세우지 않는다. 힘의 사용—그것이 암시하는 제재와 더불어—은 법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정부는 법의 위반을 견제하

고 벌을 줄 목적으로 힘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그 한 가지는 힘으로 법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힘에 근거하여 법을 세우는 것이다. 법은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제력은 법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법, 정의, 국가> 아르노 기그, 동문선

■ 법과 정의를 둘러싼 문제들

모든 법은, 자신이 명령하는 규범내용을 시민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는 정당하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 만일 어떤 법 X가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가령 교통법규에서 “빨간 신호등일 때 자동차가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이 규정은 옳지 않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은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모든 실정법은 자신이 지시하는 내용이 정당하며, 그대로 지켜질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실령 절차에 맞게 제정된 실정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실정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만일 실정법이 우리가 정의(正義: justice)라고 알고 있는 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어떤 부정의(不正義: injustice)의 기준이 있어서 만약 실정법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되는 실정법이 도덕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나빠서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상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실정법과 정의의 충돌은 민주적 입헌국가에서의 경우와 독재국가의 경우에 각각 다르게 해결되는가? 이러한 물음들이 우리가 법과 정의의 관계를 고찰할 때 다루어야 할 것들이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정의감’ (a sense of justice), 즉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지에 대한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부정의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는 데, 가령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우 느끼는 도덕적 분노이다. 이 정의감에는 일종의 가치판단, 즉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가에 대한 정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 (i) 자식들 중에서 형에게는 과자를 많이 주고, 동생에게는 적게 주면 동생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할 것(동등한 분배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 (ii) 시험채점 때 한 학생의 가족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실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었을 때, 다른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항의할 것(노력과 실력에 따른 채점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 (iii) 직장에서 공적이나 능력에 따르지 않고 가문, 학연, 지연 등의 기준에 따라 인사 이동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항의할 것(능력과 공적에 따른 승진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 (iv)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우에 차등이 있을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의 기회를 덜 주거나 거꾸로 비슷한 조건이라면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경우.

위 예들에서 보이듯 항의하는 측은 일정한 정의판단(=어떤 행위가 정의롭다는 규범적 판단)에 근거해서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iv)의 사례에서처럼 그 기준이 남성과 여성 측이냐에 따라 다르거나,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경우이다.

우리가 법과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강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제 집단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했느냐 하는 ‘법 적용상의 정의(正義)’ 문제이고, 둘째 집단은 그 법 자체가 정의로운가하는 ‘법 자체의 정의(正義)’ 문제이다. 첫째 집단의 정의의 문제는 그다지 풀기가 어렵지 않으나, 둘째 집단의 정의문제는 진정으로 어렵고 복잡한 논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안민정책포럼 <http://thinknet.or.kr>

■ 법은 정말로 정의로운 것일까?

법은 거의 모든 것일 수 있다. 1775년까지 계속된 ‘마녀재판’에서처럼 수십만 명의 인간을 몰살할 수도 있고,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계속된 ‘아우슈비츠 재판’에서처럼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수백만 명을 학살한 나치 범죄의 전모(全貌)를 밝혀낼 수도 있다. 아우구스 티누스 황제가 카이사르 암살범들에게 복수할 때처럼 원로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1789년 프랑스 혁명가들이 재판관이 되어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낼 때처럼 혁명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법은 정말로 정의로울 수 있을까? 로마법이 국가 반역자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하기를 원한다면, 나자렛 예수는 즉결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헨리 8세의 절대 왕권이 직계 왕자로 튜더 왕가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왕자를 못 낳은 왕비들은 어쩔 수 없이 단두대에 올라야 한다. 그리고 권력자 스탈린이 소련의 안보를 위해서, 1917년의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들을 법정에 세워 트로츠키의 명령을 받고 간첩 노릇과 반국가 폭력행위를 했다고 자백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숙청 재판은 그저 법적인 형식에 불과하다. 힘없는 법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역사 속에서 힘(권력)이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행사했던 적 역시 흔치 않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법과 정의는 자주 분열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결속력이 깨지는 곳에서는 그 시대의 대립적인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자유는 아테네의 민주적 개혁사회에서조차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 결국 이 철학자를 기다린 것은 독배(毒杯)뿐이었다. 또 독선적인 로마 교회가 목성 주기론에 관한 천문학 이론과 지동설(地動說)을 ‘신앙의 오류’로 간주했기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이론을 부정하고서야 화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게오르크 뷔히너는 스트라스부르로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공화주의 자유사상을 지킨 반면, 『헤센의 지방관리』 공동 집필자인 프리드리히 바이디히는 감옥에서 죽었다. 철학, 과학 그리고 정치의 위대한 이념이 기존 관념과 대립될 때, 법은 역사 속에서 대부분 보수반동주의자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정의는 재판을 통해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해적 클라우스 슈퇴르테베크와 고테케 미헬스가 공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죄를 의식하고 사형집행인 앞으로 걸어간다면, 정의는 재판을 하지 않고도 실현될 수 있다. 화학회사 그뤼네타 그룹은 10여 년 동안 온갖 술책을 사용하여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 수면제 콘테르간이 수천 명의 장애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법이 정의에 이르는 길은 멀고 도달하기도 어렵지만, 몇몇 경우에는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유도해낼 수는 있었다.

- <누가 역사의 진실을 말했는가>, 크리스티안 마이어 외, 푸른역사.

II

기출 문제

■ 경북대학교(2003년 정시)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는 서구에서 수용된 합리적 개인주의와 우리의 전통적 가치인 공동체주의가 왜곡되어 이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에도 (1)자발성과 관계성, 권리와 책임(의무),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을 사이에 두고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정의보다는 비합리적인 이기주의가, 화합과 조화를 모색하는 의리보다는 패거리주의나 연고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정의관과 우리의 의리관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작용하는 양상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문제】 위의 밑줄 친 (1)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아래 [자료]들에 나타난 정의와 의리의 개념상의 특징을 대비해서 밝히고, 그것을 근거로 아래 [예시]들을 참고하여 의리주의와 정의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자료 I]

서양의 정의 개념이 지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질차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이 질차는 분배가 공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장치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공정한 질차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양의 정의론에서 질차를 중요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분배나 계약 상황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마땅히 각 개인이 받아야 할 몫이나 소유 자격을 공정하게 분배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곧 사회가 이해상충으로 불가피하게 겪을 수 있는 갈등을 피하면서 협동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 참여하는 개인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광범위하고 평등한 자유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그 자유가 개인 사이의 차이를 심화시켜 해당 사회를 위협하게 될 때는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돌아가도록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정의는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차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의는 개인들의 좋아함과 이로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에 일차적으로 근거를 두며, 목적보다는 의무에 우선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자료 II]

전통 동양 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덕목은 정의가 아니라 조화를 지향하는 의리였다. 전통 동양 윤리에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화합과 인륜적 질서의 확립,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격적 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농업 생산을 위주로 했던 전통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거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물처럼 엮인 혈연 조직, 가문을 중심으로 한 학연(學緣)의 연계 속에서 개인들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동양의 윤리 도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간 관계와 계층적 신분 관계에서 요구되는 관계 질서의 확립에 그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의 권리나 몫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흐르게 된다.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우선하는 동양의 (특히, 유가적) 윤리 전통에서는 이익

분쟁이 발생할 때도 분쟁을 각자의 몫의 확인이라는 권리 중심적 각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서로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동양의 윤리 전통에서는 재판을 통한 법적 정의의 구현보다는, 인간적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맹자』와 『예기』 등의 유가 경전에는 임금과 신하간의 관계 윤리로서 의리를 말하고 있다. 이런 의리는 군신 관계에서 성립되는 도덕 규범이며, 친구 사이에서 요구되는 신의 혹은 아내가 지아비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인 절개 역시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도덕 규범이라는 점에서 모두 의리의 덕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의리의 덕목들은 때로는 사회적 역할과 관계된 의무를 지칭하기도 한다.

[예시 I]

일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비서가 나서서 모금한다. 아마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비서가 조성하더라도 그 의원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비서는 비자금에 대한 총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상관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일을 잘 해내는 비서를 두고 있는 의원은 자신은 다치지 않으면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비서가 지하철역에서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정확한 동기가 밝혀진 것은 아니나, 상관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죽으면 자세한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상관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시 II]

아마도 지구상에서 싱가포르만큼 사회 질서가 잘 정돈된 나라도 없을 것이다. 길거리에 담배꽂초가 없는 이유는 청소를 바로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예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이유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자발적인 협조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물을 틀지 않은 정도의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가히 엄청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화장실에서 물을 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 상호 감시하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범죄를 고발해야 하기도, 남편이 부인의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옛 동독 체제 아래에서는 실제로 전 국민이 비밀 경찰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물론 그 체제가 지향하는 정의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시 행위가 결코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설령 그들이 추구한 바가 진정으로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서로 감시하도록 만든 체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유의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내외(±100자)로 쓸 것.
2. 답지의 원고란에는 글의 제목이나 본인의 이름, 수험번호 등을 쓰지 말 것.
3. [자료]나 [예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이 모자라거나 넘으면 감점하며, 900자 미만은 0점 처리함.
5. 논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답안은 0점 처리함.

III

실전 문제

가)와 나)의 판결 관점의 차이점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의 ‘법’과 ‘정의’ 각각의 필요성과 어느 하나를 우선시켰을 때의 문제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논술하시오.

가)-1 사실관계

김모(78)씨는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李載克)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가)-2 판결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및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 1948년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이후 폐지됐으나 헌정질서와 괴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반민족행위의 위헌성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는 법원이 친일파와 그 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되찾는 것에 조력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원고가 법원에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의 측면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다만 이 판결이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1 사실관계

이완용 손자인 이씨는 증조부가 일제 당시 친일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매입했던 땅을 되찾겠다며 지난 88년부터 17건 1백여만평의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2 판결문

이완용 손자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 관념이나 민족 감정만을 내세워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비록 지난 48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적용된 예가 없이 3년 만에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권을 빼앗는 법률이 제정된 일이 없었다. 따라서 이 토지를 몰수할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던 만큼李씨에게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다) 법은 본질상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다. 즉 법은 모든 경우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공백이 생기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전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법률 제정자가 예견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새로운 상황이 출현하면 법률 제정자는 법의 이러한 결함을 매우도록 강요받는다. 사실상 정확한 법률이 없을 때 임신부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이 침묵하는 그곳에서도 판사는 판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정의의 상의 원칙이 아니라면 판사는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판례법의 체계가 발전되는 것인데, 판례법은 각 경우의 특수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정의의 유일한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법정의 영역이 존재한다.

요컨대, 우리는 정의를 법으로 요약할 수 없다. 엄격한 준법주의에 반대하여 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환기해야 한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정의에 대한 자신의 관념만으로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 법은 한편으로는 지식의 결함을 보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를 심판해야 하는 사람의 의지 박약을 보충해 주는 장점이 있다. 우선 후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재판에 있어서 그의 성향과 기질이 개입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혹은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바로 거기에서 정치적 사고에 대한 친숙한 격언이 자리잡는다.

법은 불변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의지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변덕스럽다. 그 심각한 불안정성 때문에 의지는 변덕스럽다. 의지는 매순간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해야 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법은 미리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우발적으로 돌변하지 못하게 준비시킨다. 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는 정의, 그러나 사소한 것 때문에 잊을 수도 있는 그 정의에 충실하게 남아 있을 것을 경고한다.

◆ 유의사항 ◆

1. 네 개의 지시문 모두를 적절히 활용하여 논제에 접근할 것.
2. 띄어쓰기 규정을 준수할 것(2300자 내외 ±200자)

■ 생각해 보기

- ♠ 문제에서 요구한 핵심 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 ♠ 글(가)와 (나)의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 사건에 따른 판결문의 방향이 어떤 입장을 토대로 진술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 ♠ 글 (다)와 (라)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어 또는 중심 문장을 찾아보자.
- ♠ 각 제시문들을 핵심 논제에 맞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IV

해설

1. 출제 의도

민족과 국가를 구성하는 성원에 비례하여 그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한다. 사건의 발생원인은 근본적으로 가치관과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완시켜주는 제도적 장치가 ‘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법은 아니 법을 지키는 것은 삶 자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정글의 법칙’에 만족하지 않아 도덕이니 정의니 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요인들을 제한하려 한다. 또한 이것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법’의 측면과 ‘정의’의 측면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번 문제는 바로 이러한 법과 정의의 상충 상황을 제시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의 집행과 정의의 관계를 고민해보자는 데에서 출발한다.

2. 논제 파악

(1) 문제의 이해

이 문제의 핵심 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과 정의’의 필요성, 둘째, 법과 정의 중 어느 하나를 우선했을 때의 문제점 셋째, 바람직한 법과 정의의 관계이다.

따라서 논제의 전개 방향은 ‘바람직한 법과 정의의 관계’가 최종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본 문제 파악하기

둘째, 제시문 (다)와 (라)의 중심 내용이 의미하는 바와 주어진 문제와의 관계 파악하기

셋째, 위에서 언급했던 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제시문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고민하기

위의 세 가지 조건이 해결된다면 비교적 쉽게 글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람직한 법과 정의의 상관 관계’를 따져 보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출발시켜야 할 것이다.

(2) 논점찾기

우리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삶의 양태가 다양해질수록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보편적 정서에 기반하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

문제에서 주요 논점을 먼저 글 (가)와 글 (나)의 판결 관점의 차이점을 찾으라고 했다. 따라서 글 (가)와 글 (나)의 사건의 특성을 먼저 파악한 뒤 판결문에 담겨 있는 취지의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다음에 이어진 글 (다)와 글 (라)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과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 문단이 곧 글(가)와 글(나)의 사건은 유사하나 판결은 상이한 제시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속에서 ‘정의’라는 말은 ‘다수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만큼 정의의 또 다른 측면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3. 문제해결

위 단계에서 논제의 핵심은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바람직한 법과 정의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다. 먼저 글(가)와 글(나)에 제시된 내용은 법원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 놓은 글이다. 이는 법과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나타낸 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제시문 중 (가)와 (나)를 이용하여 정의와 법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 하게 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끌어 내야 한다. 따라서 법을 우선시 할 때의 문제점과 정의적 차원을 우선시 할 때의 문제점을 글(다)와 (라)를 바탕으로 서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의 최종 단계인 바람직한 법과 정의의 관계를 찾아내야 한다.

글(다)에서 “법은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을 명문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 기준이 법 집행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라)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상대적인 가치 적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불변적 성격을 띤 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정의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일까? 각각의 영역을 우선시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을 토대로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상호 보완의 성격으로 모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4. 예시 개요

• 서 론

- ① 신문에 법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음
- ② 최근 친일파 자손이 선조가 친일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음(제시문 가, 나)
- ③ ‘법’과 ‘정의’의 필요성과,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제기

• 본 론

1. 법과 정의의 필요성

- ① 정의의 필요성
→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 속에서 이를 해결하는 법의 판단 기준은 ‘정의’이어야 한다.(제시문 다 사용 -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법정의 영역에서 판사의 판단기준은 ‘정의’임)
- ② 법의 필요성
→ 추상적인 정의를 구체화해 주는 것이 법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제시문 라 사용 - 판사의 주관적일 수 있는 판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법’임)

2. 법과 정의, 어느 하나를 우선했을 때의 문제점

- ① 법과 정의, 어느 하나만을 우선하면 안 됨 - 상호조화가 필요함
- ② 제시문 가 - 정의를 우선한 판결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③ 제시문 나 - 법을 우선한 판결 →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됨

3. 법과 정의의 관계와 바람직한 방향

→ 따라서 상호조화가 필요함을 강조

→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지키는 자들의 노력도 필요함을 제시

• 결 론

①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의는 필요함

② 법과 정의는 어느 하나만을 우선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③ 정의는 법의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정의의 여신상 제시)

5. 예시답안

신문을 보면 간혹 법에 관련된 기사들이 눈에 띈다. 그러한 기사들을 읽다보면 법과 정의는 무엇이며, 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 친일파 자손이 선조가 친일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 여기 두 기사를 보면 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법과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과 정의 각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이 사안처럼 법과 정의의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사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충돌과 갈등 속에 살아간다. 이를 해결하는데 법은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때 법은 인간의 갈등과 충돌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결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가치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리고 (다)처럼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법정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판사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데 그의 판단 기준은 정의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의는 법 없이도 실현될 수 있는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의는 추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실생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 무엇이 정당한지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 적용할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가 법이다. 그리고 판사도 인간이므로 판결에 주관적일 수 있다. 이때 (라)처럼 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법과 정의가 상충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만약 정의를 명분으로 법을 어긴다면 사회는 무질서해지며 평등과 인간 존엄보다는 불평등과 비인간화가 사회를 지배할 수가 있다. 법만을 강조할 경우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과 가치가 무시될 수도 있다. 법은 정의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이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이 정의일 뿐 정의가 곧 법은 아니다. 따라서 법이 정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럴 때 법만을 강조해 버린다면 법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법과 정의는 상호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 (나)를 보면 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법과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친일 행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던 기회주의자인 친일파의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것이다. (가)에서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친일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정법상 친일파의 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을 법률이 없다. 따라서 정의 실현을 위해 친일파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 이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소급입법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하여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입법은 법치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 법의 기본이 되는 법적 안전성을 해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보다는 법을 우선하여 정의를 버리고 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을 법이 보호해준다면 오히려 법이 위법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위해 싸우고 독립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 대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배국행위를 한 자들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양성할 문제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의실현을 기본으로 하는 법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법적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정의적 관점에서 그들의 재산권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정의와 법의 상호 조화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지키는 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정의의념과 법이 존재한다 하여도 법을 정의의 관념에 맞게 쓰지 못하거나 법을 정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의만을 강조할 경우 사회는 안정성을 잃을 수 있고 법만을 강조할 경우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과 가치가 무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과 정의는 상호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의와 법의 상호 조화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지키는 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의의 이념과 법이 존재한다 하여도 법을 정의의 관념에 맞게 쓰지 못하거나 법을 정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정의는 법의 이념으로의 역할을 하고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의 여신상은 사사로운 정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눈을 감고 있고 한 손씩 저울과 칼을 들어 엄격함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법의 이념이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이루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V

읽기자료

■ 삶의 질서로서의 규범

규범은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질서이다. 인간의 행위와 활동 속에는 어떤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 바르고 선하고 이성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질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 주며, 목표를 지향하게 하는 규칙이 되고, 삶의 도우미가 된다. 이런 질서체계가 밖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우리는 ‘삶의 형식’, 또는 ‘제도’라고 부른다. 형식과 제도는 이미 객관화한 삶의 질서들이다. 삶의 질서, 삶의 방식은 모두 행위규범이란 말과 같은 의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들을 행위규칙, 행위원리, 도덕법칙 등의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그 물건의 품질을 정하는 것을 표준규격(standard)이라고 한다. 한국

의 표준규격(KS mark)이 있듯이, 일본에도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이 있고 독일공업품 표준규격(Deutsche Industrie Norm)도 있다. 우리는 이런 규격에 맞추어서 생산된 상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규격에 맞는 삶이 있다. 이런 규격을 떠난 삶을 규모가 없는 삶이라고 한다. 다만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규격을 행위의 '규범'이라 부른다. 상품은 이미 규격에 맞추어 완성되었지만 규범은 삶이 어떤 목표나 목적을 지향해가면서 완성되어가는 전 과정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을 실현할 어떤 목적을 갖는다.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자기실현의 목표는 개인과 집단의 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인간은 부단히 덕과 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들은 다음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덕과 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시키는 대로 임의적으로 삶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는 질서를 따라 진정한 자기를 실현한다. 각 문화와 사회는 각기 다른 자기실현의 양식, 또는 다양한 삶의 형식들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인 형식의 제도로 확정시켜 놓고 있다. 삶과 행위의 목적에 관련된 질서체계는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기를 실현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이 질서에 자신을 유연하게 일치시켜 가면서 사회화해 간다.

규범(Norm)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의 기원을 찾아보아야 한다. 'Norm'은 고대 그리스시대의 건축에서 사용했던 '카논'(kanon)과 '그노몬'(gnomon)의 라틴어 번역인 '노르마'(norma)라는 말에서 왔다. 카논과 그노몬은 건축공사에서 사용했던 도구인 자(尺)를 말한다. 직각자, 곱자, 수준기(水準器, libella), 다림추(수직여부를 보는 추, perpendiculum), 먹줄(Richtschnur/Richtlinien, 이 말에서 지침이란 말이 나왔다) 등이 모두 그것이다. 모든 건물은 먹줄과 수준기, 그리고 다림추의 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지어졌다. 이 카논이란 말을 키케로(Cicero)가 노르마(norma)와 레굴라(regula)로 옮겨 자신의 법철학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건축기술에 사용되었던 말의 의미에 맞게 그는 자연을 노르마로 설정하여, 바름과 바르지못함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자연은 법률의 기준이기도 하다. 노르마는 보편적 이성법칙이다. 자연에 이성이 각인되어 있어서 자연은 바로 이성의 법칙과 같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질서와 이성의 질서에 따르는 삶이 바로 바르고 선한 삶이 된다. 이런 뜻에서 노르마는 인간의 삶에 특정한 기준을 설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노르마는 잘못되고 왜곡된 삶을 수정해 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규범은 곧장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허용된 것, 즉 명령과 금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는 기준이 되고 있다. 17세기 독일에서 규범이란 개념이 사용되었지만, 이때는 주로 법률적인 뜻에서 쓰였고, 규범이 도덕 철학에서 의미를 획득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이다. 20세기에 비로서 규범 개념이 독일어권에서는 윤리적 성찰의 근본개념이며 학적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법률학에서, 그 뒤에는 윤리학과 도덕 신학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역사학, 사회학, 사회과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질서체계로서 규범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해석, 정돈, 형성의 모든 규칙체계, 규칙형식을 특정 짓는 기본개념이 된다. 이것들은 모든 인간적 행위에 대해 책임, 인정, 동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행위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질서나 규범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규범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특정 문화의 질서를 특성에 따라 서술하고 거기서 규범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동기, 관심, 소

망, 의도에서 드러나는 삶의 형식들로부터 규범을 밝혀낼 수 있고, 이들의 구체적 행위나 집단에서도 규범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규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정적인 삶의 형식이 바로 규범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형식은 우연히 또는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서 또는 일정 기간에서만 지속되는 행위일 수 있다. 그것이 규범이 되려면, 개인과 집단의 삶과 행위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선하고 행복한 삶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 주고, 삶의 방향을 정해 주고, 삶을 실현하도록 도와주고, 마침내 제도화한 규범에까지 이르러 규범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범이 개인, 민족,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넘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의 질서가 될 수 있을까? 보편적인 행위의 규범이 너무 추상적이게 되면 구체적인 상황에 속한 행위자가 볼 때 공허하거나 무기력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어떤 규범에 따라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역사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규범은 전혀 변화하지 않은가? 아니면 불변하는 규범이 있는가?

<우리말 철학사전>, 우리사상연구소, 지식산업사.

5 **영** 교육과 청소년

I

주제 특강

■ 인간행위로서의 교육

교육을 일종의 인간 행위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기르고 돌보고 훈련하고 학교에 보내고 하는 등의 활동들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반드시 어떤 제도적 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어느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 학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이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완성된 후에 점차적으로 노쇠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적인 심리적 정신적 능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의 성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한에서는 학습을 필요로 하고,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한에서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즉 교육이라는 인간 행위는 이러한 학습의 필요에 부응하는 노력이다.

인간의 성장이 균형을 이루고 성장의 욕구가 의미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학습의 기회와 과정을 제공받음으로써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육의 가치지향성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과정이다. 교육을 의도적인 인간 변화를 위한 행위로 이해할 때, 교육은 인간의 변화에 관한 것이며 무엇을 성취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적 가치 혹은 교육목적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활동은 아동 또는 학생에게 가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 사회제도로서의 교육

대체로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이나 규범이나 사상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제도적 규칙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조직, 가르치는 방법의 선택, 가르치는 시기,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등은 모두 제도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오늘날 학교 중심의 공교육 제도는 제도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1) 교육제도의 형식성

어떤 형태의 교육 활동이든지 간에, 그것이 참으로 교육답거나 교육답지 못하다는 것을 분별하게 하는 ‘공적인 기준’을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분별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그 교육 활동은 ‘제도적 형태’를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사회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 비하여 교육적 판단의 기준이 좀더 객관화되어 있고 제도적인 규칙들도 좀더 명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을 흔히 ‘형식 교육’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 투자적 동기와 복지적 동기

교육은 예부터 개인적으로는 입신출세의 수단이고, 국가적으로는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여겨왔다. 수단이기는 하지만 교육은 비용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실현하거나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육은 어떤 의미의 생산성을 지니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란 더 많은 부가적 가치를 생산할 것을 기대하고 재화나 노력을 바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교육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으로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은 인간의 삶에 대하여 ‘복지’로서의 가치를 생산하여야 한다. 복지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교육은 분명 복지적 동기를 지닌다.

따라서 교육은 사회가 인력을 충원하거나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계획할 때의 동기 즉, ‘투자적 동기’와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봉사하기 위한 ‘복지적 동기’를 모두 지니고 있다.

— 교육학 개론, 황정규 이돈희 김신일 저, 교육과학사

■ 요즈음의 달라진 아이들

1) 20세기의 성인과 21세기의 학생

산업 사회에서 성장한 기성세대와 정보화 시대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그 가치관의 마찰을 일으킨다.

산업 사회는 기계 중심의 물질문명 사회로서 기계화, 표준화, 효율성, 대량생산, 집단화, 위계적 질서, 충성, 상명하복 등의 가치가 중시됐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며, 수평적 인간 관계를 보편화하고, 다양성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의 다원화 추세에 부응해 다원주의적 가치체계가 주류를 이룬다.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이 커지고 생활양식과 의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가치관의 다원화는 불가피하다. 흑백논리와 같은 단원적 가치관으로 다원화 사회를 보면 혼란과 모순이 가득하다. 그러나 다원화 사회는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성의 조화를 선호한다. 사회적 가치관이 다원화될 때 개인은 가치 다원주의 의식을 갖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 못지않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보화 사회의 가치체계는 비물질주의에 바탕을 둔다. 산업 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였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과도한 추구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만연시켰으며 인간관계까지도 화폐를 매개로 하는 물질관계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천연자원이나 하드웨어보다 인적자원 및 소프트웨어가 더 귀중한 자원이 된다. 정보화사회에

서는 양적, 물질적 관계보다 질적 비물질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를 출세하기 쉽다는 법대, 의대 등에 보내기 위해 몰아붙이는 사고 방식을 벗어나서 자녀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세대에는 절대 빈곤은 없을 터이니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직도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지 않아 판사, 검사, 의사, 교수, 연예인, 공무원 등 전통적으로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어 온 직업을 손꼽고 있지만, 정보화 시대가 정착되면 될수록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비물질적 가치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직업이 인기 직업으로 변할 것이다.

2) N세대

요즘의 아이들은 통신, 교육, 취미, 오락 등 생활 전분야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휴대폰, 노트북 또는 PC, MP3가 기본 장비인 N세대는 하루 생활을 이메일로 시작하고 쇼핑도 사이버 세계에서 해결한다.

게임도 네트워크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나 티베이런전을 선호한다. 사이버 공간이 N세대들에게는 학교이자 놀이터이며 백화점이고 카페이다. 특히 N세대는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물품에 대한 정보 전달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며 모방 의식이 대단하다. 그러므로 시장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 이들이 창출하는 시장만도 연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돼 이들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기업 성공의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N세대는 77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로 인지 능력이 생길 때부터 컴퓨터와 친숙한 젊은 층을 가리킨다. N세대는 쌍방향 통신으로 논쟁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능동적인 특징을 지닌다. N세대는 ‘넷 세너레이션(NetGeneration)’을 뜻하는 말로 미국의 사회학자 돈 탭스콧이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는 N세대를 디지털 기술, 특히 인터넷을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적 삶을 영위하는 세대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다른 새로운 가상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분방한 직업을 선호하는 미래의 소비자이자 21세기의 주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3) 신세대와 대중 미디어

청소년들이 미디어 문화 상품의 중요한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다. 가수들이 새로운 판을 내어 많이 팔려면 10대들이 좋아하는 곡이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볼 때 괴기스럽기까지 한 뮤직 비디오를 하루 종일 시청하고 노랫말을 따라서 흥얼거리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염려스러운 점은 미디어에 접촉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점과 이것이 어린 시절에 잠시 즐기다 마는 유형의 문화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 문화는 미래의 문화, 미래 사회를 예측하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미디어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분석틀이 그 하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틀에 맞추어 본 청소년 미디어 문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설, 영화 같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각 단위들이 인과적 관계로 구성하기보다 각기 파편화되어 구조화되지 않은 채 느슨하게 병렬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대중 영화에서 이야기가 사라지고 대중가요에서 멜로디가 사라진다. 이야기 중심의 영화가 아닌 볼거리 중심의 영화, 멜로디 중심이 아닌 리듬 중심의 노래가 청소년 대중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야기 문화가 아니라 이야기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 문화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감각 지향적 측면이다. 인간의 감각은 쉽게 싫증을 내고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는 면역되어 심드렁해지기 쉬워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보다 큰 강도의 것 혹은 보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의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서 엿보이는 폭력의 에스칼레이션 현상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실과 픽션의 구분이 혼돈되어 있는 문화이다. 현실과 픽션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서로를 간섭하기도 한다. 픽션이 현실 속에서 현실이 픽션 속으로 끼어들어 간섭하기도 한다. 전자게임의 특징은 그것이 모의 문화라는 점이다. 전자게임의 세계는 픽션의 세계이고 그 속에 단순화된 이야기가 픽션의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세계이다. 픽션은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세계이지만 놀이하는 사람의 개입에 따라 그 진행 양상은 다양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 물론 이 변화의 가능성 역시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한정적인 것이지만 최소한 놀이이자 자신은 그 세계를 통제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 착각을 갖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요즈음의 아이들, 박경숙, 교육과학사

■ 모두를 위한 인간 교육

1) 인간에 대한 관심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의 삶에서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학교는 왜 다니는가? 최소한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하는데 공헌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은 학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교환하고 활용하는 곳, 사람을 만나는 곳, 문화를 공유하는 곳, 스스로 성장하고 커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이 최대한 넓게, 높게, 깊게 그 가능성을 실현함을 도와주고 그에 필요한 여러 인간적 특성과 능력들을 기르는 데 있다. 인간다움의 특성으로서 가능성, 자아로서의 인간, 자유, 창조, 몰입, 용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들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이 집단주의, 입시위주, 수단주의에 의해 인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자각하고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다. 지식 교육,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 사회성 교육, 정서 교육 등 모두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말로만 끝나고 실천되기 어렵다는 강한 예감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목적과 내용을 결정할 때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고, 서로 공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미래의 사회에서 살아 갈 어린이를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면, 학교가 생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도덕적, 지적 발달을 위한 통합교육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마련하게 된다. 성격과 가치관과 태도, 습관과 대인 관계, 이성적 사고 능력 등의 형성이 그들의 발달과업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지적 발달은 물론, 사회적, 도덕적 발달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려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자율성, 사려 깊은 사고, 내적 동기, 친사회적 가치의 이해, 학문적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여야 한다. 학습방법으로는 문학작품의 활용, 관계 맺기 훈련, 학급규범 설정 및 유지, 문제 해결적 접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협동학습, 학교 전체 단위의 활동 등이 있다.

4)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교육

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그에게 맞는 목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의 꿈과 희망이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은 분명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개별화된, 가능한 한 많은 선택이 주어지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수업, 평가에 매달리는 수업에서는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의 성과를 숫자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자아 존중감, 문제 해결, 정보 활용, 목표 설정, 창의성, 지역 사회의 이해, 직업 의식, 의사소통, 질 높은 직업성과 체제의 이해, 통합적 사고 등의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자율적인 능력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개인이 각자에 맞는 목표에 따라 교육 받으며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II

기출문제

■ 성균관대학교(2001년 대입 논술)

【문제】 아래에 제시된 고대의 신화나 설화들은 각기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함의들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성격을 검토하는 데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 이에 비추어 청소년 문화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논술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문화의 어떤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1) 소재(素材)로 제시된 어휘들 및 자료문들을 반드시 모두 활용하고, 2) 논의의 내용들이 각기 자료문 중 어느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드러나도록 하시오. 또, 3) 소재 어휘들 및 자료문들이 제시된 순서에는 구애받지 말고 논술하되, 논술문 가운데 등장하는 소재 어휘에는 밑줄을 그어 그것이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시오.

소재 어휘 : 스타, 자아, 벗, 사이버세계, 욕망, 관계

(가) 효성왕(孝成王)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어진 선비 신충(信忠)과 함께 궁전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며 말했다. “뒤편 내가 만약 그대를 잇는다면 나는 이 잣나무와 다를 바 없으리라.” 신충이 일어나 절했다. 몇 달 뒤, 왕이 즉위해 공신들에게 상을 내렸으나 신충을 잊어 버리고 그 상 받는 이들에게서 빠뜨렸다. 신충이 원망하면서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자,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말라버렸다. 왕이 괴이히 여겨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했더니, 신하들이 그 잣나무에서 노래를 발견해 왕께 바쳤다. 왕이 크게 놀라 말했다. “정사(政事)에 골몰

하다 보니 옛 땡서를 거의 잊을 뻔했구나.” 왕이 곧 신충을 불러 벼슬과 녹을 내리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나) 내가 한번 불사(不死)의 도(道)에 대해 말해 보리라. 동해에 새가 있는데 이름을 의태(意怠)라 하오. 그 새의 됃됨이는 무능한 듯하여 느리고 높이 날지 못하오. 날 때에 같은 새 때의 도움을 얻어서 날고 머물 때는 새 때 속에 끼어 있으며, 날아갈 때 앞장서지 않고 물러설 때는 쫓무니에 처지지 않으며, 먹을 때도 앞에 나서지 않고 반드시 그들이 먹다 남긴 것을 먹소. 그러니까 이 새는 그 행렬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지도 않소.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재난을 면할 수 있는 거요. 곧은 나무는 먼저 벌목되고 단 우물물은 먼저 말라 버리오.

내가 선생을 보니, 선생은 자기 지식을 꾸며서 어리석은 사람을 놀라게 만들고 스스로의 행실(行實)을 닦아 남의 잘못된 행동을 돋보이게 하며 마치 해와 달을 들고 가듯 자기자랑을 했을 거요. 때문에 재난을 면하지 못할 것 같소.

(다) 바다의 요정 세이렌의 노래에는 듣는 사람에게 마법을 거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세이렌의 섬을 지나던 배의 선원들은, 운수 나쁘게 일단 세이렌에게 걸려들기만 하면, 그 알 수 없는 매혹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곤 하였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충고를 듣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아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단단히 묶고 세이렌의 섬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일행이 세이렌의 섬을 통과할 즈음 잔잔한 바다 어디에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가락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이었던지 오디세우스는 밧줄에서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한편, 큰 소리로 외치며 온갖 몸짓으로 제발 밧줄을 좀 풀어달라고 부하들에게 애원했다. 그러나 부하들은 그 전에 받은 명령대로 그에게 달려와서는 밧줄을 더 단단히 묶었다. 항해는 계속되어 노랫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오디세우스는 무사히 세이렌의 섬을 빠져 나온 것을 기뻐하면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어 귀에서 밀랍을 뽑아내게 했다. 부하들도 오디세우스를 돛대에서 풀어주었다.

(라) 나르키소스의 관심을 끌려다 하릴없이 소박만 맞은 요정인들에게 나르키소스에게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복수의 여신 네베시스가 이를 듣고 그 요정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 산 속에 아주 물이 맑은 샘이 하나 있었다. 물이 어찌나 맑고 곱게 빛나던지, 양치기도 그 곳으로는 양 떼를 몰지 않았고 숲 속 짐승들도 그 곳으로는 가지 않았다. 동물뿐만 아니라 낙엽이나 부러진 가지도 그 샘물만은 더럽히지 않았다. 어느 날 사냥에 지친 나르키소스가 더위와 갈증에 쫓겨 그 샘가로 왔다. 그는 물을 마시려다 수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다. 나르키소스는 뉘를 잃고 수면에 비친 이의 빛나는 눈, 디오니소스 같은 머리카락, 상아처럼 흰 목, 조금 벌어진 입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온몸을 정신없이 내려다보았다. 나르키소스는 그만 그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그는 그 그림자에 입 맞추려고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는 그 사랑스러운 몸을 끌어안으려고 두 팔을 물속에 담갔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달아났다. 잠시 후면 다시 나타나 그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나르키소스는 그 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고 샘가를 방황하면서 수면에 비친 제 모습만 바라보았다.

◆ 유의사항 ◆

1. 글의 길이는 1,200자 내외(±120자)로 할 것.
2. 글의 제목이나 자신의 인적 사항에 관련된 표현은 일체 쓰지 말 것.
3. 연필을 사용하지 말고,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 위의 유의 사항을 어길 경우 감점됨.

1. 출제 원칙

- 1) 고전적 문헌을 활용하여 논술고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갖게 한다.
- 2) 고전적 문헌 가운데서도 중고등학교의 교과학습과 연관되는 내용을 활용한다.
- 3)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적인 경험과 연관되는 주제를 택한다.
- 4) 논술(글쓰기) 능력 외에 독해 및 해석(글 읽기) 능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5)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적 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논제를 찾는다.
- 6) 변별력 있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배려를 기울인다.

2. 출제 의도

위의 기본지침에 따라 고전 가운데서 신화 및 설화를 자료문으로 택하기로 하였다. 논술 시간과 지면을 고려하여 네 가지로 국한했고, 동서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삼국유사, 장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들을 발췌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제는 고교 교과학습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고교생에게 친숙한 내용인 ‘청소년문화의 특성’으로 잡았다. 논술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동시에 ‘암기해 놓은’ 어떤 내용을 적당히 주제에 연관시켜 기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변별력 있는 객관적 평가의 구체적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소재 어휘”를 제시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활용케 하기로 했다.

3. 출제 방식

- 1) 동서양의 신화나 설화에서 자료문을 발췌, 제시하여, 그 함의를 파악하도록 한다.
- 2) 그 함의가 청소년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어떤 실마리가 될지 숙고하게 한다.
- 3) 자료문의 함의를 실마리로 하여 청소년문화의 여러 현상에 대해 반성적 논평을 하게 한다.
- 4) 논술내용의 모색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암기해 놓은’ 어떤 내용을 적당히 주제에 연관시켜 기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재 어휘”를 제시한다.

4. 자료문의 출처

일연, 리가원/허경진 역, <삼국유사>, 한양출판 1996, 381쪽

안동립 역주, <장자>, 현암사 2000, 495쪽

이윤기 편역,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창해, 2000, 345쪽/533쪽)

5. 채점 지침

가. 채점은 평가대상을 다음 부분으로 구분해 각기 10점을 배분하여 실시한다.

- 1) 언어적 측면 : 국어정서법, 어법 및 표현의 적절성
- 2) 논리적 측면 : 논술문 구성의 체계성, 논변의 논리적 무모순성, 주제에 대한 충실성
- 3) 내용적 측면 : 자료문 해석의 창의성 및 적절성, 자료문 해석 내용과 연관시킨 청소년문화 현상사이의 긴밀성, 소재 어휘 활용의 적절성

나. 채점 기준표

평 가 기 준	채 점 기 준	유의사항
언어적 측면	1) 맞춤법 2) 어법 및 표현의 적절성 3) 구문의 정합성	
논리적 측면	1) 논술문 구성의 체계성 2) 논변의 논리적 무모순성 3) 논지의 명료성	
내용적 측면	1) 자료문 해석의 창의성 및 적절성 2) 자료문 해석 내용과 연관시킨 청소년문화 현상 사이의 긴밀성 3) '소재 어휘' 활용의 적절성 * 일반적인 경우 최소 점수가 21점이 되도록 고려함.	
구체적 채점 지침	1) 언어적 측면의 1), 2), 3)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점의 편차를 둠(8 10점). 2) 논리적 측면의 1), 2), 3)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점의 편차를 둠(8 10점). 3) ① '소재 어휘'의 적절한 활용 여부에 따라 1 6점 배점 (각 '소재 어휘' 활용의 우월성에 따라 0.5 1점 배점). ② 자료문의 적절한 활용 여부에 따라 1 4점 배점(각 자료문 해석의 우월성에 따라 0.5 1점 배점). *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을 어긴 경우: 분량이 600자에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600자-719자인 경우 2점 감점, 720자-839자인 경우 1.5점 감점, 840자-959자인 경우 1점 감점, 960자-1079자인 경우 0.5점 감점. 2)를 어긴 경우: 0점 처리 3)을 어긴 경우: 전체를 연필로 쓴 경우 1점 감점, 1/2 내외를 연필로 쓴 경우 0.5점 감점. * 주제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 0점 처리	

6. 문제 해설 및 답안 작성 요령

우선 논제는 크게 ① 제시문에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함의를 찾고 ② 이에 따른 오늘날 청소년 문화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 두 가지이다.

우선 제시문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칫 제시문을 잘못 분석하여 엉뚱한 내용을 다루게 될 때, 감점 요인이 크므로 제시문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소재 어휘 모두를 반드시 활용하라고 했으므로 제시문 분석 과정에서 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첫번째 제시문(삼국유사 소재)의 주제는 신의의 중요성이다. 이것은 벗과의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 청소년 문화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제시문(장자 소재)의 주제는 ‘불사(不死)의 도(道)’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장자는 ‘불사의 도’라는 이름으로 가식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자 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제시문(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이야기이다. 세이렌의 섬을 지나던 배의 선원들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그 알 수 없는 매혹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여 바다에 빠져 죽곤 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스타에 열광하여 판단력을 상실하고 자아 정체성을 잃어가는 청소년의 모습을 거론할 수 있다.

네 번째 제시문은 나르키소스(그리스 로마 신화)의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비정한 모습을 통해 요즘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거론할 수 있다.

자, 이제는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단락을 구성해 보자.

서론에서는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을 서술하고 오늘날 청소년 문화의 개념과 실태 정도를 밝혀 주면 된다.

본론 1에서는 각 제시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오늘날 청소년 문화와 관련지어 서술하면 된다. 되도록 피상적인 서술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인 청소년 문화 현상과 연결짓는 것이 중요하다.

본론 2에서는 오늘날 청소년 문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이 청소년 문화에 대한 우호적이나 비판적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논거 제시와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결론에서는 올바른 청소년 문화 정립 즉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면 된다.

교육은 한 인간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활동이다. 제시문 (나)의 지적 탐구의 태도를 지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주인공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가)한 옛날 깊고 깊은 산 속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 살고 있는 그것은 일곱 가지 색으로 꾸며진 꽃 같은 집이었습니다. 토끼는 그 벽이 흰 대리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갈 구멍이라고 없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게 땅 속 깊이에 쿵 박혀 든 그 속으로 바위들이 어떻게 그리 묘하게 엮였는지를 용히 한 줄로 틈이 뚫어져 거기로 흘러든가느다란 햇살이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것처럼 방안에다 찬란한 스펙트럼의 여울을 쳐놓았던 것입니다. 도무지 불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에 거기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그가 그 일곱 가지 고운 빛이 실은 천장 가까이에 있는 창문 같은 데로 흘러든 것이라는 것을 겨우 깨닫기는 자기도 모르게 어딘지 몸이 간지러워지는 것 같으면서 그저 까닭 모르게 무엇이 그림고 아쉬워만 지는 시절에 들어서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깊은 땅 속에도 사춘기는 찾아온 것이었고, 밖으로 향했던 그의 마음이 내면으로 돌이켜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운 빛을 흘러들게 하는 저 바깥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이를테면 그것은 하나의 개안(開眼)이라고 할까, 혁명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던 그 돌집이 그로부터 갑자기 보잘것없는 것으로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텐동산에는 올빼미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략)

생일날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창으로 나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상천외의 착안을 끝내 해낸 것입니까. 거기로 흘러드는 빛이 없이는 이 무지개 색의 집도, 저 바깥 세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암벽보다 더 철석같아서 오히려 무(無)처럼 보이는 그 창구멍으로 기어 나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마침내 해냈다는 것은, 저 지상에 살고 있는 토끼들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으면서 그 공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 발견이라기보다 발명을 해낸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손만 가져갔어도 세계는 새까맣게 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열(熱)은 물러갔습니다. 그는 창으로 기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다가 넓어진 데도 있었지만 벌레처럼 뱃가죽으로 기면서 비비고 나가야 했습니다. 살은 터지고 흰 토끼는 빨갛게 피투성이였습니다. 그 모양을 멀리서 보면 마치 숨통을 꾸룩꾸룩 기어오르는 객혈(咯血) 같았을 것입니다.

(중략)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저 바위틈으로 얼굴을 내밀면 그 일곱 가지 색 속에 소리의 리듬이 춤추는 흥겨운 바깥 세계는 그에게 현란한 파노라마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전율하는 생명의 고통에 온 몸을 맡기면서 그는 가다듬었던 목을 바위 틈 사이로 쑥 내밀며 최초의 일별(一瞥)을 바깥 세계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십 년을 두고 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홍두깨가 눈알을 찌르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돌린 그 토끼의 눈망울에는 이미 아무 것도 비치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일곱 가지 색으로 살아온 그의 눈은 자연의 태양 광선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토끼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 되는 그 문을 그러다가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거죽에 나타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 장용학, <요한 시집> 중에서

(나) 이미 깨우쳐 얻은 것을 배우고 전하는 것을 학(學)이라 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有)·무(無)·허(虛)·실(實) 및 미세한 일들에까지 학이라는 명칭을 갖지 않은 것이 없어서 각기 가능한 바를 주장해왔다. 그러한 여러 학 중에서 민생(民生)에 보탬이 되는 것도 있고, 해가 되는 것도 있으며, 보탬도 해도 없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지러웠다.

그러나 참으로 잘 선택하여 쓰면 모두 나에게 권유와 경계가 될 수 있지만, 오직 한탄스러운 것은 어떤 학을 처음 창도한 자가 그 단서를 약간만 드러내면 그것을 전하는 자가 각기 자신의 뜻을 보태고 늘여서 마침내 근본 취지를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까닭을 궁구해 보면 제창한 근본 원인이 혹 어긋나 새고, 여기에 또 군더더기가 붙어 말꼬리를 잡아서 따지고 들 만한 것이 있거나, 혹은 유무와 허실의 견해가 편벽되고 막혔거나, 혹은 이기기를 힘쓰고 기이한 것을 좋아해서 점점 잘못된 곳으로 깊이 빠져들었거나, 혹은 어지러울 정도로 허황하여 붙잡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말류의 폐단은 제쳐두고라도, 어긋나고 어지러워질 근본 원인이 이미 스스로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찌 학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 막중하고 어렵지 않겠는가.

천하의 학문을 통괄하여 시비를 논하고 우열을 정할 때는 천하 민생이 실제로 쓰는 바와 천하의 정치가 반드시 근거로 삼는 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붙잡을 수 있는 형체가 있고, 실제 사물에 처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실학(實學)이다. 이것은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이 실학을 알지 못하면서 날마다 쓰는 사람은 혹 나가기도 하고 혹 들어오기도 한다. 또 보지 못하면서도 실천하는 사람은 혹 부합하기도 하고 혹 어긋나기도 한다.

그러나 형체가 없는 신(神)에 관한 이론은 그 유래가 이미 깊다. 모든 일의 조직을 알지도 못하는 신(神)에게 돌렸다. 또 이(理)에 관한 이론은 중고(中古) 때 나타나서 모든 변화를 역시 형체도 없는 이(理)에서 탐구했다. 이 두 이론이 전해지고 널리 퍼지면서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고, 시대를 거치며 더욱 복잡한 설명들이 덧붙여졌다. 그런 데도 그것을 배척하려는 이론은 근래에 와서야 점차 치열해졌다. 그 까닭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형체가

없는 신(神)과 이(理)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대와 상관없이 천지를 가득 채우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형체 있는 신(神)과 형체 있는 이(理)가 분명히 있어서 모든 일에 조짐을 보이고 온갖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에랴. 성인(聖人)의 학문에 어찌 배울 바와 배우지 아니할 바가 있으리오마는 마땅히 허를 버리고 실을 취해야 할 것이다.

- (최한기의 <기학>에서)

◆ 유의사항 ◆

- 1) 글의 길이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200자 (200)내외가 되게 할 것
- 2)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 3) 한글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할 것

■ 생각해 보기

♠ 출제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 논제를 정리해 봅시다.

♠ 두 개의 지시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주제문을 작성해 봅시다.

♠ 예시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IV

해설

1. 출제 의도

이번 문제는 이른바 ‘자료 제시형’이다. 자료 제시형은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개방성이라는 단독 과제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주어진 자료와의 연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한도가해진다는 점에서 논술 능력 측정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에서 일반적으로 자료 제시형의 문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1950년대 한국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장용학의 단편소설 <요한시집>의 서두 부분을 옮긴 것이고, (나)는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인 혜강 최한기(崔漢綺)의 <기학>(氣學)의 일부를 발췌하고 윤문한 것이다.

두 제시문 모두 보통의 고등학생 수준의 독서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자료들이다. 그러면서도 교육이 한 사람의 삶을 바란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가치지향적인 활동이라는 전제를 세웠다. 이유는 학생 스스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제시문 (가)는 문학 작품이므로 고등학생 정도의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화적 주인공의 삶을 비판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 또한 반성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였다.

제시문 (나)에서는 지적 탐구의 태도를 피력한 글이다. 최한기는 우리에게 아직은 다소 생소한 인물이지만 조선조 후기의 실학사상을 대변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실질적이나 검증할 수 있느냐를 학문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삶에 대한 정리를 요구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교육 활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2. 논제 파악

(1) 문제의 이해

핵심 논제는 제시문 (가)의 주인공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제시문 (나)의 지적 탐구의 태도를 지닌 교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삶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기
 2. 제시문 (가)의 주인공 토끼가 취한 행동 양식의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기
 3. 제시문 (나)에 드러난 지적 탐구의 태도를 교사 입장에서 정리하기
 4.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정리
-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2) 논점 찾기

제시문 (가)의 ‘토끼’는 주어진 조건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도전적 이상추구형의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삶의 조건을 불만스러워하면서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소극적인 삶의 태도와 구별되는 주체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히 살펴보면, 토끼의 삶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가)에 등장하는 토끼는 특별한 준비 없이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점에서 무모한 면이 있는가 하면, 눈이 멀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서 진취성이 반감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신(神)’과 ‘이(理)’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허상’을 쫓는 지적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붙잡을 수 있는 형체가 있고, 실제 사물에 처해서 증명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실학이며, 모든 학문의 방향이 이와 같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교육에 적용하다면 막연한 이상을 쫓는 것보다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성실하게 한발 한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학생들에게 권장할 수 있다.

3. 문제해결

자, 이제 앞서 찾은 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우선, 학생 자신은 (나)의 태도를 지닌 교사이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는 것을 거부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이 학문이라고 믿는 교사이다. 그런 교사는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러한 태도를 지닌 교사라면 인생의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설정하기를 권장할 것이다.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일 것이다.

그런 교사에게 제시문(나)의 토끼의 삶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토끼의 삶에서 긍정적인 면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점, 이상을 향해 도전했다는 점이다. 반면 햇빛만을 쫓아간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더구나 그 햇빛의 정체조차 알지 못하니 어리석기까지 하다. 그러면서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성실함과 집념은 또 높이 살만 하다. 허나 결정적으로 동굴 입구에서 강렬한 햇빛에 눈을 잃고 나서의 행동은 매우 절망적이다. 그러한 좌절을 상생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고려해 볼 만하다.

제시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 담긴 이러한 여러 요소들(그 밖의 것들도 가능하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고 속에 소화함으로써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한다면,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일방적·상투적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4. 예시 개요

• 서론

- ① 교육은 한 인간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활동이다.
→ 교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설명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 ② 교육 목표가 현실 지향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함을 강조
→ 과제 제시로 연결

• 본론 1 : 토끼의 삶의 긍정적인 면

- 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상을 지향하는 삶
- ②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함

• 본론 2 : 토끼의 삶의 부정적인 면

- ① 준비 없는 도전은 무모하다.
- ② 삶에 좌절은 없다. 오직 체념만 있을 뿐이다.

• 결 론 : 바람직한 삶이란 현실에 유용하면서도 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단계적이고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삶이다.

5. 예시 답안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교육은 한 인간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활동이다. 교사는 어린 학생을 대할 때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마음에 되새겨야만 한다. 진정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삶의 목표를 잘 세우도록 보조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삶의 목표는 실천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상이라고 해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삶의 목표가 만약 허상이라면 한 사람의 인생은 허상만을 좇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삶의 목표는 한 사람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데 한 치의 도움도 주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데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가)에 나오는 토끼는 주어진 조건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도전적 이상추구형의 인간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삶의 조건을 불만스러워하면서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소극적인 삶의 태도와 구별되는 주체적인 삶의 방식이다. 또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피가 터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은 매우 감명 깊다.

그러나 제시문 (가)의 토끼는 너무나 무모하다. 지상의 햇빛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신비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삶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어리석기까지 하다. 찬란한 스펙트럼의 빛과 이제까지 자신이 바라본 일곱 가지 무지갯빛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했어야 했다. 동굴 입구에서의 좌절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실명을 하게 된 후 토끼의 삶은 매우 소극적이다. 물론 크나큰 불행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겪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자신의 좌절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더구나 토끼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아직 동굴 저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다른 이들의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이를 놓친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끼는 허상을 좇다 인생을 망친 사람의 예가 된 것이다.

바람직한 삶이란 현실에 유용하면서도 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단계적이고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삶이다.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삶의 목표는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자칫 인생 자체가 허상을 좇는 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교육개방

1) 교육개방은 ‘판도라의 상자’

-3월 31일 세계 무역기구 ‘교육 개방 양허안’ 제출을 막아야 한다.

오는 3월 31일은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서비스 개방 요구를 받은 나라들이 개방 계획서(양허안)를 내는 날이다.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자마자 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유형 무형의 압력을 총동원해 협상하고자 덤빌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른다. 교육부와 외교 통상부 같은 주무부서가 ‘개방은 세계적 추세’ 라면서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개방 계획서 제출 마감일 앞둔 지금에 와서야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있다.

국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어느 상품처럼 함부로 사고팔거나 교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교육은 인간의 ‘정신 영역’, 그것도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미성숙한 정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어린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곧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교육부 관료들은 “교육 개방이 교육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개방해봐야 안다”라며 먼 산 볼 구경 하듯 하고 있고, 외교부 관료들은 “개방 압력을 피할 수 없다”라며 불가피론을 내세운다. 교육 개방이 초래할 파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 무역 기구 4차 각료 회의에서는 서비스도 무역 대상에 포함시켜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서비스 교역 일반 협정(GATS)’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방 의사를 밝힌 나라들은 곧바로 양자간 협상을 시작해서 2005년 1월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든 일단 협정을 맺으면 국민투표를 해서 100%가 반대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 개방 폐해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두고 그 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대학 교수와 관계자 몇 명을 불러다 놓고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 연 것이 전부다. 더 가관인 것은 그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가 교육 개방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다는 “교육 개방은 국제적 추세”라는 발언이 헛된 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는 지난 2월 초,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 144개 나라 가운데 교육을 개방하겠다고 한 데는 겨우 스무 나라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이번 개방 계획에 의료 문화 부문은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 ‘개방 대세론’을 뒤엎은 셈이다. 그런데 유독 교육 부문만은 ‘개방 대세론’의 마지막 제1선에 세워 놓고 있다. ‘개방 대세론’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교육은 개방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공교육에 실망한 국민들은 교육 개방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기도 한다. “교육을 개방

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거나 "해외 유학 가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다. 그 심정이야 오죽하랴,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빈대가 싫어 초가삼간 태워 버릴 것이 아니라면, 분노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부실한 공교육이 만들어낸 폐단이라면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하고, 과도한 교육비가 문제라면 국가 교육 투자를 늘려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대학의 84%, 고등학교의 60%가 사립인 우리 현실에서, '교육을 개방하는 날'이 바로 '공교육이 거덜나는 날'이 될 수 있다. "영어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며 코흘리개 적부터 범석을 더는 현실에서, 외국 학교는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아침에 신흥 명문학교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개방 빗장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자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교육 개방은 한 번 열리면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다. 온갖 악덕이 활개치고 빠져나간 빈 상자를 들여다보며,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 헤매야 하겠는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3월 31일 그 상자가 열린다.

- 2003년 3월 15일, 조희주, 한겨레신문

2) 교육개방 서둘러야 한다.

"교육 수요자 여러분, 확실적인 교육에 행복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교육비 부담이 좀 줄었습니까? 졸업생 여러분, 공교육 학습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일부 교육 공급자들은 교육을 폐쇄적이며 획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획일적으로 운영할 사항도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수요자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을 개방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는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과 교사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에도 어긋난다. 교육 수요자가 자신의 적성 학습 능력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방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조선 말 쇄국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다. 또한 평등만 주장하며 폐쇄된 사회주의를 꿈꾸며 잘못된 것, 맑은 것, 결제력 없는 것만을 고집한 사회주의는 70년 만에 붕괴했다. 평등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 교육 결과의 평등을 추구했다면, 교실에 늦게까지 남아 학습 부진아를 지도하고 가르쳐야 했다. '교육 평등', '교육 개방 반대'를 외치는 교직원 노조원 중에 얼마나 많은 교사가 밤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학습 부진아를 가르쳐 왔는지 되묻고 싶다.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 수요자가 돈이 없어도 학습 능력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저리 융자 제도를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가 교육 내용 방법 교사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다양화 제도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교육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서구 교육이 들어와 인재를 육성해야 외국 자본이 들어와 첨단 과학 기술 단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관촌이나 싱가포르의 과학 단지 조성 과정에서 뛰어난 과학 특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이다. 교육을 개방하고 교육 단지를 조성해야 인재가 모이고 육성되며, 자본 유입과 함께 산업 투자가 활발해져 중국 경제와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창의력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 시장을 개방해 새로운 과학과 기술, 경영 기법을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내세운 ‘동북아 저보 통신 허브’는 말로만 끝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교육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개방하지 않으면, 외국 우수 대학들이 중국에 분교를 설립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중국으로 유학가야 하고, 한국이 뒤늦게 교육 시장을 개방해도 이미 중국에 교육 단지가 형성되어 그 때는 한국에 들어올 외국 대학이 없을 것이다.

교육 개방에 따른 ‘교육의 질’과 교육비 문제는 교육 수요자가 판단할 일이다. 수준 미달에 턱없이 비싼 교육을 선택할 교육 수요자는 없다. 잘못된 교육은 국내에 들어와도 교육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개방된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다. 교육 수요자도 세계의 다양한 교육을 잘 알고 있다. 무엇이 양질의 교육이고, 어떤 교육이 좋은지는 수요자 개개인이 선택할 일이다.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자는 능력과 자질을 높여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나 아니면 선택 못하도록 개방을 막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익 단체의 구호에 가려진 순수한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 2003년 3월 29일, 임영숙, 한겨레 신문

6 장 문화와 예술

I

주제 특강

■ 매스미디어와 대중예술

보통 간략히 ‘매스 미디어(mass media)’라고 부르는 의사소통 매체는 그것을 통해서 송신자들이 정보나 경험을 기록하고, 그 정보나 경험을 다수의 수신자들에게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 또는 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목소리도 하나의 의사소통 매체이다. 만남이나 작별의 순간에 흔드는 손짓 역시 그러하고, 연필과 종이 또한 의사소통의 매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이나 도구, 기구들은 다른 매체들의 도움이 없다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송신자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의 매스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인쇄 매체와 전파 매체가 그것이다. 인쇄 매체는 글이나 사진 또는 스케치나 회화와 같은 이차원적인 시각 예술 형식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이다. 본래 인쇄 매체는 기계적인 것에 한정됐지만, 지금은 거기에 전자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여기에는 카메라, 타자기, 인쇄기 외에도 글이나 그림을 대량으로 복사, 생산해 내는 장치들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전파 매체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청각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들을 말한다. 즉, 대화, 음악, 영상물, 또는 이런 것들의 결합 같은 것이다. 여기에는 마이크, 녹음기, 영상기, 비디오, 방송 중계기, 오디오, 프로젝터(projector),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는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야 하므로 기계적이거나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인쇄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책, 신문, 잡지, 팸플릿 그리고 포스터들을 수천 부씩 찍어낸다. 방송 장비는 수백, 수천 심지어는 수백만의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거의 동시에 보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때때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들이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인쇄기는 사진사가 카메라에 기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텔레비전은 영화 카메라로 기록된 필름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라디오도 종종 음반이나 녹음테이프에 저장된 정보를 방송하기도 한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은 다수의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반적이고 비개인적인 성격을 띤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은 수의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일반적이고 비개인적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잠재적 관련자(to who it may concern)’에게 전달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잠재적 관련자’에게 보내는 정보들로 둘러싸이게 되면, 그는 그 정보 중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시해 버리게 된다. 자신에게 전달되는 정보들

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지 않는 정보들은 버리는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비개인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은, 매스 미디어가 대체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송신자들로부터 다수의 수신자에게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흘러간다는 점 때문에 더 강화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질문의 형태로 피드백(feedback)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잡지 기사나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에서 송신자는 자기가 내보내는 정보가 수신자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물론, 잡지 독자와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잡지사의 발행인과 방송국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논평이나 편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독자나 시청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설령 그런 노력을 들인다 해도 피드백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그 편지가 적합한 정보원에 도달했는지, 또한 만족스런 응답을 얻을 수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내보내는 송신자는 수신자의 반응을 상당 부분 추측해야 하고, 수신자들은 종종 그들의 욕구와 필요가 송신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대중 예술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주도면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대중 예술 역시 수신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사소통의 일종으로, 주로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고안된 것들이다. 대중 예술은 간단히 말해 비슷한 경험, 흥미, 가치 또는 취향을 공유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구(訴求)하는 예술 형식이다. 예술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대중 예술은 흔히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엘리트 계층에서 소구하는 표현 형식인 순수 예술과 대조된다. 시, 그림, 조각, 희곡, 교향악 그리고 발레와 같은 것들이 보통 순수 예술로 간주되는 반면에, 영화, 만화, 텔레비전 쇼나 댄스뮤직 등은 대중 예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어떤 예술 작품들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중적이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그 당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겼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은 잡지에 연재되었던 것들이다. 이 희곡과 소설들은 시간의 시련을 견디어냄으로써 오늘날 순수 예술의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20세기의 산물인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 한때 영화는 그저 대중적인 오락물로 간주되었지만, 점차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본격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고급 예술로 대접받는 작품도 여럿 있다. 또,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되었던 사진도 지금은 예술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뛰어난 사진 작품들은 예술적인 그림이나 조각을 전시하던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반대로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 릿시니, 그리고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오랫동안 소구력(訴求力)에서는 대중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바흐의 음악이 전자음 합성 장치에 의해 녹음되었을 때나, 모차르트, 릿시니, 슈트라우스의 음악이 ‘엘미라 마디간’이나 ‘A Clock-work Orange’,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삽입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순수 예술의 범주에 남겨 둘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진정한 대중성이란 대중에게 폭넓게 전달된다는 것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폭넓은 전달은 오직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대

중에게 전달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순수 예술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대중 예술의 영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처음 연주되었을 때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오랫동안 소수의 재즈 음악 팬들 사이에서만 그 가치가 평가되던 조플린(Scott Joplin)의 음악은, 영화 ‘스팅’의 주제 음악으로 사용되어 음반으로 재생산되고 라디오로 방송되면서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다.

물론, 모든 대중 예술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이나 조플린의 재즈 음악만큼 우수하거나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매스 미디어는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 평범한 예술을 널리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매스 미디어는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 외에는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사소하고 걸만 번지르르한 예술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대중 예술이 단지 그것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허위의식은 잠재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린다.

매스 미디어는 대중 예술을 대중적이게 만든다. 더 본질적인 수준에서는 대중 예술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해 준다. 사진은 카메라나 필름이 없었다면 예술 형태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사진은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수단들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된 후에야 대중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수단들은 파리나 암스테르담,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나리자나 네덜란드 거장들, 그리고 아메리카 고딕 같은 그림들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작가가 자신의 고독한 작업실에서 쓴 소설도, 만약 수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인쇄 기술이 없었다면, 단지 몇몇 소수의 부유한 애호가들의 서재에 필사본으로서만 존재하였을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대중 예술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며, 대중 예술은 다시 새로운 매스 미디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매스 미디어의 발전을 촉진한다. 인쇄 기술은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인 성경 복사본의 수요가 급증하던 시대적 필요에 의해 등장하였다.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잡한 수백 년 전의 인쇄기와 조판기가 독자 대중들의 인쇄 문자에 대한 취향을 확산시켜 나감에 따라, 인쇄술은 더욱 정교하게 발달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대중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통 책이나 잡지에 실린 대중 소설이나 논픽션류, 신문이나 잡지의 뉴스 기사나 특집물들, 또는 만화, 만평, 사진, 영화, 대중음악,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광고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예술 형식을 정기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함께 접하기도 한다. 아울러, 현대에는 비디오 아트, 뮤직 비디오, 그래피티(graffiti)같은 매체들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매체들이 대중 예술의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첨단 인쇄기는 수백만 권의 장서들과 문고판 도서들, 수백만 권의 잡지들, 그리고 수백만 부의 일간 신문들을 찍어낸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부의 브로셔(brochure)와 카탈로그(catalogue), 우편 광고물과 대중음악 악보들을 생산해낸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영상 기록에 대한 욕구는 사진술의 발전을 낳았고, 좀 더 질이 우수한 사진에 대한 바람은 점점 더 정교한 사진 장비의 개발을 자극했다. 20세기 초반의 조잡한 축음기와 진공관이 - 최신 음악이든 고전 음악이든 -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음반 산업을 자극함에 따라 대중들은 갈수록 점점 더 내구성 있는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즐기게 되었고, 이어 하이파이 스테레오 전축, 4채널 방식의 레코드플레이어, 그리고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까지 등장하였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와 대중 예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는 창조적인 표현을 위해 새롭고 향상된 기술을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대중 예술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술 그 자체를 대중적으로 확산한다. 그 맞은편에서 대중 예술은 다양한 형식으로 새롭고 세련된 매체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대중들은 이 두 영역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프레드릭 리소버(Rissover, Fredric),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강현두 편, 나남출판사

II

기출 문제

1. 문화 주제 기출문제

1) 서울교대(2003)-문화상대주의

※ 다음 예시문은 문화 상대주의와 관련된 논의이다. 이에 대한, 자신의 찬성 또는 반대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진술해 보시오. <제시문> 손봉호 <문화와 예술>

2) 한양대(2002)-식민주의의 극복

※ 글 (가), (나)는 서구 문화 및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글(다)는 서구의 식민주의가 비서구 식민지에 끼친 영향에 대한 글이다. (다)에 제시된 개념을 활용하여 (가), (나)에 드러난 태도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방안을 논술하시오. <제시문> 김용석, 이승환의 대담집『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받다』.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외국인 노동자 실태 보고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Orientalism』

3) 성균관대(2001)-청소년 문화의 성격

※ 아래에 제시된 고대의 신화나 설화들은 각기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함의들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성격을 검토하는데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 이에 비추어 청소년 문화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제시문> 『삼국유사』 <원가>, 『장자』, 『그리스 로마 신화』

4) 성균관대(2002)-자본주의 경제에 기여하는 문화사회적 조건

※ 아래 제시문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기여하는 각기 다른 문화 사회적 조건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 제시된 <표>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 추이 또는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다음의 과제를 해결하시오. <제시문>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제러미 리프킨, 『접속의 시대』 프란시스 후쿠야마, 『트러스트』

5) 한양대 인문(1998)-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문화

※ 다음 글을 읽고,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이른바 '디지털형' 문화가 지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여 논하시오.

2. 기출문제

■ 한국의국어대학교(2002 대입)

<논제> 다음 <제시문 1>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을 토대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읽고,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의 세계화와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제시문 1>

우리는 어떻게 한 문화를 터득하게 되는가? 우선 우리는 인류학적 의미에서의 출생지와 부모의 언어, 일련의 사고방식, 관습 및 관례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문화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사실인즉, 문화는 고립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것은 문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느 한 지점에서 발생하여 조금씩 이웃 문화들을 새로이 만나게 되는 여정의 결과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이르는 이 여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다. 흔히 그러하듯,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타인과 사귀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의 언어, 사고나 관습을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행에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에게 낯선 관습도 발견할 수 있다. 브라질의 수공업 제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고, 일본 문화 또한 그 나름대로 얼마나 섬세한가?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다. 퍼지고 흡수하는 것이 그의 속성이다. 프랑스는 17세기보다 더 프랑스다워 본적이 없지만, 당대 최고의 극작가였던 몰리에르(Moliere)와 코르네이유(Corneille)는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었다.

오늘날 ‘지역 문화’와 ‘세계 문화’, 즉 ‘어느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룩해 온 것들의 총체로서의 문화’와 ‘상품화된 문화’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견해는 ‘문화공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문화 공간이란 균일한 것이 아니다. 이 공간은 개인마다 다르고, 이 공간들 사이에는 여러 통로와 장애물이 있으며, 넘지 못할 골짜기와 산도 있다. 특히 우리 각자는 이 공간 안에 자기만의 길을 내고 지도를 그리면서, 자신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확보한다. (출처: Michel Serres [미셸 세르, 프랑스 철학자], ‘Entre Disneyland et les ayatollahs’,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칼럼)

<제시문 2>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일어난 혁명 덕분에 지리적 시장이 사이버 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인간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렸다. 컴퓨터, 통신, 케이블 TV, 가전제품, 방송, 출판, 오락이 하나의 종합 통신망 안으로 통합되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인간이 상호 교류하는 방식에 역사상 유례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벌써 20년 전에 다니엘 벨은 앞으로 나타날 시대의 성격을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 되고, 통신에 대한 접속이 자유의 조건이 된다”고 진단했다.

세계 유수의 미디어 기업들은 21세기의 거의 모든 상업영역을 차지할 통신 회로와 문화 자원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20세기에는 스탠더드 오일, 듀폰, US 스틸, 시어스 같은 기업들이 소유 가능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전념하면서 시장의 중심부를 차지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디즈니, 타임 워너, 베르텔스만, 비아컴, 소니, 뉴스 코퍼레이션, TCI, 제너럴 일렉트릭, 폴리그램, 시그렘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면서 대중이 문화 자원과 상품화된 경험에 접속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할 것이다. (중략)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통신 인프라뿐 아니라 포털과 관문에 대한 접속권, 나아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까지 거머쥔으로써 전무후무한 권력을 누리게 된다. (중략)

세계 통신·방송망의 규제 완화와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 국가는 자국 영토 안에서 통신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정치적 국경선을 가뿐히 뛰어넘는 통신망을 전 세계에 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의 근본적 성격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출처: Jeremy Rifkin [제러미 리프킨, 미국의 사회비평가], The Age of Access, 한국어판 『소유의 종말』)

<제시문 3>

세계화, 국제화, 획일화라고도 불리는 미국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화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반미적 자세보다는 미국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미국을 모든 가능한 미래의 용광로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도 미국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며, 때때로 미국으로부터 배우고 숙고할 만한 교훈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기업경영의 효율성, 자율화된 대학의 우수성, 여러 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다문화주의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목소리를 비웃곤 한다. 미국문화의 결점만을 비난하려는 초보적 반미주의가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유용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다문화주의나 다양한 목소리도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종과 성의 차이를 존중하도록 해 준다. 이는 관용과 예의를 가르쳐 주는 좋은 본보기다. 우리가 미국인들과 같은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들을 대할 때, 미국 목사들의 차별주의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미국의 과도한 여권운동을 조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만큼 소수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우리도 비로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극도의 무지에 기인하거나 기회주의에 편승한 반미주의자들만이 미국이 제시하는 다양한 문화적 가능성을 문화전쟁으로 왜곡시키지만, 미국은 세속적인 것에서 고상한 것까지, 상업적인 것에서 비상업적인 것까지, 세계주의자에서 지역주의자까지, 유일신주의에서 다신주의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나라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접속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동일한 메뉴로부터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점에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위협이 되겠는가? 오히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따름으로써, 이미 뿌리내린 고유문화에 다원화된 문화가 접합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Guy Sorman [기 소르망, 프랑스 사회비평가], Le monde est ma tribu)

<대학측이 밝힌 출제 의도>

본 문제의 지문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의 ‘디즈니랜드와 회교지도자들 사이에서 (Entre Disneyland et les ayatollahs)’, 미국의 사회비평가 제러미 리프킨의 ‘접속의 시대

(The Age of Access)', 프랑스 사회비평가 기 소르망의 '세계는 나의 부족(Le monde est ma tribu)'에서 발췌한 것이다

본 문제는 후기 자본주의와 디지털 문명이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오늘날, 점차 상품화되고 사이버 공간화 되는 보편적 세계문화가 각 민족, 인격체마다 고유하게 겪은 체험의 총체로서의 전통적 의미의 특수한 지역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한 것이다.

이는 수험생들이 교과서 속에 하나의 고전적 원형으로 내려오고 있는 '보편자'와 '개별자', '문화절대주의'와 '문화상대주의'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상업화, 기술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는 현대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결지어 얼마나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시문 1>은 문화라는 것이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맺음의 과정과 역사 속에서 점차 퍼지고 흡수되는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편, 문화가 그 주체인 개인을 통해 구현되는 공간인 '문화공간(cultural space)'은 그 속성상 자신만의 특수성을 확보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는 새로운 사이버 공간의 상업화된 문화가 개인 내지 지역문화를 완전 지배하게 될 것이란 명제를, <제시문 3>은 미국과 같은 나라의 다원화된 문화를 한 나라의 고유문화에 접합시킴을 통해 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명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외대의 논술고사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제시문 1>을 근거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나타난 상반된 두 견해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디지털 문명시대에서의 '세계화와 문화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글 (가), (나)는 속도와 삶의 관계를 상반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하시오.

문제 1. (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화현상에 대하여 구체적 예를 들어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술해 보시오(400자).

문제 2. ‘문제1’을 바탕으로 하고 글 (나)를 참고하여 속도와 관련된 문화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000자).

가) - (1)

유능한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자질 가운데 하나는 어떤 종류의 나쁜 소식이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려는 결단력이다. 유능한 관리자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식을 듣기에 앞서, 잘못 돌아가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려 해야 한다. 부정적인 소식들을 신속하게 접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불가능한 건 당연하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나쁜 소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제점을 파악하자마자 기업 내 모든 직원들을 즉각 각성시켜야 한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적역량을 결집하는 속도를 보고 우리는 그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디지털 신경망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또한 직원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나쁜 소식을 찾아내고 그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은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도 기업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과거에는 기업이 나쁜 소식에 대처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정보를 신속히 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전화뿐이었으므로, 경영자들은 종종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나서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문제 해결에 나선 직원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으러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몽치와 씨름해야 했거나,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 사내를 뛰어다녀야만 했다. 그리고 일단 늦게나마 불완전한 정보라도 얻게 되면, 다시 전화로 서로 의논을 하거나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이러한 과정 과정에서 매우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음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곳곳에 흩어진 관련 정보들을 모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무리 전화와 팩스를 적절하게 잘 이용한다 하더라도, 판매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이전에 일련의 좋지 못한 전개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고객자료를 중앙에서 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정보를 추출하기가 매우 어려워 위기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보시대가 개막되어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건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한 곳에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반해 적절히 구축된 디지털 신경망은 일종의 조기 정보 체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게 해준다.

가) - (2)

고속철도(KTX) 시대를 맞은 지 만 1년이 됐다. 지난해 4월 1일 상용 운전을 시작한 케이티엑스는 시간당 300km로 질주하며 전국을 3시간 생활권으로 좁혔다. 고속철도가 부른 속도 혁명은 광속의 디지털시대와 맞물려 삶의 질 산업 교통문화 관광 등 사회 전반에 걸

숫자로 본 KTX 1년

전체 이용객	약 2700만명
전체 수입액	약 7900억원
하루 평균 이용객	약 7만4천여명
하루 평균 수입	약 21억원
경부선 이용률	주중 67.8%, 주말 85.3%
호남선 이용률	주중 31.5%, 주말 51.8%
월 평균 정기 승차권 발매 고객	약 1400여명
인터넷 승차권 예약률	약 76%
정시율	98.9%(2월까지 통계/10분 기준)
하루 평균 운행수	주중 132회(경부선 96회, 호남선 36회)
개통 이후 운행 열차수	4만7163회
총 운행거리	1924만km (지구 481바퀴)
1일 운행거리	47457km (지구 1바퀴+편도 LA거리)

〈자료:한국철도공단〉

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고속철도 1년의 효과와 숙제, 미래를 짚어봤다.

대전대 한의대 신경생리학실 연구원으로 있는 서태범(32 대전)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 출강한다. 강의가 있는 날은 여편이나 아는 이들 집에서 목고 새벽 열차로 대전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대전 연구실에서 서울의 학교까지 6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절반으로 확 줄었다. 그는 “고속철이 준 최고의 선물은 ‘시간’”이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

고속철도 개통은 104년 역사가 있는 한국철도의 걸모습부터 바꿔 놓았다. 주요 역사는 국제공항 수준의 첨단 시설을 갖춘 새 청사로 탈바꿈했다. 카드형 마그네틱 승차권의 등장으로 개찰구의 검수원이 자취를 감췄다. 전용 철로 가에는 ‘달랑달랑’ 소리를 내던 건널목차단기 대신 전기공급장치가 들어섰다.

속도혁명은 기업의 출장과 여행문화도 바꿨다. 1박2일이 필요했던 서울에서 부산이나 대구, 목포로의 여행이 하루로 충분해졌다. 서울 집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부산이나 목포행 케이티엑스를 타면 한나절 일한 뒤 저녁밥을 먹고도 귀가하는 데 불편이 없게 됐다. 여행사들도 1년 새 80개의 케이티엑스 1일 관광 상품을 개발해 팔고 있다.

또 고속철도 역사 주변은 역세권 개발붐이 일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김천 구미, 대구, 신경주 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동대구역 주변은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컨벤션 센터를 포함해 31만평 크기의 새 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 역은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나서 28층짜리 쌍둥이 건물 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은 철도 해운 국제 복합환승센터를 지어 국제 물류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나) -(1)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서울 아들네.”

“어디 사세요?”

“목사동 대곡.”

대곡이라면 내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보성강 건너의 마을이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여기서 서울 가는 길보다 더 힘드셨을 텐데요.”

시골의 교통편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웅색하다는 것을 잘 아는 나는 할아버지가 대곡에서 여기 읍내 기차역까지 오신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에 이상하게 가슴이 아렸다. 더군다나 할아버지는 시골 노인네들 특유의 짐들을 바리바리 싸 짊어지지 않았는가. 나에게는 일면식도 없었던 할아버지지만,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도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 할아버지가 시골의 우리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다 열거해서 무엇하랴. 그 흙빛 같은 살빛이며 나뭇등걸 같은 손,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나는 그래서 가슴이 아렸다. 내 부모님 같아서, 그 영감님이 그냥 내 부모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느껴져서. 그런 내 마음은 아랑곳없이 할아버지는 예의 그 화롯불같이 따스한 미소를

크고 피할 수 없는 힘은 장기적인 추이 속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측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극단적으로 참을성 있는 과학이 아니면 알아차리지조차 못한다. 요즘 세상에 과학은 점점 더, 정치의 사려 깊은 속도나 자연의 보다 느린 속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과 유행의 빠른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좀더 빨리 배우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의 문제점이다. “빠르게 배운 사람들일수록 기존의 행동이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미리부터 변화를 시도해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문제를 가로질러 가려는 경향이 있다.” 정책 분석가 제임스 마치의 말이다. 퀴즈 쇼와 학교 선생님은 빠른 대답에 상을 준다. 하지만 이는 빠른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 되는 곳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중략>

생태학적인 현장 조사의 태반은 1년 동안 이루어진다. 두 가지 가장 긴 동물 연구는 조지 켈러의 세렌게티 사자와 체인 구달의 침팬지에 대한 연구로, 이들은 각각 27년과 36년 동안 계속된 연구였다. 꽃이 피는 장면을 고속 촬영한 것과 같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촬영된 필름이라고 해도 일주일일 고작이다. 아무도 아직은 100년이 넘게 걸려 두세 마리의 여왕개미가 연속해서 통치하는 흰개미 집의 전체 일생을 연구하지 않았다.

◆ 유의사항 ◆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3.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답안지에 드러내지 말 것.
4.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 볼펜으로 작성할 것.

■ 생각해 보기

♠ 출제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 네 개 지시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화현상과 같은 문화현상의 예를 찾아봅시다.

♠ 속도와 관련된 문화현상을 비판적으로 살펴봅시다.

♠ 속도와 관련된 문화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생각해 봅시다.

♠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IV

해설

1. 출제 의도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가 되면서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사고와 행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오늘 시장에 나온 신제품은 며칠 후면 또 다른 신제품에 밀리고 만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마치 정신없이 내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같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지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빠름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추구의 문화 때문에 잃거나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많다. 느리게, 여유 있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느림의 문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꾸며야 한다. 그러나 빠름의 문화가 가져다주는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바로 이러한 빠름의 문화와 느림의 문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빠름의 문화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상화 되어 있는가를, 그것이 가져다주는 문제점과 함께 찾아내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해결할 수 있다.

2. 논제 파악

(1) 문제의 이해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속도와 문화’이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상반된 문화현상 중 하나의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였고, 이 상반된 문화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하였다. 따라서 ‘빠름의 문화에 대한 성찰과 대안 제시’가 이 문제의 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화현상 파악하기와 그 구체적 실례 찾기

둘째, 제시문 (가)와 같은 문화현상에 대한 문제점 찾기

셋째, 상반된 문화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설정하기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현상을 파악하고, 이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논점 찾기

현대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에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빠름의 문화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많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제시문 (가)는 빠름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느림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파악하였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빠름의 문화로 인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제시문 (나)에 나타난 것과 같은 느림의 문화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생각을 해야 한다.

3. 문제해결

출제의도를 생각해 보고 논제를 파악했다면 논술 문제라는 고개의 꼭대기에 오른 것이다. 이제 조심스럽게 시간을 안배하며 내려가면 된다. 이제 논점과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내고 생각해 내야 한다. 우선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자.

제시문의 핵심 내용

가)의 (1)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퍼뜨려야 한다.

(2) 빠르게 달리는 KTX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나)의 (1) 여유 있게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2) 과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을성 있게 연구해야 한다.

제시문 가)의 (1)은 빌게이츠의 <<빌게이츠@생각의 속도>> ‘<제10장 나쁜 소식은 빨리 퍼져야 한다>’에 있는 내용이다.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려면 관리자는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 관련된 나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접해야 하고 이를 최대한 빨리 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속도는 디지털 기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수집하고 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가)의 (2)는 한국고속철도(KTX) 개통 1주년을 맞아 보도한 신문 기사이다.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고속철도가 광속의 디지털 시대와 맞물려 삶의 질과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는 것이다. 즉, 빠른 속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의 (1)은 소설가 공선옥의 <곡성역에서 만난 할아버지>이다. 서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할아버지가 오후 네 시 반에 집에서 나와 곡성역에 일곱시 반에 도착하여 열한 시 반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나 조금도 불편해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유 있게 기다리는 속에서 인간적 유대와 정이 커진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의 (2)는 스튜어트 브랜드의 <<느림의 지혜>>의 <느림보 과학>에서 가져온 것이다. 상업적 목적과 유행의 흐름에 따라 성과가 빨리 나오는 과학 연구를 하지 말라. 긴 시간의 관점에서 과학을 연구해야 인류 문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성급한 연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의 과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1)에서 요구한 것은 속도 경쟁적 문화현상을 구체적 예를 들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라는 것이다.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문화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예술,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들어 이야기 할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관리자를 쫓아내는 기업 문화, 빠르게 많이 팔리는 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출판문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교육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지적해 본다면 인간적 유대와 인간미의 상실, 성장 제일주의, 지속적 발전의 장애, 즉흥적 조급주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고해 보면 문제 1)은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 1)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고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느림의 문화를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는 것이다. 빠름의 문화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시문 가)에서 보여 주듯이 그 효율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빠름을 추구하는 것과 느림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어느 입장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자신의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 ‘빠름을 추구하는 문화 현상과 함께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빠름과 느림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정도면 무난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예시 개요

문제1.

1. 빠름의 문화 현상

- ① 경제적 측면의 빠름 문화
- ② 사회, 문화적 측면의 빠름 문화

2. 빠름의 문화가 지니는 문제점

- ① 지속적 발전 저해
- ② 인간성 상실

문제2.

서론

- ① 최근의 참살이 추구 현상
- ②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본론1 : 빠름 문화와 그 효율성

- ① 빠름 문화
- ② 빠름 문화의 효율성

본론2 : 느림의 문화와 장점

- ① 느림 문화

② 느림 문화의 장점

결론 ① 극단적 추구의 위험성

① 빠름과 더딤의 조화

②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사회

5. 예시답안

문제 1

현대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되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에도 빠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빠름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문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년 5% 정도의 경제성장은 성장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훨씬 빨리, 더욱 많이 성장하기를 열망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최고선으로 삼아 질주하고 있다.

사람들은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도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거나 빠르게 변화를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먹거리도 즉석 음식 쉽게 빨리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 판을 치며, 독서를 하여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책읽기를 하며, 여행을 하여도 빨리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행을 한다. 발품을 팔아 사람을 찾아가거나 정성을 담긴 편지보다도 손쉬운 전자우편을 더 좋아한다. 이러한 빠름의 문화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인간적 유대를 풀어헤쳐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 나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 2

요즘 참살이 바람이 불고 있다. 직장에 오갈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대신에 슬로 푸드를 외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등 끄고 촛불 켜기 운동’, ‘걷기 모임’ 등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속에서 삶의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맛보려는 경향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느림’의 미학이 새 물결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빠름’을 추구해 왔던 문화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은 속도의 증진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전기로 불을 켜놓고 밤새워 일을 하고 자동차와 비행기로 짐을 빨리 실어 나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같은 양의 일을 더 짧은 시간 동안에 해낼 수 있었다. 속도의 증진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바탕으로 인류 문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추구는 우리의 삶을 양, 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었다. 정보처리기술 속도의 향상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인간의 삶이 효율 면에서 진보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를 추구하면 할수록 삶의 여유와 성찰은 사라진다. 밀란 쿤데라가 <<

느림>>이란 소설에서 말한 것처럼 속도가 미덕이 되어 버린 사회에서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듯 오직 속도에 몰입한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혼자만 나아간다. 우리 속담에 ‘바쁘면 돌아가라’라는 것이 있다.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왔던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의 꽃과 나무를 살피듯이 느리게 여유 있게 사는 삶의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요사이 ‘느림의 문화’를 추구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켜지 않고 하루 지내기, 섣길 걷기 운동 등이 그 예이다. 이런 느림의 문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여유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주함과 빠름에 시달리지 않고, 느림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써 느림의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속도는 우리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빠른 속도의 높은 효율성은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높은 효율성은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명이 가져다 준 속도를 충분히 이용하되, 빠름 문화와 느림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양식을 정립해야 한다. 질주하는 고속철도 철길 가에도 느림보 달팽이가 기어가듯이 빠름 문화와 느림 문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또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V

읽기자료

■ 느림의 문화

성(城)에서 하룻저녁 하룻밤을 묵고픈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많은 성들이, 프랑스에서는 호텔이 되었다. 푸르름 없는 추함의 광막함 속에 한 조각 사각의 푸르름, 광대한 도로망 속의 한 조각 오솔길, 나무들, 새들, 나는 자동차를 몰고 있고, 백미러를 통해 내 뒤의 자동차를 관찰한다. 왼쪽의 작은 등이 깜박거리고 있으며 자동차 전체가 조바심의 전파를 보내고 있다. 저 운전수는 나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맹금(猛禽)이 참새를 노리듯이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

아내 베라가 내게 말한다. “50분마다 한 사람씩 프랑스의 도로 위에서 죽어요. 저 사람들 보세요, 주위에서 차를 굴리고 있는 저 미친 사람들. 저들은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털리는 걸 보면 지극히 몸 사리는 바로 그들이에요. 한데 어째서 운전석에 앉으면 두려움을 모르게 되는 걸까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오토바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제 현재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과거나 미래로부터 단절된 한 조각 시간에 매달린다. 그는 시간의 연속에서 빠져나와 있다. 그는 시간의 바깥에 있다. 달리 말해서, 그는 엑스터시 상태에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나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이들, 자신의 근심거리 따윈 전혀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는 두려울 게 없다. 두려움의 원천은 미래에 있고, 미래로부터 해방된 자는 아무것도 겁날 게 없는 까닭이다.

속도는 기술 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형태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물질들, 가쁜 호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체중, 자신의 나이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과 자기 인생의 시간을 의식한다. 인간이 기계에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고 나자 모든 게 변한다. 이때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는 비신체적, 비물질적 속도, 순수한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 엑스터시에 몰입한다.

기묘한 결합-테크닉의 싸늘한 물개인성과 엑스터시의 불꽃. 삼십년 전, 에로티즘의 아파라트치크[공산당 고위 간부-역자주]인 양, 엄정하고 열정적인 체하며, 내게 성의 해방에 관해 싸늘할 만큼 이론적인 입장 설교를 늘어놓던 그 미국 여인이 생각한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되풀이되던 말이 오르가즘이었다. 해아려보니 마흔세 번. 오르가즘 숭배, 성생활에 투영된 엄격한 실리주의, 한가로움을 적대하는 효율성, 여기서 성교는, 사랑과 우주의 유일한 참 목표, 즉 엑스터시의 폭발에 이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로 돌아돌고 만다.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옛날의 그 한량들은? 민요들 속의 그 게으른 주인공들, 이 방앗간 저 방앗간을 어슬렁거리며 총총한 별 아래 잠자던 그 방랑객들은? 시골길, 초원, 숲 속의 빈터, 자연과 더불어 사라져 버렸는가? 한 체코 격언은 그들의 그 고요한 한가로움을 하나의 은유로써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신의 창들을 관조하고 있다고, 신의 창들을 관조하는 자는 파분하지 않다. 그는 행복하다. 우리 세계에서 이 한가로움은 빈둥거림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빈둥거리는 자는 낙심한 자요 파분해하며 자기에게 걸려된 움직임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백미러를 바라본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나를 추월하지 못하는 예의 그 자동차. 운전자 옆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어째서 저 사내는 그녀에게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 주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그는 손바닥을 그녀의 무릎 위에 놓지 않는 것일까? 그러기는 커녕 그는 차를 충분히 빨리 몰지 않는 앞 차의 운전자를 저주하고 있고, 그 여인 역시 손으로 옆의 운전자를 어루만져 줄 생각은 없이, 마음속으로 그와 함께 차를 몰고 있으며 그녀 역시 나를 저주하고 있다.

- 느림, 밀란 쿤데라, 민음사

■ 느림의 미학

최근 눈에 띄게 부쩍 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느 여행사가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속도제한이 없는 독일고속도로 위를 독일제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질주해 보는 일정도 들어 있다. ‘현대화’의 구호 밑에서 계속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의 신흥 갑부들이 드디어 속도가 주는 짜릿한 쾌감을 독일 땅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1989년 이래 줄곧 서독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옛 동독사람들은 가끔 ‘동독에 대한 향수(Ostalgie)’에 젖어, 그동안 서독의 소비제품에 밀려 상점 진열대에서 사라졌던 상품을 다시 찾기도 한다.

이처럼 어떤 사회가 안고 있는 속도의 변화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주지만 불안감이나 불만감도 심어준다. 현대사회에서 속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까지 발전시킨 프랑스의 폴 비릴리오(P Virilio)는 무엇보다도 전쟁이 속도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활-총-대포-미사일-레이저로 발전해온 무기체제가 바로 속도가 지니는 공격성과 파괴력을 잘 보여주는 때문이다.

그는 또 전자통신 혁명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또 어떤 곳에서든지 일어나는 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있으나 이로 인해 우리의 지각능력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기계의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동성을 높이는 자동차가 자주 교통체증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 어떤 때는 걸어가는 편이 더 빠를 수도 있다. 목적지에 한시라도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수단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정체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설을 문학적으로 다룬 독일작가 스텐 나돌니(S Nadolny)의 ‘느림의 발견’이라는 소설이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영국의 실재인물 존 프랭클린(1786 1847)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말과 동작이 극도로 느려 주위로부터 항상 놀림을 받았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사물을 치밀하게 관찰하게 만들었으며, 그 때문에 그는 유명한 북극 탐험가가 될 수 있었다.

느림이 곧 삶의 리듬에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이 성장소설이며 해양모험 소설이 보여주고 있다. ‘느림’이라는 소설 속에서 체코 출신의 작가 밀란 쿤델라(MKundela)도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옛날의 그 한량들은? 민요들 속의 그 게으른 주인공들, 이 방앗간 저 방앗간을 어슬렁거리며 총총한 별 아래 잠자던 그 방랑객들은? 시골길, 초원, 숲 속의 빈터, 자연과 더불어 사라져 버렸는가.”라고 묻는다. 느림의 내면에 담겨 있는 인간성을 두 소설은 강조하고 있다.

사실 강박적인 속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오늘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푸드’ 대신에 ‘슬로푸드’를 위한 운동,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모임’ 등도 있다. 심지어는 ‘바쁘면 천천히 가라’라는 제목의 책은 게으름의 필요성까지도 역설한다. ‘빨리 빨리’ 움직여도 먹고 살기 힘든 판국인데 그렇게 ‘천천히’ 움직인다면 어떻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

우리에게도 ‘바쁘면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압축성장은 300년 넘은 오랜 산업화의 역사를 가진 서구 산업사회에서보다 시간이 곧 사회관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재원(財源)이라는 생각을 더 굳혀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앞만 보고 ‘빨리 빨리’ 달려 왔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천천히’ 걸어야만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의 비밀은 우리 모두가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의 의미에 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데 있다고 미하엘 엔데(M Ende)의 소설 ‘모모’는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주보다는 느림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절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느림의 미학을 강조해 본다.

-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서울신문 2005. 5. 11자

■ 예술의 본질과 아름다움의 의미

1. 예술의 본성에 관한 해석

예술의 본성에 관한 해석은 예술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경위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예술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실재를 그려내는 시도이다. 예술이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예술은 어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람들은 과학이나 일상적 경험이 주지 못하는 것을 예술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한다. 과학은 우리에게 현상계의 모습을 보여 줄 뿐인데 반해서 예술은 감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실재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술은 실재의 모사로 정의 될 수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rthur)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 플라톤에 의하면, 아름답다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순응해야만 하는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다.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영구불변인 반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가변적인 것들이어서 언제나 무상하다. 예술은 바로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향한 동경이다. 즉,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닮으려는 노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대한 예술가는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보다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모사의 본능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심어져 있고,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비로소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물들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것에 대한 모방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과학적 보편이라기보다는 예술가에 의해서 직관되는 미적 보편을 뜻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만일, 모든 예술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고정된 실재를 포착하려는 시도라고 한다면, 대체 어느 누가 예술에 의해 실재가 표현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게다가 예술에 대한 모든 비판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개별적인 판단 이외에는 아무도 이 숨겨진 실재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놀이로서 예술을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은 영원한 실재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활동 간의 간격을 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어 주려고 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예술은 놀이의 충동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놀이는 일종의 잉여 에너지의 넘침 또는 발산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창조는 개개인에 있어서 잉여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자발적 활동이다. 어떤 저차원적인 필요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어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노동과 달리, 놀이는 수단이 아닌 잉여 에너지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표현이다.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놀이의 최고 형식이 바로 예술이다. 따라서, 노동은 유기체의 저차원적 활동이고, 놀이 활동에 속하는 예술은 고차원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예술을 느낌과 욕망의 표현으로서 보는 견해는 예술에 있어 지성의 역할보다 감성의 역할을 보다 더 강조한다. 이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만일 예술이 어떤 가치를 가진다면, 그것은 만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의 가치가 우리에게 앎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면, 예술은 앎과는 관계없이 오직 느낌을 전달함으로

써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톨스토이(Tolstoi, Leo)에 의하면, 예술은 감성의 언어이다. 예술은 개인이 경험했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위대한 예술가는 그가 경험했던 느낌을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사람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느낌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예술의 주제도 인간의 삶, 그 자체만큼이나 다양하다. 인간이 자신의 주변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은 예술의 자료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예술의 주요 기능이 감성이나 욕망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술에 관한 비판적 기준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결국 개개인에게 맡겨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예술을 경험의 강렬한 표현으로서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예술이 종종 일상 생활의 평범하고 상식적인 경험과 유리된 어떤 것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다. 듀이(Dewey, John)에 의하면, 경험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미적 가치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컨대, 원시 사회에서도 예술은 집 안에서 쓰는 물건들이나 개인적 장신구와 같은 흔한 대상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는 미적 즐거움과 삶의 일상적 경험 간의 계속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경험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 창조는 예술가가 그의 개성, 지식, 상상력 등을 경험에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술은 경험에다 상징적인 변형을 덧붙임으로써 경험을 보다 깊고 강렬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즉, 예술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통일성, 의미, 조화, 완성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경험이다. 그런 경험은 거의 모든 삶의 활동과 연관되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석양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꽃을 보면서 느끼는 경험일 수도 있다. 이 입장은 가장 개인적인 창조의 표현까지도 예술적 경험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이것은 앞의 세 가지 입장을 포함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예술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름다움의 의미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 관하여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가, 아니면 외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물 속에 있는가? 아름다움에 관한 경험은 나의 것일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소재이다. 아름다움이 주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상물이 사람에 따라 아름답게 또는 아름답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든다. 또, 동일한 사람이 같은 대상물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감상하는 경우, 전에는 아름답게 느껴지던 것이 후에는 아름답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한다. 주관론자들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모두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대상물에 있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반면, 아름다움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물을 한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만일 누군가가 어떤 경치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미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립되는 주장들을 중재하는 입장에 의하면, 아름다움은 외적 대상 속에 잠재적으로 있으나 그것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감상되기까지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얼핏 조화로운 주장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의 대립은 그대로 남아 있다. 주관

주의자에 의하면, 대상 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아름다움을 현실화하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마련될 수 없다. 반면에 객관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예술적 걸작들이 시대와는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영속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든지 간에 결국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아름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름다움을 범주화하려는 시도는 철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름다움을 순수한 아름다움(순수미), 숭고한 아름다움(숭고미), 해학적인 아름다움(해학미), 비극적인 아름다움(비극미), 희극적인 아름다움(희극미), 매혹적인 아름다움(매혹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를 다시 일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순수미, 희극미, 비극미를, 그리고 후자에 나머지 셋을 넣기도 한다. 보다 단순화하여 아름다움을 순수미, 숭고미, 비극미, 해학미의 넷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이 분류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순수미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이다. 조화롭다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서로 모순 되지 않고 어떤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속에는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과 내용간의 괴리도 없다. 또,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서 순수미의 느낌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순수미는 고귀함, 즐거움, 우아함, 선형성 등을 포함한다.

숭고미는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이다. 이것은 감동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숭고한 것은 우리가 결코 저항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나 크기의 느낌으로 우리를 압도함으로써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왜소하고 초라하다고 느끼게 된다. 물론, 우리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것 앞에서 있다는 느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고양시키도록 한다. 숭고미는 인상적인 장엄함, 거룩함, 감동성을 포함한다.

비극미는 근본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그 원천으로 삼고있다. 만일, 비극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 절망과 비참함으로 인간을 파괴하게 된다면, 비극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비극은 인간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것 이어야 한다. 비극은 스스로가 초래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처한 인간이 고통을 통하여 우주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반성함으로써 무자비하게 다가오는 운명에 대해 항거하는 것이다. 비극미는 악마적인 것, 슬픔, 감동성을 포함한다.

해학미는 통상적 질서를 무시하거나 파괴한다는 점에서 비극미와 유사하다. 우리가 년센스라고 부르는 경우의 대부분은 통상적 질서의 파괴를 의미한다. 예컨대, 정상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두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연민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광대극과 같은 것은 해학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러므로 해학의 본질은 부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순수미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리고 비극의 경우와 달리 우리를 어떤 절체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근감과 반감을 동시에 경함하게 한다. 해학적인 것은 우울함과 슬픔, 재미있음과 변덕스러움, 그리고 이상함과 기묘함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 철학, 정해창,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 대학별 실전 논술

1) 서울대 편

I. 논술 경향 분석

II. 서울대 실전 논술

2) 연세대 편

I. 논술 경향 분석

II. 서울대 실전 논술

3) 고려대 편

I. 논술 경향 분석

II. 서울대 실전 논술

1

서울대 편

I

논술 경향 분석

서울대학교 논술고사는 주어진 논제와 제시문을 통하여 다각도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2,500자 내외의 논술문을 요구함으로써, 암기한 내용이나 추상적인 논의를 배제하고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작년 정시 모집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2)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 후, (3) 그에 따라 설정된 주장들을 자신의 논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과정에서 (4)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논증하는 능력과 함께, (5)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이 적절히 조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아울러서 평가한다.

작년 모의 논술고사에서는 기계의 발전과 연관된 두 제시문을 통해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존재 양식 자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자신이 놓여 있는 시공간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논제는 이와 같이 두 글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수험생에게 요구하였다.

수시 논술고사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데 참고가 되는 고전적 저술을 제시문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들 제시문에 반영되어 있는 문제의식을 한국 지식인 사회의 맥락에 접목시켜 분석 평가하고, 학생 자신의 구체적 경험에 기초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도록 출제하였다.

정시 논술고사에서는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부분성 및 주관성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제시문으로 주고 그것을 소재로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더불어 두 제시문이 비유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할 때 다양한 맥락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짧은 참고문들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인용하거나 사고의 단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시와 정시의 제시문에는 한자가 돌출되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창의력

창의력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제에 접근함으로써 독창적인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005학년도 수시 논술에서는 제시문의 교훈 및 시사점을 한국 사회의 구체적 맥락에서 정리하여 서술하도록 요구하였고, 정시에서도 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채점 기준표에도 나오듯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장이 새롭고 참신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주장을 얼마나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한자 혼용에 대한 대비

과거 심층 면접 과정에서 한자가 혼용된 제시문을 수험생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서울대가 한자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작년 수시, 정시처럼 올해에도 한자가 혼용된 제시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문맥을 통해 어휘를 추론해 내는 능력 및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3) 채점 기준 고려

서울대 논술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발표해 놓았다.

구 분	평가내용 및 기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감점	· 답안길이 미충족 · 필기구 종류 및 색깔 위반 · 응시자의 신원 노출
이해 분석력 (20점)	· 주어진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석 능력 ·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석(독해) 능력 · 논술문이 논제에 충실한 정도 ·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
논증력 (30점)	· 근거 설정 능력 -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 제시 여부 -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타당성 -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현 - 표현 견해가 제시문의 논의에 의거해 적절한 뒷받침 · 구성 조직 능력 - 전체 논의 전개에 정합성 및 일관성이 유지 -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논리적 비약은 여부 -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
창의력 (40점)	· 심층적인 논의 전개 -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문들의 고려 - 본인의 논의가 지니는 더 나아간 함축이나 귀결들에 대해 고려 -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한 더 나아간 고찰 · 다각적인 논의 전개 - 발상이나 관전 전환을 시도 -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 - 여러 개념들의 종합 -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창적인 논의 전개 - 주장이나 논거에 새로움 -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함 - 관점이나 논의 지평에 참신함
표현력 (10점)	· 표현의 적절성 - 문장표현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움, 적절한 비유 등 - 단락구성 및 어휘 사용 -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 (1) 지시사항 불이행 : 답안 길이 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하며, 신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 이해분석력 : 이해분석력이란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제와 제시문의 의미를 찾아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해분석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고 그 속에서 핵심 어구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 (3) 논증력 : 논증력은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연관, 논의를 정합성 및 일관성을 의미한다. 논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이 쓴 글을 반복해서 읽고 검토하는 습관과 함께 자신의 글이 갖는 문제점을 다른 사람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창의력 :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점수 편차가 가장 심한 항목이다. 창의력은 심층적 다각적 사고를 통한 주장 및 관점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논술의 원래 목표인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표출을 도외시하고 모범답안의 작성에 치중한다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 (5) 표현력 : 표현력은 단락의 구성 및 어휘사용의 적절성, 어법에 맞는 글쓰기 및 원고지 사용법 등을 말한다. 채점 결과 드러난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구어적 표현
 - 불분명한 지시 대명사의 남발
 - 논리 전개와 무관한 접속사 사용
 - 잘못 사용된 현학적인 어휘
 - 부적절한 조사
 -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정자법 미숙
 - 의미 없는 단락구분

II-1

서울대 실전논술

<I> 문 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논술문에 포함시킬 것.

1. 제시문 (가)의 상황에 비추어 제시문 (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
2. 제시문 (다)의 사례를 통해 주장을 이끌어 낼 것

(가)

니나는 동급생과 정치적인 충돌을 가졌다고 말했다. B교수는 정신병학 강의에서 안락사 문제를 취급했고 이어서 학생들간에는 맹렬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니나는 기진맥진해서 그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를 않았다. B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인간의 생명에서 허락된 파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형법은 사형을 허가하고 국제법은 전쟁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불치의 병자를 살해하는 것도 허가될 수 있는 법칙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강의 중에는 조용히 받아들여졌으나 나중에는 그만큼 더 맹렬하게 토론되었다. 어떤 학생이 독일 민족이 휴머니스트들의 나약한 견해에 반대하고 강자의 지배를 택한 날부터 이미 그 법칙은 존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니나는 분격해서 소리를 질렀다. 나도 이 국민에 속해 있지만 절대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일부 국민에 의해서 찬성된 법칙이 어떻게 실시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은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니나는 나쁜 부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여학생이 발언을 한 까닭에 다행히도 그 말은 묵살되었다. 그 여학생은 한 때의 짐승을 전염병에서 구하려면 한 마리의 병든 짐승은 죽여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견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서 인간도 짐승같이 동물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 불치의 정신병자가 아직도 인간인가 또 병자의 격리가 살해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제할 수 있을 때에도 살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을 논쟁하였다. 니나의 편이 되어 싸워 준 두어 사람의 학생들은 완치될 수 없는 정신병자가 인간인가 비인간인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불치라는 개념이 막연하여 거기다가 진단의 과오도 있을 수 있고 치료의 진도도 있어서 이제까지 불치로만 생각했던 병을 고친 예도 많았다고 말했다.

니나는 정신병과 비정상 사이에는 거의 경계선을 책정할 수가 없으며 불치의 병자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와 반대로 건강은 하지만 사회에 해로운 인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누군가가 말을 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에 해로운 인간도 살해해야만 한다. 그들과 정신병자를 국민은 희생시켜야 한다. 그래서 니나는 소리를 쳤다.

"그러면 당신은 윌헬름도 죽였겠군요?"

그러고는 모든 이성을 잃고 복도에 울릴 만큼이나 소리를 질렀다.

"누가 그러면 생과 사를 결정하는 권위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살인은 살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당신 같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될 테지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법을 가장하고 한 번 죽이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법이건 불법이건 아랑곳없이 죽이고 또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살인자들만 남게 될 테죠.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살인을 허가할 뿐 아니라 그 필요성과 선의의 가장까지 부여주는 국가를 절대로 시인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은 소리를 질러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그 중의 한 명은 당신과 같은 인간들은 대학에 맞지 않을뿐더러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전 : 루이제 린저, 생의 한가운데.

(나)

倫理는 보편적 관점을 취한다. 이는 어떤 특정한 윤리적 판단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윤리적 판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달라진다. 윤리가 보편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의미는,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好, 不好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收入의 보다 평등한 分配를 통해서 내가 利益을 얻고 네가 損害를 본다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윤리는 ‘나’와 ‘너’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법칙, 보편화 가능한 판단, 不偏不黨한 眺望者 혹은 이상적인 觀察者,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던 간에 그 같은 것으로 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윤리의 이 같은 보편적 측면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옳음과 그릇됨을 알려주는 윤리적 이론을 導出할 수 있는가? 스토아주의자들로부터 헤어와 롤스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이를 계속 시도해 왔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론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윤리의 보편적 측면을 있는 그대로 형식적으로 기술한다면, 결코 融和될 수 없는 윤리 이론들을 포함한 廣範圍한 윤리이론들이 이 같은 보편성이란 개념과 兩立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윤리의 보편적 측면을 쫓 기술하다가 불가피하게 하나의 특정한 윤리적 이론에 다다르게 된다면, 우리는 윤리에 대한 定義에 우리 자신의 윤리적 信念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 같은 정의는 ‘윤리이론’이라는 지위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代案을 包括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충분히 中立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의 보편적인 측면에서부터 하나의 윤리 이론을 演繹해 내는 데 놓여져 있는 이 障礙物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자리인 이곳에서 그 같은 일을 試圖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조금 더 野心的인 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의 보편적 측면이 넓은 의미의 功利主義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비록 결정적이지는 않다 해도 說得力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 같은 提案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윤리적 判斷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익(interest)이 단지 나의 이익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이익이 돌보아져야 한다는 나의 대단히 자연스러운 관심은, 내가 윤리적으로 사고하는 한 다른 사람의 이익에까지 延長되어야만 한다. 어떤 예라도 관계없이 이제

내가 가능한 두 행위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또 내가 완전한 윤리적 眞空 상태에서 그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즉 윤리적 考慮를 전혀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른바 倫理 以前的(pre-ethical) 사고 단계에서 그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假定해 보자. 어떻게 결심을 할 것인가?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가능한 행위 과정이 나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이익’을 충분히 넓게 정의해서 어떤 사람이 욕구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兩立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익으로 간주한다면, 이 같은 윤리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단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이 그 같은 결정에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의 이익이 단지 그것이 나의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윤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자. 나 자신의 이익 대신에 나는 이제 나의 決定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같은 고려는 나에게 모든 이익들을 測定해서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이익이 最大化될 것으로 보이는 행위 과정을 채택할 것을 要求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考慮할 때 영향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 과정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功利主義의 한 형태이다. 이 때 ‘최선의 결과’라는 말이 단지 즐거움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영향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增進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功利主義는 古典的 功利主義와 구별된다. [그러나 벤담이나 밀(John Stuart Mill)과 같은 古典的 功利主義者들은 ‘快樂’과 ‘苦痛’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快樂’은 바라는 것을 달성하는 것으로, ‘苦痛’은 그 반대의 경우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만약 이 같은 해석이 정확하다면, 이익에 기초한 功利主義의 古典的 功利主義와의 차이는 사라진다.]

이제까지와 같은 설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가? 功利主義가 윤리의 보편적 측면에서부터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개인의 권리들, 생명의 尊嚴, 正義, 純潔 등과 같이 요청된다는 의미에서는 보편적이거나, 적어도 어떤 관점에서는 功利主義와는 양립될 수 없는 다른 윤리적 理想들이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윤리 이전적인 결심에 일단 윤리의 보편적인 측면을 적용하면 매우 쉽게 우선 功利主義의 입장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나는 功利主義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때문에 證명의 負擔을 지게 된다고 믿는다.

功利主義의 입장은 최소한의 것이며, 이기적인 의사 결정을 보편화함으로써 到達하게 되는 첫 번째 근거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한 이 단계를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功利主義를 넘어서서 非功利主義적인 도덕적 규칙이나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같이 더 나아가는 데 대한 適當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같은 이유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功利主義者로 남아 있어야 할 근거가 있다.

§출전 : 피터싱어, 황경식 김성동 옮김(1991). *실천윤리학*. 철학과현실사.

(다)

신도가(申徒嘉)는 형벌로 다리를 잘린 不具者였다.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과 함께 백혼무인(伯昏無人)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자산이 신도에게 말하였다.

"내가 먼저 나가게 되면 자네는 머물러 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게 되면 내가 머물러 있기

로 하세. 자네는 일국의 宰相인 나를 보고도 敬意를 표하지 않고 길을 비키지 않는데, 자네는 나와 身分이 같다고 생각하는가?"

신도가가 대답하였다.

"과연 선생님의 門下에서 자네가 말하는 宰相이라는 것이 있을까? 자네는 자기가 宰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남을 업신여기고 있소."

자산도 지지 않고 말하였다.

"자네는 그렇게 凶測한모습을 하고도 堯 임금과 같은 德과 善行을 경쟁할 생각인가?"

이에 신도가는 대답하였다.

"세상에는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辯護하며 자기가 다리를 잃은 것은 不當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의 허물을 辯護하지도 않고 자기 다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不當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네. 나는 후자의 편이라네, 나도 화가 나지만, 선생님 계신 곳에 가면 모두 잊어버리고 평온해질 수 있네. 선생님의 선덕이 나의 마음의 추악함을 씻어 내는지도 모르지. 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지 19년이나 되었지만, 한 번도 내가 다리가 없는 不具者인 것을 신경 써 본 적이 없네. 지금 자네와 나는 신체 내에 있는 마음의 세계에서 交際하고 있을 터인데 자네는 나의 신체 밖에 나타나 있는 형태만을 보려고 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출전 : 장자, "덕충부"

◆ 유의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500자 안팎(± 300자)의 길이로 논술할 것.
2. 제목을 붙이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말 것.
4. 연필을 사용하지 말고,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한 가지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다. 장애가 편견과 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애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천벌’이나 ‘췌값’으로 장애가 생겼다고 보면, 장애를 가진 개인이 받게 되는 사회적 편견과 오명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신 장애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인간 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생산성 저하,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 체계를 위협하는 일탈(deviance)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 공리에 위배되는 사례로 거론되거나 이들에 대한 평등 대우가 역차별 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가 지속되는 것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장애 없이 평생을 살기는 어렵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시는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장애이고, 비만이나 고지혈증으로 제한적 음식 섭취가 필요한 사람도 장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반응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다. 생활에는 근시나 위장 장애가 더 불편할 수 있는데도 얼굴의 흉터나 작은 키가 심각한 장애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이해 관계의 상충 등과 맞물린 윤리적 선택의 적절성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바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적 접근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제 파악

이 문제의 핵심 논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 방향’이다. 또한, 제시문에서 문제 상황과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내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제시문 (가)의 상황과 결부하여 제시문 (나)의 주장에 담긴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시문 (가)에서 다수의 논변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문 (나)의 주장과 결부하면 쉽게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에서 장애인 제자를 대하는 스승의 태도에 담긴 함의(含意)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안에 잠재해 있는 편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 방향을 정립하면 된다.

3. 문제 해결

제시문 (가)는 ‘불치의 정신병자’를 놓고 ‘인간의 생명에서 허락된 파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강자의 횡포’일 뿐이라는 나나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나나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신병 환자에 대한 실용적 편견이 은폐되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생명에서 허락된 파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불치의 정신병자’에 대한 논란은 정신 질환자를 사회가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준비 면에서 볼 때 호응의 여지가 많다. 우선 치료라는 면에 한정하고 보더라도 외래 진료,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등이 지리적 경제적 장애물 없이 정신 질환자(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만성 정신 질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활이나 지원에 이르면 요구되는 시설 인력 제공 체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범위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나 신념 체계, 질병에 대한 이해까지 이르게 되면 소수를 위해 소요되는 노

력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제시문 (나)에서처럼,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을 놓고 저울질하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본다면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공리에 위배되는 사례로 거론되거나,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가져올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시문 안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산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보편성’이란 개념으로부터 공리주의를 도출하고 있다. 즉, 윤리의 보편적 성격을 윤리 이전의 보다 단순한 의사 결정, 즉 이기적인 의사 결정에 적용하게 되면 쉽사리 공리주의적 입장에 귀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증명의 부담을 반공리주의자들(anti-utilitarians)에게 넘기며, 공리주의적 입장이 윤리학적 논의의 출발점에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르면 결국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의사 결정을 보편화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첫 번째 기본 단계이며,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한 이러한 단계를 결코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나 자신의 이해 관계가 단지 나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해서 더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면, 즉 공평하게 고려될 수 있다면 나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 과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공평성(impartiality)은 모든 이해 관계를 총합하여 이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위과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변의 문제는 일부 사람들의 본질적인 이해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이해 관계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를 공리주의가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극심한 박탈도 상당수 타인들의 처지를 개선해 줄 경우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제시문 (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다. 장애에 ‘도덕적’ 문제가 결부되는 경우 장애를 ‘천벌’이나 ‘궤양’으로 여기게 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이 받게 되는 편견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자산(子産)의 태도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와 다르다’는 관점은 장애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제시문에 나오는 스승은 예수처럼 기적을 통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앓은뱅이를 걷게 하는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장애 그 자체는 그대로 두고, 비장애인과 차이를 망각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선덕(善德)’으로 이끈다. 이는 차이에 연연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신체 내에 있는 마음의 세계에서 교제하도록 이끈다. 또한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여 자신의 과실로 다리가 잘린 것을 개의치 않는다. 자기의 과실 때문에 다리를 잘렸다는 의미의 인과응보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정신적으로 전혀 차별이 없는 평등의 세계에서 노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신도가는 더 이상 비장애 상태에 가까워지려 하거나 기적이나 치료를 통해 비장애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속에 설 것을 자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된다. 장애인을 ‘다르다’라는 인식 하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행하는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견과 차별이 아닐지라도, 장애인을 일반인과 차이가 있는 다른 그룹으로 취급하게 되고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처우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제도와 시설은 ‘일상 생활에 제약이 없는’ 다수의 일반인

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같은 별도의 보호 조치가 행해진다. 반면 장애인을 ‘장애로 인한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본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 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 이슈가 된다. 즉, 적절한 배려를 통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된다.

제시문 (다)에서 스승의 태도는 결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보여준다. 바로 ‘나와 다르다’는 입장이 아닌 ‘나와 같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접근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장애인이 자기 비하 의식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
- ② 비장애 상태를 지향하지 않게 하고, 장애를 의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 ③ 궁극적으로, 차별이 없는 평등의 세계에서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

4. 예시 개요

- 서론: 장애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현실 비판
- 본론 1: 제시문 (가), (나)의 문제점
 - 제시문 (가) 분석: 장애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간주하는 현실
 - 제시문 (나) 분석: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제점
(소수자 권익 박탈을 옹호하는 이론이 될 가능성)
- 본론 2: 제시문 (다)의 사례가 주는 교훈
 - 제시문 (다) 분석: 스승의 태도가 주는 교훈
 - ■ 자산: 사회적 편견의 사례
 - ■ 스승: 차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도가의 권리와 능력 보장
- 결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 방향
 - ‘나와 다르다’가 아닌 ‘나와 같다’는 인식(평등에 기반한 차이 보상)
 - 장애인이 평등의 세계에서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 구현

5. 예시 답안

오늘날 우리는 전 국민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의 원리보다는 능력과 업적의 원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항상 ‘최소의 수혜 대상자’로서 사회의 그늘 속에 묻혀 지내는 실정이다.

흔히 우리는 어릴 적의 발병과 분만시의 장애아를 선천성으로 보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장애를 숙명으로 치부하거나, 도덕적인 문제로 인한 것임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다. 또한 비정상적 인간 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생산성 저하,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 체계를 위협하는 일탈로 규정하여 사회의 부담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는 공리주의의 명분을 통해 정당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제시문 (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실용적 편견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불치의 정신병자를 놓고 인간의 생명에서 허락된 파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이 동조

하고 있다. 이 모습은 파시즘이 지배하던 당시 독일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우리 사회도 이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사회적 소수인 장애인의 사회적 처우 향상을 위한 투자는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시문(나)에서처럼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을 놓고 저울질하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본다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공리에 위배되는 사례로 거론되거나,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가져올 가능성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

제시문(나)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윤리학적 논의의 출발점에 있다고 한다. 나 자신의 이해 관계가 공정하게 고려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평성은 모든 이해 관계를 총합하여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행위 과정을 채택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박탈도 상당수 타인들의 처지를 개선해 줄 경우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장애인 정책이 미흡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나 예산 배정 등 실무 차원의 문제인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차별, 배제, 시혜 등 장애에 대한 사회 구성원과 사회 체계의 근본적 시각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제시문(가)에서 나나의 분노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실상 이면에는 나의 이익과 별개의 일로 치부하거나 차별과 편견에 의해 접근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제시문(다)에서 스승의 모습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와 다르다’는 관념은 장애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장애에 ‘도덕적’ 문제가 결부되는 경우 장애를 ‘천벌’이나 ‘죄값’으로 여기게 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이 갖게 되는 편견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자산(子産)의 태도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스승은 비장애인과 차별을 제거하고, 차이를 망각하게 함으로써 신도가를 ‘선덕(善德)’으로 이끈다. 신도가는 자기 행위의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여 다리가 잘린 것을 개의치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차별이 전혀 없는 세계에서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린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장애인을 ‘다르다’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우리과 같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르다’는 인식은 장애인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행하는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 따라서 편견과 차별이 아닐지라도 장애인을 일반인과 차이가 있는 그룹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의 제반 시설은 비장애인[일반인]을 중심으로 계획되며, 장애인에게는 일종의 시혜 차원에서 별도의 보호 조치를 행하게 된다. 반면 ‘우리과 같다’는 전제는 장애인을 ‘장애로 인한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으로 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 기제를 없앴으로써 ‘출발선의 평등’을 통해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평등에 기반하여 차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애에 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는 특성(trait)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state)로서, 특정 조건 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일 뿐이다. 다르게 볼

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해서는 안됨은 물론, 장애인이 비장애 상태를 지향하거나 장애를 의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동일한 차원, 즉 차별이 없는 평등의 세계에서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접근은 동정이나 자선의 차원이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인권적 차원에서 ‘차이에 기반한 평등, 평등에 기반한 차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만이 다양성이 배풀어 주는 풍요로운 가르침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읽기 자료

■ 장자의 장애인관

장자의 여러 편에서 장애인이 등장하고 있다. 절름발이, 꼬추 등이 여러 가지 용어로 나타나 있지만, 하나같이 겉모습은 추하지만 그 마음은 매우 바르게 묘사되어 있다. 외모는 번듯하지만 온갖 추악한 심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한 진정한 불구와 대비되어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장자에서 나타난 장애에 대한 구절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자의 장애인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장애에 대한 기본적 시각 : 만물제동의 사상

앞서 살펴 본 서구중심의 장애이론에 의하면 실제적인 손상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손상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 그리고 이러한 손상을 가지지 않는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손상이 있기 때문에 외모에서부터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 사회적 상호관계, 그리고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비장애인과 구분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자에서는 장애와 비장애라는 인위적인 구분이 거부된다. 즉, 만물은 모두 동일하다는 만물제동의 사상에 입각하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인위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이기 때문에 선과 악, 미와 추, 나와 너 등의 차별은 무의미하다. 특히 이러한 만물제동은 인간사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나아가 무와 유의 경지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모든 사물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한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장애 그리고 손상이 없다는 비장애의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장애손상

만물제동에 의해 기본적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인위는 거부된다. 그러나 장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 손상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탁월한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즉,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그것을 이어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그것을 잘라주면 그들을 해치게 되듯이 인위는 자연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인구학적 분포에 근거하여 다수를 정상으로 규정한다면 분명 손상을 가지는 장애인은 소수로서 비정상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장자는 이와 같은 천박한 인위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의 입장에서 장애가 있음은 당연한 하나의 자연이며, 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장애 손상에 대해 비장애와 구분하여 스스로 자기편하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학이 자신의 다리가 길다고 탄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따라서 손상을 가지는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손상)과 합일을 추구해야지 굳이 손상을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덕충부에 등장하는 에타타라는 꼽추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장자의 장애인관이 잘 묘사되어 있다. 『에타타라는 꼽추는 말이 없는데도 믿어지고, 공이 없는데도 친하며, 이국의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주고서도 혹 그가 그 자리를 말지 않을까 염려하게 하니 이는 반드시 온전한 재주가 있으나 덕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중략) 사생존망, 궁달빈부, 현여불초, 궤예, 기갈, 한서는 모든 인간 현상변화이며 운명의 운행입니다. 인지로서 그 근원을 알지 못하니 이와 같은 운명의 변화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마음 속에 침입시켜서는 안된다. 오히려 운명을 자기에게 조화시켜 쾌적한 것으로 만들고 설새 없이 만물과 접하면서 일체의 사물을 봄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듯이 해야 합니다』

또한 양생주에서도 의하면 『한쪽 발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다. 하늘이 나를 한쪽 발만 가지고 태어나게 한 것이다. 사람의 모양은 하늘이 정해준다. 따라서 내가 한쪽 발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일 뿐 사람의 뜻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장자의 입장은 일견 운명순응의 소극적 인생관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장자는 손상이라는 지극히 사소한 사실에 의해 현혹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할 뿐이다. 『무릇 생을 얻음은 시이고 잃음은 순이다. 시에 안주하고 순에 따르면 애락도 끼어들지 못한다네.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현해이다. 그런데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것은 외물이 이를 묶기 때문이다』(대중사 중에서).

장자에게 손상이 있고 없음 또는 손상을 제거하거나 그 영향을 줄이는 등의 노력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그보다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자연(손상)과 자신을 일체하며 이러한 일체를 통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적부터 죽을 때까지 천변만화하여 끝이 없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일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지에서 노닐고 모든 것을 긍정하려고 한다』(대중사 중에서).

3) 장애문제의 해결

(1) 장애인 스스로의 장애인식

장자에 의하면 장애문제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지 장애손상 등이 인간이 참 자유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되는 외물이 됨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손상이라는 외물에 구애되지 않고 참진인되기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력하면 된다. 자기 육체를 이세상의 임시 거처로 삼기 때문에 이것을 잃더라도 즉, 장애손상이 있다하여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다(덕충부 중에서).

온갖 차별을 초월하는 대도에 동화되는 좌망의 길에서 오히려 자기의 몸뚱이나 팔다리는 잊혀져야 하고 눈이나 귀의 활동은 없어야 하며, 형체 있는 육체 그리고 마음의 얽이 버려져야 한다(대중사 중에서). 따라서 장애로 인한 신체의 손상, 기능의 상실은 아무런 문제나 제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체의 변화에 놀라는 일이 있더라도 정신이 손상하지 않으며 정신의 임시 거처는 있어도 참다운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가만히 있는 것에 편히 맡긴 채 변화에 순종하면 곧 고요한 천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대중사에서).

(2) 사회적 차별

장애에 대해 외부의 차별이 부당하지만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자는 『죽음을 혹은 떼고 종기를 터뜨리는 정도로 생각한다. 또한 사람의 몸을 이물을 빌어 동체에 위탁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간, 쓸개와 같은 자신의 일을 잊고 그 이목도 잊는다고 했다(대중사 중에서). 따라서 외부의 차별이 있다하여도 이 또한 하나의 외물로서 그저 망각하면 된다고 했다.

(3) 장애인복지 및 재활

장애문제의 해결은 의료, 교육, 심리사회 그리고 직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다.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위의 각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른 재활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자에 의할 때, 장애인이 가지는 의료, 교육, 심리사회 그리고 직업에서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그러기에 재활이라는 용어도 부적절하다. 위와 같은 문제는 단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이제까지의 장애인 대상 재활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장애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분리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즉, 통합적 맥락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이 모색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는 통합교육, 통합적인 직업재활 등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 이계존, 전인적 장애인론으로서 장자의 장애인관

■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더불어 같이 살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권 차원에서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권존엄의 동등한 존중

UN의 인권선언과 우리나라 장애인인권헌장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어떤 심신의 상태하에서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자유권과 사회권의 주체이다.

UN의 장애인에 관한 행동계획 제2항에서 “정신, 신체 또는 감각손상의 결과로 장애를 입은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26항에서는 “장애인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장애인을 천시 소외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함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인권헌장 전문에도 인간존엄에 대한 가치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장애인인권헌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전문(前文)과 본문 1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문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13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의 개별화 존중

같은 장애에 속하는 부자유인이나 장애원인을 가졌다고 하여도 개인의 개성, 상황, 삶의 목표가 다른 개인에게는 그것이 결코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개개인에 대한 장애의 의미부여와 문제해결 접근방법에는 고도의 개별화가 요구된다.

3) 발달보장의 추구

모든 개체는 변화하고 발달하며 그 가능성을 믿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발달보장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성적 발달과 잔존능력의 성장가능성 등을 찾아 그 성장에 기대를 걸고 개성이나 특성을 전인적으로 파악하여 발달시켜야 한다.

4) 기회균등

기회균등이란 물리적 환경, 주택과 교통, 사회와 보건 서비스, 교육과 근로기회,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기구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UN에서 규정하였다. 따라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기회가 장애인에게도 개방되어야 하며 일반인과 다른 생활이나 장애인만의 시설에 수용 격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사회관계를 장애인에게도 개방하여 가는 것이 기회균등을 실천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념의 하나라고 본다.

5) 사회참여의 평등성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이 진행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할 때 이것을 사회통합이라고 한다. 사회통합은 평등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

6)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SRV)

SRV는 사회적인 가치절하의 결과로 인간적인 가치절하를 당하는 장애인들의 수많은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절하와 상처에 대한 극복 노력은 1950년대에는 주로 장애인 개인과 가족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1980년대에는 가족의 노력에다 장애인들 자신, 옹호자, 동료들,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커다란 진전을 거두었다. 이러한 가치절하의 상처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은 가치절하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대인(personal) 사회통합과 남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는(valued) 사회통합으로서 단순한 물리적 통합과는 다르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은 지역사회에 안에 가치절하 받는 사람들도 함께 살도록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단지 개인이 가치 있는 사회참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정상화는 탈시설화나 주류화(mainstreaming)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탈시설화나 주류화는 가치절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의 통합적 방식이 아닌 물리적 통합형태로 사회에 존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은 가치절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더 큰 상처를 안겨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시설화나 주류화는 가치절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거부 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문 제

제시문 (가)~(다)는 사회 진보의 동인(動因)과 원리를 검토할 때 참고가 되는 글이다. 제시문의 논지를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연결하여 제시문 (라)의 상황에 적용하시오. 이를 토대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현실 대응 태도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가)

넓은 의미의 도덕성의 실천적 체계를 묘사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묻기 시작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묻은 바 있는 “무엇이 인간에게 좋은 삶인가?”하는 것이다. 좋은 삶이란 문제의利害關係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일 것이다. 즉 좋은 삶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 관계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생각해 볼 때, 그 활동에從事하는 사람과 그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 양쪽의利害關係와 우리의利害關係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歡迎할 수 있고 是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이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첫째, 사람이 다르면 좋은 삶에 대한 見解가 다르게 되는데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相異한 歷史 時期와 相異한 社會 形態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자신의 文化에서조차도 각기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나 상이한 종교 혹은 무종교에 대한 執着과도 相關될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으로서 우리가 즐기고 驚歎해 마지 않는 것과는 상반될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어떤 특별한 해답은 간단한 抽象的 方式으로는 주어질 수 없다. 인생에서 좋은 것일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再現되거나 좋지 않은 것과 대조되어 구체적으로 再現되는 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 역사와 傳記로 통하는 문학의 상상적 부분도 포함해서 예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문학의 저자들도 그들이 묘사한 것을 흔히 좋다든가 나쁘다고 평하기도 한다. 만일 그들이 불가능한 것을 함부로 理想化하기보다는 상세하게 삶의 實際의 可能性을 보여주고, 독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도덕적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해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러한 종류의 작품이 아니다. 나는 일반적인 용어로만 글을 쓸 수 있으며, 특별한 내용은 다른 데서 供給받을 것이다.

아무튼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삶이란 본질적으로 대부분 그가 가치 있다고 발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確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활동들은 그가 留意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安寧을 위한 수단을 豫備하는 데 道具가 되고 그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利己主義와 自己準據의 利他主義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行動과 動機의 양쪽을 함께 특징지을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장 관심을 두는 행복은 내 자신의 행복이며, 그 다음은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다. 실제로 어떤 합리적이면서 寬容적인 사람에게도 이것은 分離될 수 없다. 그는 그가 留意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속에서 또는 그와 그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의 대부분을 발견할 것이다. 그 경우 각자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本質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遜遜을 가지고 있다.”(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고 말하는 것이 개개인이 느끼

는 즐거움이 단순한總합을 말하는 것보다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좋은 삶의 일부분을 이루는 利他主義는 自己遵據의이다. 흠의 표현대로 制限된 寬容性은 우리가 寄與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성적으로 희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自己愛와 제한된 寬容性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것들이 좁은 의미의 도덕성의 특별한 방안으로부터 反駁될 필요가 있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指摘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더욱 좁은 의미의 利害關係를 追究하는데서 약간의 強制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利害關係의 追究은 좋은 삶의 대부분이고 중심 부분이다. 물론 自己遵據의 利他主義를 훨씬 넘어선 범위까지 延長되는 많은 종류의 협동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있다. 애정이나 善意志와는 전혀 무관한 협동을 產出하는 것은 어떤 경제 체계의 중요한 機能이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해주는 것은 政治機構의 機能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自己愛 및 制限된 寬容의 중심성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당연한 결과로서 개인과 집단 간의 競爭과 어느 정도의 葛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競爭의인 사회적 정치적 理想은 협동, 경쟁, 갈등이 제도화될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는 相異한 방식을 제안해 주기도 하지만, 모든 현실적 선택들은 그 세 가지가 모두 조금씩 結合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중략)

각자는 거의 모두 따로따로 區分되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있다. 문화 유산을 傳授받고 傳授하는 것은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 좋은 삶의 일부분이며, 이것 역시 協同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종류의 葛藤이 들어 있는 사회적 관계이다.

§출전 : J. L. 맥키, 진교훈 옮김(1990). 윤리학 : 옳고 그름의 탐구. 서광사.

(나)

데이빗과 제니퍼는 쌍둥이 자매다. 둘은 TV채널 때문에 다투다 리모콘을 떨어뜨려 망가뜨린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TV수리공 할아버지로부터 새 리모콘을 받지만, 또 다시 다투다 리모콘의 버튼을 누르게 된다. 그 바람에, 마침 막 방영이 시작된 <플레전트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그 곳은 말 그대로 ‘즐거운 마을’이다. 그런데 즐거움의 방식과 의미가 두 자매가 살던 세상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곳은 흑백영화와 같은 세상이다. 흑백의 톤 이외의 다른 색은 없고, 생활의 변화도 없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원만하며, 항상 평온하다. 어떻게 보면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세상을 바꿀 꿈조차 꾸지 않으며, 항상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며 산다.

하지만 소방서는 있어도 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도서관의 책들은 표지만 있고 글과 그림이 없어 속은 백지이며, 신문은 있지만 뉴스는 없고, 하늘은 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등 두 자매에게는 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괴이한 것들도 많은 세상이다. 두 사람의 移入은 플레전트빌에 변화를 유발한다. 제니퍼는 우선 이 평온한 흑백 세상에 섹스의 욕망과 기쁨을 퍼뜨린다. 그것을 始發로 마을의 질서는 깨지고, 사람들은 미처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되며, 알지 못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변화는 건잡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은 흑백의 세상이 점점 컬러로 변하는 것으로 상징화된다. 급기야 변화에 따라 컬러로 변한 사람들과 기존의 흑백으로 남은 사람들 사이에 尖銳한 對立과 鬭爭이 생기고, 평화롭던 플레전트빌은 일대 혼란에 휩싸인다. 하지만 결국 마을은 다양한 컬러의 세상으로 바뀌고 만다.

이상은 게리 로스(Gary Ross) 각본 감독의 영화 <플레전트빌(Pleasantville)>의 요약된 줄거리다. 플레전트빌에 데이빗과 제니퍼가 移入(이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되지 않았다면, 플레전트빌은 여전히 즐거움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영화 제목(즐거운 마을 플레전트빌은 말뜻 그대로 樂園, 즉 패러다이스의 패러디다)과 몇몇 대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마치 하나의 패러다이스나 유토피아로 존속했을 것이라고 일단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는 흔히 ‘행복한 세상’의 대명사다. 물론 그렇지만 이런 낭만적인 관점에서 좀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의 본질적 특성은 우선 自足과 孤立이다. 즉 그 자체로 모자람이 없으며,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 밖의 현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런 자족과 고립의 세계가 바로 유토피아의 현실이다. 더구나 유일한 현실이다. 플레전트빌과 같은 세상의 ‘현실의 경계’는 이렇게 설정된다. 이것을 逆同語反覆(의)으로 말하면, 현실의 경계가 현실을 유일한 것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속 플레전트빌의 道路들은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循環構造를 갖는다. 길이 밖으로 진행되지 않고, 진행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도로 구성조차 경계를 실체화할 뿐 아니라 상징화한다.

유일한 현실은 당연히 절대 가치를 획득한다. ‘밖의 세상’과 무관하므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의 가능성이 부재함으로 상대성의 의미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지상낙원’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현실의 의미를 확보한다.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유발된다면, 낙원에는 변화가 오고, 문제가 생기며, 고뇌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견고하고 확실하며 그 자체로 행복한 세상에 어떻게 다른 가능성이 유발될 수 있는지 일 것이다. 물론 상상의 극한 너머에 있는 낙원에선 어떤 가능성도 유발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순수하고(외부의 이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완벽한 태초 낙원의 아담과 이브도 ‘失樂園’한다는 성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직 談論의 지속을 보장한다.

가능성 유발은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데이빗과 제니퍼가 플레전트빌에 이입되어, 그 곳 사람들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욕망과 욕구를 끄집어낸다(그것이 그들에 내재해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말해, 交流와 自我發現이 바로 필요성의 세계에 ‘가능성 유발’의 요인이다.

외부 세계와의 接觸과 交流는 새로운 현실들을 移入시킨다. 단순히 데이빗과 제니퍼라는 사람이 마을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현실들을 갖고 移入된 것이다. 그들의 移入 자체가 새로운 현실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내부에 잠재해 있는 모든 것들을 발현시킨다. 각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자아 그 자체가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전 : 김용석(2001). 없는 가상현실, 현실들의 향연, 그리고 문화구성력. 중앙일보 emerge 2001. 5월호.

(다)

맥루한이 “미디어는 마사지”라는 명제를 통해 提案했던 것은, 인간이 미디어와 교류할 때 오감을 통해 얻게 될 상호작용의 力動性이었다. 먼저 맥루한은 “텔레비전은 자신의 메시지

로 우리의 피부 위에 문신을 새긴다."면서 텔레비전이 소유한 '촉각적 자극'에 주목한다. 물론 텔레비전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라디오와 같이, 시청자에게 수동적인 반응만을 요구하는 다분히 일방적인 자극에 불과해 보인다. 하지만, 맥루한이 보기에 텔레비전의 시각 이미지는 문자에서 영화에 이르는 구텐베르크적 미디어의 선형적 우주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은 낮은 해상도로 인해 희미한 윤곽의 이미지들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은 마치 인상주의 회화의 점묘적 모자이크 이미지와 같이 시청자로 하여금 시청 행위에 직접 참여하도록 만든다. 달리 말하자면, 텔레비전의 시각 이미지가 지닌 불완전성은 상호작용의 동력으로서,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시청자의 감각적 및 인지적 반응에 의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에 의한 시각적 자극의 융단 폭격은 이전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 지각 감각을 길러낸다. 그 감각은 텔레비전의 보급이 시작된 이해 10여년 동안 생겨난 것으로, 의복, 헤어스타일, 걸음걸이, 동작에까지 관련된 이미지의 홍수를 불러 일으키며, 매디슨가와 체너럴 모터스사로부터 헐리우드와 체너럴 푸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이 완전히 흔들려 새로운 대책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마치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지각 변환의 과도기였던 6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글라스 엥겔바트(Douglas Engelbart)와 J.C.R. 리클라이더(Licklider)와 같은 일군의 젊은 컴퓨터 과학자 그룹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 이전까지 모니터는 할(Hal: 스텐리 큐브릭의 영화 <2001년: 스페이스오딧세이>에 나오는 인공지능 컴퓨터)과 같이 컴퓨터가 연산한 텍스트 데이터를 말 그대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한 여러 개의 대화 창이 동시에 출몰하는 운영체제, 그 앞에 놓인 타이프라이터를 본 판 키보드, 그리고 주먹만한 마우스 등은 모니터의 인터페이스를 인간과 컴퓨터의 스킨십이 일어나는 장소로 변모시켰다.

그것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할과 같은 인공지능 컴퓨터의 악몽을 훌훌 털고, 인간과 기계가 '대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화의 길을 열어준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제 컴퓨터 그 자체의 독립적인 사고 프로세스보다는 컴퓨터와 인간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의 중요성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또한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는 마사지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방향에서,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문자 언어의 구텐베르크적 우주에서 텔레비전의 촉각적 성운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전: 박해천(2004). 미디어는 마사지다. 강현주 등,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 디자인하우스

(라)

現今 朝鮮 사람 중에 대개는 아직 가정소설을 좋아하오, 통속소설을 좋아하오, 흥미 중심 소설을 좋아하오, 참 문학적 소설은 읽으려 하지도 아니하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불용품이라 생각하고, 심한 사람은 그런 것을 읽으면 구역증이 난다고까지 말하오.

(중략) 인생 사회에는 있지 못할 로-만쓰를 求하오.

간단하게 말하면, 조선 사람의 소설관은 몇백 년 전 서부 유-롭프 그대로요. 즉 대단한 시대 遲의 소설관이오.

이러한 사상으로라도 소설을 보는 사람은 상인이나, 노파이나, 학생들뿐이요. 이 사람들은 아직 낫소. (그들이 흥미로나 혹은 갑갑하여 시간이나 보내노라고 본다 하더라도) 조선의 양반, 학자, 신사, 학교 교사, 예수교 中樞 인물—스스로 이 이름을 자기 어깨에 올려 놓고 또 사회에서도 이 칭호를 허락하는—들은 어떠하오?

그들은 소설을 보지도 아니하고 보려고도 아니하오. 그 뿐만 아니라 타인이 소설을 보는 것을 방해하오, 금하오.

…… 그들 중에 어떤 부분—양반, 학자, 신사—은 “소설이란 殘財者나 볼 것이다, 부랑자나 볼 것이다, 폐가망신한 자식이나 볼 것이다. 우리 紳士들은 볼 것이 아니다.” 하오.

…… 나머지 부분—교사, 예수교 교역자—은 “소설을 보면 사람 버린다. 즉 타락한다. 청년들은 소설 곁에도 가면 안 된다.” 하오.

§출전 : 김동인(1919). 소설에 대한 조선 사람의 사상을. 학지광 18호(1919년 1월호).

◆ 유의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500자 안팎(±300자)의 길이로 논술할 것.
2. 제목을 붙이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말 것.
4. 연필을 사용하지 말고,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II> 해 설

1. 출제 의도

좋은 삶은 무엇인가.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우리 사회가 완전 무결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그대로 보존 유지하면 족한 것이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현 사회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외부의 충격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안내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간다. 주체로서의 의지로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제시문은 사회 진보의 동인(動因)과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과정,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정립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를 구체적 사례에 견주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논제 파악

이 논제는 제시문에서 먼저 사회 진보의 동인(動因)과 원리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가)~(다)의 내용에서 사회의 변화, 즉 새로운 삶[사회]으로 이끄는 동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 원리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다. 중요한 점은 지문의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핵심 요소를 추출한 다음 상호 비교를 통해 요목화하는 작업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통해 지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라)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을 분석한다. 필자가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관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고, 앞에서 분석했던 변화의 동인과 결부하여 바람직한 대응 태도를 정리하면 된다.

3. 문제 해결

먼저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좋은 삶, 곧 보다 나은 삶이란 문제의 이해 관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밝혀 답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좋은 삶에 대한 견해가 사람이나 문화마다 다르고,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삶은 우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발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즉,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음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기주의와 자기 준거적 이타주의에 의해 좋은 삶이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람이나 문화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전제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욕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경우 사회적 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시대] 사이에는 협동과 마찬가지로 갈등이 들어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영화의 내용을 소재로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 속의 <플레전트빌>은 유토피아의 현실이다. 하지만 비교의 가능성이 없는 자족과 고립의 세계로서 새로운 가능성이 차단된 세계이기도 하다. 이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주어져야 하는데, 자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다. 데

이빛과 제니퍼는 다른 현실을 가지고 이 사회에 이입됨으로써 내부의 변화, 곧 잠재된 자아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류에 의해 촉발된 내부의 변화가 사회 발전의 동인(動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을 야기하고 플레전트빌은 일대 혼란에 휩싸인다. 하지만 결국 마을은 흑백의 세상에서 다양한 컬러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제시문 (다)에서 맥루한은 ‘미디어는 마사지’라는 명제를 통해, 인간이 미디어와 교류할 때 오감을 통해 얻게 되는 상호 작용의 역동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매체의 특성 텔레비전의 낮은 해상도는 인간의 새로운 감각적 인지적 반응을 촉발하여 인간 삶의 총체적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텔레비전의 시각 이미지가 지닌 불완전성은 상호 작용의 동력으로서,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시청자의 감각적 및 인지적 반응에 의해 ‘완성’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제시문 (가)는 발전의 동인으로서 개인의 욕구, 즉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좋은 삶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와 (다)는 외부의 자극 다른 현실과 미디어 이 사람들의 내부적 욕망을 자극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나)의 세계는 고립된 ‘자족’의 세계로서 그 자체로 모자람이 없는 세계이다. 여기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짐으로써 사람들은 미처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한 견해차로 대립과 투쟁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는 새로운 세상 다양한 컬러의 세상으로 변모한다. (다)는 미디어와 인간의 상호작용, 즉 외부 세계와 인간의 감각적 인지적 반응의 상호 작용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불완전성으로, 이는 인간의 인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새로운 가능성으로 변모할 수 있다. 결국 동인은 외부에 있지만,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인간의 욕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의 구조를 변화하고자 하는 인식의 동인(動因)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반 환경과 조건이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바라보는 개인 주체의 인식이 변화했을 때 현실의 한계가 노정(露呈)된다. 즉, 주체가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현실의 경계를 극복할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개인 주체의 노력은 사회적으로 확장되면서 협동의 가능성과 함께 경쟁 갈등의 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제시문 (라)에서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라)의 서술자는 소설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원하고 있다. 소설을 ‘참문학’적인 예술로 승격시키고 대중화하려는 새롭고도 낮은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술자의 인식에 포착된 당대의 소설 독자는 구래의 관념을 갖고 ‘가정소설’이나 ‘통속소설’을 읽는 상인 노파 학생들이다. ‘양반 · 학자 · 신사 · 학교 교사 · 예수교 중추 인물’ 등의 사회적 주류들은 소설을 읽지 않는다 한다. 그래서 새 지식인으로서의 서술자는 소설을 배격하는 사회적 주류 인사의 관념과 대결하고, 소설을 단순한 오락이나 흥밋거리로 생각하는 대중들의 관념과 대결해야만 서술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

개화라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학을 지향하려는 서술자의 의지는 대중적 관념과 상반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술자가 가치 있다고 발견한 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경계가 확실한 대중들에게는 기존의

상황과 현실만이 타당할 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의 사례처럼 ‘교류와 자아 발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다른 현실이 실제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내부의 욕망과 욕구를 자극해야 한다. 대중들은 새롭게 주어진 소설 제시문 (다)의 미디어처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인지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더 나은 삶으로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현실 대응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 논제가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사회 진보의 기반은 ‘자족과 고립’의 틀을 벗어나는 데 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밖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물 안 개구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가거나, 우물 밖 개구리가 우물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곧 개방적 태도이다. 사물을 다방면으로 판단하며 그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로서,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고이다. 이런 개방적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범세계적으로 밀려오는 외국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익명적 대중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인간, 공동체의 붕괴와 가족의 해체 위기 등은 흔히 예로 드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다. 좋은 삶이란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자기 준거적 이타주의에 의해 확산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유대감을 바탕으로 인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판단력이다. 현대 사회는 환경 문제, 생명 복제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은 물론 공시적 통시적으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가치 속에서 잘못된 판단은 자신의 파멸 및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4. 예시 개요

- 서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려는 자세의 필요성
- 본론 1: 사회 진보의 동인과 원리
 - 제시문 (가) 분석: 자신이 가치 있다고 발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주체적 인식과 노력) ⇒ 갈등의 가능성
 - 제시문 (나) 분석: 외부 동인에 의한 주체의 자아 실현 욕구 자극 대립과 투쟁의 과정 극복
 - 제시문 (다) 분석: 외부와 내부의 역동적 상호 작용
 ⇒ 사회 진보의 동인: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나지만, 이를 이끄는 원리는 우리 인간의 주체적 인식과 반응에 달려있음. 특히 이기주의와 자기준거적 이타주의에 근거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임
- 본론 2: 제시문 (라)의 상황에 적용
 - 서술자의 인식과 현실의 괴리 ⇒ 극복 방안 강구(내부의 욕망과 욕구 자극)
- 결론: 지향해야 할 현실 대응 태도
 - 개방적 태도 · 올바른 판단력 · 공동체 의식

5. 예시 답안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삶과 사회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사회 제반 가치 영역의 자율성은 어떻게 조정하고 확보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 사회가 완전무결하다면 우리는 이를 그대로 보존 유지하면 족할 것이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현 사회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현재의 제반 가치 영역을 새롭게 설계하고 슬기롭게 조정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현실과 역사적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상과 경험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동인은 어디에 있을까. 제시문 (가)~(다)는 사회 진보의 동인과 원리를 각기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좋은 삶, 곧 보다 나은 삶이란 문제의 이해 관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이나 문화마다 견해가 다르고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우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발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보다 나은 삶이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기주의와 자기 준거적 이타주의에 의해 좋은 삶이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경우 사회적 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톨스토이의 소설 <죄와 벌>에서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폴레옹적인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던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기 희생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룩한 창부 소나와의 대비를 통해 극단의 오류를 지적받고 있다.

제시문 (나)는 영화의 내용을 소재로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화 속의 <플레전트빌>은 유토피아의 현실이다. 하지만 자족과 고립의 세계로서 새로운 가능성이 차단된 세계이기도 하다. 이 사회에 닥친 외부적 자극은 주민들의 잠재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자극하고, 교류에 의해 촉발된 내부의 변화가 사회 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져 첨예한 대립과 투쟁 상황을 맞이한다. 이는 제시문 (가)에서 언급했던 문제의 실례가 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맥루한은 ‘미디어는 마사지’라는 명제를 통해 미디어와 인간의 상호 작용, 즉 외부 세계와 인간의 감각적 인지적 반응의 상호작용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불완전성으로 인간의 인식과 상호 작용함으로써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 발전의 동인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인간의 주체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 진보의 동인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나지만, 이를 이끄는 원리는 우리 인간의 주체적 인식과 반응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불어 중요한 것은 이기주의와 자기준거적 이타주의에 근거한 주체적 인식과 반응이라도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를 제시문 (라)에 적용시켜 보면, (라)의 서술자는 소설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갈망하는 주체로서, 소설을 ‘참문학’적인 예술로 승격시키고 대중화하려는 새롭고도 낮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새 지식인으로서의 서술자는 소설을 배격하는 사회적 주류 인사의 관념과 대결하고, 소설을 단순한 오락이나 흥밋거리로 생각하는 대중들의 관념과 대결해야만 서술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이루어 낼 수 있다. 현실의 경계가 확실한 대중들에게는 기존의 상황과 현실만이 타당할 뿐이다. 따라서 서술자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사

회적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의 사례처럼 ‘교류와 자아 발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다른 현실이 실제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내부의 욕망과 욕구를 자극해야 한다. 대중들은 새롭게 주어진 소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인지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더 나은 삶으로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가 사회 진보를 위해 지향해야할 현실 대응 태도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진보의 기반은 ‘자족과 고립의 틀’을 벗어나는 데 있다. 동인은 외부적 자극과 내부적 의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촉발된다. 이는 우물 안 개구리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물 안 개구리는 밖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물 안 개구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가거나, 우물 밖 개구리가 우물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곧, 개방적 태도이다. 사물을 다방면으로 판단하며 그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올바른 판단력이다. 개인과 집단은 물론 공시적 통시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잘못된 판단은 자신의 파멸 및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좋은 삶이란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자기 준거적 이타주의에 의해 확산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지닐 때야만 올바른 가치관으로 드러날 것이다.

<III> 읽기 자료

■ 진보 개념의 성분들

진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진보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러한 진보를 야기하는 힘은 무엇인가?

지식이나 경제, 기술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진보에 관한 가장 간단한 개념은 양적인 성장을 통해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맑스주의자나 그 비판자나 대개는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적 의미에서 진보란 경제적인 성장이지 그에 따른 가용한 재화의 증가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산력의 발전이다. 이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및 기술적 요소의 증가를 뜻한다. 알다시피 경제적 근대화를 위한 이룩을 제안했던 로스토우(Rostow)는 한 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진보를 정의한다. 거기서 경제적 성장이란 간명하게도 가용한 재화의 증가로서, GNP 내지 GDP나 일인당 국민소득 등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표들이 그 성장의 정도를 표시한다. 유신 체제나 80년대의 독재 체제들이 자신을 정당화하던 존재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치들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절을 못 잊어 위대한 영도자를 되살리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복(梟復)을 정당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바로 이 수치였다.

맑스주의의 경우 생산력 발전을 통해서 진보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산력이란 개념이 단지 양적 성

장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것처럼 단순화될 수는 없다. “인류의 역사는 그 모순이나 일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상승이자 운동이다.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더욱 강력한 생산력, 더욱 효율적인 경제, 더욱 완벽한 정치적 통치 형태를 창조하며 그럼으로써 인간의 가능성과 자유의 범위를 확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가장 근저적인 기초에서 생산력의 진화적 발전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모가 있다. “생산력 발전에서의 진보가 궁극적으로 생산관계와 사회제도의 영역에서의, 사회와 정신적 발전에서의 진보를 조건짓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양적인 증가가 진보와 동일시되는 요소들이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요소의 집합이란 것이다. 예컨대 맑스주의에서 생산력이란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라고 할 때, 생산력의 발전이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능력, 자연의 이용능력의 확장이라고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경제학의 대상 역시 인간의 손을 거쳐 생산된 것이고, 자연의 가공물이며, 인간의 손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재화고, 그것을 통해 자연의 희소성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다. 요컨대 경제적인 성장이나 생산력 발전이나 결국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능력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것이다. 진보란 이러한 지배능력의 증대, 통제능력의 증대인 셈이다.

이는 과학·기술에 의해 자연을 연구하고 계산하며,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근대적 사유 자체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근대를 특징짓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도르노는 ‘진보적 사유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계몽’을, 18세기라는 역사적 경계를 넘어서 근대 전체로 확장하여 정의한다. 그것은 계산가능성을 추구하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세계에 대한 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로써 자연을 탈마술화하는 한편 그것을 지배하고 이용하려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란 자연과 세계에 대한 계산가능성의 증대와, 그것을 통한 통제가능성의 증가를 뜻한다. 또한 자연의 통제와 이용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적 영향력의 증가며, 결국은 자연과 세계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증가다.

역사적인 발전을 통해 정의되는 진보는 진보 개념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성분이다. 이는 ‘진보’라는 말이 개념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지적되듯이 역사를 진보 내지 발전으로 보려는 시도는 볼테르나 튀르고, 비코(Vico)나 헤르더(Herder)와 같은 계몽사상가들에서 직접적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콩도르세는 튀르고 영향 아래서 10개의 역사적 단계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예컨대 볼테르는 역사적 현상의 다양성을 지적하지만, 그것은 풍속과 관습에 따른 것인 반면 인간의 본성은 항상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역사적 현상에서도 통일성을 야기할 뿐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역사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아직 그 본성이 아니라 파생적이고 관습적인 것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발전과 진보를 통해 역사를 개념화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다.

돌바하(d'Holbach)나 디드로(Diderot), 달랑베르(d'Alembert)는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은 것이어서 교육과 여론, 정치, 관습 등의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진보가 내적인 원리는 결코 아니었고, 반대로 미신이나 나쁜 관습에 의해 악한 것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했고, 진보 내지 계몽이라는 말은 이를 위한 규범적 명제에 가까웠다. 또한 그들의 방법적이고 사상적인 집약체인 『백과전서』(Encyclopédie)에서는 역사적 변화로서 진보보다는 이상적인 상태의 역사적 불변성이 더욱 중요했다. 그들로서는 “‘무시간’의 근본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더욱 근본적인 것이었고, 그들이 백과전서적 지식은 시간을

뛰어넘어 전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한 법칙과 질서를 제공해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 최고의 지식을 명확한 명칭들의 체계에 따라 배열한 『백과전서』는 정확한 언어, 정확한 지식을 통해 농부들도 철학자 이상으로 사물의 진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해주리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여기서 진보는 항목화된 단어들의 배열에 의해, 그리하여 지식의 법칙적인 전개와 변위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경로를 표시하는 것이었고, 이런 한에서 시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간적인 것이었다.

한편 진보를 개념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콩도르세에게 진보란 ‘인간 지성의 무한한 자기완성능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었다. 앞서 튀르고는 어떤 사회의 특징이 그 사회의 과거가 빚어낸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과거의 누적된 변화 속에서 정의하는 관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의 영향 아래서 콩도르세는 이러한 변화의 누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학과 기술의 힘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인간의 진보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역사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는 현재를 그 중 어디에 위치 짓는 서술방식을 처음 제시한 것도 그였다. 그는 역사를 열 개의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는 전 단계에 마련된 여러 조건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원시적 상태에서 시작된 인류는 당시 프랑스에서 데카르트 철학과 공화정의 수립으로 아홉 번째 단계에 이르렀고, 과학자가 통치하는 마지막 10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콩도르세의 경우에서 19세기 이후 반복되는 ‘역사철학’의 양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조차 역사적 진보는 어떤 법칙이나 근거를 통해서 개념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의적 구분과 서술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뒤를 이었던 생시몽이 비판하듯이, 이성의 역사에서 종교가 갖는 위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세라는 ‘암흑기’를 역사적으로 적절하게 위치 짓지 못한다는 점은 이러한 한계와 결부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방식의 ‘역사철학’은 앞서 콩트나 헤겔에게서 훨씬 더 체계화되고 개념적인 이론에 도달한다. 반복되는 혁명으로 인해 사회적 무질서와 무정부상태가 야기된다고 보았던 콩트는 프랑스 혁명을 고취했던 철학자들을 형이상학자라고 비난하는 한편, 사회가 신학적 단계와 형이상학적 단계를 거쳐 실증적·과학적 단계로 발전한다는 도식을 제시한다. 머지않아 도래할 역사의 이 마지막 단계는 과학이 인식을 포괄하고 과학자가 사회를 통치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는 그의 스승이었던 생시몽(Saint-Simon)의 이론을 개념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생시몽은 역사를, 질서를 조직하고 구축하는 유기적 시기와 그것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비판적 시기가 서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다. 그는 혁명이었던 당시를 중세의 유기적 시기를 대체했던 비판적 시기라고 보며, 이제 그 해체된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조직하는 유기적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혹은 도래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질서의 이러한 조직과 구축을 위해 생시몽은 ‘공산주의’를 구상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콩트는 새로운 질서를 혁명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실증적 과학’의 시대로 바꾸어 버렸다.

헤겔은 절대정신의 외화(Entäußerung)와 자기-내-복귀라는 거대한 도식을 통해 역사 전체를 합목적적 발전과정으로 개념화하고, 그 발전의 방향에 따른 진전을 ‘진보’로 정의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외화(外化)된 절대정신이 나뉘는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전개해 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정신의 현상학적 도정이요 목적론적 편력이며, 다른 한편 그것은 이전의 단계를 기초로 하되 새로운 단계로 그것을 지양(止揚)해 가는 발전과정이다. 이로써 발전과 진보는 역사에 내재적인 법칙과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인식론과 논리학, 자연학과 미학에 대해서도 내재적인 법칙이자 원리가 된다. 헤겔의 『백과전서』(Enzyklopaedie)는 이전의 계몽주의자들과 달리 모든 항들이 이러한 역사적 발전의 원리에 따라 배열되고 각각

의 항들은 그러한 원리를 통해 서로 연관된다.

이런 점에서 헤겔은 역사적 발전 내지 진보라는 개념이 사유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는 양상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그것은 모든 사유, 모든 판단, 모든 실천이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행해지는(행해져야 하는) 바탕이며, 그것에 따라 사유나 판단, 실천을 평가하는 척도다. 나아가 그것은 어떤 사회나 상태 사이에 발전단계의 비교·판단을 수행하는 기준이며, 그 발전의 목적인 ‘종착점’은 어떤 대상이 진보적인가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다. 어떤 사회가 얼마나 ‘발전’된 사회인지,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진보된 사회인지 아닌지는 그 종착점에 얼마나 더 가까운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그것은 어떤 사상이나 실천, 정책 등이 진보적인지 반대로 반동적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즉 어떤 사상이나 실천, 정책이 현재의 상태를 그 종착점을 향해 더 밀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진보적’이며, 반대로 그러한 종착점을 향한 ‘발전’을 가로막거나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반동적’이다. 도래할 미래로서 목적이 현재에 관여하고 현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마치 과거의 누적적 현재를 구성하듯이, 현재는 언제나 미래 속에서,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포착된다는 점에서 미래의 일부다.

이러한 진보 개념이 19세기 생물학의 진화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찍이 라마르크(Lamarck)는 당시 자연사(natural history) 연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설계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design)을 반박하면서 자연주의적인 진화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그 진화의 동인을 생명에 내재된 능력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체임버스(R. Chambers)의 책 『창조의 자연사적 흔적들』(1844)이 잘 보여주듯이 이러한 진화 개념은 신의 설계와 계획에 따른 진보적 과정이라는 개념과 뒤섞였다. 이는 생물의 변화를 신의 계획으로 대체된 목적 개념과 합목적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종속시킴으로써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이는 헤겔적인 목적론과 뚜렷한 동형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19세기 전반까지도 대중적인 차원에서 지배적이던 ‘진화론’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윈(C. Darwin)에 의해 제시된 생물학적 진화론은 진화와 발전 개념에서 신이라는 비생물학적 요인을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그가 제시한 ‘적응’과 ‘자연선택’ 개념은 신의 의도는 물론 목적 개념이 없이도 생물의 역사적 변이를 다룰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다윈과 함께 진화론을 주장했던 월리스(A. R. Wallace)는 모든 기관을 적응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필요에 의한 변이가 자연선택을 통해 누적됨에 따라 생물의 항구적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고, 이는 이후 “계통발생은 개체발생을 반복한다”는 헵켈(E. Haeckel)의 발생반복설과 결합하여 진화론의 대중적인, 동시에 ‘과학적인’ 표상을 형성했다. 이로써 다윈의 무작위적인 자연선택 개념은 진화의 중심 줄기를 구성하는 합목적적 선택으로 변형되고, 진화론은 합목적적 발전 개념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 발전은 사회 내부적인 동인을 얻은 것이고, 진보는 초월적이지 않은 준거를 마련한 셈이며, 진보에 관한 관념을 과학의 이름으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19세기 전반의 지배적인 진화론이나, 후반의 ‘길들여진 다윈’은 보통 ‘사회진화론’ 내지 ‘사회다윈리즘’(Social-Darwinism)이라고 불리는 스펜서식의 입론에 과학적 근거와 모델을 제공해주었다. 즉 사회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동질적인 것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진보한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사회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 이질적이고 복잡한 것을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 유기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진화론은 진보를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체, 유기체로서 사회와 연관된 개념적 성분을 추가했다. 즉 역사적 차원과 구별되는 사회적 차원에서 진보 개념이 작동하게 된다. 사회를 전체를 위해 적응,

목적달성, 통합, 잠재성 유지라는 기능적 요건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기능하는 부분들로 나누고, 각 부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분할해 가는 파슨즈의 사회체계 이론은 진화론이 역사적인 내용 없이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진화의 역사적 과정은 통합적 변동의 공시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으로 변환된다.

이와 연관해서 이미 콩도르세나 콩트, 헤겔 이래 공통되는 것이지만, 좀더 진보된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자연으로부터, 자연적 형상과 자연적 지배로부터 좀더 멀리 벗어난 사회고, 인간이 자연을 물론 자신들의 질서에 대해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라는 점을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콩트가 명확히 개념화했듯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제되는 사회의 꿈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국가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의 꿈, 생산을 비롯한 경제활동 전반과 대중들의 생활 전반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의 꿈을 떠올리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공간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로 대체하려는 이론적 노력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이진경, “진보 개념의 경계 : 근대적 진보 개념을 넘어서” 중에서

<I> 문 제

권력과 자유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 제시문 (가)~(다)를 통해 유형화할 수 있는 인간형을 제시문 (라)와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논지를 전개하시오,
2. (라)의 논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시오.

(가)

등장 인물

해설자, 파수꾼 ‘가’, 파수꾼 ‘나’(노인), 파수꾼 ‘다’(소년)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어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가 :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다 :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나 :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다 :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없이 보내셨어요?

나 :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다 :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며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어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텃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니다. 그래 이곳엘 찾아온 거예요.

나 :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 동안 흰 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 촌장님두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 오다 보니까 저쪽 텃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나 :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 저쪽요, 저쪽. 쫓레 덩쿨 밑이던가요 .

나 :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 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 도끼를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텃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개의 쓸모없는 텃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구, 마을엔 가시 율타리를 들렀다. 망루도 세웠구, 양철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네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중략)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나 : 또 헛치였습니다. 이리는 위낙 교환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구 없어요.

촌장 :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다라면 그 껌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구 싶었는데 .

촌장 :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촌장 :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나 :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 (힘없이 웃으며) 고마워요.

나 :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 마을 사람들요?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과수꾼입니다. 저기 방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과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 애야, 괜찮겠니?

다 : 네.

나 :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과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촌장 :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과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 이리 떼다! 이리 떼가 몰려온다!

과수꾼 거의 손이 번쩍 들리며 그도 외친다. 과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하략)

(나)

앞부분 줄거리

제국의 한적한 변경 마을을 통치하던 치안판사는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변방 유목인들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함을 믿는 사람이다. 어느 날 수도에서 야만인의 반란에 대한 예방조치로 파견한 치안대 졸(Joll) 대령을 파견한다. 졸 대령은 야만인들의 반란을 사전에 막는다는 명목 하에 야만인을 잡으러 원정대를 데리고 출발한다.

(1)

원정대가 출발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오늘, 졸 대령이 잡아들인 죄수들이 도착한다. 제국의 변방 치안판사인 나는 그들이 말에 탄 호위병들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치친 몸으로 주위에 몰려든 구경꾼들과 뛰다니는 아이들과 젖어대는 개들로부터 벌써부터 몸을 움

츠리며,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창문에서 지켜본다. 호위병들은 막사의 벽이 그들을 드리운 곳에서 말에서 내린다. 그러자 어미의 어깨에 팔을 짚고 한 발로 서서 구경꾼들을 호기심에 차 바라보고 있는 작은 사내아이를 제외하고, 모든 죄수들이 즉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쫓겨나 있었다. 누군가가 물이 담긴 양동이와 바가지를 가져온다. 그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신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그들을 에워싼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군중을 헤치고 막사의 뜰을 가로질러 오는 호위병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들을 야만인이라 잡아들여 여기로 데려올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잖아!”

나는 호위병에게 소리를 지른다. 호위병은 고개를 조아리고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찾는다.

그는 치안관사에게 전하라고 한 줄 대령의 편지를 내민다. 나는 편인을 뜯어내고 그것을 읽는다.

‘이 자들과 다음에 보내는 사람들을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외부로부터 격리시킨 상태에서 감금하십시오.’

“이 사람 웃기는군!”

나는 호위병에게 소리를 지른다.

“이들이 그저 고기나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어부들이라는 걸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단 말이나? 이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는 것은 시간 낭비란 말이다! 자네는 그 사람이 도둑이나 산적, 제국의 침략자들을 찾아내는 일을 도와주게 돼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제국에 위험한 존재처럼 보이던가?”

(2)

나와 새로 부임해 온 젊은 수비대 장교는 야만인들에 대해 얘기한다. 그는 야만인들이 거리를 두고 그들을 뒤따라왔다고 말한다. 내가 묻는다. 그들이 야만인이라는 게 확실하오? 그가 대답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의 동료들도 그 말에 동의한다.

“사령부 주변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며, 봄이 되면 야만인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해 그들을 변경에서 산악지역으로 몰아붙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소문에 지나지 않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요.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요, 그들은 저지대와 고지대를 오가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그들은 결코 산악지방에만 갇혀있지는 않을 거요.”

그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처음으로 장벽이 느껴진다. 그건 군인과 일반인 사이에 있는 장벽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말입니다.”

그는 사관학교를 나온 젊은이답게 오만하고 솔직한 눈초리로 나를 살핀다. 나는 그가 지금까지 멀리 퍼졌을 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확신한다. 내가 정보부 소속의 경찰에게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 말이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다. 그는 나를 수년 동안 이렇게 침체된 곳에서 게으른 토착민들의 방식에 맞춰 살다 보니 구태의연한 생각에 젖어 있고 제국의 안보를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와 맞바꾸려 하는 위태로운 생각을 하는 한심한 민간인 관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야만인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뭐죠?”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의 지역까지 정착지가 확산되지 않는 거요. 그들은 전에 하던 대로, 그들의 가족을 몰고 초지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싶은 거요.”

지금이라도 말을 끝내면 너무 늦은 건 아닐 게다. 그러나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나는 유감스럽게도 화까지 낸다.

“제국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최근에 그들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극도로 잔인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그 며칠 동안에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요. 하여간 그 애긴 그만둡시다. 지금까지는 이 곳 국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평화로웠소.”

(3)

“네 놈이 오기 전에는 국경 문제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내가 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이야. 당신은 과거 속에 살고 있어. 당신은 우리가 몇 안 되는 평화로운 유목민 집단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조직이 잘돼 있는 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만약 당신이 원정대와 함께 작전을 나갔다면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데리고 온 한심스러운 저 포로들 말이로군. 그들이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적이란 말인가? 그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대령, 그 적은 바로 너야!”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황황 친다.

“네놈이 적이란 말이야! 네놈이 전쟁을 했고, 네놈이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순교자들을 만들어줬어. 그것도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네놈이 더럽고 야만스러운 짓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때부터 이미 시작된거야! 역사가 내 말을 증명해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역사는 없을 거야. 이걸 너무 사소한 것이거든.”

그는 태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걸 확신한다.

“넌 저질 고문관이야! 너 같은 인간은 목매달아 죽여야 해!”

“마지막으로 남은 의로운 치안 판사, 그렇게 말씀하셨도다!”

그가 낮은 소리로 빈정댄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응시한다.

그는 앞에 놓인 종이들을 반듯이 펴며 이렇게 말한다.

“자, 당신이 최근에 허락없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당신과 야만인들 사이에 오간 모든 것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못하겠다.”/“좋다. 우리의 면담은 끝났다.”

그는 부하를 향한다.

“저 인간은 이제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는 일어서서 나가버린다. 나는 준위를 바라본다.

씻지도 않고 꿰매지도 않은 턱 부위의 상처에 염증이 나 부어 있다. 살찐 애벌레 같은 딱지가 그 위에 생겨났다. 나의 왼쪽 눈은 단순한 구멍에 불과하고 내 코는 형체가 없이 움직이는 흑에 불과하다. 나는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 나는 전에 토해 놓은 오물의 악취 속에 누워 목이 마르다는 생각만 한다. 나는 지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상태다.

(4)

두 병사가 빈집에서 악탈한 멧있는 철제 난로를 마차에 실으려고 애쓰고 있다. 또 한 명의 병사는 수탉 한 마리와 암탉 한 마리를 들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온다. 검은색과

황금색이 뒤섞인 멋진 수탉이다. 그는 두 발이 묶인 닭들의 날개죽지를 쥐고 있다. 닭의 맹렬한 눈이 이글거린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자 그 사람은 닭들을 오븐 속으로 밀어 넣는다. 상점에서 약탈해온 자루들과 나무통들이 수레 위에 높이 쌓인다. 심지어, 작은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도 거기에 쌓인다. 그들은 무거운 적색 카펫을 펴서 마차에 실린 짐을 덮고 그 위를 묶는다. 이 조직적인 배반 행위를 바라보며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느끼는 무기력한 분노를 감지할 수 있다. 마지막 수레에 물건이 실린다. 문의 빗장이 풀어지고, 군인들이 말에 오른다. 광장은 다시 텅 비고 어두워진다. 마지막 수레가 문을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비대는 사라지고 없다.

(나)

……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

자유에 대한 모든 연구는 관용을 위한 변호다. 그리고 관용을 위한 모든 변호는 이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사회를 항상 위협하는 주된 위험은 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상이나 행동을 금지하려는 권력자들의 욕망이다. 그들은 독창이나 실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정적(靜的)인 사회의 유지에 있다. 그런 질서는 그들의 욕망을 더욱더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악(善惡)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이러한 욕망의 봉사 속에 있다. 그들이 세우는 기준은 자기들을 만족시켜 줄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이 억압하고 증오하는 대상으로서의 기준은 곧 그들과 상위(相違)*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이다.

만일 권력이 소수자에 의해 장악된다면 행복 역시 그 소수자에게 한정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독창적인 것은 이 한정된 행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이 행복에의 참여가 배제된 사람들의 바람은 항상 새로운 시도의 주변에 모여지는 것이다. 이 세계는 다만 동태적(動態的)인 것만은 아니다. 동시에 그것은 다양하다. 행복에의 길은 단지 한 길만은 아니다. 인간은 강제적으로 명령한다고 하여 기꺼이 자기의 경험에 기초한 통찰을 버리고 단지 타인의 통찰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이성적 설득에 의해서만 하나의 욕망의 비전이 다른 비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납득한다. 즉 어떤 경험이 만족감을 갖고 그 의미가 받아들여지자면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권고이다. 인간은 권력의 행사를 향락한다. 어떤 정열도 이것만큼 깊이 인간의 충동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견해의 상위(相違)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 또 개인의 진리는 전체적인 진리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이러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극히 드문 일이다. 그것이 자유의 빛은 모든 사회에 있어서 항상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이다. 또한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 내려지는 행동의 분야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는 매일 새롭게 쟁취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왜냐하면 자유를 특별하고 한정된 행동 영역에 국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학이나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생각할 권리를 쟁취한 사람들은 확실히 정치적 자유의 시조들이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유는 또한 있을 수 있는 무질서의 불가피한 원리이기도 하다. 자유는 항상 권력자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다. 그의 생활로부터 어떤 교훈이 진리임을 배운 사람은 그 진리의 거짓을 납득하지 않는 한 그 교훈에 따라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유의 주장이다. 형벌(刑罰)이 그런 노력을 포기하도록 어떤 사람을 설득할 것이다. 그리고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견해에 입각해서 행동하려는 충동을 은폐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박해도 오랫동안 의의 있는 진리를 결코 억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소수자에 의해 주장되는 원리가 일반인들의 경험에 합치된다면 이 소수자의 경험의 표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그것을 주장할 것이다. 박해받는 사람들의 주장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것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신기한 것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불평의 원인을 시정하는 일이다. 신기한 것이나 불평의 원인을 발표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포함된 진리를 어쨌든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상위(相違)*: 서로 어긋남. 서로 틀림.

<출전>

(가) 이강백, 파수꾼

(나) 존 쿿시, 야만인을 기다리며, 들녘, 2003 (왕은철 옮김)

(다) 김수영, 사령(死靈)

(라) H.J. 라스키, 근대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2001 (이상두 옮김)

◆ 유의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500자 안팎(±300자)의 길이로 논술할 것.
2. 제목을 붙이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말 것.
4. 연필을 사용하지 말고,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우리 사회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는 화두이다. 단편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자유의 양상은 당대 사회적으로 우월한 힘, 즉 권력과의 상관성 속에서 그 모습을 달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는 현대인의 결핍된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자유를 위한 논의를 그칠 수 없는 것은 유무형의 힘들이 작용함으로써 그 탐색을 막거나 왜곡시키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인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행동화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의미 있는 전환기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를 통한 사회 구조적 요건들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에의 높은 기대치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체제 유지 내지는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권력과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세력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의 보편적인 체제 유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보 조작을 통한 위기감 내지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진실을 알고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의 지식인은 기존 체제의 거대한 힘 앞에서 나약한 자신을 확인해가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격변기에 지식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정한 자유에의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2. 논제 파악

본 논술의 핵심은 ‘권력과 자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대응 방식에 관한 진술이다. 먼저 제시문을 통해 ‘권력’과 ‘자유’의 속성과 이의 현실적 양상을 찾아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제시문(가), (나)와 관련 있는 적절한 사례를 찾아 뒷받침해야 한다. 즉, 제시문 (가), (나), (다)에서 논점을 추출하여 제시문(라)의 내용과 연결시켜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3. 문제 해결

제시문(가)에서는 들판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 이리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때가 나타난다’는 공포감을 조장하여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리때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한 소년 파수꾼은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가상의 적도 필요하다는 총장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만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제국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유목민들을 야만인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제국의 긴장과 안정을 꾀하려는 졸 대령으로 대표되는 권력의 행태와 유사하다. 이렇듯 진실은 외면되고 소년 파수꾼도 체제 유지라는 명분 아래에서 굴복하고 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실의 의미와 거짓을 파헤치고 알리는 진실을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제시문(나)에서는 수도에서 파견한 ㅈ 대령이 원정대를 데리고 야만인을 잡으러 출발한

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인근의 선량한 어부나 원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 치안판사는 이러한 행태에 격분한다(1). 새로 전입 해온 젊은 수비대 장교와의 대화를 통해 치안판사는 그들이 잡아들이거나 적대시하는 대상이 결코 위협적이지 않은 유목민 집단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언행이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그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자칫 자신이 곤혹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음을 감지한다(2). 치안판사는 제국을 등진 첩자로 지목 받아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야만인으로 몰려 고통 받는 선량한 유목민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ㅈ 대령에게 맞서지만 제국의 보호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확인할 뿐이다(3). 마지막으로 제국의 수호자요, 야만인을 소탕하기 위해 주둔했던 수비대가 약탈을 일삼으며 마을을 떠나는 장면이다. 이들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무기력한 분노를 느낄 뿐이다. 결국 제국을 위협하는 실체는 야만인이라 규정되었던 선량한 유목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어적으로 제국 자신이었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야만성은 권력 내부에 있었다(4).

제시문 (다)는 ‘죽은 영혼’이라는 뜻의 제목이 암시하듯 자유와 정의가 활자로만 존재하는 부도덕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시인 자신의 영혼을 자책하고 비판하는 작품이다. 자유와 정의가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사회라 할 수 없으며,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진리도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 시적 화자는 지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시민적 지식인으로 전락해 버린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여긴다. 현실의 부도덕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분노는 현실과 자아 일체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그것은 지식인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고 비판과 저항의 정신이 용출(湧出)하기를 희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파악하는 현실은 자유와 정의가 상실된, 책으로만 위장되어 있는 거짓된 세계이다. 이러한 현실 세계의 부도덕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행동화하지 못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분노는 결국 현실과 자기 자신 모두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거짓된 현실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겠다고 다짐해 보기도 하지만,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임을 아는 화자는 다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며 절망할 뿐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솔직한 자기반성의 모습을 반복,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 모두의 타협적 행동을 준엄하게 추궁함은 물론, 나아가 그들에게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 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권력과 자유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제공한다. 먼저 권력의 속성을 간추려 보자. 옳음과 그름, 착함과 악함의 판단은 힘을 가진 자의 욕망과 관계있다. 다시 말해 권력자의 욕망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어긋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욕망과 직결되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정적(靜的)인 사회의 유지이며, 새로운 질서에의 동적(動的) 흐름에 대한 경계이다. 기득권자는 권력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형벌로써 다수를 탄압하거나 체제 유지를 위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에 익숙하다. 소수의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행복에의 제한을 가하게 만들고, 변화나 개선의 행위는 도전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배척받는다. 이러한 거대한 힘에의 도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일견 자유는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의 원리임에 틀림없다. 진리를 아는 지식인은 진리에 따라 행동하려 하지만 권력은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 위기감 조성 혹은 이보다 강화된 갖은 회유와 협박, 폭력 등으로 일정 기간 권력 유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철저한 박해도 오랫동안 의의 있는 진리를 결코

억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경험한 소수자의 원리가 차츰 일반인들에게 수용됨으로써 자유의 폭은 넓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제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력 및 지식인의 속성과 현실 대응 방식에 대해 밝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논거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권력은 현상 유지 및 안정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 한편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지식인은 이상의 추구,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 고통 속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한편, 지식의 자세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진실이며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왜곡된 진실은 오히려 갈등과 정체를 가져오기에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확인되었을 때 입장의 차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논리에 따라 주장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4. 예시 개요

- 서론 : 자유의 의의 및 진실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
 - 민주사회에서의 자유의 의의
 - 진실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과 가치
- 본론 1 : 제시문(가), (나), (다)에 드러난 인간형의 대비
 -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부각
- 본론 2 :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력의 속성과 적용 사례
- 본론 3 : 지식인의 역할과 용기의 중요성
- 결론 : 권력과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인의 역할 강조
 - 부당한 권력의 횡포
 - 자유의 보장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 강조

5. 예시 답안

근대 시민 사회가 성립된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원리 중의 하나가 자유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개인은 구속 상태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보장되는 사회는 강제적인 권위나 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다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한편, 권력이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의 삶을 제한할 수 있고, 권력에 대해 개인이 맞설 수도 있다는 근거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권력과 자유는 시대에 따라 친밀하거나 적대적인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를 맺게 하였고, 권력의 지배 원리, 권력이 지향하는 사회상과 당대 현실 사이의 괴리 정도,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허용 범위 등의 척도로 당대 사회의 민주성을 평가하게끔 만들었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유의 추구는 진실을 향한 방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실을 알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보장해 준 사회는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실을 찾고 진실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했던 개인의 삶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 (가)와 (나)에는 진실과 거짓 사이를 오가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파수꾼 ‘다’와 촌장, (나)의 치안판사와 졸 대령이 그들이다. 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는 자와 거짓을 통해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안정을 꾀하는 힘 있는 자의 전형으로 그려졌다. 또한 파수꾼은 진실을 알지만 촌장의 설득으로 진실을 다시 묻어버리고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인물이며, 치안판사는 자신의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권력이 만들어 낸 허위와 이를 통해 조작하고자 하는 위기감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의 시적 화자를 포함하여 이들은 모두 진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이나, 사회 발전이라는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무엇을 발전이라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대립 구도 형성하고 있다. 권력의 속성과 권력 앞에 선 인간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권력은 정적(靜的)인 안정을 추구한다. 기득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를 조작하여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형벌과 같은 물리적 탄압을 가하기도 한다. (가)에서 촌장의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다’는 말처럼, 또한 사회 변화에 대한 내적 요구가 강할 때는 관심을 적대적 관계의 외적 상대로 돌리는 태도 익숙하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이나 우리나라의 과거 정권이 선거전이 한창일 때마다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을 일으켜 위기감을 조성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도 하였으며, 얼마 전 18년 만에 완공했다는 평화의 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진실을 인식하는 것은 본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이며, 가장 중대한 요인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였다. 우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민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지표로 삼아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자유의지에 따라 용감하게 살았던 지식인의 힘이 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 일제 치하의 친일 행각을 일삼았던 당대의 인사들을 통해 왜곡된 진실에 봉사했던 지식인도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식인이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실천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 사회적 모순을 감추려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정의(正義)에 기초한 지식과 안목으로 개선과 개혁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자 하며 전환기적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 보듯이 권력은 언제나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앞세웠고, 무력하고 왜소한 존재에 불과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였다.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권유하는 친구를 설득하고 스스로 독배를 마신 것은 자신의 논리에 따른 선택이기도 하였지만 부당한 권력의 횡포였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도 개인들 간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유의 허용은 궁극적으로 개인들 사이의 충돌을 불러오기 마련이고 사회가 충돌을 조정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권력이 정당성을 부여받아 특정 계급이나 계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력 행위를 감시하거나 비판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시와 비판의 중심에 지식인이 있어야 한다.

<III> 읽기 자료

■ 현대 민주 사회에서 자유의 의미

조직화된 사회에서 자유란 상대적인 것이며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한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고집한다면 그 사회는 필경 무정부 상태에 빠지거나, 소수의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제한적인 자유밖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먼 방종에 불과하다.

우리가 자유를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인 자유로 규정하는 까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란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 얻어낸 결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투쟁은 봉건 영주와 교회, 그리고 절대 군주에게서 시민의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전개되어 왔거니와 이 점이 바로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임을 증명해 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와 같이 비교적 서구적 민주주의를 늦게 채택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꽃피우기 위해 독재 권력에 항거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 온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자유가 제한적인 자유였던 것처럼 근대시민사회의 자유도 여성과 노동자 계급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고 부르조아 계급으로 일컬어지는 자본가 계급의 정치 경제적 자유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었던 까닭에 사회 전체에는 언제나 갈등이 내재하였다. 마침내 20세기에 들면서 산업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됨에 따라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만으로 과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대 국가가 강력한 독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처지에 놓인 여러 사회 계층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간섭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한편으로 사회보장제가 확립되고 노동 시간 및 임금, 그리고 근로 여건에 대한 조건이 법적으로 규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반사회적인 기업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도 제정된 것이다. 마침내 현대 사회는 복지 사회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새롭게 각성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유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 역시 인류 역사상 새로운 면모를 지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 시민 사회 초기의 자유가 절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자유라는 소극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현대 사회의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없는가?

정치 권력이란 무엇일까? 정치 권력이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권력은 어떤 것이며 과연 개인은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일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은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의 지배적인 논리에 따라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정치 권력이란 본래 인간의 유포괴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을 향해 있다는 원칙과 현실 정치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러한 대답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정치철학자들 역시 ‘정치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경에는 다른 사람들

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적으로 악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권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여 권력을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 또한 정치 권력이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논리의 가장 실천적인 인물이던 히틀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을 때, 정치적 권력은 자유를 해치는 까닭에 다시 말해, 자유가 없는 곳에 사회 생활이란 불가능하다고 믿는 무정부주의자들도 목청을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권력을 놓고 상반된 견해가 대두된 것은 무엇보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 때문일 것이다. 국가 권력에 위임되었던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성실히 잘 수행했다라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권력, 특히 잘못된 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삶과 정신을 파괴하려 할 때 개인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국가 권력은 언제나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앞세웠고, 개인은 너무 무기력하고 왜소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왔으며 역사에 의해 그 권력이 부도덕하고 정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러한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개인은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가? 국가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대개 국가가 사회의 질서와 안녕 자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고 국가가 보장하는 질서가 평화적 발전과 최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성원의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마르크스가 당시의 국가 권력을 부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도 국가의 강제력이 언제나 특정한 계급, 상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가는 대다수 국민의 만족을 보장하지 못하며, 결코 평화적인 개혁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사회 안에서 기득권을 지닌 세력들은 언제나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더욱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며, 공동선에 입각한 평등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차별을 선이라 하며 정당한 경쟁의 소산이라 위장하지만 이윤과 분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이에 반항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도덕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도덕적 근거는 최소한 실제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이 어느 특정 계급에 한정되지 않은 명실상부한 공동의 이익이어야 하고, 언제나 잘못된 권력 행위가 비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은 그 정당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러한 주장의 뒤에는 국가를 하나의 이상체, 혹은 절대적인 존재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기득권이 유지되는 세력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국가는 언제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실체인 까닭에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국가의 권력과 그것의 권위에 복종하는 까닭은 국가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개인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러한 저항을 통해서 국가 권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자신의 본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I-4

서울대 실전논술

<I> 문 제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에 따른 바람직한 공동체 삶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제시문 (가), (나)에 따른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보시오.
2. 제시문 (가), (나)의 잉여노동력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제시문 (다)가 함의하고 있는 바를 논의에 포함시켜 논지를 전개하시오.

(가)

‘20:80’은 엄밀한 검증을 거친 엄격한 의미에서의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적인 용어에 가깝다. 그럼에도 세계화 시대의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그려내는 데 20:80보다 더 대중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80의 사회가 범지구적 세계화의 종착지로 언급된 것은 독일을 유명한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기자였던 오스트리아 출생의 한스 페터마르틴과 독일 출생의 하랄트 슈만이 공저한 『세계화의 뒷 :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에서 비롯한다. 이들은 세계화의 가공할 위력과 폐해를 지적하면서 세계화의 종착역이 20:80 사회라고 강변한다. 20:80이란 이미 도래한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단지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범지구적 세계화 물질 속에서 건강, 인권, 공동체, 심지어 생태계마저 급속도로 파괴되면서 사회복지, 민주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논리가 담겨져 있다. 오로지 20%의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80%는 불안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매스컴이 뱉어내는 상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미래의 모습으로 담고 있다. 거칠게 말해 대다수는 소수가 생산해내는 부에 빌붙어 먹고 살아가는 신세이다.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격조를 갖춘 20%와 그렇지 못한 80%로 나뉘는 양극화의 모습인 셈이다.

20:80의 내심을 들여다보면 다가오는 세상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80%의 사람들은 약간의 오락물과 먹거리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아야만 한다는 현대판 인간성 소외를 말해준다. 실제로 경제 세계화로 인한 범지구적 경쟁은 각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살인적 경쟁을 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게 일하기 위해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셈이 되고 만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닌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 주체인 사람들을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의 유연화 전략 속에서 값싸고 불안정한 노동으로 전락해 인간의 삶 자체가 빠른 속도로 파괴됨을 예견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80의 사회가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횡포를 일정하게 제한하던 민주적 장치들이 사라지고 자본의 활동에 무제한의 자유가 안겨지면서 양극화의 분화 모습은 점점 더 그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화이트 칼라들도 분화 과정을 거쳐 소수의 전문직 핵심 근로자 20%와 대다수의 단순직 주변근로자 80%로 양극화되는 20:80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화가 20:80 사회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로 구획화되는 정보의 격차(digital divide)는 곧 부의 격차를 의미한다. 정보화의 진행 속에서 20%의 소수엘리트와 그저 그런

다수의 80%로 사회가 더 분명하게 재편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2030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 확대되는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간주되고 있다.

(나)

우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기계가 점차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역사상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비록 일정표를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는 자동화된 미래의 확실한 코스에 놓여있고 21세기 초반에는 최소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거의 무노동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도 비록 자동화가 느리겠지만 21세기 중반 경에는 거의 자동화된 상태로 근접할 것이다. 출현하고 있는 지식 부문은 대체된 노동력의 약간 부분을 흡수할 것이지만 실업 증대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수억의 노동자들이 자동화와 세계화라는 쌍두마차로 인해서 영구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여전히 취업중인 노동자들은 남아 있는 일자리의 보다 공정한 분배와 생산성 증가분을 흡수할 적절한 구매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더 적은 시간을 노동하게 될 것이다. 기계가 점차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서 수백만의 미사용 인간 노동력은 다가오는 시대의 중요한 광범위한 현실이며, 모든 국가들이 제3차 산업혁명의 충격의 와중에서 문명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당면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될 것이다.

문명화가 수억 노동자들의 재능, 에너지, 자원을 건설적인 목적에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빈곤의 심화와 무법천지로 해체되어버릴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공식 노동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핵심적인 과업이다. 후기 시장 시대의 대비는 제3부문과 공동체 생활의 재건에 대한 보다 많은 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생산성에만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가 용이한 시장 경제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관계, 친밀감, 동료 의식, 형제애적 연대, 봉사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기계가 완전히 침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3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된 노동자들이 공식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무용하게 된 후 생활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될 피난처가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수평선상에서 기술의 폭풍우를 헤쳐 나가려면 제3부문을 시장 영역에서 기술에 의해서 대체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 영역으로 부흥시키고 변혁시키는 과업에 긴급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만 한다. 사회적 경제의 증대하는 부담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상당한부분을 시장으로부터 제3부문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사려 깊은 방식들이 발견되어야만 한다.

제3부문은 시장으로부터 축출된 수많은 노동력의 흡수와 기초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문화적 생활을 더욱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봉사와 운영 자금의 양면에서 상당한 투입이 요구된다. 자원 봉사 노동에 대한 그림자 임금의 제공, 공동체 서비스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전적으로 사회적 임금을 보증하는 데에만 사용될 목적으로 하이테크 시대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의 확대는 향후 제3부문의 형태와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미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확충하고 강화하기 위한 상이한 접근법과 인센티브가 고안될 것이다.

세계가 현재까지 시장 경제의 작동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대중들이나 공공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향후 제3부문의 변혁이 시장에서 축출된 잉여 노동력을 건설적으로 재배치시키는 유일한 대안을 제공하게 되면 사태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그 길이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또는 무서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여부는 문명화가 제3차 산업혁명의 바퀴를 따라갈 후기 시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다)

톡, 톡톡, 하고 소리를 내며 도토리들이 떨어지더니 톡톡도둑, 토토토토토톡토토토톡
톡톡톡토토토톡토토톡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를 내며 도토리들이 떨어져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와서 장대를 휘두르며 갈참나무의 도토리들 마구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장대를 휘두른 다음 노인은 가지고 온 자루에다 도토리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낙엽들은 그들이 감싸고 있는 도토리가 노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낙엽들은 노인이 어서 산을 내려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홀쭉한 노인의 자루는 바람을 붙여넣은 것처럼 금세 빵빵해졌고, 노인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썩, 썩썩, 날이 어두워지자 이번에는 쥐들이 먹이를 찾아 썩썩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썩 나뭇잎들은 그들이 감싸고 있는 도토리가 쥐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무진 애를 썼습니다. 도토리로 들키지 않으려고 땅으로 고개를 숙인 채 쥐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굳이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나?” 도토리는 갑갑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너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돼.” 낙엽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삶을 도토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낙엽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는 자기의 존재를 되는 대로 내팽개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인간의 눈에 발견되어 마을로 가거나, 쥐들이 먹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된다면 하루하루를 긴장과 불안에 휩싸여 살지 않아도 되잖아.”

“도토리야, 너는 살아남아야 해. 그래서 이 세상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해.”

“...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지?”

“그건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던 꿈을 실현한다는 뜻이야. 너는 너 자신의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 낙엽들의 꿈까지도 실현시켜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안하지만, 나는 꿈같은 것은 없어. 어서 이 지루한 시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는.”

낙엽들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토리를 에워쌌습니다.

“도토리야, 네 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니?”

“글쎄.”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도토리야. 네 몸 속에는 갈참나무 향 그루가 자라고 있어.”

그것은 도토리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 몸 속에 갈참나무가?”

“그래, 그래.”

낙엽들이 하는 말을 도토리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토리는 그저 도토리일 뿐인데 어떻게 몸속에 큰 갈참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말인가?

겨울이 되었습니다. 앙상한 갈참나무 가지 사이로 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한두 송이 띄엄띄엄 내리던 눈은 마침내 폭설로 변해 온 세상을 뒤덮으려는 듯이 퍼부어졌습니다. 힘없는 마른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눈이 내려 쌓일수록 도토리는 몸이 자꾸 아늑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면 또다시 달콤하고 따뜻한 잠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도토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낙엽 위에 쌓였던 눈이 사르륵사르륵 녹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토리의 몸도 눈 녹은 물에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도토리는 거무튀튀해진 낙엽들이 썩는 냄새를 맡고는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나는 낙엽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한 게 없어. 낙엽들이 썩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야. 어서 꿈에서 깨어나야지.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지.”

“도토리아, 우리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걸.”

낙엽들이 도토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기운이 도토리의 몸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토리의 작은 몸은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점점 뜨거워졌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도토리를 집어삼킬 듯하였습니다. 도토리는 한시바삐 꿈 속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견뎌야 해. 이제 우리들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거야.”

낙엽들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도토리를 껴안았습니다. 이미 부서져 가루가 다 된 낙엽들까지도 도토리를 껴안았습니다. 도토리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낙엽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토리는 자신의 껍질을 찢으며 껍질 밖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고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을 발견하고는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갈참나무 가지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와는 전혀 다른,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도토리는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도토리는 햇별이 내려오는 쪽으로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도토리의 손 끝에 연초록 싹들이 보란 듯이 돌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연초록, 그것은 바로 낙엽들의 꿈이었으며 또한 도토리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수없는, 어린 갈참나무들이 숲 속에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출전>

(가) 박길성, 21세기 문화 키워드 100.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나)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옮김, 민음사, 1996

(다) 안도현, 관계, 문학동네, 1998

◆ 유의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500자 안팎(±300자)의 길이로 논술할 것.
2. 제목을 붙이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말 것.
4. 연필을 사용하지 말고,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을 어느 한 측면에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만큼 변화 양상이 다양하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어떤 언급이든 인간 삶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삶의 주체로서 주도적 위치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제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회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체로서의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2. 논제 파악

본 논제는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른 경제 사회의 변화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해내야 한다. 즉, 제시문에서 초점화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현실화 되어 가거나 예측 가능한 사회 변화상을 통해 타분야로까지 사고를 확산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 상황을 밝히고, 제시문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문(다)와 관련지어 가면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3. 문제 해결

제시문 (가)에서는 세계화의 가공할 위력과 폐해를 지적하면서 변화되는 경제 사회 양상을 20:80이라는 용어로 대변하고 있다. ‘세계화’가 지식정보화라는 말과 함께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노동 인구 가운데 단지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으며 인간 공동체, 생태계마저 급속도로 파괴되면서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논리 앞에서 자유로울 개인과 사회는 없다.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약간의 오락과 먹거리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아야만 한다는 현대판 인간성 소외 현상,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닌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의 인간의 위상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가)의 20:80 사회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기계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것임을 말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인간노동력은 다가오는 시대가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80%에 해당하는 수억 노동 인력이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한 대비는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로서 제3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 영역으로서의 제3부문을 부흥시키고 시장으로부터 제3부문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잉여노동력의 건설적인 재배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종말이 가져오게 될 인간 문명의 미래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한다.

제시문 (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동화이다. 낙엽과 도토리, 처음에는 낙엽이 일방적으로 도토리를 도와주지만 결국에는 도토리를 집어가는 할아버지와 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낙엽과 도토리가 서로 힘을 합쳐 숲을 이루어내는 이야기이다. 도토리와 낙엽은 개인이지만 서로 힘을 합치면 훌륭한 숲이라는 공동체

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공동체에 무조건 종속되어야 하는지, 개인이 더 소중한 것인지,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해묵은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미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제시문 (가)와 (나)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잘것없어 보이는 낙엽과 자신을 미미한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참을성 없는 도토리가 차츰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내는 상호 작용을 통해 갈참나무 숲을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종합하면, 제시문 (가),(나)는 현대사회가 겪게 될 위기의식을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에 초점에 두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위기가 맞는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일 수도 있는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이외로의 사고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경제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입장이 다르고, 개인과 국가의 대응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80%에 속하는 집단을 대변하여서도 안 될 것이지만 소수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낙엽과 다람쥐 그리고 숲의 관계를 규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나)의 제3부분과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은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예시 개요

- 서론: 현대 사회의 변화와 공동체 삶의 위기감 고조
 - 세계화에 따른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와 삶의 양식
- 본론 1 : 20:80 사회의 도래에 따른 위기
 - 노동의 가치와 잉여노동력에 따른 위기감 고조
 - 우리나라의 사례
- 본론 2 : 잉여노동력의 활용
 - 공동체 서비스(제3부분)의 활성화
- 본론 3 : 제시문 (다)의 함의
 - 현대판 인간 소외의 극복 방안
- 결론: 사회적 책임 의식과 진실한 인간 관계의 회복

5. 예시 답안

인간의 역사는 고정된 사회 운영 방식으로 변화 발전해온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양질전화(量質轉化)의 법칙에서 사회 변화의 내적 요소가 쌓이면 체제 이행의 단계를 밟아 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로 사회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사회의 변화 원리를 알고 예측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기 그지없다. 제시문에서는 사회 변화를 주로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화란 주로 경제 분야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경을 넘어선 생산, 판매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생산 활동에 있어서 세계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다국적 기업 활동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문제는 경제의 세계화가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세계화의 흐름을 가속화시켜 국가간의 이해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 간, 개인과 사회 간의 물리적, 정서적 괴리를 조장하고 고착화시키는 등 공동체 삶의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간은 특정 목적에 충실한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간다. 노동 행위는 삶의 근간이자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인간이 노동의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는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는 맥락에서 보면 가치 있는 노동과 이의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 공존해 왔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20:80 사회가 도래한다면 노동 가능한 인구 가운데 80%는 노동 현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현실화된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충실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왔으나, 노동 현장에서 잉여노동력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고, 사회적 문제거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잉여시간은 더 이상 여가 시간이 아니라 피폐된 삶의 상징일 뿐이다. 세계화에 따른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우리 나라도 20:80 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경험하였다. 외환 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 구조 조정을 통한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청년 실업이 급증하였고, 정부는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침체된 소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이는 국가 부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최근 까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조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직장에 남아있는 구성원조차도 소속감이 결여되어 가고 경제적 생존을 위한 새직장 찾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속도가 낮설지 않게 되었다.

인간의 삶은 행위나 의지를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제시문(가)의 20:80 사회를 대책 없이 맞이하게 된다면 사회는 빈곤의 심화와 사회적 혼란의 가중으로 인해 해체될 것이 분명하다. 관건은 급속한 기계화, 자동화로 인한 잉여노동력의 발생을 인정할 경우, 이의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잉여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 나눴의 자세가 필요하다. 제시문 (나)에서는 제3부문의 활성화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제3부문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노동 가치를 잃어버린 후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부문이다. 즉 시장에서 축출된 노동력을 흡수하고 사회적 서비스와 문화적 생활을 제공한다는 제시문의 내용으로 보아 공동체 서비스와 관련이 깊다. 이는 최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자원 봉사 활동, 환경 보호 활동, NGO 활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될 때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경제적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있게 일하기 위해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있는 개인의 삶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감, 동료애, 형제애 등의 연대감을 잃어버린 현대판 인간 소외 현상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제시문 (다)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베풀 줄 아는 낙엽이 자신 자신의 생명력과 내적가능성을 깨닫지 못했던 도토리알과 힘을 합쳐 갈참나무 숲이라는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현대판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간, 공동체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시사해준다. 해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현대 사회의 구원은 앞으로 양산될 수 있는 대다수의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과 봉사, 희생 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일반화되어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는 나름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수 없다. 다만 현대 사회가 위기를 국면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0%에 의해 80%가 종속된다거나 80%를 위한 일방적인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은 필경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의 의지를 고양하여 나눔과 봉사 그리고 진실한 인간관계의 회복을 원만하게 이끌어 내야만 밝은 미래 사회를 기약할 수 있다.

<III> 읽기 자료

■ 2005.10.22일자 중앙일보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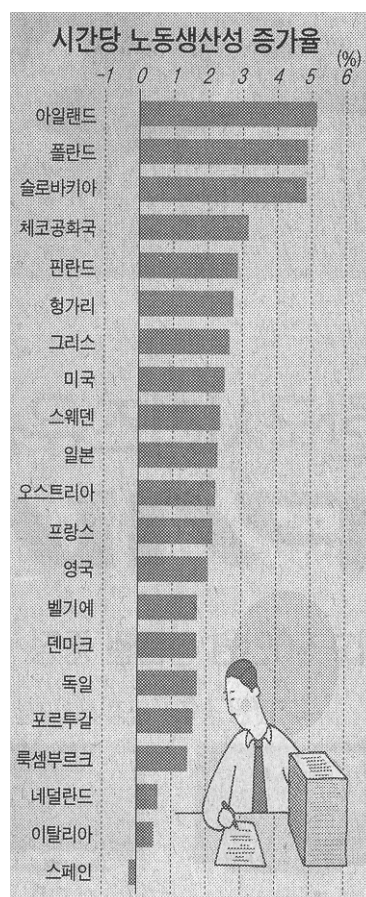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 ‘세계화 충격흡수 기금’ 설립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세계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 보자는 취지다. 기업들이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거나 아예 임금이 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EU는 세계화 충격흡수 기금을 만들어 이런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술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한다는 복안이다.

EU 집행위는 매년 5억유로(약 6,000억원)씩 적립해 나갈 계획이다. 호세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이 기금은 글로벌 경쟁에서 문을 닫게 된 회사와 노동자들의 재활 및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미국의 직업조정 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세계화 충격 흡수 기금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EU 역내에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7일부터 영국 런던 근교 햄프턴코트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는 세계화 충격흡수 기금 설립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EU 집행위 측이 그동안 대책 없이 무역자유화, 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사회복지 모델이 위협받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집행위가 기금 설립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들 국가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 기금은 정치적 재정적 연대를 위한 고리가 될 것”이라며 지지했다. 그는 최근 미국 컴퓨터회사인 HP 프랑스 지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 1240명을 해고했는데 이런 경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회원국도 꽤 있어 실제로 설립될지는 미지수다.

■ 세계화,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요사이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화’와 관련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계에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한국의 기업은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활동이 정부의 보호를 전제로 해 이뤄지는 국제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란 단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친숙하고 호소력 있는 구호로 와 닿기까지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듯하다. 우선 국제화와 다른 세계화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를 주장한 때가 바로 엇그제인 것 같은데 다시 세계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든다.

오랫동안 우리 나라는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펴면서 국제화를 이야기해 왔다. 어느 때인가부터는 해외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면서 국제화란 말을 썼고 얼마 전에는 해외에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를 세계화로 설명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쓰는 세계화란 말은 지금까지의 국제화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달리 인식된다. 간단히 말해 기존의 국제화가 외국에서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뜻했다면 요즘의 세계화란 국경을 넘어선 생산 판매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생산 활동에서는 세계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드 자동차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부품 구매 전략을 쓰는 경우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가 바로 자신의 공장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경제의 세계화는 자국 제품의 수출분 아니라 그 나라 기업이 범세계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면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계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자국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여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수익도 올리고 필요한 부품이나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세계화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세계화는 단순히 수출 전략의 개념이 아니라 국경이 없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경쟁을 일컫는 말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과거에는 국경의 범위 안에서 기업의 경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싼 임금에 바탕을 둔 가격으로 선진국의 앞선 품질과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선진국의 기업들이 포드 자동차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이 고품질과 고부가가치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값싼 부품들을 조달하면서 시장을 확대한다면 우리 기업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더욱이 시장 개방이 현실화 되어버린 지금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즘 세계는 경제 전쟁의 시대라 한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 각국의 기업들이 국경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는 작은 기업들을 도태시키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시대라는 의미이다. 이들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싼 임금과 금융 비용, 그리고 양질의 원료와

높은 생산 기술, 그리고 최첨단의 판매 기법을 토대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한 국가 범위 안에서, 혹은 정보의 보호 아래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당해 낼 재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이제는 정부가 이들 국내 기업을 보호해 줄 수도 없게 되어, 국내 기업들에게 위기는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가 국경 없는 경제로 치닫고 있고 우리의 생존과 발전이 경제에 달려 있는 이상 우리 경제도 세계화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제화가 그 나라의 개별 기업의 세계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지원과 뒷받침은 과거처럼 규제와 정부 선도 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세계화 못지않게 외국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업하도록 유도하여 그들에게서 기술과 경영 기법을 배워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조류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우리 생활과 삶의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는 고립된 경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고립된 경제란 소비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소비 생활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시야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 국민의 애국심을 호소하고 수출을 위해 국내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는 경영 전략은 통용되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오히려 거시적 차원에서 세계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인류 전체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우리가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의 관련성, 그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연세대 편

I

논술 경향 분석

1. 2005년도 논술 출제 경향

2005학년도 정시 모집 논술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문제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문제 해결형이나 논쟁형 제시문을 주고 의견을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사회 과학적 소양을 깊이 있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짙어졌다. 현대 사회와 관련된 시사적 논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화해 사회 과학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제시된 자료 또한 그 내용이 다양해지고 수가 늘어났다. 곧 형태 면에서는 영문 지문이나 국한문 혼용문뿐만 아니라, 그림 도표 등도 제시되었고, 내용 면에서는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적인 글과 함께 인문 과학과 사회 과학,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논리적인 글도 제시되었다.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변화의 정점에서 있다

지난해부터 어느 대학과 조금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다. 2004학년도에는 ‘웃음의 사회학적 기능’을 물었고, 2005학년도에는 여러 고전에 담긴 ‘세월의 흘러감’에 대한 생각을 ‘욕망’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자기 의견을 논술하라는 독특한 문제를 선보였다. 글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도 진담을 흘릴 법한 문제다. 특히, 2005학년도 연세대는 제시 자료로 그림을 출제해 수험생을 더욱 당황하게 했는데, 이는 시각 매체의 메시지를 논리적 언어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논술 참고서를 보고 외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인간과 세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2. 최근 5년간 출제 경향

1998년 이후 연세대 논술은 몇 가지 특징을 유지해 오고 있다.

- ① 이른바 ‘고전 텍스트 논술’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쓰기 능력만이 아니라 글읽기 능력도 강조한다.
- ②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항의 요구사항을 통해 답안의 구조와 방향을 상당 정도 결정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 ③ 논술의 반영비율은 높지 않지만 변별력과 실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학교보다도 높다. 논술 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학에서 우수한 수학 능력을 보여준다는 자체 분석에 기반하여 논술을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작성시간(150분)을 충분히 주는 이유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3학년도부터 연세대 논술문제의 성격에 미세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2002년까지는 우선 제시문의 분량이 많았다. 그러나 긴 제시문을 정확히 읽으면

사전 지식 없이도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답안의 구조가 뻔히 보일 정도로 논술 문항이 구체적인 과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제시문을 독해한 후 그 내용을 요구사항에 맞추어 배치시키면 무난한 답안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2004년의 문제는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인다.

- ① 제시문 독해만으로는 답안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자기의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폭이 커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식견이 있는 학생이라야 우수한 답안을 쓸 수 있다. 이는 결국 평소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해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춘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제시문의 경우 고전 텍스트 논술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분량은 적어지면서 난이도는 높아진 제시문이 출제된다. 그리고 텍스트도 단순한 문자 텍스트만이 아니라 그림 등의 다양한 텍스트를 이용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연세대 논술 출제 경향은 한마디로 ‘고전(古典) 텍스트’다. 예전에는 주어진 텍스트를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최근엔 주어진 텍스트 외에 다른 배경지식을 많이 동원해야 풀 수 있다. 하지만 이 배경지식은 교수들이 고교 교과서를 놓고 연구하기 때문에, 각 교과 내용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익히면 된다. 따라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준에 맞는 좋은 고전 등 독서를 많이 하면 된다.

논술을 쓸 때 ‘교과서적 논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윤리 교과서 등을 보면 모든 갈등 이슈를 절충적으로 해결하는, 양비론 또는 양시론이 대부분이다. 학생들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이런 절충적 결론을 맺곤 한다. 그러나 독창적인 시각이 보이지 않아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한 가지 생각을 확실하게 끝까지 주장하는 글이 점수를 많이 받는다.

또 연세대 논술에서는 시사적인 이슈 대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일상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논리성 등을 주목해야 한다. 작년 문제는 ‘나이 드는 것과 욕망의 관계’, 그 전에는 ‘웃음의 메커니즘’이었다. 학생들은 일상적인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논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술의 모범이랄 수 있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식 논제가 눈에 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적어 보거나 친구들과 토론해 보면 큰 도움이 된다. 결국 점수를 잘 받으려면 학원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결국 연세대 논술은 단기간의 갑작스러운 준비로는 대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글쓰기의 기본 훈련을 충실히 하면서 우선 이미 쌓은 지식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을 통해 한 단계 더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연세대는 답안 작성 분량(1,800자)과 시험 시간(150분)이 다른 대학에 비해 길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II-1

연세대 실전논술

<I> 문 제

제시문 (가), (나)에 드러난 ‘생명’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사회 모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가)

무너진 성터 아래 오랜 세월을 풍설에 깎여 온 바위가 있다.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한 줄기 바람에 조잘히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
나의 몸가짐도 또한 실오리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아, 우리들 태초의 생명의 아름다운 분신으로 여기 태어나,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이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 조지훈, ‘풀잎단장’

(나)

『이기적인 유전자』의 저자 도킨스(Richard Dawkins)에 의하면 긴 진화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개체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이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유전자다. 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고 말지만 그 개체의 특성에 관한 정보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 생명의 한계성은 개체의 수준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나 일단 우리의 관점을 유전자의 수준으로 낮추면 생명의 영속성(perpetuity)도 충분히 가능한 실체로서 나타난다. 지금은 체가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생물체들 속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불멸의 나선 DNA이다. 생명의 역사는 결국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존 기계들의 몸을 빌며 살아온 DNA의 일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DNA의 기본구조는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하다. 다윈이 주장한대로 오늘날 이처럼 다양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모두 태초에 우연히 생성된 그 어느 성공적인 복제자로부터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체가꿈 보다 효율적인 복제를 위하여 다른 생존 기계들 안에 들어앉아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하나의 조상을 모시는 한 집안 식구들이다. 이처럼 생명은 무수히 많은 가지를 뻗었으나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continuity)을 지닌다.

— 최재천, ‘호랑이도 죽어서 유전자를 남기고 사람도 죽어서 유전자를 남긴다.’

(다) 고작 34층밖에 안 되는 회색의 납작한 건물. 정문 입구에는 ‘중앙 런던 인공 부화 및 습성 형성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옆의 팻말에는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세계 국가의 표어가 붙어 있다.

“여기가 수정실(受精室)입니다.” 국장이 문을 열면서 말했다. 인공 부화 및 습성 형성국 국장이 들어섰을 때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기계 위로 몸을 구부리고 정신을 온통 집중시키고 있었고, 이때 300개의 수정 매개물이 주입되고 있는 중이었다. 나이 어린 애송이 학생들 한 떼가 몹시 신경을 쓰면서 거의 비굴할 정도의 자세로 국장을 바짝 뒤따르고 있었다. 학생들은 제각기 손에 노트를 한 권씩 들고 있다가 이 귀하신 어른이 입을 열 때마다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죽어라 하고 필기를 하였다.

이런 기회는 사실 굉장한 특권이였다. 중앙 런던 관할의 국장께서는 으레 신입생들을 위하여 몸소 구내 전체를 견학시키곤 하는 것이었다. 그저 학생 제군들에게 몇 가지 일반적인 개념을 알려 주기 위해서라고 단서를 달며 그는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은 바 소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일반적인 개념을 약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기는 선량하고 행복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일반적인 개념 따위는 가능한 한 모르는 것이 좋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특수한 것은 덕성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것은 지식이 만들어 내는 필요악이니까. 사회의 지주가 되는 것은 철학자가 아니고 정밀 세공 기술자나 인지 세공 정수자인 것이다.

큰 키에 호리호리한 편이었으나 꼳꼳한 자세로 국장은 방안을 들어갔다. 나이가 든 것일까? 아직 젊은 것인가? 그를 통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의문은 생기지 않았다. 이렇듯이 안정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물어 보고 싶은 생각이 아무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것이” 하고 그는 손을 저으며 말하였다. “부화기요.” 그리고는 절연된 방의 문을 열어 가득 포개져 있는 번호가 붙은 시험판대를 가리켰다. “이것은 이번 주일의 난자(卵子)입니다.” 부화기에 몸을 기댄 채 그는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수정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제일 먼저 이 과정에 대한 외과적인 서론에 관해서 얘기했다. “즉 이것은 사회의 복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받게 되는 수술이며, 6개월분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떼어낸 난소를 그대로 보존하여 발육시키는 기술을 설명하였고 최적의 온도와 보존하는 액체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보카노프스키씨 법은.” 하고 국장은 설명하였다. 하나의 난자, 하나의 태아, 그것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보카노프스키씨 법에 따라 키우면 난자는 썩이 트고 수가 늘고 분열한다. 한 개의 난자가 여덟 개에서 아홉 여섯 개까지의 배아(胚芽)로 되며, 배아는 제각기 완전한 태아가 되고 마침내는 다 큰 어른이 된다. 그전에는 단지 한 사람이 성장한 곳에서 아홉 여섯 명이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괄목한 만한 진보인 것이다. 굉장한 자연 개량이라고 누구나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시대에 모체에서 우연히 분열하여 이루어지는 보잘 것 없는 두 쌍이나 세 쌍둥이와는 달리 한꺼번에 몇 십 개씩 닮은 쌍둥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 중의 하나가 어리석게도 이것의 장점이 무엇이나고 질문을 던졌다. 국장이 날카롭게 학생을 돌아보았다. “자넨 그걸 모르겠나?” 그는 손을 높이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였다. “보카노프스키씨 법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인 말이야.” 표준형의 성인 남자와 여자, 한결같이 똑같은 무리. 작은 공장들을 단 한 개의 보카노프스키씨 법 난자가 생산한 인간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구상의 공통 표어를 인용하면서 말하였다. “공유, 균등, 안정! 만약 우리가 무한정 보카노프스키씨 법을 실천한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혈색 좋은 금발의 청년을 보자 “포스터 군!” 하면서 국장은 손짓하였다. “자, 이리 와서 자네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게.” “그러면 태아 보관실로 가 봅시다.” 이렇게 말한 포스터 씨는 문을 열고 지하실 층계를 앞장서 내려갔다. 포스터 씨를 뒤따라 학생들이 들어간 찌는 듯한 어둠 속은 붉은 빛이 감도는 환한 어둠 속이었다. 양편으로 수많은 병들이 여러 줄로 나란히 열을 지어서 홍보석처럼 빛을 내고 있었다. 그 홍보석 사이로 자칫빛 눈과 모두가 결핵성 부스럼 징후를 갖추고 있는 남녀들의 희미하고 붉은 자태가 오락가락하였다.

병들은 제각기 옮겨져서 틀 위에 올려졌다. 그 틀들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시속 33과 1/3센티미터, 즉 하루에 8미터씩 움직여서 267일 동안 총 2,136미터를 이동하고 있었다. 1층을 한 바퀴 돌고 2층을 한 바퀴 돌고 3층을 한 바퀴 돌아서 267일째 되는 날 아침

에야 햇빛을 보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해내야 됩니다.” 하고 포스터 씨는 설명하였다. 매 12미터마다 내분비를 자극하고, 112미터의 코스에서 모든 병에 인공적인 태아 영양 순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모든 태아들이 운동에 익숙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8미터에서부터 마지막 2미터 사이에 마련하여 놓은 간단한 기계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이른바 ‘디켄팅의 충격’이라고 하는 중력 법칙을 암시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미터 부근에서 실시하는 성별 검사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남성에게는 T, 여성에게는 O, 생식 기능이 없도록 예정된 여성들에게는 흰 바탕에 검은(?)를 붙이는 표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사실 말이지,” 하고 포스터 씨는 말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생식 능력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런 장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1,200개 중에 생식 능력이 있는 난자는 하나로써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선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태아 가운데서 약 30%에게는 정상적인 발육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태아에게는 다른 코스를 따라 24미터마다 남성 호르몬을 조금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식 능력이 없는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구조적으로는 전혀 정상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우리들은 자연을 노예적으로 모방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훨씬 더 흥미진진한 인공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당겨 운명을 결정해 주고 습성 형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아를 배양하여 사회화된 성인으로 만들고 있으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형식으로 만들고, 앞날의 하수도 공무원 혹은 앞날의 인공 부화 국장을 만들어 냅니다. 그들은 제11호 틀이 320미터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의 키 작은 마이너스 기계공이 드라이버와 스패너로 그곳을 통과하는 병의 혈액 내용품의 펌프를 부지런히 틀고 있었다. 한 번 돌리고, 다시 또 한번 마지막으로 비틀고 난 후에 회전계를 흘깃 보고 나서 잠깐 멈추었다. 그는 두 발짝을 떼어놓더니 다음 펌프에 이르러 같은 일을 되풀이하였다.

“매분마다 회전 속도를 감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터 씨가 설명하였다. “이것은 태아에게 산소를 보다 적게 공급해 주는 셈이 됩니다.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려면 산소 결핍처럼 좋은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서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든단 말씀입니까?” “계층이 낮을수록 산소도 부족해야 합니다.” 하고 포스터 씨가 말하였다. 그럴 경우 제일 먼저 영향 받는 기관은 두뇌였다. 그 다음은 골격의 차례다. 정상의 70%밖에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난쟁이가 된다. 70% 이하로 줄이면 눈이 없는 괴물이 된다.

그러나 만약 성숙 기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이 발명된다면 얼마나 큰 승리이며 사회에 대한 큰 기여일 것인가! 엡실론의 정신은 열 살이 되면 성숙한다. 신체는 열여덟이 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동안의 기간이라는 것은 전혀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의 발육이 암소처럼 빨라지도록 촉진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인가! 환한 어둠을 헤치고 그들은 틀 제9호의 170미터 지점에 이르렀다. 무더운 터널과 싸늘한 터널이 교차하고 있었다. 강한 X-선으로 싸늘함과 불쾌감이 어우러져 있었다. 따라서 병에 담길 때쯤에는 태아는 싸늘함을 견딜 수 없어 하게끔 되었다. 그들은 열대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예정되어 있었고, 또 광부, 제사 공장 직공, 강철공 등이 되도록 마련된 몸이었다. 태아의 정신은 훗날 육체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야되는 것이다.

- 올더스 헉슬리(Aldus Huxley), 『멋진 신세계』

◆ 유의사항 ◆

- (1)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논거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것.
- (2)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800자 안팎이 되게 할 것.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연세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일상성 또는 시사적 이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논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논쟁적 논제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 이번 논제는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어 최근 논란이 뜨거운 시사적 이슈인 ‘생명 윤리’를 주제로 하는 고전을 선택하고, 여기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중요한 것은 논제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적 이슈에 대한 배경지식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논제에 대한 단편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일반화, 보편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논술에서 요구하는 고등 사고 능력이며 주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다시 한번 생명 윤리 논쟁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몇 가지 기사 거리-누구나 다 아는 황우석 박사와 천주교측의 생명 윤리 논쟁 정도-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논쟁형 이슈를 절충적으로 해결하는 양비론 또는 양시론을 경계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이런 절충적 결론을 맺곤 한다. 그러나 독창적인 시각이 보이지 않아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한 가지 생각을 확실하게 끝까지 주장하는 글이 점수를 많이 받는다.

2. 논제 파악

먼저 제시문 (가), (나)에 드러난 ‘생명’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가)에서는 풀잎을 통하여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온 아름다운 존재에 대한 예찬을 표현하고 있다. 풀잎은 인간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한한 경외감을 지닌 존재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생명 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나)에서 우리는 태초에서 지금까지 여러 다른 생명체의 몸을 통해 끊임없이 그 명맥을 이어온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DNA를 ‘불멸의 나선’이라 부르고, 그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체를 ‘생존 기계’라 부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사회 모습을 파악하면 된다. (다)에서는 인간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중앙 런던 인공 부화 및 습성 형성국’을 학생들이 견학하는 내용이다. 글쓴이가 제기하는 ‘멋진 신세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신세계는 자연적 가치가 부정되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인간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계급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태어나도록 태이를 조작한다. 인간들을 단순화, 획일화시킨다. 이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세계, 즉 미래 사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논제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생명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논술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논제 파악 단계에서는 입장만 정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거를 마련하여 논술하면 된다.

3. 문제 해결

1) 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파악해 가는 독해

제시문 독해는 풍요로운 논술을 위한 첫걸음이다. 고전 논술에서 제시문을 제시하는 이유는 제시문을 통하여 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 독해를 통한 글감 제공이라는 측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요약해 내고, 글을 쓸 방향을 결정했다면 쓰고자 하는 논술에 있어서 큰 가닥은 잡은 셈이다. 이를 위하여 ‘분석적 독해’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분석적 독해란 독해를 하면서 ‘멈춤’과 ‘계속’의 과정을 통하여 그때 그때 참신한 생각들을 정리해 가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논술문을 작성할 때 풍부한 글감을 제공하는 단초가 된다.

2) 제시문에 나타난 ‘생명’의 의미 분석

(가)에서는 대자연의 질서를 세부적으로 응시하여 인간과 자연, 자연과 우주의 조화와 교감을 노래하였다. 이 교감과 친화를 통해 인간이 세속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연과 동화된 존재로 승화한다고 보았다. 풀잎은 결코 하찮은 미물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풀잎이나 자신이나 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생명체라는 것이다. 세사의 큰 변화와 무관하게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풀잎에의 외경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일깨움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의 필자는 유전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40억 년 전 스스로 복제본 사본을 만드는 분자가 처음으로 원시 대양에 나타났다. 이 고대 복제자의 운명은 어떠했는가? 그 복제자는 절멸하지 않고 생존 기술의 명수가 됐다. 그러나 그 복제자는 오래 전에 자유로이 뿔내고 다니는 것을 포기했다. 이제 복제자들은 거대한 군체 속에 떼 지어서 로봇 안에 안전하게 들어 있다. 그것들은 원격 조정으로 외계를 교묘하게 다룬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으며, 그것을 보존하는 것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그것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의 생존 기계이다."

필자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기계에 불과하며, 그 기계의 목적은 자신을 창조한 주인인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기와 비슷한 유전자를 조금이라도 많이 지닌 생명체를 도와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행동은 바로 이기적 유전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돕는 이타적 행동도 자신과 공동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유전자의 세계는 비정한 경쟁, 끊임없는 이기적 이용,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경쟁자 사이의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세대간, 그리고 암수간의 미묘한 싸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원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이기적 유전자의 자기 복제를 통해 생물의 몸을 빌려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3) 제시문 (나)의 사회 모습

① 자연적 가치의 부정과 인간의 인공적 생산

‘중앙 런던 인공 부화 및 습성 형성국’에서 신세계의 모든 인간은 ‘인공적으로’ 태어난다. 지금까지 인간은 스스로를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인공적 인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인간은 일종의 상품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자연적인 것은

하등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인공적 가치는 자연적 가치를 능가하는 것이다.

② 계급 사회를 뒷받침하는 인간의 생산

세계는 엄격한 계급 사회로 모든 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각 계급(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등)에 적합하도록 체격, 성격, 지능, 체질 등을 조작한다. 체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계급에 따른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③ 인간의 단순화, 획일화

신세계는 인간들을 단순화, 획일화시키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인간의 생산 과정에서 보카노프스키 씨 법이라는 난자의 분열법을 이용해 한꺼번에 96명의 쌍둥이를 생산해 낸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은 획일화 단순화된다. 그래야만 체제가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4) 쟁점 파악

논술 시험에서 주어지는 제시문을 세심하게 읽어야 논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어의 방향과는 거리가 먼 논술문을 쓰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통한 쟁점의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허슬리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전체주의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였고, 과학 기술의 비인간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이것이 전체주의 체제와 결합되면 그야말로 비극적이고 가공할 만한 디스토피아가 등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가 그려낸 디스토피아 사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 결국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올더스 허슬리(Aldus Huxley)와 같이 미래 세계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옹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신이 글쓴이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정한 다음, 타당하고 적절한 논거를 들어 논술해야 한다. 논쟁점을 적당히 덮어 버리는 양비론(兩非論)과 양시론(兩送論)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립되는 관점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 글을 쓰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에 도움이 된다.

5) 논지 확정

－ 유전체 연구가 가져올 부정적인 미래상

유전자의 상업적 이용이나 군사적 이용 등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 복제의 문제도 윤리적 종교적 차원에서 많은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생명과 정신마저도 물질 현상으로 보는 극단적인 세계관과 끝없는 욕망을 지닌 인간의 이기심이 결부될 때, 인류 사회에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유전체 연구가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상

유전학의 발달은 식량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의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환경 친화적 상품 개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유전자 정보를 담은 DNA칩, 무공해 자동차, 의료용 로봇과 같은 신제품 개발로 이어져 인간 유전체 연구가 가져오는 미래 사회는 긍정적인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생명 과학의 발달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창조 능력을 존중하는 새로운 인본주의 가치관을 지금부터 확립해 나가야 한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오만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인간성 상실을 경계하고, 인간 가치의 재발견과 생명의 소중함을 최고로 존중하는 가치관을 수립해야 한다.

4. 예시 개요(문장식)

- 서론: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생명에 대한 신성한 윤리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 본론
 1. (가), (나)에 드러난 ‘생명’의 의미 분석
 - (가)에서는 하찮은 존재인 풀잎의 생명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에서는 DNA를 ‘불멸의 나선’이라 부르고, 그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체를 ‘생존 기계’라고 말하고 있다.
 2. (다)의 사회 모습
 - (다)에 드러난 신세계는 자연적 가치가 부정되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인간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계급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태어나도록 태아를 조작한다. 인간들을 단순화, 획일화시킨다.
 3. (다)에 드러난 사회의 모습 분석적 점검
 - (다)에서는 미래의 신세계, 즉 현대 사회의 특징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현대의 생명 과학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가치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결론: 생명의 소중함을 우선시 하는 ‘생명’ 중심 생명 과학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

5. 예시 답안

생명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생명 과학의 발달과 물질 위주의 사고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를 간과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케 하였다.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생명에 대한 신성한 윤리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풀잎을 통하여 끈질기게도 생명을 이어온 아름다운 존재에 대한 예찬을 표현하고 있다. 풀잎은 인간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한한 경외감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생명 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우리는 태초에서 지금까지 여러 다른 생명체의 몸을 통해 끊임없이 그 명맥을 이어온 DNA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DNA를 ‘불멸의 나선’이라 부르고 그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체를 ‘생존 기계’라 부르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기계에 불과하며, 그 기계의 목적은 자신을 창조한 주인인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멋진 신세계’에 나타난 ‘생명’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을 인간이 인공적으로 부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의 영역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은 접어두고라도,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온갖 조작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계급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인류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많은 피를 흘렸고 그 대가로 얻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인류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 자신을 개발하여

자신의 지위를 성취하고 인정받는 과정에서 인간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위와 능력이 처음부터 결정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찾기 힘들어 진다. 자연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멋진 신세계’ 인 것이다.

‘멋진 신세계’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현재 급속한 발달을 계속하고 있는 생명 과학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생명 과학은 인류가 직면한 식량, 의료, 에너지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의 상업적 이용이나 군사적 이용 등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 복제의 문제도 윤리적 종교적 차원에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음을 볼 때, 생명 과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생명과 정신마저도 물질 현상으로 보는 극단적인 세계관과 끝없는 욕망을 지닌 인간의 이기심이 결부된다면 인류 사회에는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과학 기술은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켜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진보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모든 발전에는 언제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생명 과학의 경우도 그것이 인류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과 결부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생명 과학의 발달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창조 능력을 존중하는 새로운 인본주의 가치관을 지금부터 확립해 나가야 한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오만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인간성 상실을 경계하고, 인간 가치의 재발견과 생명의 소중함을 최고로 존중하는 가치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III> 읽기 자료

■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

1932년에 발표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는 조지 오웰의 『1984년』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대한 가상적 제시를 통해 인간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1914년 미국의 헨리 포드는 미시건주 디어본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에 자동화된 자동차 조립 라인을 만들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는 이 조립 라인은 생산되는 제품을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과정도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포드가 도입한 이러한 일관 작업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표준화된 동질적인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량 생산된 상품은 그에 걸맞은 대량 소비를 필요로 했는데, 포드는 노동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노동자들이 대량 생산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규모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드는 대량 생산과 대중적인 소비문화의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대중사회 출현의 길을 열었으며, 이러한 생산 방식을 ‘포드주의(Fordism)’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곧 포드주의는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해 인간의 노동을 합리화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며, 현대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를 낳은 사회구조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헉슬리는 독특한 연도 표기와 작품 곳곳에 드러나는 포드의 신격화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포드주의 비판’이라는 작품의 의도를 직접 나타낸다. 또한 그가 그리고 있는 ‘멋진 신

세계'의 모습은 포드주의의 특징들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이처럼 헉슬리가 나타내고 있는 '멋진 신세계'의 섬뜩한 사회 현실은 가상의 미래가 아니라, 당대의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던 '포드주의'의 변동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부정적 가능성의 묘사인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산의 효율성에만 감탄하고 있을 때, 헉슬리는 그 안에 담긴 위험을 날카롭게 찾아내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발표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실이 과연 헉슬리의 경고에 비추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반성해 보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작품 속의 '존'이 절망에 빠졌던 '멋진 신세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의 '경고'는 끔찍하게도 '예측'으로 실현되고 있다. '유전자'로 상징되는 최근의 과학 발달은 인간에 대한 도구적 기계적 인식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으며, '정보화'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서의 불안 정서를 키우며 사회의 계층적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세계화'라는 말로 특징이 표현되는 사회의 변동은 '소비주의'에 기초한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전 지구의 인간들을 더욱더 표준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급속히 파괴하고 있다. 게다가 범람하는 대중문화와 매체들은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새로운 '쾌락'을 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여념이 없다. 형태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어느덧 '멋진 신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자화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영화 '아일랜드'

- 30억년의 진화가 남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간 한 가지 결점을 빼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결점이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는 것. 따라서 수세기 동안 현대 과학의 첫 번째 화두는 인간 육체의 결함을 보완하는 문제였다. 이에 현대 유전 과학은 신체 조직의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조직은 인간 신체에서만 얻어낼 수 있었다.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려는 시도 속에 2014년, 메릭 바이오테크사가 마침내 인간 복제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인간 복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2015년, 우생관련법을 제정한다. 그러나 메릭 바이오테크사의 대표인 메릭 박사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배양이 끝난 복제 인간에게 조작된 기억을 주입시킨 후 활동성을 부여한다. 복제 인간들은 자신들이 복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른 채, 지구 전체가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한 곳에서 생활하며 치유센터를 통해 관리된다. 스폰서의 요청이 있을 시 아일랜드행 추첨으로 위장하여 복제 인간들의 장기를 추출한다.

* 메릭 바이오테크사 복제 인간의 특징

메릭 바이오테크사는 스폰서(인간)의 제작 수주를 받아 해당 스폰서의 복제 인간을 제작한다. 복제 인간은 스폰서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 치료를 위해 이용된다. 제품 생산 년도에 따라 알파, 델타, 에코, 폭스트롯 세대로 나뉘며, 스폰서의 거주 지역 구분에 따라 숫자가 붙게 된다.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통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데,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섹스 프로그램은 배제하고, 15살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입한다.

* 생산된 복제 인간 관리법

스폰서의 요청 시 생산되는 복제 인간은 스폰서의 DNA를 스캔해 제작된다. 영아 상태가 아닌 성인 상태로 배양이 되고, 배양 시작부터 12개월 후면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품질 관리를 위해 깨끗한 환경에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주 시스템인 치유센터와 연결된 통제 시스템인 센터빌에 수용해 식이 요법을 이용한 식사 조절은 물론이며, 운동 관리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한다.

* 장기 이용 이외의 또 다른 기능, 대리 출산

복제 인간은 장기 수요를 위한 기능 이외에 대리 출산의 용도로도 사용된다. 수정된 난자와 정자를 복제 인간에게 삽입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대신하는 이 기능은 유전자 조직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 출산과 차이가 없다. 또한, 시스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리 출산한 복제 인간의 경우, 출산과 동시에 제거된다.



'만일 내가 복제 인간을 갖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II-2

연세대 실전논술

<I> 문 제

제시문 (가)의 ‘고향파’와 제시문 (나)의 입장은 유사하다. 이러한 윤리적 태도가 나타나게 된 현대의 사회적 조건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다)의 관점을 적용하여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논술하시오.

(가)

인류의 장래를 좌우할 두 가지의 대립된 태도를 이로써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한 쪽에는 삼중(三重)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방식을 철저히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를 맹진파(猛進派)라 부르고 있다. 다른 한 쪽에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모색하며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진리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고향파(故郷派)라 부른다. 맹진파는 “현대 기술에는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완성시키자.”고 주장한다. 또한 맹진파는 앞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세계적인 규모로 기아가 엄습해 오리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진해야 하며, 나약한 생각은 금물이다. 민중이 항의를 하며 반란을 일으키면, 경찰을 늘리고 그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 문제가 있다면, 공해규제법을 엄격히 만들고 공해 대책 비용을 엄출(揀出)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천연 자원이 문제라면, 원자료를 고속 증식도로 바꿔, 핵분열로부터 핵융합으로 나아가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따위는 없는 것이다. 맹진파의 슬로건은 매일 신문의 타이틀이 되고 있으며, “하루 한 가지의 기술 혁신으로 위기는 피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른 쪽 집단을 살펴보자.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인류가 그릇된 기술 진보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고향파가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맹진파 사람들과는 다른 인간관이다. 맹진파는 ‘성장’을 믿고 고향파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피상적인 견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성장이 생명의 본질인 이상, 그게 옳은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개념을 질적(質的)으로 한정시키는 데 있다. 현실로는 어떤 것은 성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퇴행(退行)되어 가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향파가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특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보를 믿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도 피상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무엇이 진보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고향파는 현대 기술이 지금까지 걸어 온 방향 – 그것은 자연계의 조화를 이룬 법칙을 모두 무시한 채 한없이 큰 규모와 높은 속도 및 폭력을 지향하고 있다. – 은 퇴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검토에 의해 인류는 그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방향 전환은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E.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나)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 가는 일이다. 여가란 문명에 필수적인 것이다. 예전에는 다수의 노동이 있어야만 소수의 여가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일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여가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정하게 여가를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기술은 만인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엄청나게 줄였다. 이 점은 전시(戰時)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때는 군대 혹은 전쟁 관련 일을 담당하는 모두가 생산적인 일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측 미숙련 임금 노동자들의 물질적 복지 수준은 전쟁 전 혹은 전쟁 이후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실은 재정에 의해 은폐되었다. 차용이란 방법을 통해 마치 그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빵 덩어리를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생산을 과학적으로 조직하면 현대 세계는 노동력 중의 일부만으로도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은 결정적으로 보여 주었다.

확보된 여가의 현명한 이용은 문명과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 평생 동안 장시간 일해 온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따분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상당한 양의 여가 없이는 최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차단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박탈을 겪어야 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다만 우매한 금욕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노동을 주장하게 할뿐이다.

사실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업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 생활의 목적이라고까지 강조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보다 인부 한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에게 “당신이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요?” 하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는 육체노동을 즐긴다. 그것은 내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내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노고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일을 생계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이든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여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잠깐의 여가야 즐겁겠지만 하루 24시간 중 4시간만 작업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말한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 세계에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명을 모욕하는 것이다. 과거 그 어느 시대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속 편하게 노는 것에 대한 수용력이 있었다. 그러나 능률 승배로 인해 그러한 부분은 사라져 버렸다. 현대의 인간은 모든 일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예를 들어 진지한 사람들은 영화 보러 가는 습관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하며 그런 버릇은 젊은이들을 범죄로 이끈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노동은 훌륭한 것이라고 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이기 때문에, 또한 돈을 벌게 해 주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관념이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다. 당신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는 정육점이나 빵을 제공하는 빵집 주인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해 준 음식을 즐길 때의 당신은,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내기 위해 먹지 않는 한 불성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세상에서는 과학적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호기심을 맘껏 탐닉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든 배 굵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작가들은 기념비적인 대작을 내는

데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할 요량으로 감각적인 작품을 써서 주의를 끌려보려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 마침내 대작을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미 취향과 재능이 달아나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업상 경제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교류가 없을 경우 대학에 몸담은 경제학자들의 작업은 현실감을 상실하기 쉽다. 의료인들에겐 발전한 의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교사들은 젊을 때 배운, 따라서 그 사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변해 버렸을 지식들을 틀에 박힌 방법으로 가르치느라 분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생의 행복과 완회가 충만할 것이다. 신경 쇠약과 피로와 소화 불량증 대신에 말이다. 필요한 일만 함으로써 기력을 소모하는 일 없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가 시간에 지쳐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종류의 오락거리들만 찾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1퍼센트는, 직업상의 일에 써버리지 않는 시간을 뭔가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데 바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일들은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창성이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나이 많고 박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에 맞출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가의 좋은 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생활의 기회를 가지게 된 평범한 남녀들은 보다 친절해지고, 서로 덜 괴롭힐 것이고, 타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모두가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을 해야 할 것이므로 전쟁 취미도 사라질 것이다.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다)

몇 년 전에 교회에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이 초빙되어 와서 하모니카 연주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없는 그 이상한 손에다가 하모니카를 끼어서 비뚤어진 입으로 신나게 불어대던 그 기막힌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도중에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수고하는 믿음 좋은 자매가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자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저에게는 하나의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 마디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매의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매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꿰뚫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 자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에 대한 탐욕을 버린 사람들이고 마음을 완전히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건강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육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

◆ 유의사항 ◆

- (1) 현대 사회의 ‘속도 경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
- (2) 글의 길이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800자 내외로 할 것.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연세대학교 논술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리성을 요구한다.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연결시키는 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적 삶의 문제를 다룬 제시문을 덧붙임으로써 학교 건학이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 논제의 출제 의도는 이러한 연세대학교의 논술 출제 원칙을 반영하여,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종교적 삶 속에서 행복의 의미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통합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논술에서 중요시되는 개인의 가치관 정립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폭넓은 독서 경험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신만의 건강한 인생철학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2. 논제 파악

제시문 독해에 앞서 논제를 파악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항목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단락의 수를 짐작하고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논술문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들 수 있게 배수진을 치게 된다.

이 논제에서 행복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공통의 소망이며 이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은 바쁜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계 문명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 논제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가)의 ‘고향파’의 입장과 제시문 (나)의 입장이 ‘느림’ 또는 ‘게으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입장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태도가 나타나게 된 현대의 사회적 조건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다)의 관점인 자족적인 삶의 태도를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결합하여 논술하면 된다.

3. 문제 해결

1) 요약적 독해를 통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파악

– ‘멈춤’과 ‘게으름’의 독해 방법 활용

2) 제시문의 입장 파악 및 정리

(가)의 고향파는 현대 기술이 지금까지 걸어 온 방향은 자연계의 조화를 이룬 법칙을 모두 무시한 채 한없이 큰 규모와 높은 속도 및 폭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되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검토에 의해 인류는 그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방향

전환은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에서 필자는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 가는 것이다. 생산을 과학적으로 조직하면 현대 세계는 노동력 중의 일부만으로도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은 결정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여가의 좋은 점은 늘어난 여가로 인하여 행복한 생활의 기회를 가지게 된 평범한 남녀들이 보다 친절해지고, 서로 덜 괴롭힐 것이고, 타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모두가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을 해야 할 것이므로 전쟁 취미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 현대 사회의 조건 파악

(가), (나)에 대한 제시문 독해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느림’ 또는 ‘게으름’에 대한 관심과 예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이러한 입장이 대두되게 된 현대 사회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된다.

먼저 물질주의적 욕망의 과포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무엇이 인간적 삶이고,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고, 관성적이고 맹목적인 기술 문명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자신의 견해 주장

현대 사회의 지나친 속도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역양법을 활용하여 ‘느림’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강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속도’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 논지가 더 선명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대 사회가 경쟁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속도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기술 문명의 편리함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려는 현대인의 태도가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무난하다.

5) (ㄷ)의 관점 파악

(ㄷ)에서 필자는 나환자의 세계에서도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고 만족할 만한 조건이 있다는 말이다. 나환자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만족의 조건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한다. 하지만 행복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입장이다.

6) 행복한 삶에 대한 견해 정리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결론으로 정리하면 된다. 여기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드러내면서 본론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완결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형적인 성장이나 속도에 대한 집착보다, 느리게 살면서 자기 만족하는 성찰

적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 된다. 또한 우리 조상들의 안분지족하는 삶이나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생태학적 삶의 태도를 언급하는 것도 좋다.

4. 예시 개요(화제식)

- 서론 : 현대 사회의 특성 - 속도 경쟁의 현실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 필요
- 본론
 1. 인간의 생명과 여가를 중시하는 입장의 대두
 2. 이러한 현실을 낳은 현대 사회의 조건
 - 1) 물질주의적 욕망의 과포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
 - 2) 무엇이 인간적 삶이고,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결여
 - 관성적이고 맹목적인 기술 문명에 대한 신뢰
 3. 현대 사회의 속도 경쟁에 대한 입장
 - 1) 경쟁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속도 경쟁의 타당한 측면
 - 2) 기술 문명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
- 결론 : 진정한 행복이란 자족하는 삶

5. 예시 답안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단위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초를 닮는 시간 사용이 사람들의 모범으로 칭송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 경쟁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공사 기간 단축의 상징인 정부고속도로는 건설비보다 수리 비용이 훨씬 더 들었고, 급히 만든 다리는 부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생산성만을 생각하여 주변 환경의 보호나 노동자들의 여가 시간이 무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빠른 것만이 과연 미덕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가)에서 고향파의 입장은 현대 기술이 지금까지 걸어 온 방향은 자연계의 조화를 이룬 법칙을 모두 무시한 채 한없이 큰 규모와 높은 속도 및 폭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퇴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재검토하여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나)에서 필자는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 가는 것이다. 여가로 인하여 행복한 생활의 기회를 가지게 된 평범한 남녀들이 보다 친절해지고, 서로 덜 괴롭힐 것이고, 타인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로 오면서 ‘느림’과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의 속도 경쟁은 물질문명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 좀더 많이 생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산업 사회에 접어들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좀더 많은 것, 좀더 빠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발전, 진보라는 개념을 물질적 수량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인간의 행복을 질적인 면에서 고려하지 못한 데에 있다. 어떤 사회의 GNP 규모, 노동 생산성, 정보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은 물론 선진국을 가름하는 척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복지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은 북유럽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 경쟁, 생산성 경쟁에 대해 무작정 비판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흐름이 경쟁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냉혹한 국제적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은 국가에 속한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의 논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앞에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대의 생산성 향상은 기술 문명의 편리함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 자체로 문제 될 것은 없다. 이는 보다 풍족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융합의 발전은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쓰일 수도,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적 조건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인간의 태도이다.

현대 사회에서 느낌 혹은 게으름이 미덕이 된다는 측면은 인간의 진보와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속도 경쟁과 그 결과인 물질적 풍요라는 외형적인 부분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풍요를 목적으로 하는가, 혹은 이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만족의 조건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안분지족의 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내 안의 주체로 자기만족을 이루면서 천천히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III> 읽기 자료

■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 슈마허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슈마허의 경제 비평서.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혁명적인 사고로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 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성장을 위한 성장’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그렇다면 경제 구조를 진정 인간을 위한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수는 없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답은 ‘작은 것’이다.

저자는, 경제 규모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며, 그럴 수 있을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작은 소유, 더 작은 노동 단위에 기초를 둔 중간 기술 구조만이 세계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인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저자의 이런 주장을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성 이론이라 논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량 학살, 물략, 오염, 고갈, 기아 등을 생각한다면, 자본은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재 인류가 비인간적인 기술과 조직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생명을 지탱하는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붕괴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지역 노동과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을 만들어야 하며 더 작은 소유, 더 작은 노동 단위에 기초를 둔 ‘중간 기술’ 구조만이 세계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간 기술’이란 인간을 생산 과정에 복귀시켜 생산 수단의 부제로 빈곤에 시달려온 많은 사람을 구제할 방법으로, 대량 생산 대신 ‘대중에 의한 생산’을 이루어 줄 유일한 대안이다.

환경 문제는 ‘발전’의 산물이며, 발전은 인간이 기술 문명을 추구하면서 내건 가장 큰 모토였다. 하지만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는 ‘해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현재 경제의 당면 과제는 성장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을 통한 환경과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저자는 결론 내린다.

- 문화일보, 2003. 06. 06

■ 『게으름에 대한 찬양』, 버트런드 러셀

‘시간은 돈’임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현대 사회에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은 무척 도발적이다.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전면으로 맞서는 불온함마저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 도발과 불온함은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되짚어보면서, ‘독단에 언제든 의문을 제기하는 마음가짐과 모든 다양한 관점들에 공경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을 맞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버트런드 러셀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현대 수학의 중요한 경향 중의 하나인 논리주의의 구상을 체계화한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동시에 노벨문학상(1950년)을 수상한 문학가이기도 하며, 평생 반전·평화운동을 일관되게 펼친 사회사상가이자 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몇 차례의 투옥을 감수하면서 교육과 여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참여해 왔다. 특히 1955년에 아이슈타인과 함께 발표한 ‘러셀·아이슈타인 성명’은 핵전쟁의 위험을 감시하고 경고하며, 과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모색하는 ‘퍼그워시회의’가 창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 책은 이처럼 다방면에서 활동한 러셀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쓴 철학적 수필집이다.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독단에 반대하는 그의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글도 있고, 문화에 대한 비판적 단상을 서술하고 있는 글도 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끌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현대 서구 문명을 비판하는 글들이다.

그는 이 글들을 통해 실용적 지식과 가치만을 강조하며, 인간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대 문명의 본질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모든 도덕적 자질 가운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선한 본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힘들게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에서 나온다. 하루 네 시간 정도 필요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은 스스로 알아서 적절한 곳에 사용할 때 문명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대 기술 문명이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지만, ‘근로가 미덕’이라는 고정 관념 때문에 과잉 생산을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게으름에 대해 느끼는 원초적인 가책을 용감하게 떨쳐버려야 사회와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용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색하면서 ‘무용한’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용한’ 지식이야말로 인생을 진지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사람은 게으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스로가 선택한 창

조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게으름 권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셀의 이러한 지적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눈부신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눈부신 생산력의 발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노동의 종말’이라고 할 만큼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과로사’라는 말이 낫설지 않도록 노동 강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러셀의 말처럼 과연 우리는 제 정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일까. 혹시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파멸을 향해 경쟁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의 가치는 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도록 이끌고 있다는 데 있다.

- 서울신문, 2005. 07. 29

■ 바쁜 현대인

1) ‘도시인’, NEX.T

(Rap) 1.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FAST FOOD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THIS IS THE CITY LIFE!

(Song)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Rap) 2. 어젯밤 술이 덜 깬 흐릿한 두 눈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구겨진 셔츠 셀러리맨 기계 부속품처럼 큰 빌딩 속에 앉아 점점 빨리 가는 세월들 THIS IS THE CITY LIFE!

(Rap) 3. 한손엔 휴대전화 허리엔 삐삐차고 집이란 잠자는 곳 직장이란 전쟁터 회색빛의 빌딩들 회색빛의 하늘과 회색 얼굴의 사람들 THIS IS THE CITY LIFE!

2) 바쁜 현대인의 현주소



- 스포츠투데이, 2004.01.18

■ 지족안분(知足安分)은 인생의 소중한 금언입니다.

‘지족’은 만족할 줄 아는 것이요, ‘안분’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분에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품고, 탐욕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잠시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

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족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여유가 있는 법이요, 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여기면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幸), 불행(不幸)이 크게 지배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지족’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제 몫이 있고, 자기에겐 할당된 분배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제 자리가 있고 제 정도가 있습니다. 제 자리를 알고 제 정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득(得)이 있으면 반드시 실(失)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지족안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전진을 위한 분투 노력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아직 만족해서는 안 될 단계인데도 만족하고, 더 전진할 여지가 있는데 그만 머무르고 만다면 이는 전진과 향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족’과 ‘안분’의 이름 아래서 우리는 전진과 노력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서 ‘지족안분’ 할 것이냐? 그것은 즐거운 지혜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중용(中庸)의 상태에서 찾아야 합니다. 중용의 ‘지족안분’은 인생의 행복한 요소입니다.

— 안병욱, 『오늘의 명상』

II-3

연세대 실전논술

<I> 문 제

제시문에 나타난 삶의 유형을 파악하여 공통적인 태도를 분석하고, ‘사회적 인간’이란 관점에서 비판하여 논술하시오

(가)

해방직후 미국 국무성 파견원이라는 미국 장교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서너 장되는 타이프로 친 글을 내게 보이고 비평을 구하였다. 그것은 조선의 친일파 문제에 관한 그들이 보고서로서, 국무성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다.

그들은 조선에 와서 일찍 한 친일파도 만나지 못하였다. 조선의 해방을 마다하고 일본의 신민으로 머물러는 조선인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놀라는 모양으로 말하고, 다음에는 조선의 친일파 문제와 프랑스 등 제이차 전쟁 중의 독일 점령 지대의 친독파와 구별하여서 말하기를, 사십년 조직적인 일본 통치하에 있던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망명하였거나 죽었다. 일본에 협력하는 것은 조선인의 생명에 대한 대가였다 하여 조선에 생존하는 조선인은 다 일본에 협력한 자여니와, 일본과 친한 자는 하나도 없더라고 하였다.

그러고 그 글에는 해학적인 표현으로, 만일 일본에 협력한 자를 다 제외한다면 죽은 자와 한 움큼의 망명객들로 신국가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끝으로 조선서 친일파를 배제를 주장하는 자는 좌익과 안락 의자 정치가라 하였다.

내가 그 글을 읽은 뒤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내게

“어떠냐, 우리의 관찰이 옳으냐?”

하고 묻기로, 나는 옳다고 대답하였다.

“너희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기로 나는

“우리 나라에서도 필경은 로마와 너희 미국에서의 해결법을 본받아서 친일파 문제를 해결지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로마와 미국의 무엇을 본받느냐 하기로, 나는 옛날 로마에서 혁명이 있을 때마다 피차에 반대파로 숙청하여서 로마의 인제가 감손됨을 근심하여 원로원에서 망각법을 발포하여 신질서 전일까지의 것은 불문하기로 한 것이요, 미국은 남북 전쟁 후 남방 반란 가담자 처단 문제를 칠년이나 끌다가 사면법을 국회에서 결의하여 일절 이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전후 최초의 총선거를 하였다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로마의 망각법은 시저 대로마 전의 일이었고, 미국의 사면법은 남북의 영원한 통일 계기를 지었다.

— 이광수, ‘친일파의 변’에서 —

(나)

변사 : (무대에 등장하여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한여름의 뜨겁던 태양도 열기를 잃어 이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곤 하는 가을 저녁, 여기는 대구에서도 현금 많기로

소문난 부자 윤두점 사장의 초호화 저택 앞입니다.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아니라 금융업과 부동산 관계 일을 주업으로 하는 ‘태평기획’의 사장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채업자라거나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윤사장 뒤에서만 그러지요. 돈 벌 일이라면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 천리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는 윤사장에겐 많은 별명이 붙어 다니는데, 주로 자린고비, 노랭이, 찌돌이, 놀부 영감, 소금가마, 돈 귀신처럼 듣기에 좋지 않은 것만 스물세 가지나 됩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개같이 벌어서 지맘대로 쓰지”이며, 제일 싫어하는 말은 연말연시마다 “불우이웃을 도읍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부 윤사장은 돈[錢]자만 보면 그저 기분이 좋은 체질이라 성냥도 돈표 성냥만 쓰고, 자식들한테도 돈가스만 먹게 하는 사람입니다.

윤사장 : 찌찌……. (호탕하게) 만일 자네가 내 딸과 결혼만 한다면 내 화끈하게 밀어 주꾸마. 그리고 자네는 내 사업을 열심히 돕고 말이야. 그기 바로 상……조……상……

최대북 : 상부상조.

윤사장 : 내도 안다. 이 사람아.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이 말 아이가

최대북 : 예

윤사장 : 내 보기엔 말이야. 자넨 머리만 좋았지, 세상이 어떤 힘으로 돌아가는지를 아직 모른단 말이다.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은 돈에서 나온다 아이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자네 일전에 금융 실명젠가 뭔가 시행한다고 했을 때 내한테 뭐라 했노?

최대북 :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했습죠.

윤사장 : 그런 데 어떤가, 세상 뒤집어졌나? 내 돈 한 톨이라도 손해 본 기 있나 이 말이다.

최대북 : 그 땐 분명히 큰일난 것으로 .

윤사장 : 그 때 내가 뭐라 했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대로 하면 된다 안 카드나. 법이란 기 뭐꼬? 자네, 한자로 법 법자를 어제 쓰는지 알제? 물 수(水) 변(邊)에 갈 거(去)자 쓴 게 법(法) 아이가

최대북 : 맞습죠

윤사장 : 잘 들어보게.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기 법이란 말이다. 물이란 기 어떻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넘쳐 흐를 때까지 고여서 기다리다가. 때가 오면 다시 흘러가는 기라. 우리 나라 법도 바로 물과 같다고 보면 된다카이. 무엇 무엇을 금지하라 이런 법이 나오면 말یده이. 쪼매만 참고 기다리면 걸리지 않는 방법이 제각 나온단 말이다. 금융 실명젠가 뭔가를 할 때도 그랬제. 자네는 가명 계좌, 차명 계좌 신고하자 그랬지마 내가 기다리자 안 했나. 기다리니까 이런 저런 방법으로 빠져 나갈 방법이 생겨나지 않드나?

최대북 : 예, 그리고 이번에 토초세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역시 버티는 게 최곱니다.

윤사장 : 그렇지, 그렇지, 자네도 이제야 뭔가 감을 잡는구마. 겁 먹었던 놈들만 바보 됐지 뭐꼬? 기다리면 되는 기다! (자신감에 가득 찬 웃음) 아 참, 오늘 다녀온 일, 대명동 구이집 차압건은 우째 됐노?

최대북 : 예, 잘 해결되었습니다.

윤사장 : 그랬나? 그라믄 고마 치아라. 나머지 중요한 기 아이니까 . 그런데, 자네 저녁 묵었나?

최대북 : (기대에 차서) 아직 .

윤사장 :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저녁을 묵도록 하게. (들어가려 하다가 돌아서서) 자네, 꼭 기억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야. 돈이 최고다. 알겠나? 자네도 돈만 아이면 와 내한테 이렇게 굶신굶신하겠노? 따라 해봐라.

최대복 : 예?

윤사장 : 이 하늘 아래에선 돈이 최고다. 돈이 신이다

최대복 : 이 하늘 아래에선 돈이 최고 신이다.

윤사장 : 그럼 가봐라. 집에 가서 밥 묵어야제.

최대복 : (구십도로 절하고 퇴장)

— 김재석, ‘新태평천하’에서—

(다)

시지프스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돌아오는 동안이고 멈춰 있는 동안이다. 바로 바위 곁에 있는 기진맥진한 얼굴은 이미 바위 그 자체인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이 무거운, 그러나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끝도 알지 못하는 고뇌를 향하여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본다. 그의 고통처럼 어김없이 되돌아오는 휴식시간, 이 시간은 의식(意識)의 시간이다. 그가 산꼭대기를 떠나 신들의 소굴로 차츰차츰 빠져 들어가는 순간마다. 그는 자기의 운명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바위보다 더 강하다. (중 략)

시지프스의 말없는 온갖 기쁨은 여기에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다. 그의 바위는 그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인간은 자기의 고통을 주시할 때 모든 우상(偶像)을 침묵케 한다. 갑자기 침묵에 이른 우주 안에서 무수한 감탄의 작은 소리들이 대지로부터 솟아오른다. 무의식적이고 비밀스런 부름, 모든 얼굴들의 초대는 승리의 필연적인 이면이요 대가다. 그림자 없는 햇빛이란 없으며, 따라서 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조리한 인간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그의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개인적인 운명은 있을지라도 초월적인 운명이란 결코 없다. 혹시 있다면 다만 숙명적이고, 경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운명이 있을 뿐이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바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 인간이 자기의 삶을 향해 돌아서는 그 미묘한 순간에 시지프스는 자기의 바위로 되돌아가면서, 자신에 의해 창조되고 기억의 눈길 밑에서 통일되고 또한 머지않아 죽음에 의해 봉인될 그의 운명이 되는 이 행위의 연속을 바라본다. 인간적인 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근원이 있음을 확신해 보기를 기원하다 밤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장님인 그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간다. 바위는 또다시 굴러 떨어진다.

나는 시지프스를 산기슭에 남겨둔다! 우리는 언제나 그의 무거운 짐을 발견한다. 그러나 시지프스는 신들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올리는 고귀한 성실을 가르쳐준다. 그도 또한 모든 것을 좋다고 판단한다. 이제부터 주인이 없게 되는 이 우주가 그에게는 불모지나 하찮은 것이 아닌 듯하다. 이 바위의 부스러기 하나하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산의 광물의 빛 하나하나가 유독 그에게는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행복한 시지프스를 상상해야만 한다

— 알베르 까뮈,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 유의사항 ◆

- (1) 반드시 본문에서 공통점을 추출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것.
- (2)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800자 안팎이 되게 할 것.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 긍정적, 부정적, 자기중심적, 타인 지향적 등과 같은 삶의 태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실존,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삶의 무게는 인간을 쉽게 고독하게 만든다. 고독한 개인들은 오직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여, 삶의 건강성을 상실하기 쉽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서만 삶의 의의를 느끼기도 하고, 극심한 절망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사회와의 단절을 선언한 개인들의 방향은 결국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는데, 현대 사회는 ‘이기주의’와 진정한 ‘개인주의’의 차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점점 파편화(破片化)되어 가고 있다. 이때에 개인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정립하는 과정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위한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자신의 삶과 그 삶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인간에 대한 관점을 조리있게 논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시문 분석

1) 제시문 (가) – 자신의 생존에 급급한 세계관으로 때문에 거부된 조국, 거부된 민족

제시문 (가)는 이광수의 「친일파의 변」중의 일부이다. 이 글은 자신의 행적에 대한 옹호를 이기주의적인 관점으로 규명한 것이다. 친일파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으로 이른바 공범론이다. 식민 지배하에서 세금 안 낸 사람 없고, 일제의 법률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 일본말을 썼고 교육을 받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웠고, 신사참배를 했고, 일제의 관제행사에 동원되었고, 심지어는 성과 이름을 갈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자와 뒤에 선 자의 차이는 단순히 능력의 차이이고 우연의 문제이고 결국 50보 100보의 문제이다 하는 주장이다. 즉 국내에 살면서 일제와 싸운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라는 것이다. ‘개화의 선구자’였다가 대표적인 친일파로 변절한 윤치호 역시 같은 변명을 하였다.

이것은 식민지배가 장기에 걸쳐 진행된 데다 국내의 상황이 엄혹했다는 것과는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담겨 있다. 이 주장은 결국 전 민족을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되면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도 없고 또 전원을 심판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결국 친일파 청산문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친일파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본인에게 민족적 차별을 받은 피해자였다. 하다 못해 강우규 의사를 체포하는데 큰 공을 세워 일제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김태석이라는 형사조차 자신보다 아래인 일본인 형사보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위의 논리대로라면 고등계 형사나 일반 농부나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등계 형사가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범주 속에 섞어 버림으로써 살기 위해 세금을 낸 사람과 능동적으로 국방헌금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서 협력했고, 생활 때문에 살기 위해서 협력했다’는 논리도 위험한 생각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동정도 사고동조도 얻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일본에 협력했다. ‘바보화’로 유명한 김은호 화백이 생존을 위해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그림 몇 점을 그렸으며, ‘국화옆에서’의 서정주 또한 밤을 위해서 출전하는 병사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 그 뿐인가. 말단 면서기도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서서 공출을 독려하고, 징용자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살기 위해 협력하는 것과 출세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친일 협력 행위를 생존을 위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비켜가기 위한 주장이다. 쓰기 싫은 시가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나오고, 하기 싫은데 남보다 앞장서서 공출을 독려하고, 하기 싫은데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군의 행동을 정탐할 수는 없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수준이라면 그 당시 친일의 경쟁구조에서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서툴고 또 동정심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비켜가려는 것이다.

제시문은 우리 민족의 생존이나 삶에는 전혀 무관한 채, 자신을 비판하면 좌익과 안락의자 정치가로 매도하는데 급급한 이기적 인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삶의 형태이다.

2) 제시문(나) - 황금 만능주의로 고착화된 악순환

제시문(나)는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를 패러디한 마당극이다. 윤사장은 <태평기획>이라는 간판을 단 금융업, 부동산업을 주로 하는 회사를 내걸고 실제로는 사채업과 부동산 투기 등을 하여 돈을 벌었다. 본문에 따르면 뇌물을 주고 도시 계획을 빼돌리고, 그것으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 챙겨 내빼는 등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여 돈을 벌었다.

전체 글을 살펴보면 윤사장이 돈을 쓰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족들에게다. 가족들에게조차 인색하게 굴기는 하지만 윤미영(딸)과 윤거부(아들)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돈을 쓰고 아내의 거짓된 자선과 기부를 위해, 소비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얼마간 돈을 내어 주며 자신의 가장 큰 사업이자 기대인 윤장관(손자)을 장관 만들기 위해 공부시키는 데에 돈을 쓴다. 그리고 자신의 향락(아내를 두고 미스 리 미스 박을 곁에 둠)을 위해 돈을 쓰고, 향락과 부를 오래 누리기 위해 몸을 보신하는 데에 돈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돈을 유지하고 더 부풀리기 위해 다시 자신의 돈을 굴린다. 결국 윤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말할 수 있다.

윤사장의 돈에 대한 인식은 최대복에게 하는 말, “이 하늘 아래에선 돈이 최고다. 돈이 신이다.”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또, 자식들에게 하는 말, “우리를 지켜줄 율타리는 힘이다. 힘과 돈을 합쳤을 때 우리는 태평천하에 살 수 있다”라는 데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윤사장에게 돈은 자신과 우리(가족)를 태평천하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자신에게 오직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힘(권력) 또한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모든 것은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에게 돈 외의 다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이것은 극 속에서 아주 과장되게 나타나 강도가 침입한 장면에서는 며느리의 목숨보다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 점은 윤사장이 가족을 위하여 돈을 쓴다는 말과는 모순된 장면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을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윤사장은 가족의 목숨보다도 돈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기에는 뒤에서 보여주는 아들과 딸에 대한 행동들과 맞지 않는다.

윤사장이 돈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사장이 “우리를 지켜줄 율타리는 돈과 힘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 보면 윤사장이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 즉, 가족을 위해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사장의 머느리에 대한 태도와 아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윤사장의 ‘우리’가 과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인가 싶기도 하다. ‘가족’에서 범위를 축소하여 직접적인 ‘뗏줄’이라고 해도 석연치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족 이기주의’의 다른 모습에까지 이어진다.

또 달리 본다면 윤사장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를 ‘돈 자체를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버린 사람인 윤사장은 겉으로는 집안을 들먹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 돈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주인공의 사회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회를 바로 볼 수 있음을 상실한 채 계속된 악순환을 낳게 하는 것이다.

3) 제시문 (다) - 사회적 해결을 포기한 개인의 악전고투

제시문 (다)는 실존주의의 대표적 저자인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인용한 글이다.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지프스’라는 신화 속의 인물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다면 일단 표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 끝없이 언덕 위로 바위를 굴러 올려야 하는 저주를 받는다. 일단 언덕 꼭대기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 바위는 저절로 굴러 떨어지고, 다시 시지프스의 고행은 시작된다. 이 과정은 영원히 반복된다. 이 상황을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 생활의 반복과 연결시켜 그 속에서 인간이 가야 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인 것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은 상당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배경지식을 참고하여 읽어낸다면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를 얻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일단, ‘인간적인 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근원이 있음을 확신해 보기를 원하나’ 부분은 고통의 사회적 근원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밤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는 장님’의 구절은 그런 사회적인 인식과 사회적 실천이 끝이 없는 삶의 무의미라는 쳇바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나 몸부림도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은 일상적 삶의 무의미성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없기에 삶에 대한 지속적인 악전고투만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문 (다)의 논지라 하겠다

3. 논제 파악

(1) 문제의 이해 - 제시문 나타난 삶의 유형을 비교 분석하고 공통점을 추출한다.

일단 제시문을 분석했다면, 세 지문이 모두 사회와 유리된 개인에 관한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역사적 인간’의 관점이란 점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방향으로 삶의 태도를 추출해야 할 것인지도 분명해진다.

(가)는 우리 민족의 생존이나 삶에는 전혀 무관한 채, 자신을 비판하면 좌익과 안락의자 정치가로 매도하는데 급급한 이기적 인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삶의 형태를 표출했으며 (나)는 황금만능주의로 물질화되어버린 현대인의 개인 심리를 표현했으며, (다)에서는 부조리한 삶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 극복을 체념하고, 삶에 대한 투쟁 속에서만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몸부림을 서술하였다. 즉 세 지문에서 공통되는 것은 사회의 이타적 삶과는 분리된 개인 단독의 세계(이기주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지양해 나가는 삶의 태도로, 공통되는 삶의 태도는 사회적으로 이타적 삶의 실천적 노력을 포기하고 개인적 세계로

만 파고 들어가는 개인주의를 포함한 이기주의적 삶으로 압축될 수 있다.

(2) 논점 찾기 - 사회적 인간'이란 관점에서 비판하여 논술하시오

논제에서 요구한 비판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간'에서 '사회적'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간이란 사회가 만들어낸 생성물적 측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인지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일단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 비판의 측면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 ㄱ) 인간은 원래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존재이다
- ㄴ) 사회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형성된 인간은 '늑대인간'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 ㄷ) 따라서 개인은 이미, 언제나 하나의 작은 사회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축소된 사회'일 뿐이다
- ㄹ) 그러므로 그 근원에서부터 사회적이므로 개인의 문제를 아무리 '개인적'으로 치부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논리는 다분히 개인의 '역사성'에 기초한 논증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

- ㄱ)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항상 그가 위치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생긴다
 - ㄴ) 즉 개인의 문제는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위치에서 개별화된다
 - ㄷ) 따라서 개인 스스로의 문제점 혹은 세계관을 독자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 ㄹ) 그러므로 개인은 이타적 삶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이 논리는 다분히 '관계'가 인간의 본질임을 근거로 하는 논증 방법이다

4. 예시 개요

- ▶ 주제문 : 인간은 역사와 사회적 관계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적 세계의 추구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서론 :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일회적인 관계들의 확대로 불안과 소외를 느끼고, 개인적인 세계로 도피하고 있다
- 본론 :
 1. 제시문에 나타난 개인들은 이타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이고 개인적 삶을 살고 있다
 2. 개인만의 공간을 향하려는 시도는 사회에 대한 괴리를 통한 악순환을 낳는다
 3.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 역사적인 존재이므로 개인의 이기적 삶을 지양하고 이타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 개인은 사회적인 관계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5. 예시 답안

현대 사회는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향이다. 대표적인 것이 1회 용품이며, 그 외의 제품들도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사용 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이 많아졌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학생들이 사용하는 mp3등이 그 유행주기를 재촉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는 1회성 소비의 형태가 점점 인간적 관계에서도 확대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필요에 의해 잠깐 만나고 편의상 쉽게 단절시켜 버리는 인간관계가 사회적으로 확대될 때, 사람들은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 개인의 욕망 충족에만 가치를 두는 그릇된 개인주의(이기주의)의 확산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시문 (가)는 현재 ‘나’를 조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조국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고 항변하는 모습이고 또 (나)에서는 돈에 대한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물신주의의 전형적 인물에 대한 모습이다. 돈은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자신에게 오직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힘(권력) 또한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모든 것은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에게 돈 외의 다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기적이다. (다)에서 ‘시지프스’로 상징되는 개인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 침잠하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관계가 철저하게 허무하다는 인식을 통한 포기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점에서 시지프스는 사회적 위치를 망각해버린 ‘장님’이라 할 수 있다.

세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이타적 삶과는 분리된 개인 단독의 세계(이기주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지양해 나가는 삶의 태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이타적 삶의 실천적 노력을 포기하고 개인적 세계로만 파고 들어가는 개인주의를 포함한 이기주의적 삶으로 압축될 수 있다. 친일적 행적으로 인해 가치관이 전도되어 버린 삶, 돈의 노예가 되어 돈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물신주의의 전형적 모습, 의도적인 사회 관계 회피로 인한 단절은 각각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삶의 태도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낳고,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악순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인간이란 많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단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해 나간다. 인간은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위치 속에서 의미지워진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벗어나서 이해될 수 없다. 그렇기에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인간은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소멸해 간다. 그렇기에 한 개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이룩한 것들은 이미, 언제나 하나의 사회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사회를 벗어나서 개인이 이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공과를 자기만의 것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은 역사와 사회라는 선상에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탄생에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숙명적 사회관계는 개인이 사회를 떠나서는 그 존재 의미를 잃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만이 가지는 그릇된 가치관이나 내부적 세계를 유일하게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현실을 망각한 태도나 사회적 관계를 격하시키는 태도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근원적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가치까지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읽기 자료

■ 막스 세리의 철학적 인간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는 모든 철학자들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물음이다. 나는 이런 물음이 곧 ‘철학적 인간학’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왔고 이의 해결은 우리 시대가 떠맡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철학적 인간학이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부세계와 부딪치며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기본방향과 법칙, 그리고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학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을 움직이고 또 반대로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계의 모습,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발전 등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근 생물학자, 의학자,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에 관해 새로운 모습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풍조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철학적 인간학이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업적들과 산물들, 예를 들면 언어 종교 신화 도구 무기 학문들 또는 국가 통치 예술의 표현기능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올바르게 규명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생명체들이 가지는 일반 속성과 비교해 가면 인간의 독특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우선 생명체의 특성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정충동’이다. 이는 움직일 줄 모르는 식물까지도 지니고 있으며 인간심리 밑바탕에 깔린 것이다. 그에 이은 제2단계는 ‘본능’이다. 이는 주로 하등동물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며 예외없이 인간도 가지고 있다. 다음 제3단계는 ‘습관적 동작’ 혹은 ‘연상되는 기억’이다. 이는 몇 번인가 반복되는 동작에 의해 서서히 굳어져 한 생명체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행동양식을 말한다. 제4단계는 실천의 단계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불특정한 행동과는 분명히 다른 단계인데 여기에는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선택을 하는 능력이란 특정한 형태를 ‘善하다’ 또는 ‘福利를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능력, 생식의 과정에서 동료를 선택하는 능력(에로스의 시작이다)을 말한다. 인간은 이런 지능과 판단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명체의 본질을 근거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크게 두 갈래로 의견이 나뉜다. 그 하나는 지능과 판단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고 여타 동물에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로 동물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엄밀히 말해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배격되어야 한다.

문제의 초점을 처음으로 돌려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는 지능이라든지, 선택능력이라든지 하는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질문이다. 우리가 지능이나 선택능력을 아무리 멋대로 포장하더라도 인간의 본질과 위치를 찾아낼 수 없다.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새로운 원리는 생명이라는 범주를 훨씬 벗어나 있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원리는 모든 생명체 일반과는 대립되는 원리이며 우리는 이 원리를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라느니, ‘만물의 영장’이라느니 하는 미사여구로 표현할 수 있다.

고대 희랍인들은 그 원리를 ‘이성’이라고 불렀다. 이성은 단순한 지식과는 구별되며 자

기존재를 구속하는 모든 외부세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이런 이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단지 존재할 뿐’이라고 대상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고유한 생리적 성질, 심리적 체험들을 아무런 편견없이 편견 없이 객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인격은 ‘유기체와 환경의 대립’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추월하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모든 행복을 통제하는 무한한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견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성의 절대성을 믿는 고전적인 인간론에 따르면 인간이 지닌 ‘영혼의 실체’ 혹은 ‘유일한 정신’만이 실존하는 것이고 여타 개별적인 정신들은 여기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양태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진화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인간관이 높은 존재를 발생학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발전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오류를 범했듯이, 이런 관점은 높은 존재형식들이 낮은 존재형식을 창출하고 지배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란 아무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만 ‘우연성의 법칙’에 지배받는 무의식의 힘이다. 생명체의 충동은 개인이나 역사에 작용해 정신에 힘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정신은 근원적으로 아무런 자체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신과 생명의 화해’라는 원칙을 인간의 역사에서,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역사에서 전반적으로 이성이 강화돼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경향도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여러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고 끊임없이 이념과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한도 내에서 그럴 뿐이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밀바탕에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자들이 이들 양자를 근원적인 적대 관계나 투쟁관계로 파악해온 전통은 분명한 오류다.

■ 로저 트리그의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인간 본성에 관한 간단한 단 하나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철학사 속에 서로 얹혀 있는 수많은 사상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란 누구인가.’라는 물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다. 인간의 본성과 개인의 본성이라는 문제는 항상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천사보다 낮은 등급의 존재로 생각하면서 현실 생활을 초월해 살고자 한다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진화론적 역사를 통해 특징 지워지는 동물 가운데 한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인간을 목적 없이 존재하는 ‘유전자의 다발’로 보려는 견해와 신의 지배를 받는 ‘특별한 피조물’로 보려는 견해 사이의 논란은 최근 철학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논쟁의 모습이다. 과연 인간의 삶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이성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서 어느 때라도 스스로 발현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성을 통해 신성의 불꽃을 보는 철학자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우리의 이성 능력은 회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온갖 종류의 무의식적인 힘이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되었다. 놀랍게도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은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려 품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자아는 사면 팔방의 공격을 받아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중략)

인간 본성과 관련된 사상은 개인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사회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본성상 우리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만 타인과 협동하려고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는 다르게 ‘과연 우리는 본성상 공동선을 달성하려고 타인과 협동하고자 하는 사회적 존재인가, 우리의 자연적 경향과 욕구가 사회 속에서 규제되어야 하는가, 또는 그것들이 사회 속에서 적절하게 표출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도 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 자리잡은 야수성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문명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충동을 억누른 결과인가?’ 프로이트는 이러한 사실을 유감스러워하면서도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 본성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가?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변화의 효율성에 대해 남다른 확신을 갖게 되며, 혁명론에 기울어지기 쉽다. 인간 본성이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활동의 효율성에 대해 남다른 확신을 갖게 되며, 혁명론에 기울어지기 쉽다. 인간 본성이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활동의 효율성에 대해 냉소적일 것이며, 현재 상태를 묵인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치 철학으로서 보수주의는 인간 삶 속에서 관습과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실감하게 될 때 비로소 득세하게 될 것이다. 관습과 전통에 의해 현재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라면, 그것들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I> 문 제

제시문에 나타난 삶의 유형을 파악하여 공통적인 태도를 분석하고, ‘사회적 인간’이란 관점에서 비판하여 논술하시오

[가]

누구는 지배하고 누구는 지배당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것이므로 그들은 출생시부터 어떤 자는 복종하도록 또 어떤 자는 지배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자에게도 또한 피지배자에게도 다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더 우수한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예를 들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야수를 지배하는 것보다 낫다. 그것은 더 훌륭한 일꾼에 의해서 성취된 일은 더욱 만족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배하고 나머지가 지배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각자 부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뭉쳐서 하나의 전체로 형성되는 또 한 부분으로서, 형성되는 만물에 있어서 비록 연결되어 있든 분리되어 있든 여하튼 간에 지배와 피지배의 요소 사이의 구별이 있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생존하고 있는 동물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동물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근본법 속에서 나오고 있고 생명을 갖지 못한 것에도 음계화음에 있어서와 같이 지배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논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정신과 육체로 구성된 생물에만 국한하려 한다. 이 양자 중에서 하나는 자연적으로 지배자이며 다른 하나는 피지배자이다. 이때에 있어 그들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에 있어서 자연의 의도를 찾아보아야 하며 부패한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다 같이 가장 완전한 상태에 있는 자를 연구해야 하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 양자의 진실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악하고 부패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자에 있어서는 그것은 악하고 부자연한 상태에 있으므로 가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것같이 보일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첫째로 생명 있는 동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데 반하여 오성(五性)은 욕망을 법치적이고 군주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육체에 대한 정신의 지배 및 다정다감한 것에 대한 미움과 이성적 요소의 지배는 자연적이고도 편리한 것이다. 양자가 평등하다든가 또는 열세한 자가 지배한다는 것은 이롭지 않다. 이것은 인간과의 관련에 있어서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가축은 약수보다 그 본성이 우월하며, 모든 가축은 인간에게 지배될 때 비로소 더 좋게 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다시 남성은 천성적으로 우월하며 여성은 열등하다. 이리하여 하나는 지배하고 다른 하나는 지배당하는 것이며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정신과 육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와 같은 구별이 있는 한 열등한 부류는 천성적으로 노예이며 이들 모두 열등한 자는 주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남의 소유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남의 것인 자 또한 합리적 이치를 이해할 줄 알면서도 이러한 이치를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자는 천성적으로 노예이다.

하등 동물은 이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본능에만 순종한다. 노예나 가축의 용도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둘 다 몸으로 생활필수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유인과 노예를, 즉 하나는 노예 운동을 위해서 강건하게, 또 하나는 미끈하게 하여 비록 이러한 운동에는 적합하지 못해도 전쟁이나 평화의 기술에 있어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게 양자를 구별하고 싶어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나]

실제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차이 속에서 몇 가지는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히 습관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갖가지 생활양식의 산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강한 체질인가 허약한 체질인가, 그에 따라 힘이 센가 약한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체격보다 오히려 그 교육법이 엄한가 유약한가 하는 점에 원인이 있다. 정신의 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교양이 있는 정신과 교양이 없는 정신간의 차를 만들 뿐 아니라 전자간에도 교양에 비례하여 차를 넓힌다. 왜냐하면 거인과 소인이 같은 길을 걷는다면 그들 둘이 다 한 발짝씩 걸을 때마다 거인 쪽이 새로운 이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 상태의 갖가지 계층을 지배하고 있는 교육과 생활양식의 놀라운 다양성을,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물이나 미개인의 단순함 및 획일성과 비교하면,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자연 상태 쪽이 사회 상태에 있어서보다 적은 것인가, 또 자연의 불평등이 인류에 있어서는 제도의 불평등에 의해 얼마나 중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령 자연이 그 물건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말처럼 편파적인 처사를 했다 해도, 가장 덕을 본 사람들이 거의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도 허용되지 않는 사물의 상태에 있어 타인을 희생시키고 도대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연애가 전혀 존재치 않는 곳에서 미(美)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지(機智)가, 또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략이 무슨 쓸모가 있었겠는가. 강자가 약자를 압박할 것이라고 되풀이하는 말을 나는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이 압박이란 말의 뜻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어떤 자가 폭력으로써 지배하면 다른 자는 강자의 어떤 처사에도 굴복하여 한탄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우리 사회에서 보아온 바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일이 미개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들에게는 복종과 지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시키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이 따온 과일이나, 죽인 짐승이나, 숨어살던 동굴을 가로챌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인간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어떠한 종속관계의 속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종속의 인연이란 것은 사람들의 상호 의존과 그들을 결부시키는 상호의 욕망이 없이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을 복종시키는 일은 미리 그 인간을 다른 인간이 없으면 해 나갈 수 없을 그런 사정 하에 두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일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누구나 속박으로부터 자유이며 강자의 법률은 쓸데없는 것이 된다.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

[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유시위로 기록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00년 전, 지금 우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저 동상의 주인공 에이브리햄 링컨이 노예해방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노예해방선언은 사그라지는 불의의 불꽃 속에서 고통 받은 수백만 흑인노예들에겐 희망의 봉황불이었으며, 기나긴 속박의 밤을 걷어내는 찬란한 기쁨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흑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흑인들은 차별의 족쇄를 찬 채 절름거리고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흑인들은 물질적 풍요의 바다에서 가난의 섬 안에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흑인들은 미국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고통당하며 망명객처럼 부자유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욕스런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명목뿐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도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명한 헌법과 독립선언서의 화려한 문구들은 약속어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흑인, 백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략>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꼴잡기마다 돌아서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남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토막내어 희망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나라 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애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행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의 조국은 아름다운 자유의 땅, 나는 조국을 노래 부르네. 나의 선조들이 문헌 땅,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선조들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땅, 모든 산허리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하라!”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구절을 새로운 의미로 암송할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뉴햄프셔의 높은 산꼭대기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합시다.

펜실베이니아의 웅장한 엘러게이니 산맥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합시다.

콜로라도의 눈 덮인 록키산맥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의 구불구불한 산비탈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합시다.

조지아의 스톤 산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합시다.

미시시피의 수많은 언덕들과 둔덕들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합시다.

전국의 모든 산허리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리게 합시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주, 모든 시, 모든 마을에서 자유의 노래가 울린다면, 흑인과 백인, 유대교도와 기독교도, 신교도와 구교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오래 된 흑인영가를 함께 부르게 될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네, 마침내 자유를 얻었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자유를 얻었네.”

—마틴루터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

하루는 놀보가 흥보 불러 하는 말이,

“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되는 법이다. 너도 나이 장성하여 게 집 자식 있는 놈이 사람 생애 어려운 줄을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놀고 먹고 놀고 입는 모양 보기 싫어 못살겠다. 부모의 세간살이가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될 것인데, 하물며 세간은 나 혼자 장만하였으니, 네게는 돌아갈 것이 없다. 네 처자를 데리고서 어서 멀리 떠나거라. 만일 지체하였다가는 살육지환이 날 것이니, 어서 급히 나가거라.”

하니 가련한 흥보 신세에 지성으로 비는 말이,

“제발 빙니다. 형님 전에 빙니다. 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베어내면 둘 다 병신 될 것이니, 그 수모를 어찌하리. 동생 신세는 고사하고,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뉘 집에 가서 의탁하며, 무엇을 먹여 살리겠어요. 당나라 장공예는 아홉 세대가 함께 살았다 하는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가라 하십니까. 할미새는 짐승이지만 벼 사이의 정이 두텁고, 상체는 한갓 꽃이지만 즐겁게 사귀는 깊은 정을 품었으니 형님 어찌 모르십니까. 오류의 뜻을 생각하여 십분 통촉하십시오.”

놀보가 분이 나서 그런 야단이 없었다.

“아버님 계실 적에 나는 생 일만 시키고서 작은 아들 사랑스럽다고 글공부시키더니, 너 매우 유식하구나. 당태종은 성주였지만 천하를 다투어서 그 동생을 죽였으며, 조비는 영웅이나 재주를 시기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나같은 초야 농부가 우애지정을 알겠느냐.”

하고 구박하여 문 밖으로 쫓아내니, 흥보 신세 가련하다. 입도 뻥끗 못 하고서 빈손으로 쫓겨나니 광대한 이 천지에 집 없는 손이 되었구나.

—흥부전—

◆ 유의사항 ◆

- (1) 반드시 현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것.
- (2)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800자 안팎이 되게 할 것.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이 글은 인간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라는 점을 논제의 첫머리에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런가하면 과거 시대에는 신분에 따른 불평등의 사회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양반과 상민이라는 태생적 불평등이 있었고, 서구에도 귀족과 노예같은 신분적 불평등이 있었으며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카스트제도가 있어 계층간에 엄격한 불평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제군주시대가 끝나고 민주사회가 되면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되었다. 민주라는 말의 의미를 새겨보면 군주나 특정 지배자가 주인이 아니라 민(民), 그러니까 백성, 혹은 시민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그리고 현실적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루터 킹 목사처럼 역사적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홍부처럼 작은 소망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현대적 의미에서 평등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2. 논제 파악

(1) 문제의 이해 : 평등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

ㄱ.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두 글의 견해를 이해할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자연스러운 법칙으로까지 이해하고 있다. 정신과 육체에도 구별이 있고, 온전한 사람의 경우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듯, 또한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 있듯이 모든 열등한 부류는 천성적으로 노예이며,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루소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루소는 자연 상태 속에서는 복종과 지배라는 개념조차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 인간이 무력으로 다른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의 물건을 빼앗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를 복종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결국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그의 소유를 빼앗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를 복종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루소의 견해이다.

ㄴ. 두 글의 견해 차이를 밝힐 것

그들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우월함과 열등함’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월함과 열등함의 차이가 자연스럽고, 또한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비해 루소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문제, 문화적 차원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루소는 거인과 소인이 같은 길을 걸을 때 거인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거인이 소인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한다. 정신의 힘 또한 교육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듯 루소는 인간의 우열관계는 생활양식의 산물일 자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ㄷ. 수용방식에 대한 차이점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수용방식은 강한 저항

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수용방식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성애 호소하여 불평등이 얼마나 인간의 희망을 짓밟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홍부전에서는 홍부는 형인 놀부의 행위가 불합리하지만, 홍부는 형에게 인정에 호소하여 자신을 거두어 줄 것을 애걸하지만 거부당하고 마는 것이다. 즉, 신념이나 소신이 없는 소극적 저항 방식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논점 찾기 : 지배와 피지배에 대한 견해 차이

귀족과 노예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이란 노예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이들이 지배, 피지배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나 서로를 위해서나 필요하고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루소는 귀족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은 곧 노예가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얹어매는 것에 불과하다고 견해를 보인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우월함과 열등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이처럼 지배, 피지배의 구조 자체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 문제 해결

ㄱ. 두 견해가 가지는 타당성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견해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비하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불평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구조화된 사회에서 상부와 하부, 지배와 피지배,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다른 인간을 복종시킬 수는 없다는 루소의 견해 또한 너무나 지당한 것이므로 부정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ㄴ. 두 견해의 보완, 발전 방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불평등을 옹호한 것은 그것이 사회 운영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두가 평등해서는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편리하다고 말한 것이다. 오늘날은 루소가 말한 바와 같은 자연상태는 아니므로, 개인의 평등이라는 원칙만 보장된다면,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지배, 피지배를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도 수용할 만한 견해일 것이다. 결국 루소의 주장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현재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면 발전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4. 예시 개요

- 서론 : 불평등의 문제 제기
- 본론 : 1. 불평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견해 소개와 차이
2. 우열관계와 이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견해 차이
3.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견해를 보완 발전
- 결론 : 본질적인 평등의 중요성 강조

5. 예시 답안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불평등의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다. 경제적인 차이, 사회 구조적인 계층의 차이 등 그것은 분명

우리 삶에 실재하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민주주의 시작과 함께 종료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문제임에 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동물이 인간의 지배를 받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듯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루소는 반대로 불평등 구조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복종시킬 수는 없으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와 같은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듯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이 따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우월하듯 우열관계는 자연적인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루소는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우월해 보이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열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바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낳게 하였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간의 우열관계가 분명하므로 우월한 인간이 열등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사회의 운영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며, 루소는 우열관계를 본질적인 것이 아닌 사회 문화적인 차원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문화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 개연성 있는 소설이지만 홍부전의 수용방식으로 볼 때 불평등의 무비판적 수용은 봉건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반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차별에 대해 적극 반대하여 미국의 가치관과 역사를 바꾼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이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와 같은 상황은 아니며 홍부전이나 루터 킹 목사가 살았던 시대는 아니다. 이것은 곧 사회문화적인 우열관계가 분야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차원의 지배, 피지배 관계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 오히려 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하관계와 같은 계통과 질서를 명확히 잡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복잡한 현대에서도 만인은 평등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루소의 말대로 약한 자가 강자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되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도, 그것이 본질적인 불평등이거나, 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상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구조가 드러난다고 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확대라는 보편적인 인류의 발전 방향을 역행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III> 읽기 자료

■ 루소 - 인민 주권론

일찍이 민중들과 함께 생활했던 루소에게는 그 모든 사회악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절

대주의'라는 사악한 사회 제도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시되었다.

루소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고 자격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치였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양도되거나 포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억압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였다. 따라서,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는 루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으며, 「사회계약론」 제 1편의 주제 설명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한 것은 그의 모든 사상의 기본적인 전체를 표시한 것이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정치적 자유가 외면화하게 되면 반드시 국가 권력의 권위와 충돌하게 되므로, 자유의 문제는 곧 자유와 권력의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할 때 자유를 보장하는 권력이 가능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도대체 국가 권력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권력의 정당성 문제가 되는 것이다. 루소 사상의 기본적 출발점은 이처럼 권력의 정당성 문제로 집약된다.

국가 권력의 근거에 관하여 루소는 독특한 정치 이론의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된다.", 즉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국가 권력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약속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 상호간에 자연적 육체적 불평등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평등한 조건 위에서 "공동의 힘으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것을 약속하게 되고, 이 약속으로부터 개개의 인간들 대신에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하나의 단체"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곧 국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권력의 근거는 국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사회 계약이다. 그런데 그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행사될 때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에 의하면, 사회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 권력이 가장 상위에 위치한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행사될 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전체의 목적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반 의지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루소의 독창적이고도 핵심적인 개념이다. 우선 일반 의지는 국가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할 수 있다. 같은 사회 계약론자인 존 로크*나 토머스 홉스와는 달리, 루소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할 때, "구성원 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함께 자기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한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가 모든 것을 양도해 버리고 나면 각자의 조건은 평등하게 되고" 이해 관계가 일치되어 상호간의 동질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동질적인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바라는 공공의 복지와 의지가 곧 일반 의지다. 그러므로 일반 의지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정당하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파괴되거나 분할될 수 없고 또 절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루소는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개개의 의지란 어디까지나 사회의 동질성을 파괴하는 개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그것이 일시적으로 전원 합치가 되어 전체 의지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구히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당시 계몽사상가들과 루소가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한 점이다. 당시의 사상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최대의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에 관한 문제였다. 그들은 중세

의 종교적 속박과 신분 제도의 억압이라는 인간 외적 계약을 거부한 뒤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모든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이기적인 욕망과 자애(自愛)를 모든 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요소로 생각했다. (중략)

그러나 루소가 보기에는, 모든 인간 외적인 제약과 그 현실적 기구로서의 구체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로 등장하는 시민층들의 이기심에서 완성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 외부의 간섭 없는 자유방임에서 모든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여기서 그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개인의 이기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항상 공공의 복지만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곧 주권이다. 이렇게 하여 루소의 주권론은 인민 주권론으로 성립하는데, 그에 있어서 주권은 그 성립 근거가 인민일 뿐만 아니라 그 행사도 인민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한다. 주권의 소재가 군주로부터 전체로서의 인민에게 주어졌다는 점이 바로 루소 주권론의 획기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흥부의 재해석

16·17세기의 세계는 돈키호테적 인간상에 의해 주도됐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울타리를 뛰쳐나와, 아직은 비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불굴의 도전을 거듭하는 돈키호테적 인간상이 근대 초기 유럽의 비유럽 세계 진출의 주인공들이었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기까지의 세계는 로빈슨 크루소적인 인간상에 의해 주도된다. 그는 돈키호테처럼 하인을 거느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회 문화가 진전된 세계의 독립적인 개인이었고, 또 다른 독립적인 개인을 만나 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시민사회를 열어 나갔다. 19세기 후기 이래 20세기의 세계는 카우보이적인 인간상에 의해 주도됐다. 카우보이는 돈키호테처럼 외부 세계에 대해 도전적이었지만 로빈슨 크루소처럼 개인주의적이었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기계적이었다. 카우보이적 인간상은 미국의 서부를 개척하고 다시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로 다시 우주로, 끝없이 외부 세계로 도전해 나갔다.

－왜 다시 흥부인가

20세기 후반 세계사의 가장 큰 사건은 옛 소련의 몰락이라기보다 오히려 일본의 등장인지 모른다. 특히 1980년대 초 일본은 한때 세계 금융자본의 약 40%, 세계 특허의 약 40%를 점유하면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이래 역사상 최대의 채권 대국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무라이적 인간상에 의해 주도됐다. 사무라이는 공동체를 깨고 나온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강화하는 대변자다. 따라서 사무라이 자본주의는 안으로 일본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밖으로 세계 경제의 불균등성을 매개하고 있고, 최근 일본 시민사회의 성장과 세계 경제의 균형 회복으로 심각한 후퇴를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어떠한 인간상에 의하여 주도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나는 흥부적 인간상이라고 하고 싶다.

－흥부적 인간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1960년대 후반 근대주의가 한창 휩쓸고 있을 무렵 흥부 비판에 열을 올린 적이 있다. 흥부는 자기 재산도 지키지 못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자식을 낳아 고생만 시킨 무책임한 가장이며, 그러면서도 끝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의 길

을 찾지 못한 무능력자이며, 우연히 제비의 도움으로 신비하게 부자가 된 허무맹랑한 자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홍부전>을 교과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홍부 비판은 당시의 근대주의적 사조 속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문학쪽과 교육학쪽에서 홍부 비판 논문이 나온 것은 그 뒤의 일이다. 당시 천민 자본주의적 풍토 속에서 홍부 대신 놀부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해석법이 제법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주의에 대한 회의가 일면서 홍부에 대한 원초적인 애정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다. 언젠가 강의실에 늦게 도착해 숨을 헐떡이며 강의를 시작하다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 그만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라’고 해 버렸다. 학생들의 폭소 소리를 듣고서야 실수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실수로 잘못된 말의 의미에 스스로 멈칫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무소유 정신을 가르친 것이라면, 역으로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라’는 말은 흔해빠진 돌조차도 무심히 보아 넘기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살려 보자는 혁신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부전>에서 홍부가 박을 타니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데, 쌀도 나오고, 비단도 나오고, 한약재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심지어 이본(異本) 중에는 금방 천리를 달리는 축지 미투리도 나온다. 이것을 다양한 혁신의 가능성을 다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라’는 것보다 ‘박보기를 황금같이 하라’는 것이 훨씬 한국적이고 서민적이고 또 상징적이다. 물론 <홍부전>은 선행을 하면 보은이 이루어진다는 도덕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모래에서 반도체가 나오고, 은행잎에서 기백신이 나오고, 제나 새우 껍질에서 의학용 신소재 키토신이 나오는 판국인데 박에서 비단이 나오고 금이 나온다는 상징이 기술 혁신의 문제를 문학적 차원에서 다룬 소설이라고 상상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박의 기적,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홍부전>에는 박에서 쌀이나 비단 또는 금이 나오는 결과만 나오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과정의 이노베이션을 상징하는 부분이 비어 있고 그 빈 부분이 신비적으로 채워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홍부전>의 여러 이본 중에는 이노베이션을 엿보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춘향전>이 지배층에 대한 신분적·계급적 저항을 형상화한 데 비하여 <홍부전>은 농민층 분해 과정에서 놀부라는 지주적 부농의 형성으로 토지 소유에서 배제된 홍부와 같은 서민들이, 비지주적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희망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옹게 먹고’, 놀부와 같은지주에의 의존도 포기하고, 온갖 품팔이 노동으로 살길을 찾아보기도 하다가 결국은 제비를 등장시킨 전혀 엉뚱한 과정으로 새로운 부를 이루게 된다. 제비의 등장에서 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공업적 부농, 경영적 부농의 행태를 엿볼 수 있고, 그것도 국제적 시야 내지 국제적 범위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제비가 등장하기 전에 홍부 내외는 ‘역곡 주인(易穀主人) 역인지기’, ‘각읍주인(各邑主人) 샅질가기’, ‘말질신기’ 등의 상업적 부분에서 학습 과정을 거쳤다. 그 뒤 다리 부러진 제비 새끼를 치료하는 데 당장 등장하는 것이 ‘오색당사(五色唐絲)실이다. 치료를 받은 제비는 바다 건너 강남으로 날아가고, 강남에서 받은 박씨를 물고 중국 천지를 돌고 황해를 건너 다시 조선 천지를 돌아 온갖 물산의 정보를 갖고 남원땅 홍부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중에 박을 타보니 박에서 나온 물품이, 경판본(京版本)의 경우에는, 진귀한 한약재, 비단, 한산모시, 그릇 등의 수공업 제품,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각종 유기 제품 등이다. 또 ‘울안에 벌통 놓고’, 울밖에 원두 놓고’ 등 온갖 비지대(地代)적 경영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박에서 나온 물품은 금방 화폐 가치로 계산되고

상품으로 상정된다. 이것은 모두 흥부의 부가 지주적 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부 즉 경영적 부이며, 국제무역적 연계를 가진 부인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부 창출의 가능성이 박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으로 재미있게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흥부는 타락의 존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놀부적인 지주 자본에의 의존도 철저하게 포기하고, 온몸을 던져 노동하고, 노동 자체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착한 마음과 밝은 희망을 갖고 상공업과 공예 작물 경영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비지주적 부를 창출해 낸다. 박에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박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 ‘쓰레기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

그럼에도 박의 기적으로 표현된 혁신의 과정 논리가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한계는 오히려 기회로 역이용될 수 있다. <흥부전>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또 판소리 부르는 소리꾼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져 많은 이본이 있음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문제의식을 가미한 이본이 하나 추가된들 이상할 것 없을 성싶다. 흥부는 모든 한국인의 가슴에 살아 있는 영원한 인간상이지만, 그 흥부상을 재해석하고 이본을 추가하는 형태로 끝없이 재창조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흥부상의 재발견과 재구성으로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사적 과제, 즉 지대 추구형 부를 혁신 추구형 부로, 차용형 경제를 창조형 경제로, 요소 투입형 성장을 부가가치 증가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일을 성취해 보자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선진화는 악명 높은 놀부형 인간상이 아니라 흥부형 인간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돈키호테적 인간상-로빈슨 크루소적 인간상-카우보이적 인간상-사무라이적 인간상에 이어 흥부적인 인간상을 제시했다. 이 문제는 세계문화사적 시야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흥부를 새로운 인간 유형의 대안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는 창조적 혁신의 인간 유형이라는 점이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최저면으로 떨어진 흥부가 인간적 선의를 지키면서 자기 의존적 노력을 계속하다가 당시의 서민 사회에서 가장 친근한 박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해 내는 과정은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평범한 소재로부터도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모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오늘날 정보·기술 혁명 아래 세계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는 벤처 비즈니스의 세계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벤처 비즈니스의 세계는 신뢰와 협조를 전제로 한 경쟁 세계라는 점에서 흥부적 세계이기도 하다. 더구나 박보기를 황금같이 하는 창조적 혁신 정신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쓰레기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은 산업화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새로운 발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의 원천으로 연결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둘째로, 흥부는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는’ 혁신적 인간상이면서 다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무소유형 인간상이다. 흥부는 부모로부터 상속적 부를 함께 물려받았으나 유산 상속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흥부전>의 표현처럼 ‘춘하추동 사시절에 남의 일만 모두 다 하는 고로 제 별이를 할 수 없네’ 또는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 물속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소냐’였다. 부자가 된 뒤에 제일 먼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흥부집으로 들어오는 나도 오늘부터 기민(饑民)을 헐란다’고 선언하고 아울러 놀부를 초청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이 부를 축적한 ‘노하우’도 모두 가르쳐 준다. 그는 가난의 밑바닥에서도 밝은 인간성을 잃지 않았지

만 부의 정점에서도 따뜻한 인간성에 때 묻히지 않았다. 무소유는 가난해서 가질래야 가질 것도 없는 것을 포함하지만, 부자가 되어도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이것은 청부(淸富)의 정신이기도 하다. 21세기 세계 자본주의는 이러한 흥부적 인간상에 의해 주도돼야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흥부는 일종의 환경인의 상이기도 하다. 오늘날 환경 사상의 궁극적인 도달점의 하나는 동물과 식물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광역 인권 개념이다. ‘짐승 살해를 아니하니 미륵의 벗이로다’라는 흥부는 제비를 먹으려는 구렁이를 보고 ‘무정타 저 대맹아 너 먹을 것 많았구나. 어이타 내 집에 와서 제비 새끼를 먹느냐고 꾸짖되 죽이지는 않는다. 다리 부러진 제비 새끼를 돌봐주는 정성하며 박씨 심어 박을 키우는 정성 또한 가족 사랑의 경지다. 그는 제비며 박과 인격적 교류를 하는 환경인의 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술적 효율을 추구하되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는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구실하고 있는 것이다. 신<흥부전>은 이러한 환경인적 모델을 더욱 완벽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흥부상은 정보인 모델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의 이곳 저곳의 밑바닥을 떠돌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인지라 지역사회 정보에 가장 밝은 입장이었지만, 다시 제비를 통하여 동남아와 중국 대륙 그리고 황해 연안과 조선 천지의 정보를 시야에 넣고 있다. 박씨는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의 정보를 다 파악한 반도체인 셈이다. 따라서 박에서 나온 물품은 한국의 각종 물품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제품도 포함되고 있으며 그 제품 가격은 금방 시장가격으로 환산될 정도이다.

마지막 다섯째로 흥부는 각종 이질적인 요소와 대립적인 관계를 껴안고 화해시키는 화해형 인간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 ‘더불어 사는’ 흥부적인 정신 필요

흥부는 제비도 끌어안고 뱀도 끌어안고 박도 끌어안고 모든 이질적인 요소를 끌어안고 결합시키면서 혁신을 연출했지만, 다시 가난한 사람도 포용하고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놀부형 인간도 포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어준다. 그는 남의 부를 이전 받아 자신의 부를 늘리는 제로섬 게임의 승자가 아니라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의 승자이며, 그러한 포지티브섬의 결과를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화해의 공동체를 이룩해 나간다.

한국은 동북아의 틀 속에서 경합하고 있는 4강을 끌어안고 화해시키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흥부적 화해상은 매우 시사적이다. 아울러 국내의 노사간·지역간의 모순을, 그리고 북한 동포의 굶주림을 흥부적 정신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한국이 넘어야 할 아리랑 고개는 아직도 많고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함께 사는 정신’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선진화도 통일도, 동북아 4강의 평화 협력의 증진도 흥부적인 함께 사는 정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한국인이 창출한 가장 평범하고 가장 비범한 흥부상의 현대적 재현이야말로 바로 위기에 빠진 한국의 사회경제적·국제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며, 21세기 세계사의 문명적 전환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원의 흥부 축제를 국민 축제로, 나아가 세계인의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신흥부가> 판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 스스로 흥부적 인간상을 닮아가 보자.

김영호/ 경북대교수·경제학 <한겨레 21·1997.3.13>

1. 경향분석

가) 논술 고사 반영 비율

(1) 수시 : 30~40% 당락 변동

① 인문계 : 언어논술(45%) + 수리논술(25%)

② 자연계 : 언어논술(25%) + 수리논술(45%)

(2) 정시 : 10~20% 당락 변동

① 인문계 : 수능(50%) + 학생부(40%) + 논술(10%)

② 자연계 : 수능(55.6%) + 학생부(44.4%)

나) 출제 유형

언어 논술	지문	형식	시간	문 제	글자수(수시)		글자수 (정시)
					요약	논술	
인문계	3~5개 지문	지문 요약 + 논술	120분	지문간 연관관계, 공통 주제 자신의 의견 서술	각 지문 당 110~140자	750~850	1600자
자연계				공통주제와 자신의 의견 간단히 서술	각 지문 당 110~140자	130~160	.

다) 논술의 특징

고려대 논술고사의 특징은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현상 또는 문제에 관해서 출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본질적 문제와 연결시켜 접근하는 이해 분석 사고 표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향을 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 분	문 제 내 용
수 시	I.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50점) II. 네 개의 제시문을 연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어 제시문 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50점)
정 시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제시문간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1,600±100자)

또한 정시든 수시든 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학생들 스스로 제시문 속에서 논제를 찾아내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하면 자신이 평소에 준비한 유사한 제제의 논술을 단순히 옮겨 놓는 경우가 많다. 많은 논술학습서가 평이한 논리나 양비론적 주장을 모범답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뚜렷이 담긴 글이 돋보인다.

라) 논술 문제 해결 요소

고려대 논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공통 주제를 발견해 내야 한다. 제시문들은 공통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나 학문적 입장(다수설, 소수설)과 관점(긍정이나 부정, 찬성이나 반대), 공통 주제의 다양한 특성들 및 여러 가지 요인들이나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둘째, 공통된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는 각 제시문의 연관관계를 밝혀야 한다. 제시문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따져 보아 그 연관관계를 해명해야 한다. 제시문에는 원리나 원칙론, 긍정 부정이나 찬반 등 다양한 입장, 다양한 영역의 각종 문제 현상이나 문제의 종류, 문제 현상에 대한 주제별 상이한 관점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한 답안은 낮은 평가를 받는다.

셋째, 공통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한다. 제시문들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에 나타난 현상과 그 다양한 의미를 해석하고, 공통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문제의 본질적 원인, 그 해결 방안 및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구체적 해결 방안

논술에 왕도(王道)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몇 가지 참고가 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주어진 물음’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간혹 문제를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논술 전반부에서는 문제를 바로 이해한 듯 싶는데 뒤로 갈수록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되거나 ‘물음’과 무관한 서술을 하는 등 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물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잊었거나, 혹은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음이 무엇인가’를 잊지만 앎는다면 무난히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주장과 논리적 서술과 논증을 구분한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적합성을 지닌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사례는 그 정당성을 실증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언어논술은 문예문이나 감상문의 작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부하거나 불필요한 비유 또는 유명인들의 저서나 이론의 불필요한 인용은 논술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번잡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가급적 논리적 근거를 갖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도록 한다.

넷째, 너무 흔한 사례나 드문 사례는 피하라.

예컨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례 또는 반대로 아주 궁벽한 사례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그것이 틀린 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언급하거나 혹은 수긍하기 어려운 예가 되면,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월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형화된 설명이나 비유 인용을 삼가라

채점자들은 대체로 학원의 정형화된 설명 방식이나 비유 인용에 식상해 한다. 수험생 개

인의 독자적 체험이 주는 구체성이나 창의성이 채점자를 설득하기에 유리하다.

여섯째, 모국어인 국어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영어 철자 하나 잘못 썼을 때는 당연히 틀린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국어의 철자나 맞춤법을 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주어+목적어+서술어’의 호응관계가 한국어 문법구조에 맞게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정해진 논술의 분량을 맞춰라.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 분량의 문제가 있다. 고려대에서는 논술의 분량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넘치거나 모자라는 답안은 감점의 요인이 된다.

2. 요약형 논술 문제 학습 전략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막론하고 요약형 문제는 최근 수시 논술 시험의 대세이다. 고려대학교는 논술고사에서 각 제시문을 요약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논술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한 완결된 요약을 해야 한다.

요약을 위해서는 제시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껏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영문 지문이 다수 출제되어 왔고 그 수준도 수능에 출제되는 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 라인’에 따라 영어 제시문은 논술고사에 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어 제시문이 없어졌다고 해서 요약 문제가 쉬워졌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체감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어 제시문이 없어지는 대신 국문 제시문은 한층 더 이해하기 까다로워 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 국문 지문은 비교적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대문이 아닌 고전에서 발췌된다. 이 때 수험생들은 무엇보다도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독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시문을 보고 주어진 글을 요약하라는 문제를 접했을 때 많은 학생들은 단순히 문장을 재조합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즉,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들을 주어진 지문의 문장 순서대로 서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약한다는 것은 좀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필요로 한다. 요약은 다른 사람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약은 장황한 글을 줄여 논거를 찾고 그 논거에서 다시 주제를 뽑아 간략히 정리하는 과정이다. 더욱이 요약형 문제에서는 글자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황한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된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 주제와 내용만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가) 요약의 일반적 원칙

요약의 일반적 원칙

- ① 선택의 원칙 ② 일반화의 원칙 ③ 변화의 원칙 ④ 재구성의 원칙

첫째, 선택의 원칙이란 중심 내용과 부속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지문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장들 간의 논리 관계를 살펴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둘째, 일반화의 원칙이란 다른 말로 추상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진술들로 이루어져 핵심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는 읽는 사람이 스스로 각각의 구체적인 진술들로부터 공통 분모를 찾아 추상화해서 일반적 진술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변화의 원칙이란 자신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고전이나 인문 철학적인 지문의 경우에는 어휘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문의 어휘를 그대로 쓰거나 잘못된 어휘를 사용하게 된다. 핵심 어휘는 그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모든 어휘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곤란하다.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는 것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므로 제시문의 요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넷째, 재구성의 원칙이란 글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롭게 뜯어 맞추는 것이다. 한 편의 글 속에는 관련된 내용이 흩어져 있을 수 있다.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계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주어진 순서대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지 말고 자신이 파악한 지문의 주제를 먼저 서술한 후에 뒷받침 문장을 서술하는 것이 좋다.

나) 요약할 때 주의할 점

- ① 주어진 글을 단순히 요약하라고 할 때, 자기 생각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견해는 논술형 문제에서 밝힐 기회가 있으므로 요약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힐 필요는 없다.
- ② 요약문을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쓰라는 것은, 제시된 글을 다 보지 않아도 요약문만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약문에 ‘글 (가)의 주장에 따르면’과 같이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 학습초점

고려대의 경우, 제시문 요약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시에서 자연계 학생의 경우, 언어 논술은 거의 요약 문제라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요약문 작성 시,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감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의 언어로 제시문의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3. 논술형 문제 학습 전략

요약형 문제는 독해력이 바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데 비해, 논술형 문제는 한층 더 까다로운 편이다. 그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제에 대한 힌트나 방향에 대한 언급 없이 전적으로 수험생이 찾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을 아우르는 주제를 찾는 것도 수험생의 몫이고, 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방법도 수험생이 담당해야 한다. 이는 내용 이해력과 파악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수험생들의 논리적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우선 제시문을 명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밝혀 공통의 주제를 찾아내려면 제시문 파악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시문 파악 능력의 바탕 위에 유기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가) 논술형 문제 작성 과정

논제 파악(출제의도 파악, 제시문 분석) → 자료 수집(배경지식 정리) 및 논지 확정
→ 개요 작성 → 본문 작성 → 퇴고

(1) 논제 파악 :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논제에 대한 이해와 출제 의도 파악, 제시문 분석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대강의 윤곽을 잡아놓는 것이 좋다.

(2) 자료 수집 및 논지 확정 : 논제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 볼 차례이다. 이 과정은 평소 틈틈이 쌓아 놓은 배경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모아 보는 것이 수월하다. 그런 후에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골라 선후 경중을 따져 배치하여 내용을 구상한다면 탄탄한 내용 전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개요 작성 : 개요 작성은 일관된 논지 전개와 적절한 분량 안배, 탄탄한 구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개요를 흔히 건물의 설계도에 비유한다. 설계도 없는 건물이 부실 공사로 무너지기 쉽듯이 적절한 개요 없는 논술은 논리나 구성면에서 허점을 보이기 쉽다. 개요에는 주제문, 서론, 본론, 결론의 핵심 내용, 단계별 세부 내용 등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4) 본문 작성 : 개요를 글의 뼈대라고 한다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본문 쓰기이다. 본문에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과 적절한 주제 제시, 타당한 논거가 드러나야 한다.

(5) 퇴고 : 퇴고는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로 글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다. 퇴고라고 하면 단순히 띄어쓰기나 맞춤법, 오자 수정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용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찬찬히 자신이 작성한 글을 읽어 보고 부적절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다른 내용을 덧붙여서 보다 완결된 글이 되도록 다듬어야 한다.

결국 논술은 글로 쓰는 시험이다. 아무리 배경 지식이 풍부하고 문제를 잘 파악했다 해도 글로 표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생각하는 바와 실제 글쓰기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글로 써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므로 기출 문제를 직접 써 보는 것이 좋다. 시험 시간에 맞춰 열심히 쓰고 선생님이나 선배들에게 평가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자.

4. 기출문제 주제 경향

논술은 글을 억지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푸는 시험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많은 지식보다는 체계적인 사고가 논술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보다 많이 쌓기를 바란다. 특히 단순히 논술 참고서나 예상 문제만을 준비하기보다는 주위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념이나 사실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

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꼼꼼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출 주제를 통해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을 정리해 보자.

가) 수시 주제

고려대 수시 논술의 논제로는 ① 과학 기술 문명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 ② 언어의 특성과 미래 사회에서의 언어와 인간의 관계, ③ 현대 사회의 소비 특성, ④ 정보화 시대의 종합적 사유의 필요성, ⑤ 평등, ⑥ 자아 정체성 형성, ⑦ 사회적 갈등 해결 등이 출제되었다. 이러한 논제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이고 원리적인 문제 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학년도	수시1학기	수시2학기
2002	기술문명과 삶의 양식	정보화 인터넷 축약
2003	현대사회의 소비의 특성	정보화 (정보와 사고)
2004	평등과 차별	정보화 시대의 자아정체성
2005	다양한 갈등	문화정체성과 보편성
2006	사소통	

나) 정시 주제

고려대 정시 논술의 논제로는 ① 소비 사회와 경쟁 사회에서의 건강한 삶, ② 예술적 감성과 사회적 환경의 관계, ③ 중용과 정의의 조화, ④ 개인들 간의 관계나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 여부, ⑤ 서구 중심주의의 사고 방식, ⑥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언어 사용의 방향, ⑦ 형식과 절차나, 실질과 내용이냐, ⑧ 과학 연구의 사회적 규제 여부, ⑨ 인간성과 사회 제도의 기능, ⑩ 소유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사회 문제점 해결 방안, ⑪ 현대 사회 합리성의 특성 설명과 비판, ⑫ 다양한 삶을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삶에 대해 논술, ⑬ 사실과 해석의 관계, ⑭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 등이 이제까지 출제되었다.

학년도	정 시 내 용
1998	국제 관계에서의 규제의 정당성
1999	현대사회에서 과학의 의미
2000	제도의 양면성
2001	소유에 대한 다양한 인식
2002	현대사회의 합리성
2000	현대사회와 삶의 개념
2001	상대성과 객관성
2002	크기의 상대성

다) 논술 예상 주제

－ 법의 목적과 바람직한 수용 태도

- 자유와 평등의 적용 범위와 조화
- 생명 공학의 발전과 관련 문제
- 노동의 의미와 삶의 조건
- 여론의 올바른 수용과 언론의 역할
- 바람직한 역사 인식 태도
- 현대 사회의 지식인의 역할

라) 논제 해결 방식

이런 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핵심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이다.

- (1) 여러 가지 현대 사회나 문명의 특성이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 (2)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특성과 요소들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 검토해 보고, 그것들을 근거로 하여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성찰하기를 요구한다.
- (3) 특정한 사고방식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 평가하며,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요구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5. 채점 기준과 방향

고대 논술시험 답안은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 채점한다.

1. 논리적 구성력 : 논리적 구성의 적절성과 논제의 적합성 등
 - 논술된 사항의 상호 유기적 연결성
 - 해석에 대한 적절한 논거의 제시
 - 논리 전개 of 일관성
 - 문단간 또는 문장들의 연결성과 통일성
2. 이해력 및 창의력 : 예시문에 대한 이해력, 논술문의 사고 깊이와 창의성 등
 - 예시문의 이해 정도
 - 논술해야 될 내용들의 포함 여부
 - 논지의 창의성
3. 문법 원고지 사용법 문장력 : 논술 문장의 문장력과 문법, 원고지 사용법 등
 -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 단어의 선택과 활용, 언어적 표현능력
 - 문장의 어법

II-1

고려대 실전논술

<I> 문 제

※ 다음 네 개의 제시문에 공통되는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시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가]

우리가 가진 근본 욕구들 중에는 도덕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큰 조직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불가피하게 억압받고, 조직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받는다. 그 규칙은 인간에 의해 고안되었지만 인간 자체는 아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만들어졌어도 거기에는 ‘사람의 손길(human touch)’과 같은 유연성이 없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의 구성원은 도덕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게 된다.”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걸 제가 받은 지시 사항입니다.” 이처럼 큰 조직들은 아주 불량하고 부도덕하게, 또는 아주 어리석고 비인간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는 그 구성원들이 본래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조직의 크기에서 오는 하중을 받기 때문이다.

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지만 이런 비판은 마치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서 운전자를 나무라는 것과 같다. 천사라도 공기를 더럽히지 않고 차를 운전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결국 잘못된 것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조직의 크기에 있는 것이다. 개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는 부도덕하다.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거대주의에 의한 합리화’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너무 커진 규모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나]

야구공은 큰 공인가 작은 공인가? 야구공은 탁구공에 비해서 크지만 축구공에 비해서는 작다. 강은 개울보다 크지만 바다보다는 작다. 야구공도 크다고 말할 수 있고, 강도 작다고 말할 수 있다. 개울만 보던 사람에게는 강이 커 보이지만,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에게는 강은 작아 보일 것이다.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작아 보여 깜짝 놀라기도 한다. 어릴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대문이 이제는 작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의 그림에서는 종종 사람의 얼굴이 몸보다 크게 그려진다. 아마도 어린이의 심리적 경험 속에서는 얼굴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신라의 고승 의상 대사는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었다”고 갈파했고,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도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고 노래했다. 티끌이 곧 우주요 모래가 곧 세상이라면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오늘날 조그만 메모리칩 하나에 거대한 도서관을 담을 수도 있으니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치열한 극소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 개발된 메모리 칩이 더 작아진 것인지 더 커진 것인지 말하기 곤란하다. 외형이 작아져도 용량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조그만 나비의 날갯짓이 바다 건너 거대한 허리

케인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에 대해서 말한다. 또 원자보다 작은 극소의 세계와 우주와 같은 극대의 세계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의상 대사와 블레이크가 노래한 바가 문학적 수사만은 아닐 것이다.

[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나 민족은 물론 지역과 도시까지도 지나치게 크고 추상적인 조직체로 보인다. 사르트르는 오늘의 사회가 ‘잡히지 않는 전망’을 이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도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의하여 제약받게 되어 있지만, 이 관계의 정확한 포착은 우리 손을 벗어나 계속적으로 도망가게 마련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제한하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현대사회의 기괴한 조직은 도시에서 잘 나타난다. 문화의 참 생명력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향상과 해방과 풍요화에서 온다면, 우리의 문화에 대한 생각도 ‘잡히지 않는 전망’을 넘어가는 것이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핵심적인 문화공간은 민족이나 도시보다도 더 작은 집단이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집단, 사회학자들이 ‘대면집단’이라고 부르는 사회공간이 우리의 문화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공간은 하나의 확정된 물리적 구획으로보다는 여러 집단의 유기적인 상호관계 속에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대면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개인적 자아의 내면공간에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또는 도시로 변해나가고 국가나 민족 그리고 세계의 지평으로 둘러싸인다.

소집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체적 삶의 공간으로서 구체적 인간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이나 도시는 이 소집단에 다양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필수적 요인이 된다. 도시든, 지역이든, 국가든, 이러한 것들은 소집단의 구체성의 원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는 ‘잡히지 않는 전망’ 또는 제약으로서만 작용하는 조직이기를 그칠 것이다.

[라]

북녘 바다에 곧(鯨)이란 물고기가 있다. 그 몸집은 몇 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물고기가 화(化)해서 새가 되는데, 이름 하여 봉(鵬)이라 한다. 봉의 몸집 또한 몇 천 리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놈이 한 번 화가 나서 날았다 하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을 가린 구름처럼 모든 것을 뒤덮는다. 괴이한 이야기만 적어 놓은 『제해(齊諧)』라는 책에서는 “대봉(大鵬)이 남녘 바다로 날아가려면 물 위를 삼천 리나 달려야 비로소 날아오르게 되고, 그런 뒤 다시 날개로 바람을 치면서 구만 리를 올라가서야 항로를 잡는다. 그러고는 그대로 육 개월을 날아 목적지인 남녘 바다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몸집이 크면 그를 받아들이는 공간도 커야 하고 정신이 위로 비상하려면 그 정지 또한 높아야 한다. 바람의 공간이 넓지 않으면 큰 새가 날 수 없다. 대봉이 바람을 치며 구만 리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도 그래야만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아무런 장애 없이 남녘 바다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치를 모르는 매미와 새끼 비둘기가 비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뽕나무 그늘에서도 얼마든지 힘껏 날 수 있고 잠깐 사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구만

리나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가는 것일까? 불과 두어 길 되는 공간에서도 뛰놀 수 있고 쭉대밭 사이에서도 자유로이 날 수 있으니, 이 또한 최대의 소요(逍遙)가 아닌가? 어째서 대붕처럼 날아야만 제일이란 말인가?"라고 한다. 작은 지혜(小知)는 큰 지혜(大知)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시간(小年)은 긴 시간(大年)에 미치지 못한다. 하루살이가 밤과 새벽을 알 리 없고 여름벌레가 눈과 얼음을 알 리 없는 것이다. 이것이 큼(大)과 작음(小)의 차이이다. 새끼 비둘기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

◆ 유의사항 ◆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3.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총 1,600±100자가 되게 할 것.

■ 생각해 보기

1. 각 제시문들의 요지를 파악하고, 다른 제시문들과 비교, 평가하면서 독해하여 공통 주제를 명료하게 제시해 보자.
2. 위에서 밝힌 공통 주제를 기준으로 제시문들 간의 연관 관계를 밝혀보자.
3. 공통 주제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자.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언어 논술 시험은 중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해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번 논술의 주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이다. 제시문들은 각각 큰 것의 한계,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인식의 상대성, 작은 단위의 중요성, 큰 것의 절대적 우위성 등을 전제하거나 강조한 글이다. 크기에 관련된 구체적 사례와 이들의 암묵적 전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과 분석력, 표현력을 평가하려 한 것이다.

큰 것과 작은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큰 규모의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작은 공동체에도 속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속해 있는 큰 조직과 소집단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큰 것과 작은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는 것은 큰 조직과 소집단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제의 요구사항이 공통된 주제를 찾고 연관 관계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자신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통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한다고 해서 논술의 제한 영역이 없는 자유로운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막연하게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기 보다는 제시문들의 연관관계를 하나의 테두리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논술 영역을 확정난 후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는 것이 좋다.

2. 논제 파악

이 문제는 지시문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① 공통된 주제가 담겨 있는 네 개의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과, ②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문제는 발문에서 제시문의 독해 방향만을 지시하고 있을 뿐, 논제는 수험생 자신이 제시문에서 찾아내야 하는 개방형 논술이다.

이런 유형의 논술에서는 발문의 지시에 따라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다. 이 문제의 경우 제시문을 읽어 보면, ‘큰 것과 작은 것’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제시문부터 분석해보자.

■ 제시문 (가)

제시문 (가)의 요지는 ‘단순하고 작은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슈마허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그 거대 조직의 구속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충동’을 억압받고 규칙의 강요를 받으면서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가진 사회를 부도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책(『내가 믿는 세상』)은 슈마허의 이전 저술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후속편으로 그의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인간 중심의 경제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출제진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는 상대적’이라는

요지의 글이다. 우리가 보통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지칭하는 그 사물의 보통 크기에 비해서 외형적인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더 크거나 작다는 뜻이다. 즉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이 글은 야구공과 강의를 예를 들고 있다. 야구공은 탁구공에 비해서 크지만 축구공에 비해서는 작다. 강의 경우, 개울보다는 크지만 바다보다는 작다.

이 글의 필자는 의상 대사의 말이나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을 인용하고, 반도체 메모리칩이나 ‘나비 효과’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큰 것과 작은 것은 그 개념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우창의 「사회 공간과 문화 공간」에서 뽑은 것이다. 이 글의 요지는 ‘작은 단위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집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체적 삶의 공간으로서 구체적 인간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지나치게 크고 추상적인 조직체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제한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공간은 민족이나 도시보다는 더 작은 소집단, 즉 대면집단과 같은 사회 공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문화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현대 사회에서 집단의 비대화에 따른 ‘잡히지 않는 전망’의 현상을 지적하고, 대면 집단인 소집단의 원칙이 항상 우리 사회의 근저에 자리 잡아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중국 전국시대 도가(道家) 사상가인 장자(莊子 BC 365? BC 290?)의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서 뽑은 것이다. 여기서 ‘소요유’라는 것은 구애받는 것이 없는 느긋한 놀이라는 뜻으로 속계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스러운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물론 장자의 도가사상에 대한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으면 더 독해하기가 쉬웠겠지만, 주어진 제시문만을 가지고도 요지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 글의 요지는 ‘큰 것의 위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자는 이 글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시간은 긴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하루살이가 밤과 새벽을 알 리 없고 여름벌레가 눈과 얼음을 알 리 없는 것이다. 이것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이다. 새끼 비둘기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 즉 대붕과 같이 크고 위대함을 새끼 비둘기와 같이 작은 것들은 그 경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자가 말하는 크고 위대한 것이란 ‘무사무아(無私無我)’를 통해 ‘소요유’에 이르는 경지일 것이다. 반면 작은 것은 자연의 도리를 어기고 현실적 속박과 고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장자는 단순한 외형의 크기가 아닌,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큰 시야와 통찰이라는 내면적 크기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제시문 연관 관계 파악

제시문 (가)는 큰 것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인식의 상대성을, 제시문 (다)는 작은 단위의 중요성을, 제시문 (라)는 큰 것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제시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제시문의 순서에 따라 병렬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크기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제시문 (가)과 제시문 (라)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제시문 (가)에서 슈마허는 큰 조직에 구속받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비효율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고 단순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라)에서 장자는 ‘정신이 위로 비상하려면 그 경지 또한 높아야 한다.’면서 큰 것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장자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슈마허를 만났다면 ‘새끼 비둘기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라며 외면했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 작은 단위의 중요성을 주장한 제시문 (다)의 김우창 교수는 슈마허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지나치게 크고 추상적인 조직체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제한 한다’는 주장이 슈마허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큰 것과 작은 것의 싸움에서 인식의 상대성을 주장한 제시문 (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에도 큰 우주가 담길 수 있고, 크고 작다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통해 양측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제에서 요구한 네 개의 제시문에 담긴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힐 순서이다. 짐작하였듯이 네 개의 제시문이 공통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이다.

3. 문제해결

마지막으로 크기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일이다. 제시문들의 관계를 설정하는데서부터 이미 학생들의 관점이 부각될 것이다. 자신의 견해는 ‘사회의 크기’나 ‘개인의 크기’ 둘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되 양적인 크기와 질적인 크기, 외형적 크기와 내면적 크기 양면을 균형감 있게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시문 (가), (다)에 동조하는 경우

우선 제시문 (가), (다)의 경우와 같이 ‘작고 단순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다. 이 입장에서는 제시문 (가)에 동조하면서 제시문 (라)의 주장인 ‘큰 것의 위대함’을 비판하면 된다.

누구나 그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다. 이 규범들은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을 바탕으로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삶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조직을 위해 태어나고, 살아가며, 죽어간다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특히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국가와 같은 거대 조직이 오히려 개개인을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개인의 욕구를 억누른다면 그 조직에 가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고 단순한 것’이 합리적이며 개인의 욕구를 억압받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제시문 (라)에 동조하는 경우

다음은 제시문 (라)의 경우와 같이 ‘큰 것은 위대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제시문 (가)의 슈마허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거대 조직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제시문 (가)의 슈마허는 거대 조직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비합리적’이라는 명제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해보자. 효율성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우리가 보유한 자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전혀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모두가 걸어 다니는 집단이 있다면 가장 효율성이 높은 조직인가? 그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이고 경제적인 가치 판단이 아닌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어떤 사회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복지제도를 잘 갖춘 거대 조직인 국가에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조직의 합리적 운영도 가능하다.

한편, 세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은 것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을 새로운 국제 사회의 강자로 두려워하는 것도 중국이 무서운 경제 성장을 통하여 강력한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고 단순한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큰 것’을 지닌 이들의 배부를 소리처럼 들린다.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이 어떤 조직들인가? 모두 거대한 조직의 국가들이다. 국제 사회에서 작고 힘없는 조직들은 모두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내맡겨져 있지 않은가? 정말로 ‘작은 것이 아름다운가?’

■ 제시문 (나)에 동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시문 (나)와 같이 크고 작은 것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니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제시문 (가), (다)의 ‘작고 단순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과 제시문 (라)의 ‘큰 것이 위대하다’는 주장 모두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조직의 크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어떤 흑백논리의 갈등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형 메모리 반도체칩 하나에 도서관 하나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나비의 날갯짓이 바다 건너 거대한 허리케인을 일으키듯이,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는 의미가 없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의 크기를 중시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앞서 논한 각 주장의 문제점을 모두 거론하면서 크고 작은 것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이라는 주장으로 마무리 하면 될 것이다.

4. 예시개요

■ 주제문: ‘큰 것’이 빚어낸 문제 상황을 ‘작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 서론: 오늘날 우리는 ‘큰 것이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다. 큰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 본론

1.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네 개의 제시문 간의 어떤 연관 관계 파악

- 제시문 (가), (다)와 제시문 (라)는 서로 대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별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는 인식의 관점이 일치한다.
- 이와는 달리 제시문 (나)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별 자체를 부정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은 단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 큰 것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물질적 풍요와 여러 가지 폐해

-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장

■ 결 론 :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

5. 예시답안

오늘날 우리는 ‘큰 것이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다. 집이야 물론 클수록 좋고, 그러다보니 가전제품이며 가구, 자동차들도 모두 대형이다. 이러한 대형화 추세는 인간관계에도 파고 들어 거대한 관료제가 우리 사회를 촘촘히 장악하면서, 인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큰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해 볼 필요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제시문들의 공통주제는 큰 것과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시문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보자. 제시문 (가)에서 큰 조직은 인간의 도덕적 욕구를 억압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큰 것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가)와 같은 맥락에 있는 제시문 (다)는 지나치게 커서 추상화되어 버린 큰 사회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소집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주장하며 작은 것의 가치를 옹호한다. 제시문 (라)는 제시문 (가), (다)와는 반대 입장에서 큰 것의 존재 의미를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즉, 큰 것과 작은 것은 그 존재 방식이 다르므로 작은 것의 눈으로는 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큰 것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제시문 (가), (다)와 제시문 (라)는 서로 대립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별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는 인식의 관점이 일치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제시문 (나)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별 자체를 부정한다. 즉, 큰 것과 작은 것은 단지 상대적인 개념일 뿐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남보다 덩치가 조금이라도 크고 발 빠른 행보를 하는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 생각한다. 특히 빠른 성장이 더 많은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과연 ‘큰 것’이 지배하는 사회가 현대인에게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풍요를 안겨 줄 수 있을까. 서구 세계의 경제 구조를 바라보면서 개발 논리가 위험수위를 넘어 경제적 비능률과 환경오염, 자연의 불균형, 비인간적인 작업 조건을 낳았고 성장 지상주의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성장 지상주의는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자연 환경을 오로지 성장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이러한 ‘큰 것’으로의 성장 방식은 인간과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할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슈마허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과 경고의 메시지이다. 부분적으로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면, 탐욕의 패러다임으로 가득 찼던 때보다는 분명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인간은 우주의 작은 부분이다. 따라서 작은 것이 아름다우며, 거대함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기 파괴로 치닫는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작은 것’은 물건이 작아야 한다면가 설계가 간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작은 것’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일터가 건전해야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결국 ‘작은 규모’가 커져만 가는 현대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다.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하는 사회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

<III> 읽기 자료

■ 작은 것이 아름답다 - E. F. 슈마허

‘불교 경제학’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동양 문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작은 것, 중간 기술’에 대한 그의 이론은 현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현재 이야기되는 생태 경제학, 재생 에너지의 이용, 경박단소(輕薄短小)의 기술, 소규모 조직으로의 변화 등은 모두 그의 이론에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실린 부분에서는 산업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주의적 접근 방식과 생태주의적 접근 방식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즉, 기술의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거처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인류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인류의 장래를 좌우할 두 가지의 대립적인 태도를 이로써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쪽에는 삼중(三重)의 위기 - 첫째, 기술이나 조직, 정치 등이 인간성을 거역하여 건디기 어려우며, 사람의 마음을 침식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인간의 생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생물계라는 환경이 손상되고 부분적으로 붕괴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셋째, 재생 불가능한 세계의 자원, 특히 화석 연료 자원의 낭비가 극도에 이르러 머지않은 장래에 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방식을 철저히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를 맹진파(猛進派)라 부르고 있다.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모색하여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진리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고향파(故郷派)라 부른다.

핵심어구: 두 가지의 대립적인 태도, 맹진파와 고향파

맹진파는, 악마가 그렇듯이, 아름다운 가락이나 적어도 제일 인기 있고 귀에 익은 가락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있음을 인정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지해 있으면 넘어져 버린다.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대 기술에는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완성시키자.”

유럽 공동체의 가장 뛰어난 수뇌의 한 사람인 시코 만스홀트 박사는 아마이 집단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는 “더 많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풍족하게”가 현대 사회의 모토”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박사는 “이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순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맹진파의 권위 있는 보증이 달린 주장이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왜 너는 우리를 방해하려 왔느냐”라는 대심문관(大審問官)의 말과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 집단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세계적인 규모로 기아가 엄습해 오리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진해야 하며, 나약한 생각은 금물이다. 민중이 항의를 하며 반란을 일으키면, 경찰을 늘리고 그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 문제가 있다면 공해 규제법을 엄하게 만들고, 공해 대책 비용을 엄출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천연 자원이 문제라면 인조 자원을 연구하면 된다. 화석 연료에 문제가 있

다면, 원자료를 고속 증식도로 바꿔 핵분열로부터 핵융합으로 나아가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따위는 없는 것이다. 맹진파의 슬로건은 매일 신문의 타이틀이 되고 있으며, “하루 한 가지의 기술 혁신으로 위기는 피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핵심어구: 맹진파의 슬로건

다른 쪽 집단을 살펴보자.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인류가 그릇된 기술 진보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고향파’라는 호칭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시대의 유행에 ‘단호히 반대하고,’ 반드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보였던 물질 문명의 전제 자체를 의심하는 데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며, 그 용기는 깊은 신념에서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반대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것은 일단 유사시에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진짜 고향파에게는 듣기 좋은 가락의 노래는 없지만, 복음서라는 성전(聖典)이 있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 즉 우리의 상황을 방탕한 자식의 비유 이상으로 간결하게 서술한 것은 없으리라. 기묘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산상 수훈(山上垂訓) 속에는 “살아남기 위한 경제학”의 토대가 될 기본적인 생각을 구축할 방법에 대한 매우 정확한 지시가 들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중 략)

핵심어구: 고향파, 살아남기 위한 경제학

이 ‘복(福)’을 기술과 경제에 결부시키는 것은 난폭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이를 결부시키는 일을 너무 오랫동안 태만히 해온 때문이 아닐까.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 ‘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지만 반신(半神)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많지만, 황금 시대는 멀다.

우리는 온유한 길과 비폭력의 마음을 구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우리는 의로움을 구하며 올바른 것을 구한다.

이 모든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도록 만든다.

핵심어구: ‘복’, 작은 것이 아름답다

나는 기술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여, 기술이 인간의 진정한 필요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인간의 키에 맞추는 방향이기도 하다. 인간은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 훌륭한 것이다. 거대함을 추구하는 일은 자기 파괴로 통한다. 그러면 방향 전환에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것인가. 살아남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는 일은 사도(邪道)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가치 있는 일이 손에 거저 들어오지는 않는다. 기술의 방향을 전환시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작용시켜 두려움을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구: 기술 발전의 새로운 방향

[해설 강의]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1911~1977)의 대표저작이다. 대량소비사회의 경제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성 파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어떻게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책의 요지다. 따라서 성장 지상주의는 맹목적인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저자는 ‘작은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지역 노동과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을 만들어야 하며 더 작은 소유, 더 작은 노동 단위에 기초를 둔 ‘중간기술’ 구조만이 세계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간 기술’이란 인간을 생산 과정에 복귀시켜 생산수단의 부재로 빈곤에 시달려온 많은 사람을 구제할 방법으로, 대량 생산 대신 ‘대중에 의한 생산’을 이루어줄 유일한 대안이다.

■ 논쟁거리

1. 유통구조의 대형화로 인한 문제점
2.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문제 - 재벌개혁
3.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
4. 첨단 문화와 ‘느림’의 미학

<I> 문 제

※ 다음 네 개의 제시문에 공통되는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시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가]

낙원에서 노동하는 것은 고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즐겁기만 하였을 것이다. 인간의 노동 덕분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바는 자라나고 성숙하여 풍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었다.

(중략)

하느님이 인간을 낙원에 들여보내신 것은 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노동하는 사람은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의 시선을 창조계 전체로 옮겨간다. 정말 세계는 한 그루 나무와 같다. 세계에는 섭리가 이중으로 작용한다. 자연에 맡겨진 부분과 의지에 맡겨진 부분이 이중으로 작용한다. 그 모두가 인간이 교육을 받는 표지이고, 교양을 쌓는 밭이며, 인간이 발휘할 기술인 것이다. 이제 의미가 밝혀진다. 하느님이 인간을 낙원에 들여보내신 것은 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는 뜻에서였다. 그것은 노예가 하는 강제 노역이 아니라 자유 의지에서 우러난 지성인의 작업이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것처럼 순진무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인간이 그것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수행한다면 노동보다 고상하고 그보다 성취적인 일이 또 있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 ‘창세기 축자 해석’에서

[나]

공장을 끼고 흐르는 작은 내를 건널 때는 숨을 쉬지 않았다. 시커먼 폐수와 폐유가 그냥 흘렀다. 근로자들은 아침 일찍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녁 때 노동자들은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계속 조업 공장의 새벽 교대반원 얼굴에는 잠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공원들은 잠을 쫓기 위해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일했다. 영국의 상태는 아주 끔찍했었던 모양이다. 로드함 공장에서는 어린 공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채찍질을 했다는 기록을 나는 읽었다. 이 로드함 공장이 오히려 인간적이었다는 기록도 나는 읽었다. 리턴 공장에서는 어린 공원들이 한 공기의 죽을 먹기 위해 서로 싸웠다. 성적 난행도 당했다. 공장 감독은 무서웠다. 공원들의 손목을 묶어 기계에 매달았다. 공원들의 이를 줄로 갈아버릴 때도 있었다. 리턴 공장의 공원들은 겨울에도 거의 벌거벗고 일했다. 하루 열네 시간 노동은 보통이었다. 공장 주인은 노동자들이 시계를 갖는 것을 금했다. 하나밖에 없는 공장 표준 시계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했다. 이들 노동자와 가족들이 공장 주변에 빈민굴을 형성하고 살았다. 노동자들은 싸고 독한 술을 마셨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복음만이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참혹한 생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아편을 쓰는 사람도 있었다. 자식에게까지 쓰는 사람이 있었다. 공장 주인과 그의 가족들은 상점이 들어선 깨끗한 거리, 깨끗한 저택에서 살았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교외에 그들의 별장이 있었다. 신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영국의 노동자들은 공장을 습격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때려 부순 것은 기계였다. 프랑스의 철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망치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절망에서 나온 부르짖음이었다.

조세희,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서

[다]

오늘날 생산물만이 증식되고 그것을 만들어 낸 노동이 등한시된다는 것은 단지 상점이 나 시장, 무역의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인 공장 안에서도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적으로 동일하다. 작업상의 협력이나 이해, 상호평가란 그야말로 고위층의 권한에 속할 뿐이다. 노동자 계층에 있어서 여러 부서와 여러 직무 사이에 형성된 관계란 다만 사물간의 관계일 뿐 인간 상호간의 관계는 아니다. 부품은 명칭과 형태, 원료가 기업된 쪽지가 붙여져 유통된다. 이 부품이야말로 바로 인간이며, 노동자는 다만 교환 가능한 부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품은 제조 명세서를 갖는다. 또 몇 개의 큰 공장의 경우처럼 노동자가 출근시에 죄수같이 가슴에 번호를 단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그 신분 확인 절차는 가슴을 찌르며 고통을 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사물이 인간의 역할을 하고 인간이 사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악의 근원이다. (중략) 큰 공장은 물론이고 조그만 공장에서도까지도 많은 남녀 노동자들은 명령에 의해 있는 힘을 다해서 대충 1초마다 한 번씩 행하는 대여섯 개의 단순한 동작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따름이다. (중략) 기계 작업은 마치 시계의 똑딱 소리처럼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경우 하나의 일이 끝나고 다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의 기운 빠지는 듯한 단조로운 소리를 오랫동안 듣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노릇이지만, 노동자는 자기 몸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몬느 베이유, ‘노동일기’에서

[라]

우리는 노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 채플린의 ‘모던타임스’나 르네 크렐의 ‘우리에게 자유를’을 연상합니다. 분명 그들의 이미지나 비판은 지난날 옳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산업주의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 급속히 진화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분업화된 공장 노동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비참합니다. 그러한 공장형의 노동은 오피스에도 들어와 개개의 노동자는 작은 반복 작업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자기의 일이 전체에 이어진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재량이나 창조력을 발휘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직업을 보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노스텔지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이제까지의 ‘제 2의 물결’ 산업에서는 공정을 분업화, 반복화해서 인간이 기계처럼 되어 일하는 것이 능률을 올리는 요령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컴퓨터가 더 빠르게 잘해 주고,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해 줍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은 시대와 함께 채산성도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조건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중략)

‘제 3의 물결’의 노동자는 더욱 독창적이고 더욱 지능적이라서 이제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기능과 특수 지식이 있는 인간입니다. 자기 전용의 연장 상자를 가지고 있었던 산업혁명 이전의 직업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말하자면 ‘두뇌 노동자’는 기능과 정보가 가득히 들어 있는 ‘두뇌 도구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련 노동자가 갖

지 못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자는 자립한 직업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아무하고나 교체가 가능한 조립 라인의 노동자와는 그 질이 다릅니다. 젊고, 교육 수준도 높고, 반복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일을 해 내기 때문에 상사의 잔소리를 싫어하고 항상 자기 주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애매한 공정이나 직제의 변화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노동력이며 그 수는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 2의 물결’에서 ‘제 3의 물결’로 옮겨짐에 따라 새로운 가치 체계가 생겨남과 함께 노동자의 기능도 새로워집니다. (중략)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와 정반대, 말하자면 ‘마르크스를 물구나무 세운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흥성하는 부문은 수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에 의한 동일화, 규격화된 반복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적응력과 독창력과 고학력을 갖춘, 개성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의 노동자입니다.

앨빈 토플러 ‘전망과 전제’에서

◆ 유의사항 ◆

1.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내외로 쓸 것(± 100자 허용).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수험번호, 성명 등 자기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4.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되게 할 것.
5. 어문 규범을 지킬 것.

■ 생각해 보기

1. 각 제시문들의 요지를 파악하고, 다른 제시문들과 비교, 평가하면서 독해하여 공통 주제를 명료하게 제시해 보자.
2. 위에서 밝힌 공통 주제를 기준으로 제시문들 간의 연관 관계를 밝혀보자.
3. 공통 주제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기해 보자.

<II> 해 설

1.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제시문을 읽고 그 의미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인식 능력과 아울러 글 읽기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스스로 문제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체계적으로 자기 논리를 개진하는 비판적 논리의 체계화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 읽기를 통한 문제 발견 및 해석 능력, 문제와 관련한 의견의 조정 및 추론 능력,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및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인간 자체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노동’을 주제로 출제하였다. 노동의 보편적 이해와 구체적 현실 그리고 변화된 정보화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전망 등을 다룬 네 개의 제시문을 읽고 노동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펼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노동의 새로운 조건과 의미를 타진하고 구체적인 논거를 찾아 자신의 견해를 쓰도록 한 것은, 노동에 대한 평소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제 파악

■ 제시문 (가)

(가)에서는 ‘노동은 고상하고 성취적인 일’이라 하여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 ‘하느님이 인간을 낙원에 들여보내신 것은 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여 노동을 천부적이며 신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문 (가)는 노동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제시문 (나), (다)

반면 제시문 (나)와 (다)는 노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동의 역사 진행 과정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도 변해 왔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굴욕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고 사회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현대 산업사회 최고의 가치인 효율성과 생산성은 ‘분업’이라는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었고, 노동자들은 생산 라인 혹은 그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단순 작업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소진해 갔다. 거기에는 어떠한 인격적 대우도 없고 단지 언제나 교체 가능한 기계 부품으로만 존재하면서 인간 소외라는 현대 사회의 고질병을 겪게 된다.

조세희의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서 발췌한 제시문 (나)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유럽 노동자들이 겪었던 극단적인 착취와 인권 유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시몬 베유의 ‘노동일기’에서 발췌한 (다)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자가 겪는 소외, 비인간화를 고발하고 있는 글이다.

■ 제시문 (라)

제시문 (라)에서 엘빈 토플러는 ‘제 3의 물결’ 사회 즉,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노동의 의미는 산업 사회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노동의 새로운 의미를 전망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노동자는 독창적이고 지능적인 전문인이며 기능과 정보가 가득히 들어 있는 ‘두뇌 도구 상자’란 생산 수단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 사회의 노동자와 질적으

로 다른 개념이다. 미래 사회가 이런 노동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그 사회와 조직은 문명의 발전에 뒤처져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문제해결

이렇게 노동의 보편적 이해(가)와 구체적 현실[(나)와 (다)] 그리고 변화된 정보화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전망(라) 등을 다룬 제시문을 읽고 노동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펼쳐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구 사항이다.

다른 각도에서 각각의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혀보면, (가)는 노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와 (다)는 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라)는 현대 사회의 조건 변화에 의해 노동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글의 기본 구도는 노동이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조건에 따라 인간에게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라는 흐름이 이러한 면 중 어느 방향으로 노동을 변화시킬 것인가는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라)의 필자는 노동의 부정적 성격을 사회변화가 극복할 것이라 예측하는데 과연 그러할 것인가도 생각해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라) 필자의 주장이 반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노동의 새로운 조건과 의미를 타진한 (라)의 입장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때 평소의 견해를 그냥 기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지 말고, (가)와 (나), (다)에서 논거로 활용할 내용을 찾아서 논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라) 견해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라)의 견해에 찬성할 경우에도 정보화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결론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반대로 (라)의 견해에 반대할 경우에는 정보화의 도입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밝혀 주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4. 예시개요

■ 주제문: 노동의 변질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소외 현상을 막고 노동의 본연적 가치 회복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서 문: 우리사회에서의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간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본 문

1. 대량 생산 체제 도입 전까지 노동은 긍정적 역할[(가) 활용]을 하였으나, 그 후로 인간의 기계 부품화, 단순 작업의 반복, 노동자 착취 등 부정적인 사례 [(나)와 (다) 활용]가 속출하고 있다.
2.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3의 물질이라는 새로운 가치 체계의 도래가 '두뇌 노동자' 출현을 예측하고 있다. 이제까지 노동자들이 받았던 폐해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라) 활용]

3. 하지만 노동의 본연적 가치를 원상 복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① '두뇌 노동자'는 지식과 정보의 편중된 현 사회에서 또 다른 특권 계층으로 노동자 착취 양상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그로 인해,

②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간 소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 결 론 : 노동의 본연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① 일자리를 제공하고, ②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③ 노동자를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5. 예시답안

시오노 나나미는 한 작품에서 노동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노동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동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다. 수많은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은 단순히 생계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인간은 더욱 소외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제 기능 상실에 대한 원인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전락하기 전까지는 즐거운 행위였고 주어진 소명이었다. [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노동은 '자유의지에서 우러난 지성인의 작업'이고 하나의 권리였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대량생산체제의 도래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다]에서 보여주듯 대량생산체제는 노동의 주체인 인간을 기계부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분업을 도입하였고 노동자는 한가지의 작업을 맡게 되어 자신의 일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도 모른 채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역할로 전락한 것이다. [나]에서 노동자의 기계 부품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의 창출을 위하여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시작하였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인권유린 등의 착취를 통해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제 기능상실로 인한 인간소외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의 견해이다. [라]에서 엘빈 토플러는 제 3의 물결이라는 새로운 가치체제의 도래로 인해 종전의 개념과는 다른 독창적이고 지능적인 '두뇌 노동자'의 출현을 예측하고 있다. '두뇌 노동자'의 출현으로 인해 산업 사회에서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받는 폐해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기계 시대의 노동자의 개념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라]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으로 새로운 노동자 개념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은 옳으나 이는 노동의 본연적 가치를 원상복구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산업화 시대의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양상이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뇌 노동자'들은 지식과 정보가 곧 '부'인 현 사회에서 특권계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교육 기회가 불균등한 현실에서 자본가-노동자의 구도가 두뇌 노동자-일반 노동자의 양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둘째, 로봇과 소수의 두뇌 노동자가 생산을 전담하게 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에게서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다수의 실업자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인간의 소외라는 문제점은 더욱 심화된다.

노동의 본연적 가치는 대량생산체제의 도래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앞으로의 지식정보사회의 출현 역시 노동의 본연적 가치를 침해한다. 노동의 본연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을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 노동자를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의 대책이 실현되어야 산업화로 인한 또, 앞으로의 지식정보사회로 인한 노동의 본연적 가치의 상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변질로 인해 발생한 인간 소외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

<III> 읽기 자료

■ 미디어의 이해 - 마셜 맥루언

미래의 노동은 자동화 시대의 ‘생활 배우기’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전기 테크놀로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것은 문화와 테크놀로지, 예술과 상업, 일과 여가라는 낡은 이분법을 없애 버린다. 단편화가 지배적이었던 기계시대에는 여가란 일이 없는 것, 또는 단순히 놀고 지내는 것이었지만, 전기 시대에는 그 반대가 맞는 말이 된다. 정보 시대가 모든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대상에 관여함으로써 가장 한가하게 여가를 누리게 된다. (중략) 현재의 노동력을 산업으로부터 철수시키려고 하는 이 자동화의 작용 때문에 학습 그 자체는 생산과 소비에서 중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업에 대한 불안은 어리석은 것이 된다. 이때 급료를 받아가며 배우게 되는데, 이는 이미 지배적인 고용 형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새로운 부(富)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 내에서 인간이 떠맡는 새로운 ‘역할’이다. 반면에 기계적인 구식 관념인 ‘직능’ 즉, ‘노동자’에게 주어진 단편화된 일이나 전문가적 직위와 같은 개념은 자동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중략)

핵심어구 : 노동의 새로운 변화

자동제어 기구의 전기 시대는 갑자기 사람들을, 앞선 기계 시대의 기계적, 전문가적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다. 기계와 자동차가 말을 해방시켜서 오락의 세계 속으로 던져 넣은 것처럼, 자동화가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해방에 대한 대가로, 내부의 자원을 이용해 스스로 고용을 창출해 내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갑자기 안게 되었다.

(중략)

전기적 에너지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작업의 종류와는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에서의 탈중심화와 다양성이라는 패턴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이것은 난롯불과 전깃불의 차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논리이다. 따스함과 빛을 찾아 난롯가나 촛불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은 전깃불을 지급 받는 사람만큼 생각이나 과제를 자유롭게 추구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자동화 속에 숨어 있는 사회적, 교육적 패턴은 자기 고용(self-employment)과 예술적 자율성의 패턴이다. 자동화가 세계적 규모의 획일화를 가져온다고 놀라 당황하는 것은, 이제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기계적 규격화와 전문화의 미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핵심어구: 자동화에 의한 인간 해방

[해설 강의]

미래 사회의 자동화가 인간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디어 비평가인 마셜 맥루언은 이제 사람들은 자동제어 기구에 의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일과 여가는 분리되지 않는 즉, 놀면서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이제 급료를 받아가며 배우게 될테니까 말이다. 맥루언을 포함하여 많은 미래 학자들이 전망한 노동의 해방은 분명 이상적이고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는 점에서 어떤 환상을 심어준다.

■ 노동의 소외와 인간다운 삶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 문제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생계 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나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 기본권의 제약, 여성노동자와 아동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는 70년대와 80년대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부당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심각한 빈부격차, 노동 기본권의 제한, 실업의 불안,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노동의 소외 문제일 것이다. 노동은 본래 인간의 삶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을 길러주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전락한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 창조성을 발휘하거나 자아실현의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지루함만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이때의 노동이 고행의 노동이며 강요된 노동이다.

핵심어구: 노동의 소외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반복적인 노동의 강제적인 강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킨다. 아주 상세한 작업 지시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창의적인 노동을 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러한 작업 지시서가 완수될 때까지는 쉴 수도 없다.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야만 완수될 수 있는 그런 작업량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육체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정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자신 고유의 작업 리듬을 잃어버리고 경영자들의 통제 하에 들어갔으며, 작업량도 통제 당해 이제는 자율적인 작업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의 형태는 노동자들을 육체 피로와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는 ‘과로사’라는 말은 그러한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로사는 노동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마모되어 사망되는 현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 반복되는 작업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절망감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업 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는 아직도 법률이 정한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노동자가 추가 근무 수당을 위하여 작업을 원하고 있으며, 사용자도 작업자가 생산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핵심어구: 노동의 피로와 절망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노동의 소외가,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서 행해지는 노동이, 역으로 삶을 비인간화하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노동의 소외는 이처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광범위하게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 문제들, 예컨대 일용직 노동자나 여성, 미성년 노동자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부당한 저임금의 횡포,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 행동권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의 문제 역시 노동의 소외를 심화시키는 현상들이다.

핵심어구: 해결되지 않은 노동 문제들

[해설 강의]

우리가 인간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는 이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의 소외 문제를 외면하거나 전적으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원리에 내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경쟁에만 맡겼을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저 임금 제도, 작업 환경의 개선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치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노동의 소외는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을 소외시키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며 생산된 부를 공평하게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문제의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사회의 일과 노동의 양면성

정보 사회가 일과 노동 세계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한계라는 양면적 속성을 다루고 있다.

- ① 조직 운영의 원리 면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군더더기 없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② 지금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경쟁 규칙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정보 기술을 이용한 속도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경쟁의 원리가 되므로,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대등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③ 또한 조직 내의 인사 관리에서 목표 달성 능력과 객관적 업적에 기반한 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조직 운영의 가치관과 논리를 보편화시키게 된다.
- ④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정보 사회의 속성상 취업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이나 채용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기술이 제공하는 이러한 편의와 창조적 면모는 동시에 인간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 ① 우선 기술 개발의 주기가 짧다.

- ② 시장적 수요에 민감한 정보 산업의 자질상, 기업으로서는 비정규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 ③ 또 연공 서열제적 채용과 근무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객관적 업적에 기반한 평가는 대량 실업 사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 ④ 정보화의 역기능을 거론할 때 심각하게 제기되는 '감시와 통제의 강화' 문제는, 일과 노동 세계에서조차 결코 예외는 아니다. 고도화된 전자 기술은 작업장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논쟁거리

- 1. 정보화 사회는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가.
-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3.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보는 시각 - 집단이기주의
- 4.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견해.

<I> 문 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50점)
2.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각 제시문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가]

백인 미국인들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 일부는, 전과목 A학점을 받은 이들의 자녀들이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은 이 대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들은 유일하고 공정한 접근법이 학문적인 자격에 입학 허가의 기초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없다고 해도, 전 과목 평균 A학점이 버클리 대학의 입학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버클리 대학교는 시험 점수와 학점 이외에도 컴퓨터 천재라든가 음악적 재능, 지리적 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다른 입학 허가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적인 기관으로서 버클리 대학은, 소수 지역 사회의 대 지도자 훈련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사회적 요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주요한 인권 증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종 분열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대학들이 입학 허가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과 함께, 인종, 민족, 성별 등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 입학허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유이다. 그 생각은 교육적 및 사회적 기회가 없는 전도 유망한 소수계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일시적인 조치여야 하지만, 그것을 없앨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도심의 소수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는, 많은 백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교외의 부유한 학생들의 교육적 기회와 여전히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 이고 그의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 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 뒹굴다가 굶어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이 부모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 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 합치는 일을 못 하게 막을 지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 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다]

민주주의 국가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평등성을 보장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이다. 오늘날의 프랑스에는 모든 사람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돈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부자이든 빈자이든 법을 어긴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나가야 한다. 모든 프랑스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있으며, 모든 어린이에게는 초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수험생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본다. 답안지의 이름을 가리는 것은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다(장관의 아들도 청소부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낙제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성의 요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을 단일화시키고, 자연적인 재능과 차이를 균일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출발점에서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장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하며,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발전하려면, 유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 앙드레 베르제즈, <실천과 목적, 프랑스 고교 철학>

[라]

법이 남녀를 지금까지 비대칭적으로 대우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법학자들은 이제부터는 남녀를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다루자고 주장했다. 남녀의 자연적 차이란 없고 본질적으로 분리된 영역도 없으므로 남녀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리틀턴은 법적 모델을 '동화(同化)'라고 불렀다. 그것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자는 실제로 남자와 똑같으며 그리고 똑같을 수 있다는 관념'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은 남자를 대우하던 방식대로 여자들을 대우해서, '자격이 되는 여자를 받아들여야 하고 일단 들어온 여자는 남자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법률 회사가 여성을 야근에 투입해서 육아 의무와 가족 관계의 희생을 요구한다 해도 변호사로서 성공하려는 여성은 그것에 따라야 한다. 부속품 제조 회사가 조립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 높이에 적합한 키 175cm의 여성들만 구한다면, 그 조건을 갖춘 여성만이 고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자는' 남자가 해야 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평등 모델이다.

대칭 모델은 공평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과 씨름하는 것보다 쉽다. 그렇지만 이 모델의 핵심은 이제 모두에게 익숙한 남성을 표준으로 한 정상성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 모델의 목표는 이미 남성을 대우하고 있는 방식대로 여성을 대우하는 것이다. 리틀턴의 말에 따르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행동 양식을 따를 때, 그들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남성으로서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에 '뉴욕 주 여성과 법에 관한 특별 조사단'은 여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 - 가정 폭력, 강간, 육아, 탁아, 임신 - 에서 여성을 법 앞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밝혀냈다.

◆ 유의사항 ◆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은 제시문마다 110~140자, II는 700 ± 70 자가 되게 할 것

■ 생각해 보기

○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요?

○ 제시문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해 봅시다.

○ 공통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이번 논술 시험의 주제는 평등이다. 평등의 여러 측면을 다루는 제시문들을 통해 스스로 주제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첫째로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로는 각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평등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수험생들은 제시문들의 공통된 주제가 평등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주제에 관한 것이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여러 제시문들을 짧은 분량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은, 제시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독해에 기초하여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이다.

문제 I 은 이와 같은 내용파악 및 요약정리에 관한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문제 II 는 제시문들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견해를 논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록 문제 I 에서 각 제시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단편적인 이해일 뿐이고, 전체적인 연관 관계에 대한 이해는 별도로 평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이라는 주제는 워낙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관련된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술을 할 경우에는 시간과 지면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정형적인 답안모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시문들 간의 연관 관계에 기초하여 논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논술의 방향과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정형적인 답안모델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논술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내용 이해와 사고력 및 표현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논제 파악

이 문제는 ‘평등’을 규정하는 다양한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현실 속에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평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각 제시문에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평등’을 바라보는 원칙적 사고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가), (나), (다), (라)를 분석할 때 ‘평등’에 대한 관점을 추출해서 비교해야 한다. 우선 각 제시문을 분석해보자.

■ 제시문 (가)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소수 민족에 가해졌던 불평등을 해소해 보려는 조치로서 시행되었지만 사회여건이 바뀌면서 백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 불평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직 교육적 사회적 기회가 적은 소수 민족 학생들에게 대학이 이러한 우대 조치는 더 존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시문 (나)

재산을 불공평하게 상속받은 아들들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부가 편중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군주와 목민관은 힘

센 자가 더 많이 얻고 약한 자는 굶주리는 상황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재산의 균등 분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제시문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가 있으며 신분이나 지위, 재산과 상관없이 ‘출발점에서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음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입장은 ‘기회의 균등’을 평등으로 보고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성취한 결과의 차이는 정당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주의적 평등’ 또는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고, 결과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 제시문 (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보는 법적 대칭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남성을 표준으로 삼고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이 입장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적 평등’ 또는 ‘조건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문제해결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 모두가 평등 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다.

우선 (가)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에 비해 제시문 (나), (다), (라)는 평등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 것들이다. (나)는 재산의 균등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였고, (다)는 결과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능력주의적 평등’ 또는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는 글이다. 또한 (라)는 ‘상대주의적 평등’ 또는 ‘조건의 평등’을 주장하는 글이다. 그렇다면 제시문 (가)와 (라)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나), (다), (라)의 세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에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전개하면 될 것 같다.

소수 민족 학생들에게만 부여되었던 대학의 우대 조치가 백인 학생들에게 동일한 수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므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의 입장에 지지를 표하며 비판하는 것이 좋다.

반면, 사회적 차별을 받는 소수 민족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더 줌으로써 학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다. 백인과 소수계는 사회적으로 다른 처지에 있으므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옳바르기 때문이다.

4. 예시개요

■ 주제문 :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상황에서 현실적 지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차이에 따

른차등적 대우가 더 나은 평등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서론 : 제시문들의 공통된 주제는 평등이다. 제시문들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힌다.

■ 본론

1. (라)에서의 상대주의적 평등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가)에서의 소수자 우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다.

■ 결론 :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

조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속에서 능력에 따라 대우받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불평등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예시답안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50점)

제시문 (가)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소수민족에 가해졌던 불평등을 해소해보려는 조치로서 시행되었지만 사회여건이 바뀌면서 백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 불평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직 교육적 사회적 기회가 적은 소수 민족 학생들에게 대학이 이러한 우대 조치는 더 존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재산을 불공평하게 상속받은 아들들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부가 편중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군주와 목민관은 힘센 자가 더 많이 얻고 약한 자는 굶주리는 상황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재산의 균등 분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가 있으며 신분이나 지위, 재산과 상관없이 '출발점에서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음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입장은 '기회의 균등'을 평등으로 보고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성취한 결과의 차이는 정당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주의적 평등' 또는 '기회의 평등'을 옹호하고, 결과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제시문 (라)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보는 법적 대칭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남성을 표준으로 삼고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이 입장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적 평등' 또는 '조건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각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제시문들의 공통된 주제가 평등이다. 제시문 (가)는 미국 대학 입학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나)는 결과의 평등을, (다)는 능력주의 평등을, (라)는 상대주의적 평등을 주장한 내용이다.

(라)의 상대주의적 평등은 (나)와 (다)의 단점을 보완한 관점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대주의적 평등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가)에서의 소수 민족 우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차별의 규정은 우대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있을 때에만 정당하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백인들과 다른 출발선에서 있는 셈이다.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 안에서는 소수계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백인과는 다른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조치로서 남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 고용 할당제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 선발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경우 무조건적 기회의 균등은 능력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불평등을 강화한다. 조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속에서 능력에 따라 대우받고 결과를 받아들일 때 불평등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읽기 자료

■ 자유와 평등은 양과 음이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또한 자유롭게 태어났다. 이것은 서구 근대 사회 사상가들의 부르짖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평등과 자유가 인간의 원칙적 권리로 선언되고 있음을 본다. 그러기에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침해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심어구: 신성불가침의 평등과 자유

역사적으로 저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저항의 언어였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이제까지 사람은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잘난 사람인 왕과 귀족은 으레 그렇지 못한 아랫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부리고 학대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등과 자유가 만인의 배꼽에 붙어 나온 권리라는 주장은 너무나 기상천외의 외침이요, 오만스러운 도전의 언어가 아닐 수 없었다.

적어도 당시 그 선언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 것은 왕과 귀족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신의 생각과 노력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평등은 어디까지나 보통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권리 주장의 전제와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 원리의 전제 조건과 근거로서 평등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서양 근대 사회 사상가들의 목소리의 참된 뜻이며, 따라서 고전적 자유 사상의 알맹이가 아닌가 싶다.

핵심어구: 저항으로서의 평등

이러한 주장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즉 왕과 귀족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을 때, 평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 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평등은 전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말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무런 구실도 하

지 않는, 있으나마나 한 빈 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남은 것은 자유뿐이었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능력, 그리고 노력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열을 올렸다. 경쟁이란 다름 아닌 이런 상황에 붙여지는 묘사적 표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집을, 어떤 사람들은 작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집도 작은 집도 짓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생겨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격차의 폭은 점점 더 커갔다.

사태가 이쯤 되었을 때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임금과 귀족만 없어도 모두가 자유롭게 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크는 사람이 평등한 인간이 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결코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결코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때 평등은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안 가진 자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가진 자와 돈을 못 가진 자 사이의 문제로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핵심어구: 평등의 개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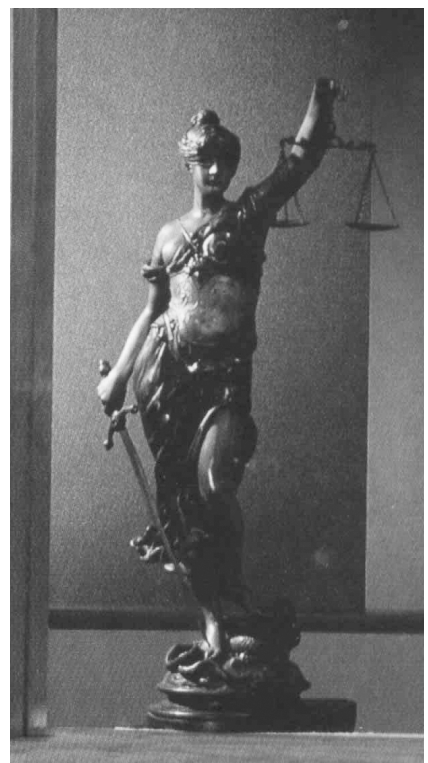
결국 자유의 원리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평등의 원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산출하는 마당이 다름 아닌 자유 시장이었다. 따라서 자유 시장은 경제적 불평등의 중압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그 불평등을 고발하는 지식인들에게 제거해야 될 주된 목표물로 인식되었다.

자유 시장 그것은 곧 평등의 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 시장을 토대로 움직인 결과 생겨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경제 체도는 평등의 적이다. 자유 시장 없는 자본주의도 불가능하며 자본주의 없는 자유 사상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버렸다. (중략)

핵심어구: 자유와 평등의 대립적 인식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배제된 사회가 지니게 되는 결함은 비능률과 비효율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나태와 무책임이라는 것을 역사적 실험이 보여주고 있다. 통제와 배급에 의한 경제 운영이 개인들 사이의 경제적 분배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분배는 생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인 생산 활동에 결함이 생길 경우 분배의 평등이란 이념이 지니는 한계는 너무나 자명하다. 극단으로 말해서 ‘궁핍의 평등한 분배’란 것이 인간에게 지고의 이념이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충족하고 싶은 많은 욕구를 지닌 존재가야 할 수 없다.

자유 시장은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자유의 광장이다.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살아 움직일 때 더욱 높아 간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적 경험은 결코 자유 시장의 활성화가 ‘짓과 꼴이 넘치는 낙원’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고전적 낙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자유 시장이 자아내는 빈부의 격차를 비롯한 경제적 곤경들을 국가의 개입에 의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개입주의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한결같이 채택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광장인 시장과 평등을 위한 조정 장치인 사회적 개입, 이 둘의 결합은 하나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서 있다. 그리하여 모든 극단적 주의들(isms)은 오직 책 속에만 적혀 있을 뿐, 현실 세계에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있다.

핵심어구 : 자유와 평등의 현실적 대립구조

자유는 개체들의 관점에서 본 삶의 원리이다. 평등은 그 개체들의 얹힘의 관계 집합이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본 삶의 원리이다. 자유를 양의 원리라 한다면 평등은 음의 원리이다. 양과 음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존재는 다른 하나의 존재를 전제한다. 상대방의 존재를 통해서만 자기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와 같아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장난다. 그러므로 양과 음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닫힌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둘로 있음으로서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체계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 어느 한 쪽만을 고집하거나, 한 쪽을 빈 점시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홀아버지의 신세이거나 홀어머니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자유가 삶의 생기의 원리라고 한다면, 평등은 삶의 균형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똑같은 크기의 비둘기장에 갇혀 똑같은 먹이를 공급받는 삶, 그것은 결코 인간의 품위에 어울리는 삶일 수가 없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 ‘가장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을 위한 배려 장치가 없는 사회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가 아니며, 따라서 결코 도덕적인 사회가 아니다.

핵심어구 : 함께 추구되어야 할 자유와 평등
이 명 현 (서울대, 철학)

[해설 강의]

이 글은 인간이 추구하는 두 이념인 자유와 평등이, 양과 음이 둘로 있음으로 같이 존재할 수 있듯이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을 역사적 경험과 인간 삶의 본질적 모습에 비추어 강조한 글이다. 결국 함께 추구되어야 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소개한 글이다.

자유와 평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본다.

■ ‘자유와 평등’에 관하여

1. 자유주의 사회의 평등은 성별이나 신분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평등이다.
 - (1) 장점 : 다양성의 존중, 각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 (2) 문제 :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 (3) 해결 : 형식적 기회 균등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야한다.
2.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타고난 능력의 차이로 인한 자연적 불평등은 여전히 남는다.
3. 정의로운 체제와 공정한 기회균등
 - (1)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 (2)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자들도 자신의 재능이 우연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자산

임을 자각함으로써 이웃과 사회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하여

1. 상호 대립적 관계 –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의 관계와 같다.
 - (1)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손상되고 방종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 (2)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가 위축되어 통제와 감시의 사회가 될 수 있다.
2. 자유와 평등의 모순 극복 방안은 적절한 수준에서 양자를 다 같이 제한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 (1) 자유를 통해 개인주의 다원성, 경제적 효율, 생산성, 창의성, 실적주의 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2) 평등을 통해 집단주의, 사회통합, 배분적 정의, 복지 공동체 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논쟁거리

1. ‘고교 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자유와 평등의 논쟁.
2. ‘과소비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자유와 평등의 갈등.
3. ‘누진세’에 대한 논쟁.
4. ‘인재의 지역 할당제’ 바람직한가.
5. 여성의 고용 할당제 논란 정당인가.
6. 자본주의 경제의 소유권과 부동산 공개념.

<I> 문 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50점)
2. 네 개의 제시문을 연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어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가]

하이네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꾸어 놓은 숙명적인 사건’이라고 불렀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직관 방식과 우리의 표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흔들리게 되었다.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다. (……) 이제 사람들은 세 시간 반 내에 오를레앙까지, 그리고 같은 시간 내에 루앙까지 여행한다. 이 노선들이 벨기에와 독일까지 연결되고 또 그곳의 철도들과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가! 내게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산과 숲이 파리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 나는 이미 독일 보리수의 향내를 맡고 있다. 내 문 앞에는 북해의 파도가 부서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변화가 지니는 두 가지 모순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철도는 한편으로 이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열어 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사이의 공간을 없앴다는 점이다. (……) 슈테른베르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럽의 창을 통해 보이는 전망은 그것이 지닌 심층적인 차원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것은 빙 둘러 서 있으며, 어디나 채색된 평면뿐인 하나의 동일한 파노라마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 산업화 이전 시대에 시각적 인식에 존재하던 초점심도(焦點深度)는 속도로 인해 가까이 놓여 있는 대상들이 사라져가면서 완전히 상실되어버렸다. 이는 전경(前景)의 종말, 즉 산업화 이전 시기에 여행의 본질적인 경험을 이루던 공간 차원의 종말을 의미한다. 전경을 통해서 여행자는 스스로를 자신이 지나치고 있는 풍광과 연관지었고, 자신을 이 전경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그를 그 지역의 풍광과 일치시켰고, 여행자는 이 풍경이 펼쳐질 수 있는 경계 내에 존재했다. 속도로 인해 전경이 해체되면서, 여행자는 이러한 공간 차원을 잃게 되었다.

[나]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 한 건물(가정)에서 다른 건물(사무실)로 무리 지어 옮겨 다니고, 저녁마다 이 과정을 거꾸로 되풀이했다는 사실이 50년 후에는 신기하게 여겨질 것이다. 출퇴근을 위해서는 하루 두 번 이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 맞게 구축된 수송망이 필요하다. 도로는 가장 혼잡할 때의 교통량의 하중을 수용해야 하며, 통근열차와 버스는 최대한의 승객을 수용해야 한다. 출퇴근은 시간과 건물의 수용 능력을 낭비한다. 한 건물(가정)은 흔히 낮 동안 비어 있고, 다른 건물(변화가의 가장 비싼 곳에 위치한 사무실)은 대개 밤 시간에 비어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후세들에게 이상하게 보일런지 모른다.

[다]

속도는 기술 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형태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과는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발바닥의 물집, 가쁜

호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체중, 자신의 나이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과 자기 인생의 시간을 의식한다. 인간이 기계에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고 나자 모든 것이 변한다. 이때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는 비신체적 비물질적 속도, 순수한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 엑스터시에 몰입한다. () 어찌하여 느낌의 즐거움은 사라져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옛날의 그 한량들은? 민요들 속의 그 게으른 주인공들, 이 방앗간 저 방앗간을 어슬렁거리며 총총한 별 아래 잠자던 그 방랑객들은? 시골길, 초원, 숲 속의 빈터, 자연과 더불어 사라져버렸는가? 한 체코 격언은 그들의 그 고요한 한가로움을 하나의 은유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신의 창(窓)을 관조하고 있다’고. 신의 창을 관조하는 자는 따분하지 않다. 그는 행복하다. 우리세계에서 이 한가로움은 빈둥거리임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빈둥거리는 자는 낙심한 자요, 따분해하며 자기에게 결여된 움직임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라]

김승은 사이버스페이스를 ‘무한한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끝없이 여행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자 기술적으로 설정된 공간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물리적 우주뿐만 아니라 가능세계와 상상의 세계까지도 전자 기술적으로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한한 육체를 지닌 존재에게 그러한 무한성은 비물리적인 이차적 영역 속에 우리를 감금하는 감옥과 같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시스템은 물리적 공간을 표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성이나 깊은 바다의 광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 원격현전(遠隔現前 : telepresence)을 느낄 수 있도록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의 자료를 구축하는 일은 본래의 신체를 움직이고 있는 내적 생체에너지로부터 사용자를 멀리 떼어놓는다.

◆ 유의사항 ◆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은 제시문마다 110-140자, II는 750-850자가 되게 할 것.

■ 생각해 보기

○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 제시문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해 봅시다.

○ 공통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II > 해 설

1. 출제 의도

근대 이래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 미친 변화에 대해 논술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필자의, 서로 다른 내용의 지문을 여러 개 제시하고, 그 제시문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논지를 정리하고 그 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칠 문제에 대해 묻고 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논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제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변화’가 인간의 삶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 주어진 논제이다. 얼핏 보기에 상당히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통된 주제를 파악하면 논점이 명확히 부각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논제 파악

■ 제시문 (가)

글 (가)는 볼프강 슈벨부쉬의 「철도 여행의 역사」에서 발췌한 글로, 철도의 발달이 가져온 공간적 개념의 변화를 다룬 부분이다. 즉 철도의 발달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을 열어놓았고, 공간 사이의 거리를 없앴다는 것이다.

■ 제시문 (나)

글 (나)는 프랜시스 케언크로스의 「거리의 소멸-디지털 혁명」에서 발췌한 부분으로, 산업 사회의 발달(디지털 혁명)로 인해 거리의 의미가 사라지는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즉,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장과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사실이 50년 후에는 신기하게 여겨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다)

글 (다)는 밀란 쿤데라의 「느림」에서 발췌한 부분으로, 기술 혁명이 가져온 빠른 속도가 인간에게서 여유를 빼앗아갔음을 개탄하는 내용의 글이다.

■ 제시문 (라)

글 (라)는 마이클 하임의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에서 발췌한 글로,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스페이스로 여행하게 되면서 가상현실 속의 자신이 실존적 존재인 자아에서 분리되어 존재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글 (가)~(다)는 산업 문명과 기술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시간 공간 체험의 변화 양상에 대한 글이며, 글 (라)는 전자기술로 인한 시간 공간 체험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글 (가)에서 (라)는 모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며, 공통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체험의 변화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논제는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이 불러온 인간 시간 공간 체험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 통신의 발달이 앞으로의 인간의 삶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논술하면 된다.

3. 문제 해결

- 1) 논제를 파악하고 입장을 결정한다.

이 글의 논제는 크게 두 가지로, ① 제시문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논지를 정리하는 문제와, ②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초래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의 경우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일관된 논지를 찾아내면 되지만, ②가 문제 되는 것이다. 즉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미칠 변화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글 (라)를 중심으로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보면 될 것이다.

2)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글 (라)에서 보면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시 공간적인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현실의 물리적 우주만이 아닌 가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까지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시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 인간은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개인성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의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만큼이나 과거와 현재를 망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시간의 힘’에 고립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은 필수적인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더욱 빠르게 계속될 것이므로 주어진 논제에 대한 논술은 앞으로의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된다.

4. 예시개요

■ 주제문 : 과학기술의 발달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그 방향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서 론 :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었다.

■ 본 론

1.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으로써 많은 이점을 낳은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상실함으로써 개인성을 잃게 되고, 우주와는 다른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잃게 될 수 있다.
3.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통신 기술의 문명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큰 몫을 하는 반면, 인간관계에 있어 개인주의의 팽배를 초래한다.

■ 결 론 : 과학 기술과 통신기기의 발달은 그 바탕이 인간을 위한 것인 만큼 항상 그 중심은 ‘인간성’에 맞춰져야 한다.

5. 예시답안

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50점)

(가) 철도의 빠른 이동 속도 때문에 이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열기도 했지만, 우리가 평소 여행에서 맛볼 수 있었던 ‘눈앞에 보이는 경치(前景)’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철도의 발달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나)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출퇴근을 위해 직장과 사무실을 오고 가며, 시간과 건물의 수용 능력을 낭비하는 행위는 50년 후의 사회에서는 신기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즉 디지털의 발달이 물리적인 거리의 의미를 사라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다) 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 한가롭다는 것의 의미가 ‘빈둥거린다’는 뜻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고, 자연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어 유유자적하던 우리 선조들의 ‘느림’의 즐거움이 현대에는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으로, 기술 혁명이 가져다준 빠른 속도가 인간에게서 여유를 빼앗아갔음을 개탄하고 있다.

(라) 가상현실은 인간이 직접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도 하지만, 인간의 신체를 움직이는 내적 생체 에너지로부터 신체의 주인인 자아를 멀리 떼어놓아 자신이 실존적 존재인 자아에서 분리되어 존재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각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과학 혁명과 산업 혁명 이래로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간의 삶의 양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통기관의 발달은 사람들의 공간 이동을 빠르게 해 주었고,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묶는 정보 통신의 발달은 가상공간을 만들어 인간에게 공간 이동에 따른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제시문은 이런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 과학 기술이 인간의 시 공간 체험 양식을 바꾸어 놓음으로 인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발달한 과학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우편을 몇 분 이내에 전 세계로 보낼 수도 있고, 원격 화상 회의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재택근무 및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시간과 물자를 아껴 시간적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발달된 과학 기술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으키고 있다.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주와는 다른 시공을 초월한 가상공간에서 생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고 만남의 공간이 의미를 상실하면서 참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정보의 소유와 통제를 중심으로 힘이 편중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들에게 있다.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바탕을 사람을 위한 것에 두고 있느니 만큼,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인 더불어 살아가려는 정신을 실천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자세를 갖추어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III> 읽기 자료

■ 시간의 미래

앨빈 토플러「제3의 물결」

문명은 새로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시간 취급 방법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시간에 관한 정신적 지도(地圖)도 바꾸어 놓는다. ‘제3의 물결’은 이 시간의 지도들을 다시 그리고 있다.

‘제2의 물결’ 문명은 뉴턴 이래로 시간이 과거의 안개로부터 떠나면 미래로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정했었다. 시간은 절대적이고 온 우주를 통해 등속적(等速的)이며 물질과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설명되었다. 시간의 순간순간이나 토막토막은 모두 똑같은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핵심어구: 시간의 개념 변화

천체물리학자 출신으로 과학 분야 저술가인 그리빈(John Gribbin)은 이렇게 쓰고 있다. “완벽한 학문적 배경과 다년간의 연구경력을 가진 진지한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시간이란 시계나 달력이 가리키듯이 한결같은 속도로 가차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빛나가고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종결과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차분히 가르쳐 주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초고밀도에 의해 생기는 중력장의 구멍인 블랙홀(Black hole)이 시간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려 그 부근에서는 시간이 정지될 수 있다.”

금세기 초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이미 시간은 압축과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시간은 절대적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려 버렸다. 지금은 고전적인 경우가 된 두 명의 관찰자와 철도 선로를 예로 들면서 그는 대충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차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선로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동시에 발생한 두 개의 번개 불을 보았다고 하자. 관찰자는 두 번개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두 번째 사람이 고속 열차를 타고 기차길을 따라 북쪽으로 달려간다. 이 사람도 열차 밖에 서 있는 관찰자의 옆을 통과하면서 번개의 섬광을 본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개의 섬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열차가 그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한쪽의 빛이 다른 쪽의 빛보다 그에게 빨리 도달하게 된다. 움직이는 열차에 탄 사람에게는 북쪽의 섬광이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리가 너무 가깝고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없겠지만 이 예는 아인슈타인이 논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나중에 일어나는가 하는 사건의 연대기적 순서는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핵심어구: 시간의 상대성

이것은 고전물리학과 산업 현실상은 ‘앞’과 ‘뒤’가 관찰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당연히 고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오늘날 물리학은 외파(外破)와 내파(內破)를 동시에 겪고 있다. 물리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일처럼 쿼크(quark)에서 준항성(quasar)에 이르는 각종 새로운 소립자나 천체물리학적 현상들을 발견하거나 이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있다. 놀라운 함축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발견이나 가설 중의 일부는 시간개념의 추가적인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광활한 천체에서는 블랙홀이 하늘에 구멍을 열고 그 안에 빛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빨아들임으로써 물리학의 제 법칙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컴컴한 큰 소용돌이는 에너지와 물질이 쉽게 사라지는 ‘기묘한 것’이 된다고 한다. 물리학자 펜로우즈(Roger Penrose)는 사라진 에너지와 물질이 다른 우주 -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 로 분출되는 ‘벌레 구멍(worm holes)’과 ‘흰 구멍(white holes)’이 존재한다는 가정까지도 세워 놓았다.

블랙 홀 부근에서의 한 순간은 지구상의 영겁(永劫)에 해당할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우주비행관제소 같은데서 우주선을 파견하여 블랙홀을 탐험토록 한다면 이 우주선이 도착할 때까지 100만년쯤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속도의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블랙홀 주변의 중력의 왜곡 때문에 우주선의 시계는 불과 몇 분 또는 몇 초밖에 경과하지 않을 것이다. 광활한 천체를 떠나 아주 미세한 입자나 극초단파의 세계에 들어서더라도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현상에 부딪치게 된다. 컬럼비아대학의 파인버그(Gerald Feinberg) 박사는 심지어 타키온(tachyon)이라는 입자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 입자는 빛보다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시간이 타키온에 대해서는 거꾸로 흐른다는 것이다.

영국 물리학자 테일러(J. G. Taylor)는 “미시적 시간개념은 거시적 시간개념과 크게 다르다.”고 말한다. 역시 물리학자인 카프라(Fritjof Capra)는 그 현상을 보다 간결하게 설명한다. 그는 “시간이 우주의 여러 부분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흐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시간’을 단수형태로 말할 수 없으며 우주의 여러 부분들, 또는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는 각기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선택적인 복수의 ‘시간들’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제2의 물결’ 문명의 보편적 직선적 시간개념의 기반을 – 시간이 순환한다는 고대인들의 개념을 대체시키지 않은 채 –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시간의 사회적 이용방법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하고 있으며 – 19장에서 설명한 직장에서의 자유근무시간제 도입, 기계적인 컨베이어로부터의 노동자의 해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 또한 시간에 대한 이론적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이 같은 이론적 발견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일이 없겠지만 당초 공론(空論)으로만 여겨졌던 철판 위의 맥북 표시들 – 이 공식으로 나중에 원자를 분열시키게 되었다. – 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핵심어구: 시간에 대한 이론적 이미지 재정립

[해설 강의]

이 책은『미래 쇼크』,『제3물결』,『권력 이동』으로 이어지는 엘빈 토플러의 대표적 사회조망 비평서 3부작의 두 번째 저작이다. 1980년에 발표된『미래 쇼크』는 변화의 과정을,『제3물결』은 변화의 방향을,『권력 이동』은 변화의 통제, 즉 다가올 미래를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 일련의 연속된 저작으로 볼 수 있다.

현 인류사회는 흔히 영화나 소설 등에서 그려지고 있듯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 정보 산업 혁명이 이끄는 ‘제3물결’ 문명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오늘날의 혼란과 위기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기 위한 진통에 불과하다는 것이 토플러의 주장이다. 또한 이 새로운 문명에서는 ‘제2물결’인 산업 사회를 지배해 온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 집권화 등의 원리가 붕괴되어 보다 인간적이고 다양한 민주적 사회가 이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간관계와 노동·가족·사회·정치의 형태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 논쟁거리

1. 과학과 생명윤리의 접점은 어디인가
2. 과학 기술이 인류에 기여한 것과 부작용
3. 생명 공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제한은 타당한가
4.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자료를 만든 분

- 감수 : 박 종 채(광주광역시 교육국장)
- 총괄 : 박 광 희(광주광역시 중등교육과장)
- 기획 : 최 윤 길(광주광역시 중등교육과 장학관)
- 지도 : 이 승 오(광주광역시 중등교육과 장학사)
- 집필 및 검토:
 - 김 아 진(과학고등학교 교사)
 - 김 창 균(전대사대부설고등학교 교사)
 - 김 형 진(광덕고등학교 교사)
 - 송 금 욱(서석고등학교 교사)
 - 이 봉 형(풍암고등학교 교사)
 - 이 성 환(송덕고등학교 교사)
 - 이 원 재(전대사대부설고등학교 교사)
 - 장 홍(광덕고등학교 교사)
 - 정 선 기(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정 태 성(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
 - 최 정 윤(송덕고등학교 교사)

논술 II

인 쇄 : 2005년 11월

발 행 : 2005년 11월

발행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발행인 : 김원본

인쇄처 : 성문당(062-222-2555)

MEMO



MEMO



MEMO



MEMO

